

定本 退溪全書

定本 退溪全書 18

印 刷: 2025年 4月 20日

發 行: 2025年 4月 25日

編 輯 人: 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팀
(研究責任者: 李光虎)

發 行 人: 朴炳元

發 行 處: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

出版登錄: 1989年 12月 15日 第1-987號

住 所: (030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9길 25,
명륜빌딩 4층
Tel (02)765-2181~3 Fax (02)741-3478
URL <http://www.toegye.org>
E-mail toegyeh@hanmail.net

製 作 處: 도서출판 동과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파로151번길 24
Tel (02)333-7533 Fax (02)6280-2353

ISBN 978-89-85009-94-2 94150

ISBN 978-89-85009-65-2 (세트)

비매품

定本 退溪全書

18

朱子書節要 1

卷1 ~ 卷7

節要0001 ~ 節要0130

退溪學研究院 院長: 宋載邵

行政 支援: 李重煥, 金銀永

研究責任者: 李光虎

共同研究員: 金彥鍾, 文錫胤, 李俸珪, 李相夏

研究專擔人力: 姜志喜, 柳浩珍, 尹璿香, 尹相洙

研究補助員: 朴秀英

18책 校勘 및 標點: 柳浩珍

校閱: 文錫胤

* 이 결과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定本 退溪全書 편성사업’ AKS-2018-CDM-1230002).

解題

退溪는 《朱子大全》 서간 가운데 자신의 공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편지들을 필사하여 1556년 6월에 《朱子書節要》를 완성했다. 《朱子大全》의 서간 2,361편 중 1,230여 편이 선택되었다. 퇴계는 또한 제자들과 함께 교감과 주석 증보 작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朱子書節要》는 退溪 생전에 네 차례, 사후 여섯 차례 총 10회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열 개의 판본은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계열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계열은 퇴계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간행된 판본들로서 《晦庵書節要》라고 명명된 책들이다. 1561년 黃俊良이 간행한 星州本, 1565년 柳仲郢이 간행한 海州本, 1566년 鄭宗榮이 간행한 平壤本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퇴계 생전에 간행된 것으로 15권 8책의 목활자본들인데 본문 주석이나 두주가 거의 없기에 내용이 대략 비슷하다.

두 번째 계열로는 1567년 柳仲郢이 定州牧使로 있을 때 간행한 定州本 《朱子書節要》를 들 수 있다. 定州本은 퇴계가 교정에 간여하여 知舊와 門인들의 이름, 사적이 소개되어 있고 난해한 어구에 대한 주석이 더해졌는데, 15권 8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세 번째 계열은 퇴계 사후에 간행된 20권의 목판본 또는 금속활자본으로서 퇴계 만년의 교정 성과와 증보된 주석들이 반영되어 있다. 1575년 鄭述가 간행한 川谷書院本, 1586년 金誠一이 간행한 羅州本, 1611년 鄭經世가 간행한 全州本, 1743년 안동에서 간행한 陶山書院本, 正祖年間に 간행된 校書館本, 1904년 안동에서 간행된 陶山書院重刊本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대개 목판본들인데 교서관본만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목판본들은 먼저 간행된 川谷書院本을 복각한 판본들로서, 川谷書院本에 실려

定本 退溪全書 ㉔

있는 頭註와 追記가 가감되어 있을 뿐이다. 이 목판본들 가운데 추기가 가장 많이 실려 있는 것은 陶山書院本이다. 校書館本은 陶山書院本을 대본으로 편성하였지만 두주와 추기를 간요하게 정리한 판본이다.

《朱子書節要》는 퇴계가 직접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의 주자학 연구와 각종 주자학 문헌 편찬, 개인 문집 편찬 방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 책은 일본에서 네 차례나 간행되어 주자학 학습과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凡例

凡例

1. 資料

《朱子書節要》는 星州本이 발간된 이후로 총 열 차례 간행되었다. 이들은 목활자본, 목판본,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주요 판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木活字本>

《晦庵書節要》, 星州本 15권 8책, 고려대학교 소장본.

《晦庵書節要》, 海州本 15권 8책, 도산서원 소장본.

《晦庵書節要》, 平壤本 15권 8책, 逸失 판본.

<木版本>

《朱子書節要》, 定州本, 15권 8책,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朱子書節要》, 川谷書院本, 20권 17책, 고려대학교 소장본.

《朱子書節要》, 羅州本, 20권 10책, 逸失 판본

《朱子書節要》, 全州本, 20권 10책, 규장각 및 고려대학교 소장본.

《朱子書節要》, 陶山書院本, 20권 10책, 啓明漢文學研究會 退溪學文獻全集(11-13) 영인본.

《朱子書節要》, 陶山書院重刊本, 20권 10책, 영남대학교 소장본.

<금속활자본>

《朱子書節要》, 校書館本, 20권 10책, 규장각자료총서(1-3) 영인본.

2. 基準本과 對校本

기준본은 최종본이라고 할 수 있는 陶山書院本으로 하고, 초기 판본인 海州本과 중기 판본인 定州本, 그리고 후기 판본인 川谷書院本·全州本을 대교본으로 삼는다. 본문뿐 아니라 두주, 추기 등에 대해서도 교감한다. 판본이 완질로 남아 있지 않거나 전해지지 않는 星州本·平壤本·羅州本 등은 대교본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도산서원본을 금속활자로 바꾸고 기존 주석의 일부를 그대로 실어놓은 校書館本도 대교본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朱子書節要》 본문을 中國 上海古籍出版社에서 간행한 《朱子全書》 20~25책(《晦庵先生朱文公文集》2~6책)에 수록된 것과 대조하여 서로 다른 글자나 어구를 각주에서 밝힌다. 관련 내용에 교감기가 붙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표시한다.

3. 定本の 構成

1) 固有番號

- (1) 고유번호는 《朱子書節要》에 실린 서간 전체의 一連番號이다.
- (2) 고유번호는 ‘節要0001’의 형식으로 부여한다. 고유번호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定本の 편집순서와 일치하며, 陶山本 《朱子書節要》에서의 서간 순차를 가리킨다.
- (3) 고유번호 외에, 고유번호 오른쪽에 참고하기 편하도록 다음과 같은 일련번호들과 卷次事項을 괄호 안에 표시한다. 우선 각 서간의 주제 상 분류에 따른 순차를 표시하는데, 혹 한 제목에 여러 서간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덧붙여 표시한다. 예) “時事出處23-1~2”는 ‘時事出處’라는 주제로 분류된 서간 가운데 스물세 번째 서간이며 여기에 두 통의 편지가 한꺼번에 실려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기존 판본과

凡例

쉽게 대조할 수 있도록 다음 괄호 안에 해당 서간 제목이 실려 있는 陶山本の 권 차와 면수를 표시한다. 예컨대 ‘卷2:1右’는 해당 자료가 ‘陶山本 권2 제1판 오른쪽 면에 있다.’는 의미이다.

(4) 일련번호 마지막에는 해당 서간이 실려 있는 《晦庵集》의 卷次를 밝힌다.

이상의 예들을 연결하여 고유번호를 포함한 일련번호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節要0023 (時事出處23-1~2) (卷2:1右) (晦庵集 卷27)

2) 題目

基準本の 제목을 표시한다. 異本の 表題가 基準本과 차이가 있는 경우 校勘記를 달아 이본의 표제 전체를 표시하여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校勘記에는 基準本の 제목을 다시 표기하지는 않는다.

3) 本文

(1) 《朱子書節要》 해당 서간의 本文을 기록한다.

(2) 기준본의 본문 글자만이 異本들의 그것과 다르고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에도 그에 대한 특별한 교감 사항이 없을 경우는 정본 작성에서 기준본 글자를 수정하고 주석의 按說로 어떤 판본들에 근거하여 교정하였는지 밝힌다.

예) 問 : 今按: 陶山本에는 ‘問’으로 되어 있으나 海州本·川谷本·《全書》에는 모두 ‘問’으로 되어 있어 ‘問’으로 수정하였다.

(3) 《朱子全書》 원문과 대조하였을 때 基準本(陶山本)이 刪節되어 있더라

도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본문이나 각주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朱子書節要》의 본래 형태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定本 원고가 번쇄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4) 追記, 頭註 등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본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아래 교감기 작성 원칙에 따라 교감주에 표시한다.

(5) 본문 문자의 형태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별도의 문자 처리 범례를 따른다.

(6) 諸版本들 사이에 異同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글자, 단어, 문장의 끝에 註 번호를 달고 아래에 각주의 형태로 내용을 정리한 校勘記를 작성한다. 校勘記 작성 범례 참고.

(7) 본문은 정해진 원칙에 따라 標點을 가한다. 표점의 원칙은 표점 범례를 참고.

(8) 《朱子大全》의 原註에 해당되는 내용은 ‘【 】’ 안에 기록하고 퇴계나 그의 제자가 기록한 주석은 ‘[]’ 안에 표기한다. 글자 크기나 행수는 원문의 형식과 관계없이 정본 본문의 문자 형식과 동일하게 한다. 표제어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는 尾註는 표제어 밑에 바로 콜론을 표시하고 칸을 띄운 후 설명을 제시한다. 또한 표제어에는 설명하는 말들과 구분하기 위해 인용부호인 쌍따옴표를 붙인다.

(9) 본문 尾註에서 원문과 다른 글자로 표제어를 썼을 경우 그 잘못된 글자는 그대로 둔다.

(10) 陶山書院本의 방점, 백권을 본문에 반영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판본과는 교감하지 않고 다만 海州本과 대조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 교감 사실을 기록한다.

(11) 基準本 상에 마모된 글자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 : 빈 글자

■ : 마멸 또는 훼손된 글자

{ } : 추정된 글자

凡例

4) 校勘記

基準本과 對校本들 사이의 異同사항을 표시한다. 異本 자료 모두를 비교 검토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되, 定本을 활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번쇄해 보이지 않으면서 자료의 異同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령 있게 작성한다. 신뢰할 만한 校正 및 校勘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 자신의 교정 및 교감 의견이 있다면 그것도 “今按: ”이라 표시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그러나 작업자 자신의 校正 및 校勘 의견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 (1) 校勘記에 인용되는 각 版本들의 본문 표시방식은 위의 本文과 관련된 범례에 따르되, 표점의 경우 가능한 한 간략하게 단다. 각주에서는 특히 인명과 지명 아래에 밑줄을 긋지 않는다.
- (2) 校勘記의 校勘 臺本들 가운데 다음 판본들은 略號를 사용한다.

《朱子書節要》川谷書院本 → 川谷本

《朱子書節要》陶山書院本 → 陶山本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 → 《全書》

- (3) 校勘記는 글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먼저 교감 대상이 되는 글자, 단어, 구절을 쓰고 ‘ : ’을 찍은 후 해당 版本의 略號 혹은 표제를 쓰고 그다음에 해당 글자를 작은따옴표(‘ ’) 표시를 해서 밝힌다. 또한 글자의 출입이 있는 경우는, 없으면 “에는 없다.”라고 쓰고, 글자가 더 있으면 “앞에 ‘ ’가 있다.” 혹은 “뒤에 ‘ ’가 있다.” 등의 형식으로 기록한다.

- (4) 교감주에서 판본의 열거는 海州本, 定州本, 川谷本, 全州本 순서, 즉 책이 간행된 순서로 한다. 《朱子全書》(上海古籍出版社)와의 교감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여 절략 관련 내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교감 대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 자체 校勘記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교감주에 “[교감기]”의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표시한다.

- 예1) 見得 : 海州本·定州本 ‘得見’
 예2) 也 : 定州本에는 없고, [추기 一本, ‘病’下有‘也’字.]가 있다.
 예3) 遂 : [두주 下遂字, 唐本無.]가 있다 ; 《全書》에는 [교감기 ‘遂’字元缺, 據浙本補.]가 있다.

(5) 각 대교본의 본문 上欄이나 下欄 혹은 左右側 餘白에 校正이나 편집 기록이 있는 경우 그것은 본문과 별도로 취급하며, 그중 교감 의의가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속에 넣어 표시하되, “[추기]”, “[두주]”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추기’는 臺本 위에 추가로 직접 필사되어 있는 기록을, ‘두주’는 본문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된 상란 주석 기록을 일컫는다.

(6) 두주(頭註)와 추기(追記) 등의 교감은 기준본과 동일한 경우, 그리고 기준본에 있지만 다른 판본에 없는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며, 기준본에 없는 것이 다른 판본에 있는 경우, 그리고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관련 사항을 표시한다.

(7) 《朱子書節要》에는 퇴계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傍點(•), 白圈(○)이 있다. 이것들 역시 본문의 일부로 간주하여 본문 상에 표시한다. 표시 방식은 아래 표점 원칙 관련 조항 참조. 다만 이들 방점 등은 타 판본과 교감하지 않으며, 다만 초기 판본 해주본과 비교하여 기준본에는 없는데 해주본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교감주에 관련 내용을 표시한다.

(8) 작업자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校勘記의 뒷부분에 “今按:”이라는 형식으로 작업자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다.

(9) 校勘記에 사용된 符號로서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은 符號는 다음과 같다.

…… : 글자 줄임

() : 校勘記 작성자가 첨가한 글자

(10) 題下註로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기술한다. 해당

凡例

서간의 수신인이 새로 등장할 경우, 1번 주석 위에 이 인물의 생몰년, 자, 호, 출생지역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독자에게 참고하도록 한다.

(11) 필요한 경우 題下註로서, 1번 주석 위에 [編輯考] 표시를 하고 편집 관련 사항에 관한 주석을 단다. 한 제목 아래 몇 개의 서간이 실려 있는 경우는 1번 위에 편집 주로서 ‘같은 이름으로 3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고 서술한다. 아울러 海州本이나 定州本の 권 차가 陶山書院本の 그것과 다를 경우도, 판본들의 권 차를 표시해 준다. 예컨대 ‘海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고 서술한다.

(12) 海州本·定州本の 교감기

① 海州本은 다수의 오자가 존재하는 초기 판본이므로, 해주본의 글자가 제 판본에서 교정되어 있고 이것이 현행 《朱子全書》 교감에서 특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감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② 海州本 및 定州本은 題下에 추가된 주석이 적고 본문에도 추가된 間註(小註) 혹은 尾註 형식의 주석이 거의 없다. 따라서 기준본에 없는데 두 판본에는 있는 주석의 경우와 판본들 사이에 겹치는 주석의 異同만을 표시하고 기준본에는 있는데 두 판본에는 없는 주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③ 海州本 및 定州本 본문 안에 있는 자체 주석을 반영할 때는 “A(표제어) : 海州本(定州本)에는 뒤에 [소주 ‘B’]가 있다.”는 형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이 소주가 기준본에서 본문의 尾註로 나올 경우에는 교감기로 밝히지 않는다.

④ 海州本의 방점, 방권을 陶山本의 그것과 비교하여 교감기에 표시한다. 이때 海州本이 초기 판본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 陶山本에 첨가된 권점에 대해서는 교감기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海州本에만 권점이 있거나 도산본의 권점과 차이를 보일 때는 교감기를 작성한다. 그 경우, “A(표제어) : 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4. 文字 處理

1) 기존에 간행되거나 편성된 퇴계 저작에는 다수의 異體字 혹은 異形字, 通用字 등이 사용되고 있다. 《定本 退溪全書》에서는 正字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正字는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표준자로 사용하는 글자로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각 글자에 대한 正字를 달리 보는 경우들이 있다. 퇴계 정본 편성에서는 주요 글자에 대한 正字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異體字는 筆寫上, 板刻上에 발생한 誤字, 別字, 俗字, 簡字, 略字 등을 의미하고, 異形字는 異體字 중 독자적인 正字로도 사용되는 글자를 의미한다. 通用字는 별개의 正字인데 일반적으로 상호 통용하여 쓰는 글자를 의미한다.

3)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體字는 正字로 고친다.

4) 기준본의 본문에 사용된 異形字는 正字에 준한 것으로 여겨 원래 형태를 보존한다. 다만 對校本에 異形字가 사용된 경우는 관련 교감기를 달지 않는다.

5) 通用字의 경우는 교감기를 단다.

6) 선정된 正字와 異體字와 異形字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별도의 표를 만들어 제시한다.

5. 標點

《朱子書節要》의 표점 원칙은 기본적으로 《定本 退溪全書》의 표점 원칙에 따른다. 본문, 그리고 본문 및 제목의 주석에는 상세 표점을 한다. 교감기의 표점은 간략한 방식으로 하고 본문 등과 같이 상세 표점은 하지 않는다. 즉, 본문에서와는 달리 인명, 지명 등에 밑줄을 긋지 않으며, 책·편 표시 등도 하지 않는다.

상세 표점에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가운뎃점(·), 큰

凡例

따옴표(“ ”), 작은따옴표(‘ ’), 겹낫표(《 》), 홑낫표(〈 〉), 주석표시(【 】), []), 밑줄(-), 쌍점(:), 쌍반점(;), 권점(•, ◦) 등 16가지 표점 부호를 사용하며, 각 부호의 기본 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마침표(.)

- 물음표(?)와 느낌표(!)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단구이든 복구이든, 의미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문맥에 따라 문장의 단위를 설정하여 마침표를 찍는다.
- 중간에 의문구가 들어가더라도 문장 전체가 평서문일 경우 마침표를 사용한다.
- 주어가 바뀔 경우에는 가급적 마침표(.)를 표시한다.

(2) 물음표(?)

- 형식상 또는 의미상 의문을 표현하는 문장의 끝에 사용한다.
- 자문자답, 수사 의문의 형식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 선택의문문의 경우 마지막 의문문 끝에 물음표(?)를 사용한다.

(3) 느낌표(!)

- 감탄문의 끝에 사용한다.
- 독립된 감탄 부사와 호칭 뒤에 느낌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뒤 문장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되도록 쉼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쉼표(,)

- 한 문장 안에서 의미 단락을 이루는 때 구절 끝에 사용한다.
- 주어 부분이 길어서 술어와 구분해줄 필요가 있거나, 주석에서처럼 주어가 피정의항이 될 경우 사용한다.
- 병렬구가 길 경우 중점이나 마침표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주어가 글에서 새로 거론하는 일이거나 목적어가 될 때는 구별하기 위

해 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 ‘以’자, ‘而’자 등으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구가 짧아도 역접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침표(.)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서 두 구가 순접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인다.
- 문장의 호흡에 맞추어 침표(.)를 사용할 수 있다.

(5) 큰따옴표(“ ”)

- 직접인용문에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큰따옴표(“ ”) 안의 문장이 다음 문장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문장을 형성할 때에는 큰따옴표(“ ”) 밖에 침표(.)를 사용한다.
- 편지에서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축약해 인용할 경우에 큰따옴표(“ ”)를 사용한다.
- 명사구 안에 인용문이 있을 경우에는 콜론(:)을 하지 않고 큰따옴표(“ ”)만 사용한다.
- 云云과 같은 말 줄임을 표시하는 말은 큰따옴표(“ ”) 또는 작은따옴표(‘ ’) 안에 넣는다.

(6) 작은따옴표(‘ ’)

- 큰 따옴표(“ ”) 안의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인용문에 사용한다.
- 작은따옴표(‘ ’) 안의 문장이 독립되어 있을 때 그 문장 끝에 마침표(.) 등 종지 부호를 사용한다.
- 자구(字句)를 표시하는 맥락으로 인용되었거나, 또는 간접 인용 등 문맥상 인용된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경우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다만 문맥상 분명히 파악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짧은 명사구 안에서는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凡例

- 자기 생각으로 남의 뜻을 헤아려 말할 경우에는 간접 인용으로 간주하여 작은따옴표(‘ ’)를 사용한다.

(7) 가운뎃점(·)

- 단어나 어구가 병렬이 되었을 때 단어와 단어,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사용한다.
- 가운뎃점이 연이어 와서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큰 단위의 어구에 쉼표를 해서 혼동을 피한다.
- 병렬되는 어구가 길 경우, 가운뎃점(·) 대신, 쉼표(.)를 사용할 수 있다.
- 식별하기 어렵지 않은 짧은 어구에는 가운뎃점(·)을 쓰지 않는다.

(8) 겹낫표(《 》), 홑낫표(〈 〉), 주석 표시(【 】，【 】)

- 서명(書名)은 겹낫표(《 》)로 그 이외의 글,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 편(篇), 장(章) 등의 명칭이 겹쳐진 경우 《서명·편(篇)·장(章)》의 형태로 표시한다.
- 주석 혹은 본문 속의 구절은 ‘【 】’로 표시한다. 작자 자신 혹은 원 편집자의 原註는 ‘【 】’로 표시하고, 퇴계 혹은 퇴계 제자들이 첨가한 주석은 ‘【 】’로 표시한다.

(9) 밑줄(_)

- 인명과 지명, 왕조명, 연호, 시호 등 고유명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에 밑줄을 긋는다.
- 관직, 부서, ‘公’, ‘生’, ‘先生’ 등 일반명사는 특정한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도 밑줄을 사용하지 않지만, 성(姓)과 결합하는 경우는 성에 이어 전체에 밑줄을 긋는다.
- 사람의 성명을 지칭하는 글자가 있어도 이미 단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밑줄을 긋지 않는다.

(10) 콜론, 혹은 쌍점(:)

- 직접인용문을 수반하는 ‘曰’, ‘云’ 등 뒤에 콜론(:)을 사용하고 인용문 자체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 저자 자신의 按說임을 밝힌 다음에 설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今按’ 뒤에 콜론(:) 붙여 쓴다.
- 사전의 단어 설명처럼 표제어를 앞에 놓고 그 아래에 표제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표제어 뒤에 콜론(:)을 붙인다.
- 인용문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콜론(:)을 붙이지 않고 곧바로 “ ”로 표시한다.
- ‘言’字 뒤에 앞의 단락 또는 구절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콜론(:)과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

(11) 세미콜론, 혹은 쌍반점(;)

- 세미콜론은 병렬문을 구분 짓기 위한 휴지를 나타낸다.

(12) 圈點 ; 傍點. 白圈(·, ○)

- 《朱子書節要》에는 퇴계가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傍點(·)과 白圈(○)이 있다. 퇴계는 《朱子書節要》의 내용 중 자신의 의사를 警發시키는 곳에 이러한 권점을 찍었다고 하였고, 宋時烈은 退溪가 어구가 좋은 곳에는 傍點을, 긴요한 곳에는 白圈을 찍었다고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 용례

<방점> 行迷雖遠, 尙及改圖, 以全素節, 以息流議, 不審門下亦有意乎?

<백권> 李文獨深得其閫奧, 經學純明, 涵養精粹, 延平士人, 甚尊事之.

目錄

目錄

解題	i
凡例	iii
朱子書節要序	1
星州印晦菴書節要跋	5
定州刊朱子書節要跋	7
附 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	8
朱子書節要 卷之一 諸子目錄【時事出處】	11
朱子書節要 總目	14
節要0001(0101) 與延平李先生書【隆興元年，先生被召，行至鉛山，作此書也。】	15
節要0002(0102) 與魏元履書【揆之】	17
節要0003(0103) 與陳侍郎書【俊卿時爲吏部侍郎。】	18
節要0004(0104) 與曹晉叔書【乾道三年，先生訪南軒。時先生監南嶽廟。】 ..	23
節要0005(0105) 與陳丞相書【三年冬，除樞密院編修，至五年，三被堂帖趣就職，辭。】	24
節要0006(0106) 與汪尙書書【應辰。○同上。】	26
節要0007(0107) 答汪尙書書【同上。】	29
節要0008(0108) 答張欽夫【南軒先生】	32

節要0009(0109) 答張敬夫書【乾道六年，右相虞允文，建遣使如金，以陵寢爲請，陳俊卿爭不得而去。卒遣范成大，金人不聽。起居郎張栻入對，極陳修攘之道，此書所論，卽此也。時先生持母服。】	33
節要0010(0110) 與呂伯恭書【東萊先生。○《年譜》，“丙申二月，歸婺源，省先塋。六月乃還，是月除祕書郎。”】	40
節要0011(0111) 答韓尙書書【無咎，名元吉，號南澗。○辭祕書之命。】	43
節要0012(0112) 答呂伯恭書【淳熙五年，差知南康軍，辭免。東萊累書勉行，此其答。】	46
節要0013(0113) 答鄭白明書【鑑。陳俊卿婿。見〈俊卿行狀〉。】	48
節要0014(0114) 與袁寺丞書【樞。字機仲。嘗爲宗正寺丞。號梅巖，有清名直節。○在南康。】	50
節要0015(0115) 與臺端書【侍御史。號臺端，他人稱曰端公。】	52
節要0016(0116) 與皇甫帥書	55
節要0017(0117) 與丞相筓子【在南康。○時趙雄爲右丞相。】	57
節要0018(0118) 與丞相別紙	59
節要0019(0119) 答黃教授書【灝。字商伯。南康人，所以有仁里之云。】	61
節要0020(0120) 與王運使筓子【在南康。】	62
節要0021(0121) 與顏漕筓子【淳熙辛丑，除提舉浙東常平茶鹽公事。時本路荐饑，不敢辭，卽日單車上道。此其翌年竣事時書也。】	64
節要0022(0122) 上宰相書【同上。○時宰王淮。】	65
朱子書節要 卷之二 諸子目錄【時事出處】	71
節要0023(0201) 與趙帥書【汝愚。字子直。○此下至詹帥書，未詳年月。○據《年譜》，自淳熙壬寅辭江西提刑，差主管台州崇道觀，復差雲臺·鴻慶，至丁未，復除江西提刑。詳此數書，當是奉祠在閒時也。】	75
節要0024(0202) 答梁丞相書【克家。淳熙九年，再入相。】	78
節要0025(0203) 與陳丞相書【見上。○俊卿】	80

目錄

節要0026(0204) 答詹帥書【見《大全》八十七卷祭文。○疑是詹儀之，詳見〈目錄〉。】	81
節要0027(0205) 與周丞相書【必大。字子充，號平園。○丁未三月，差主管南京鴻慶宮，七月，除江西提刑，辭，不允。】	86
節要0028(0206) 答陳同父書【亮】	89
節要0029(0207) 與李誠父書【己酉五月二日】【○延平先生子，名信甫。】	92
節要0030(0208) 與張元善書	94
節要0031(0209) 與留丞相劄子【正。○知漳州時。】	96
節要0032(0210) 與留丞相書	98
節要0033(0211) 與趙帥書【汝愚。○湖南運副辭免之時。】	108
節要0034(0212) 與趙尙書書【汝愚。○紹熙三年壬子】	109
節要0035(0213) 與留丞相書【正。○癸丑十二月，除湖南安撫，辭免時也。】	111
節要0036(0214) 與王樞使謙仲劄子【藺。○紹熙五年五月，至湖南。六月，孝宗升遐，七月，寧宗即位，召赴行在。八月，除煥章閣待制，此其赴闕之後。】	114
節要0037(0215) 與趙丞相書【汝愚。○甲寅，寧宗批與宮觀州郡，力辭還家，仍乞追還職名。十二月，詔依舊煥章閣待制提舉鴻慶宮，乙卯正月，復辭，不允。二月，丞相亦罷。】	115
節要0038(0216) 答李季章書【壁。文簡公燾之子。】	117
節要0039(0217) 答黃仁卿書【東。○三月再辭職名之時。】	118
節要0040(0218) 答李公晦書【方子。○五月再乞致仕之時。】	119
節要0041(0219) 與鄭參政劄子【僑。慶元元年參知政事。○此書在前書之前，慶元乙卯十一月再辭職名時也。蓋辭職名，始於甲寅冬。】	121
節要0042(0220) 與李季章書【壁。○所引沈隱侯約詩，見《文選》。】	124
節要0043(0221) 與留丞相書	125
節要0044(0222) 與楊子直書【方。○四年戊午乞致仕，以來年己未七十也。】	126
節要0045(0223) 與項平父書【安世】	127

節要0046(0224) 答張定叟書【杓. 南軒之弟.】	128
節要0047(0225) 答劉季章書【黼. ○五年己未, 詔從所請.】	130
節要0048(0226) 與黃直卿書【榦. ○六年庚申三月, 是月先生易簣.】	131
朱子書節要 卷之三 諸子目錄【汪張問答】	133
節要0049(0301) 答汪尙書	134
節要0050(0302) 與汪尙書【己丑】	143
節要0051(0303) 答汪尙書	155
節要0052(0304) 答汪尙書論家廟	148
節要0053(0305) 答汪尙書	151
節要0054(0306) 與汪尙書	152
節要0055(0307) 與張欽夫別紙	153
節要0056(0308) 答張欽夫	154
節要0057(0309) 與張欽夫【下復有一書, 劇論程集改字, 文多不收.】	157
節要0058(0310) 答張欽夫	159
節要0059(0311) 答張敬夫	163
節要0060(0312) 與張敬夫	165
節要0061(0313) 答張敬夫	166
節要0062(0314) 答敬夫孟子說疑義	175
節要0063(0315) 答張敬夫	176
節要0064(0316) 問張敬夫【此及下篇所論人心私欲, 與今〈中庸序〉說不同. 所以收此, 欲見先生入道本末.】	180
節要0065(0317) 答張敬夫	181
節要0066(0318) 答張敬夫問目	182
節要0067(0319) 又論仁說	184
節要0068(0320) 答張欽夫【論中和第六書】	186

目錄

朱子書節要 卷之四 諸子目錄【呂劉問答】…………… 191

節要0069(0401) 答呂伯恭	192
節要0070(0402) 別紙	226
節要0071(0403) 論淵源錄	228
節要0072(0404) 答呂伯恭	231
節要0073(0405) 答劉子澄【清之，號靜春先生.】	232
節要0074(0406) 與劉子澄	236
節要0075(0407) 答劉子澄	238
節要0076(0408) 與劉子澄	242

朱子書節要 卷之五 諸子目錄【陸陳辨答】…………… 251

節要0077(0501) 答陸子壽【九齡，復齋先生.】	252
節要0078(0502) 答陸子美【九韶，梭山先生.】	255
節要0079(0503) 答陸子靜【九淵，象山先生.】	257
節要0080(0504) 答陳同甫	263
節要0081(0505) 與陳同甫	264
節要0082(0506) 答陳同甫	266

朱子書節要 卷之六 諸子目錄【問答論事】…………… 283

節要0083(0601) 與籍溪胡原仲先生【憲，紹興己卯，由司直授校書正字.】	286
節要0084(0602) 與范直閣【如圭，胡文定之甥.】	288
節要0085(0603) 與慶國卓夫人【劉子羽繼室也，見先生所撰〈劉公神道碑〉.】 ..	

.....	291
節要0086(0604) 上黃端明【中】	293
節要0087(0605) 與王龜齡【十朋. 號梅溪.】	295
節要0088(0606) 與陳丞相【一本作‘與龔實之’.】【丞相. 名俊卿.】	299
節要0089(0607) 與劉共父【珙. 共父. 嘗再知潭州. 故與敬夫同刊文定本. 所以并及南軒.】	301
節要0090(0608) 答韓無咎【元吉. 號南澗.】	308
節要0091(0609) 與芮國器【燁】	309
節要0092(0610) 答鄭景望【伯熊. 永嘉人. 爲建寧太守.】	311
節要0093(0611) 答尤延之【袤】【號美軒.】	313
節要0094(0612) 與郭冲晦【雍. 父忠孝. 師事伊川. 著《易說》. 號兼山. 〈雍傳〉. “其學通世務. 隱陝州. 孝宗朝. 召不起. 賜號頤正先生. 後又賜號冲晦.”】 ..	315
節要0095(0613) 答程可久【迥】【即沙隨 程氏也.】	316
節要0096(0614) 答程泰之【大昌】【著《衍繁露》.】	318
節要0097(0615) 答李壽翁【〈椿誌銘〉. 見《大全》七十四卷.】	321
節要0098(0616) 答陳體仁	323
節要0099(0617) 答顏魯子	325
 朱子書節要 卷之七 諸子目錄【問答】	 327
 節要0100(0701) 答袁機仲【樞】【○以清名直節. 受知阜陵. 位至侍郎. 憤世疾邪. 不安于朝. 退居梅巖.】	 331
節要0101(0702) 答袁機仲別幅	333
節要0102(0703) 答袁機仲	335
節要0103(0704) 答趙提舉【善譽】	336
節要0104(0705) 答周益公【必大】	339
節要0105(0706) 答留丞相	345

目錄

節要0106(0707) 與曾裘父【季狸，號艇齋，見《瀛奎律髓》紅梅詩注。】……	347
節要0107(0708) 答耿直之【秉】〔○《語類》云：“嘗爲浙漕及鎮江，有善政。”〕…	
……	348
節要0108(0709) 答薛士龍【季宣】……	349
節要0109(0710) 答林謙之【光朝】〔○號艾軒，官至工部侍郎，莆田人。〕…	352
節要0110(0711) 答江元適【泳】……	354
節要0111(0712) 答詹體仁【儀之】……	358
節要0112(0713) 答楊庭秀【萬里】〔○誠齋先生〕……	359
節要0113(0714) 答李季章【璧】〔○巽巖 燾之子，見《宋史》。〕……	360
節要0114(0715) 答范文叔【僞學籍有范仲黼，即文叔也。】……	364
節要0115(0716) 答陳君舉【傳良，止齋先生，永嘉人。】……	366
節要0116(0717) 與劉德修【光祖】〔○慶元六年，諫大夫張釜劾光祖撰《涪州學記》云云，謫房州時，光祖主管玉虛觀。〕……	368
節要0117(0718) 答黃文叔【度】〔○浦江人，隆興癸未進士。○度將論侂冑，侂冑以御筆除度知平江府，度辭歸。〕……	369
節要0118(0719) 答徐元敏……	371
節要0119(0720) 答林正夫【湜】……	372
節要0120(0721) 答戴邁……	374
節要0121(0722) 答林巒……	375
節要0122(0723) 答呂侑……	376
節要0123(0724) 答楊宋卿……	377
節要0124(0725) 答柯國材【翰】……	378
節要0125(0726) 答許順之【升】……	382
節要0126(0727) 答陳齊仲……	393
節要0127(0728) 答王近思【力行】……	394
節要0128(0729) 答魏元履【揆之，號艮齋。】……	397
節要0129(0730) 與魏應仲【元履子】……	400
節要0130(0731) 答范伯崇【癸未】〔名念德，先生姪壻〕……	402

朱子書節要序

晦菴朱夫子，挺亞聖之資，承河·洛之統，道巍而德尊，業廣而功崇。其發揮經傳之旨以幸教天下後世者，既皆質諸鬼神而無疑，百世以俟聖人而不惑矣。夫子既沒，二王氏及余氏，裒粹夫子平日所著詩文之類，爲一書，名之曰《朱子大全》。總若干卷，而其中所與公卿大夫門人知舊往還書札，多至四十有八卷。然此書之行於東方，絕無而僅有，故士之得見者蓋寡。嘉靖癸卯中，我中宗大王，命書館印出頒行。臣滉於是始知有是書而求得之，猶未知其爲何等書也。因病罷官，載歸溪上，得日閉門，靜居而讀之。自是漸覺其言之有味·其義之無窮，而於書札也，尤有所感焉。蓋就其全書而論之，如地負海涵，雖無所不有，而求之難得其要。至於書札，則各隨其人材稟之高下·學問之淺深，審證而用藥石，應物而施鑪錘，或抑或揚，或導或救，或激而進之，或斥而警之，心術隱微之間，無所容其纖惡，義理窮索之際，獨先照於毫差，規模廣大，心法嚴密。戰兢臨履，無時或息，懲窒遷改，如恐不及，剛健篤實，輝光，日新其德。其所以勉勉循循而不已者，無間於人與己，故

其告人也，能使人感發而興起焉。不獨於當時及門之士爲然，雖百世之遠，苟得聞教者，無異於提耳而面命也。嗚呼至矣！顧其篇帙浩穰，未易究觀，兼所載弟子之問，或不免有得有失。滉之愚竊不自揆，就求其尤關於學問而切於受用者，表而出之，不拘篇章，惟務得要。乃屬諸友之善書者及子姪輩，分卷寫訖，凡得十四卷爲七冊。蓋視其本書，所減者殆三之二，僭妄之罪，無所逃焉。雖然嘗見《宋學士集》，有記魯齋王先生以其所選朱子書求訂於北山何先生云，則古人曾已作此事矣。其選其訂，宜精密而可傳，然當時宋公猶歎其不得見，況今生於海東數百載之後，又安可蘄見於彼而不爲之稍加損約以爲用工之地也哉？或曰：“聖經賢傳，誰非實學？又今《集註》諸說，家傳而人誦者，皆至教也。子獨拳拳於夫子之書札，抑何所尚之偏而不弘耶？”曰：“子之言，似矣而猶未也。夫人之爲學，必有所發端興起之處，乃可因是而進也。且天下之英才，不爲不多，讀聖賢之書，誦夫子之說，不爲不勤，而卒無有用力於此學者，無他，未有以發其端而作其心也。今夫書札之言，其一時師友之間，講明旨訣，責勉工程，非同於泛論如彼，何莫非發人意而作人心也？昔聖人之教，《詩》·

朱子書節要 序

《書》·《禮》·《樂》皆在，而程·朱稱述乃以《論語》爲最切於學問者，其意亦猶是也。嗚呼！《論語》一書，既足以入道矣。今人之於此，亦但務誦說而不以求道爲心者，爲利所誘奪也。此書有《論語》之旨，而無誘奪之害。然則將使學者感發興起而從事於眞知實踐者，舍是書，何以哉？夫子之言曰：“學者之不進，由無入處而不知其味之可嗜；其無入處，由不肯虛心遜志耐煩理會。”使今之讀是書者，苟能虛心遜志，耐煩理會，如夫子之訓，則自然知其入處。得其入處，然後知其味之可嗜，不啻如芻豢之悅口，而所謂大規模嚴心法者，庶可以用力矣。由是而旁通直上，則沂伊·洛而達洙·泗，無往而不可，向之所云聖經賢傳，果皆爲吾之學矣。豈偏尙此一書云乎哉？滉年薄桑榆，抱病窮山，悼前時之失學，慨餘韻之難理。然而區區發端，實有賴於此書。故不敢以人之指目而自隱，樂以告同志，且以俟後來於無窮云。

嘉靖戊午夏四月日，後學眞城 李滉，謹序。

先生此序，成於嘉靖戊午。是時先生年五十八矣。手自淨寫，藏之巾笥，未嘗出以示人。蓋其微意，不欲以纂述自居也。後因學者求觀《節要》，則浸以流

布，至有入梓以廣其傳者，乃更名《朱子書節要》，併刻目錄及註解，而序則終不出焉。先生既沒，門下諸人，始得見其手稿，咸謂先生輯錄之意，不可使無傳，遂謄刻以置卷首云。

隆慶六年九月日，後學高峯 奇大升謹識。

星州印晦菴書節要跋

嘗讀朱門講學往復之書或見於諸書者，率皆言近而指遠，辭約而理明，每以未見全集爲恨。既得《大全集》讀之，則如地負海涵，靡不備具，而蠡測末學，徒起望洋之歎。及見吳思菴所選，則只採菁華，反遺實學，而似未免經約之病，所謂舉一而廢百也。獨有王魯齋選是書，求訂於北山何先生，則固宜精密，而宋潛溪猶嘆其不得見，況於吾東晚進乎！退溪李先生滉喜得《全書》，敬信如神明，潛心積久，深會領要，以爲夫子平日精思力踐之功，後學入頭下手之地，尤在於書·疏，非他文比。乃手抄其最關於學問而切於日用者，約繁就簡，略加訂解。凡所取才三之一，而其平生出處言動之節，與夫師友講明警責之旨，該括無餘，誠進修之直訣，而斯文之寶典也。俊良竊惟紫陽夫子，挺亞聖之資，集諸儒之長，道德高厚，教化無窮。自一話一言，莫非妙道精義之蘊，而其發揮經傳，尤竭心思，直啓關鍵，開示萬世。然而緒言散出，註義簡賾，得其門而入，蓋亦難矣。如《語類》諸書，雖皆雅言，而記者非一手，亦未必盡得師傳之意也。至於書札，則皆夫子手筭，而勉進血誠，

無間於人已，要以格致修爲變化氣質爲功。故其發端以示人者，或抑或揚，一進一退，因材而施教，對證而下藥，片言隻句，皆極乎天理之精妙，毫分縷析，正中乎心術之隱微，能使及門之士，竦然而悟，躍如而趨。所以賢愚皆獲其益，而雖百世之下，感激餘誨，如拜嚴師而承面命。嗚呼至哉！誠能虛心靜慮，從事於斯，眞知實踐，心與理熟，則沂伊·洙而達洙·泗，此爲路頭，而《四書》諸經，迎刃自解矣。將見是書之行，與《近思錄》同爲《四書》之階梯，而其規模之大，心法之嚴，則又有四先生所未發者矣。然而退溪公猶以取舍之僭踰，嫌居於指目。俊良輒不自揆，深懼巾衍一本易致漫滅，借活字於臨皋書院，又得洪使相 曇助錢一半，僅得卒事。一邑之力，恨未廣也。如有同好者，表出是集，或繡梓，或印字，俾之家傳人誦，而有得於主敬窮理之宗旨，則理餘韻而續絕緒，爲後來之豪傑，豈無其人乎？若夫其味之可悅，其義之無窮，則善讀者當自得之，而行有餘力，取本集而博觀，亦可見其盛德大業不出乎此書範圍之外矣。

嘉靖辛酉五月甲辰，箕城 黃俊良謹跋。

定州刊朱子書節要跋

子朱子平生所論著，具載《大全集》凡百有餘卷，衆體俱備，閱博無涯涘，學者觀之，有惶然駭然之歎。退溪李先生嘗就集中書類，抄謄其切要者，頗加節略，編爲若干卷，名曰《朱子書節要》，以資講論玩繹之益，有求觀者，亦不隱焉。頃年黃斯文 俊良，印之于星州，今定州牧柳公 仲郢，持西海節，又印之。其後又有印之于平壤者，第皆用活字，印訖旋毀，而所印亦無幾，學者病其傳布之弗廣也。柳公適分符于定，迺謀爲久遠之圖，鳩工聚材，淨寫以鋟之。而先生又嘗於玩繹之餘遇難解處，輒有註語，且成目錄一卷，載其知舊門人姓名事實，以爲窮鄉晚學祛疑解惑之資，柳公併取以刻之。其書始得完整，可以傳之永久而無弊焉。李先生深於用功，惠及後學之意，固可見矣，而柳公以傳布是書爲心，勤勤懇懇，終能有以成之，其事亦可尙也。覽是書者，不可不知其所由然，於是乎識。

隆慶丁卯仲冬日，後學高峯 奇大升跋。¹⁾

1) 奇大升跋：뒤에 줄을 바꾸어 陶山書院本에는 ‘上之十九年癸亥秋，陶山書院刊’，全州本에는 ‘萬曆三十九年中秋，重刊于全州府’라는 刊記가 각각 있다.

附 退溪李先生答李仲久書

《晦菴書節要》，蒙示病處，甚荷不外。此書當初不期與四方共之，只爲老境精力短乏，須此節約之功，以自便於省覽耳。中間，被黃仲舉苦要印看，不能堅執初意。然亦止爲兩家子弟謀之，不意仲舉之破人宿戒，以至傳入都中。思之汗慄，噬臍無及，奈何奈何？其所指兩病處，不審其爲某書某條，幸於後便概舉示及，庶可以商量改圖也。然來喻云：“義理之精深，事爲之酬酢，切於吾身與吾心者，所當先取，而其間或有不緊而見收云云。”此固然矣。然而必欲盡如此說，恐未免又墮於一偏之病也。夫義理固有精深處，其獨無粗淺處乎？事爲固有緊酬酢，其無有閒酬酢乎？是數者，其關於吾身與吾心者，固切而當先矣，若在人與在物者，其可以¹⁾不切而可遺之乎？吾儒之學，與異端不同，正在此處。惟孔門諸子，識得此意，故《論語》所記，有精深處，有粗淺處，有緊酬酢處，有閒酬酢處，有切於吾身心

▶ 이 편지 《定本 退溪全書》5에 수록되어 있다. KNL0088 (書-李滉-12) 〈答李仲久【癸亥】〉

1) 可以：全州本‘以爲’

者，有在人在物而似不切於身心者。試略數之，如冉子之請粟·康子之饋藥·伯玉使人·原壤夷俟·封人請見·孺悲欲見·互鄉見·師冕見，若此之類，謂之非精深，可也；謂之閒酬酢，可也；雖謂之不切於身心，似亦可也。然何莫非道之一端也？苟極其至而言之，則所謂精深者緊切者，皆不外此。故或問於龜山曰：“《論語》二十篇，何者爲要切？”龜山曰：“皆要切。”正爲此耳。然則是書所取如來喻所當先者，固已不勝其多矣。其或彼此往復之際，亦有道寒暄，叙情素，玩山遊水²⁾，傷時悶俗等閒酬酢，似不切之語，閒取而兼存之，使玩而味之者，如親見先生於燕閒優逸之際，親聆音旨於謦欬談笑之餘，則其得有道者氣像於風範神采之間者，未必不更深於專務精深不屑不緊者之德孤而無得也。非獨此耳，滉讀此書以來，乃知師友之義如此其至重。惟其義重故情深，情深故有許多相周旋款叙之言，若以爲非論義理不切身心而盡去之，則何以見古人師友之道若是其重且大乎？嘗得南時甫書，舉《節要》中〈答呂伯恭書〉“數日來蟬聲益清，每聽之，未嘗不懷高風也”一段云：“若此歇後語，取之何用？”滉答說，今不能記

2) 玩山遊水：全州本‘玩水遊山’

得，其大意若曰：“作歇後看則歇後，作非歇後看則非歇後云云。”大抵人之所見不同，所好亦異。滉平日，極愛此等處，每夏月綠樹交蔭，蟬聲滿耳，心未嘗不懷仰兩先生之風，亦如庭草一閒物，每見之，輒思濂溪一般意思也。今自世俗不好此學者言之，固無怪，其知好者，亦不能皆同如此。然則韓文公所謂“始參差而異序，卒爛熳而同歸”者，實亦非易事也。滉所以爲此語者，非自是己見而欲諸君之同於己，乃自發己病，而求藥石以自治耳。惟高明諒察而鑄誨之，幸甚幸甚。

嘉靖癸亥二月望，滉拜。

朱子書節要 卷之一 諸子目錄 【時事出處】

【延平李先生】 名侗，字愿中。南劍州 劍浦人。朱先生自謂：“見延平後，爲學始就平實。”沙縣 鄧天啓嘗稱：“愿中如冰壺秋月，瑩徹無瑕。”○詳見《名臣言行錄》。

【魏元履】¹⁾ 名揆之，號艮齋。建陽人。孝宗朝，以布衣召爲國子學錄。言事去國，先生爲賦梅花詩以寄意。○見《言行錄》。

【陳侍郎】 名俊卿，字應求。莆田人。登進士，官至右僕射，封福公。後以少師魏國公致仕。卒，諡正獻。孝友忠敬，清嚴好禮，爲中興賢相。

【曹晉叔】 名未詳。建安人。○《朱子實紀》，見門人類。○先生嘗稱爲老大隱約有思慮。

【陳丞相】 卽上陳侍郎。

【汪尙書】²⁾ 名應辰，字聖錫。玉山人。進士第一，官至吏部尙書。諡文定。嘗爲端明殿學士，故亦稱汪端

1) 魏元履：全州本에는 [두주 元履，名挺之，初名揆之，字子實。師籍溪，與先生遊。卒，贈直祕閣.]가 있다.

2) 汪尙書：全州本에는 [두주 初名洋，高宗賜今名.]이 있다.

明。先生推爲當時善類之宗主。

【張欽夫】 名栻，號南軒。廣漢人。寓居長沙。仕至右文殿修撰。諡宣公。○見《言行錄》。

【呂伯恭】 名祖謙，號東萊。開封人。寓居婺州。隆興進士第，仕至祕書省著作。諡成公。○見《言行錄》。

【韓尙書】 名元吉，字無咎，號南澗。開封人。維之子。寓居上饒。仕至吏部尙書。師尹焞，與先生善。東萊爲壻。著《愚憲錄》等書。

【鄭自明】 名鑑。莆田人。官著作郎。立朝敢言，先生祭文，謂其有古爭臣之風。

【袁寺丞】 名樞，字機仲，號梅巖。建安人。嘗爲宗正寺丞，仕至右文殿修撰。知江陵府，受知阜陵，有清名直節。

【臺端】³⁾ 侍御史，謂之臺端，未詳何人。

【皇甫帥】 時皇甫倜與其子斌，俱任將帥，此疑是斌也。

【丞相】 時趙雄爲相，孝宗將大用南軒，雄多方沮撓，其人可知。

【黃教授】⁴⁾ 名灝，字商伯。南康 都昌人。擢第，嘗教

3) 臺端：全州本에는 [두주 有《易傳解義》等書.]이 있다.

授隆興府，官至廣東提刑。先生嘉其講論精密，以此道有望期之。諡文簡。有《西坡集》。○見《宋史·道學傳》

【王運使】未詳何人。或云王藺。見二卷王樞使下。

【顏漕】未詳爲某，疑是顏師魯。師魯，字幾聖，漳州龍溪人。第進士，嘗爲江東提舉。莊重孝友，大節確如金石。諡定肅。

【宰相】時相王淮，亦名臣。但以先生劾唐仲友，故怨之。引陳賈爲監察御史，力攻道學，貽禍後世，爲清議所擯。

4) 黃教授：[두주 先生歿, 黨禁方嚴, 公單車往赴, 不小忱.]이 있다.

朱子書節要 總目

卷之一	時事出處
卷之二	時事出處
卷之三	汪張問答
卷之四	呂劉問答
卷之五	陸陳辨答
卷之六	問答論事
卷之七	問答
卷之八	知舊門人問答
卷之九	知舊門人問答
卷之十	知舊問人問答
卷之十一	知舊門人問答
卷之十二	知舊門人問答
卷之十三	知舊門人問答
卷之十四	知舊門人問答
卷之十五	知舊門人問答
卷之十六	知舊門人問答
卷之十七	知舊門人問答
卷之十八	知舊門人問答
卷之十九	續集
卷之二十	別集 〔時事出處帖，講學及雜往來帖〕

朱子書節要 卷之一

時事出處

節要0001(0101) (時事出處1) (卷1:1右) (晦庵集 卷24)

與延平李先生書 〔隆興¹⁾元年，先生被召，行至鉛山，作此書也.〕

熹拜違侍右，倏忽月餘，頃嘗附兩書於建寧，竊計已獲關聽矣。熹十八日離膝下，道路留滯，二十四日，到鉛山²⁾，館於六十兄官舍，路中幸無大病。熹向蒙指喻二說，其一已叙次成文，惟義利之說，見得未分明，說得不快。今且以泛論時事者代之。到闕萬一得對畢，即錄呈也。但義利之說，乃儒者第一義，平時豈不講論及此？今欲措辭斷事，而茫然不知所以爲說，無乃此身自坐在裏許而不之察乎？此深可懼者。天氣未寒，更乞爲道保重，以慰瞻仰。〔“到鉛山”：延平子友直，時任鉛山尉。“六十

▶ 李侗：1093~1163. 字는 愿中，諡號는 文靖. 보통 延平先生이라 稱함. 南劍州 劍浦人. 朱熹의 스승.

1) 隆興：海州本·定州本에는 앞에 ‘以下論時事出處○’가 있다.

2) 鉛山：全州本에는 [두주 《韻會》, “‘鉛’或作‘鉛.’.”]가 있다.

兄”：疑指友直。“向蒙指喻”：先生趨召，問延平以所宜言，告謂“今日三綱不正³⁾，義利不分云云。”』

3) 正：全州本에는 [두주 ‘正’, 《年譜》作‘立’.]이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一

節要0002(0102) (時事出處2-1~2) (卷1:1左) (晦庵集 卷24)

與魏元履書 〔揆之〕 1)

(時事出處2-1)

熹六日登對，初讀第一奏，論致知格物之道，天顏溫粹，酬酢如響；次讀第二奏，論復讎之義；第三奏，論言路壅塞，佞幸鴟張，則不復聞聖語矣。和議已決，邪說橫流，非一葦可杭。前日見周葵，面質責之，乃云：“此皆處士大言，今姑爲目前計耳。”熹語之曰：“國家億萬斯年之業，參政乃爲目前之計耶？”大率議論皆此類。韓無咎·李德遠，皆不復尋〈遂初賦〉矣。〔“登對”：癸未，入對垂拱殿。“韓無咎”：名元吉。“李德遠”：名造。“遂初賦”：晉孫綽，見《韻府》‘初’字。〕

(時事出處2-2)

近時一種議論，出於正人之口，而含糊鶻突，聽之使人憤憤。似此氣象規模，如何抵當得？王之望·尹穡輩，更何足掛齒牙間也！

▶ 魏揆之：1116~1173. 字는 子實·元履，號는 艮齋. 建州 建陽人. 籍溪의 門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節要0003(0103) (時事出處3) (卷1:2右) (晦庵集 卷24)

與陳侍郎書 〔俊卿時爲吏部侍郎.〕

熹嘗謂天下之事，有本有末，正其本者，雖若迂緩，而實易爲力；救其末者，雖若切至，而實難爲功。是以昔之善論事者，必深明夫本末之所在，而先正其本，本正則末之不治，非所憂矣。且以今日天下之事論之，上則天心未豫，而饑饉荐臻，下則民力已殫，而賦歛方急，盜賊四起，人心動搖。將一二以究其弊，而求所以爲圖回之術，則豈可以勝言哉？然語其大患之本，則固有在矣。蓋講和之計決，而三綱頽，萬事隳，獨斷之言進，而主意驕於上，國是之說行，而公論鬱於下，¹⁾此三者，其大患之本也。然爲是說者，苟不乘乎人主心術之蔽，則亦無自而入。此熹所以於前日之書不暇及他，而深以夫格君心之非者，有望於明公。蓋是三說者不破，則天下之事，無可爲之理，而君心不正，則是三說者，又豈有可破之理哉？熹竊不自勝其憤懣之積，請復得而詳

▶ 陳俊卿：1113~1186，字는 應求，號는 陸海，莆田人。

1) 講和……鬱於下：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言之。夫沮國家恢復之大計者，講和²⁾之說也。壞邊陲備禦之常規者，講和之說也。內拂吾民忠義之心，而外絕故國來蘇之望者，講和之說也。苟逞目前宵旰之憂，而養成異日宴安之毒者，亦講和之說也。此其爲禍，固已不可勝言，而議者言之，固已詳矣。若熹之所言，則又有大於此者。蓋以祖宗之讎，萬世臣子之所必報而不忘者，苟曰“力未足以報”，則姑爲自守之計，而蓄憾積怨以有待焉，猶之可也。今也，進不能攻，退不能守，顧爲卑辭厚禮，以乞憐於仇讎之戎狄，幸而得之，則又君臣相慶，而肆然以令於天下曰：“凡前日之薄物細故，吾既捐之矣。”欣欣焉³⁾無復豪⁴⁾分忍痛含冤·迫不得已之言，以存天下之防者。嗚呼，孰有大於祖宗陵廟之讎者，而忍以薄物細故捐之哉！夫君臣之義·父子之恩，天理民彝之大，有國有家者，所以維繫民心·紀綱政事本根之要也。今所以造端建極者如此，所以發號施令者如此，而欲人心固結於我而不離，庶事始終有條而不紊，此亦不待知者而凜然以寒心矣。而爲此說者之徒，懼夫公論之沸騰，而上心之或悟也，則又相與作爲獨

2) 講和：海州本에는 백관이 있다.

3) 焉：海州本‘然’

4) 豪：定州本‘毫’

斷⁵⁾之說，傳會經訓，文致姦言，以深中人主之所欲，而陰以自託其私焉。本其爲說，雖原於講和之一言，然其爲禍則又不止於講和之一事而已。是蓋將重悞⁶⁾吾君，使之傲然自聖，上不畏皇天之譴告，下不畏公論之是非，挾其雷霆之威·萬鈞之重，以肆於民上，而莫之敢撓者，必此之由也。嗚呼，其亦不仁也哉！甚於作俑者矣。仁人君子，其可以坐視其然，而恬然不爲之一言以正之乎？此則既然矣，而旬日之間，又有造爲國是⁷⁾之說以應之者，其欺天罔人·包藏險慝，抑又甚焉。主上既可其奏，而群公亦不聞有以爲不然者，熹請有以詰之，夫所謂國是者，豈不謂夫順天理·合人心而天下之所同是者耶？誠天下之所同是也，則雖無尺土一民之柄，而天下莫得以爲非，況有天下之利勢者哉！惟其不合乎天下之所同是，而彊欲天下之是之也，故必懸賞以誘之，嚴刑以督之，然後僅足以劫制士夫不齊之口，而天下之真是非則有終不可誣者矣。不識今日之所爲，若和議之比，果順乎天理否耶？合乎人心否耶？誠順天

5) 獨斷：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6) 悞：定州本·《全書》‘誤’；海州本에는 [추가 ‘悞’·‘誤’同.]이 있다; 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韻會》, “‘誤’通作‘悞’.”]가 있다.

7) 國是：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理·合人心，則固天下之所同是也，異論何自而生乎？若猶未也，而欲主其偏見，濟其私心，彊爲之名，號曰國是，假人主之威，以戰天下萬口一辭之公論，吾恐古人所謂德惟一者，似不如是，而子思所稱“具曰予聖，誰知烏之雌雄”者，不幸而近之矣。昔在熙寧之初，王安石之徒，嘗爲此論矣，其後章惇·蔡京之徒，又從而紹述之。前後五十餘年之間，士大夫出而議於朝，退而語乎家，一言之不合乎此，則指以爲邦朋邦誣，而以四凶之罪隨之。蓋近世主張國是之嚴，凜乎其不可犯，未有過於斯時者。而卒以公論不行，馴致大禍，其遺毒餘烈，至今未已。夫豈國是之不定而然哉？惟其所是者，非天下之真是，而守之太過，是以上下相徇，直言不聞，卒以至於危亡而不悟也。傳曰：“差之毫釐，繆以千里。”況所差非特毫釐哉！嗚呼，其可畏也已，奈何其又欲以是重誤吾君，使之尋亂亡之轍跡，而躬駕以隨之也？嗚呼，此三說者，其爲今日大患之本明矣！然求所以破其說者，則又不在于他，特在乎格君心之非而已。明公不在朝廷則已，一日立乎其位，則天下之責，四面而至。與其顛沛於末流而未知所濟，孰若汲汲焉以勉於大人之事，而成已成物之功，一舉而兩得之也？熹

杜門求志，不敢復論天下之事久矣。於閣下之言竊有感焉，不能自己，而復發其狂言如此，不審高明以爲如何也？尙書汪公，計就職已久，方群邪競逐·正論消亡之際，而二公在朝，天下望之，屹然若中流之底⁸⁾柱，有所恃而不恐。雖然時難得而易失，事易毀而難成。更願合謀同力，早悟上心，以圖天下之事。此非獨熹之願，實海內生靈之願也。〔“尙書汪公”：應辰。〕

8) 底：[두주 《韻會》，“‘砥’，本作‘底’。”]가 있다；定州本 ‘砥’。今按：본문 상란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본 곧 陶山本の 頭註는 거의 예외없이 川谷本과 全州本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범례에 따라 그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節要0004(0104) (時事出處4) (卷1:6左) (晦庵集 卷24)

與曹晉叔書¹⁾ 〔乾道三年，先生訪南軒，時先生監南嶽廟。〕

熹此月八日抵長沙，今半月矣。荷敬夫愛予甚篤，相與講明其所未聞，日有問學之益，至幸至幸。敬夫學問愈高，所見卓然，議論出人意表。近讀其語說，不覺胸中洒然，誠可嘆服。嶽麓學者漸多，其間亦有氣質醇粹·志趣確實者，只是未知向方，往往騁空言而遠實理。告語之責，敬夫不可辭也。長沙使君，豪爽俊邁，今之奇士，但喜於立異，不肯入於道德，可惜。〔“嶽麓”：嶽麓書院在湘西。宋 開寶中，郡守朱洞始創，中廢，至乾道初，守劉珙改修。“長沙使君”：王師愈嘗爲長沙宰，與南軒遊，先生亦云：“與王遊從於長沙。”但師愈非不肯入道德者，此可疑耳。〕

► 曹晉叔：名昱 未詳。建安人。

節要0005(0105) (時事出處5) (卷1:7右) (晦庵集 卷24)

與陳丞相書 〔三年冬，除樞密院編修，至五年，三被堂帖趣就職，辭。〕

熹啓。中夏毒熱，恭惟僕射平章樞使相公鈞候起居萬福，熹昨奉咫尺之書，修致慶問，因以愚慮上瀆高明，自揣妄庸，宜得譴斥之罪，乃蒙鈞慈還賜手教，撫存開納，禮意勤厚。伏讀三數，有以見明公位愈高而心愈下，德彌盛而禮彌恭，果非小人之腹所能料也。忽又奉承堂帖，戒以祇事之期，尤竊恐懼，不能自安。已別具劄子一通，道其所欲。伏惟明公哀憐而幸聽之。蓋熹雖愚不肖，無所短長，然區區用力於古人之學，問¹⁾天下之義理，亦庶幾不爲懵然者。豈不知外有君臣之義，內有母子之情，而平生知己如明公者，待之又不爲不厚，豈不願及明時，效尺寸以報君親。酬知遇而直逡巡退縮，以求守此東岡之陂乎？此其中必有甚不得已者，惟明公幸察焉，而聽其所欲，使得竊祠官之祿以養其親，而自放於荒間²⁾寂漠³⁾之境，以益求其所志，庶乎動心忍

1) 問：[두주 ‘問’, 唐本作‘閱’.]이 있다；《全書》‘閱’

2) 間：海州本 ‘閒’

性，涵泳中和，賴天之靈，得遂變化其狂獦朴愚之質，則異時明公未忍終棄，猶欲熏沐而器使之，其或可以奉令承教而不敢辭也。明公亦宜自謀所以清化原·革流弊者，使乾剛不亢而君道下濟，忠讜競勸而臣道上行，則天地交泰，上下志同，而天下之士，雖有囂囂然處畎畝而樂堯·舜者，猶將爲明公出，況如熹者，又豈足道也哉？伏惟明公勉焉則天下幸甚。自餘加護鼎食，以慰具瞻。熹不勝懇禱拳拳之至。『“守此東岡之陂”：後漢周燮，不應徵，宗族曰：“何爲守此東岡之陂乎？”』

3) 漢：《全書》‘寘’

節要0006(0106) (時事出處6) (卷1:8左) (晦庵集 卷24)

與汪尙書書 〔應辰. ○同上.〕

自頃拆號，日望登庸，尙此滯留，不省所謂。海內有識之士，蓋莫不爲明公遲之，而熹之愚，獨有爲明公喜者。蓋以省闈之取舍觀之，則疑明公於天下之義理，尙有當講求者，而喜其猶及此間¹⁾暇之時也。自道學不明之久，爲士者，狃於偷薄浮華之習，而詐欺巧僞之姦作焉。上之人，知厭之矣，然欲遂變而復於古，一以經行迪之，則古道未勝，而舊習之姦，已紛然出於其間，而不可制。世之人，本樂縱恣，而憚繩檢，於是乘其隙而力攻之，以爲古道不可復行，因以遂其自恣苟簡之計。俗固已薄，爲法者，又從而薄之，日甚一日，歲深一歲，而古道真若不可行矣。譬之病人，下寒而客熱熾於上，治其寒則熱復大作。俗工不求所以治寒之術，遂以爲真熱，而妄以寒藥下之，其不殺人也者，幾希矣。蘇氏貢舉之議，正如此，至其詆東州二先生爲矯誕無

▶ 汪應辰：1118~1176. 初名𣎵 洋，字𣎵 聖錫. 玉山人.

1) 間：海州本·《全書》‘閒’

實，不可施諸政事之間，則其悖理傷化，抑又甚焉。而省闈盜用此文者兩人，明公皆擢而置之衆人之上，是明公之意，蓋不以其說爲非也。生於其心，害於其政，發於其政，害於其事。明公未爲政於天下，而天下之士，已仰²⁾明公之心，爭誦其書，以求速化，耳濡³⁾目染，以陷溺其良心，而不自知。遂以儉薄浮華爲眞足尙，而敢肆詆欺於昔之躬行君子者不爲非也。況於一旦坐廟堂之上，而以宰相行之，其害又當如何哉？明公前者駁正張綱之謚，深詆王氏之失，識者趨之。而今日之取舍乃如此，死者有知，得無爲綱所笑？不審明公亦嘗悔之否乎，熹愚無知，辱知獎甚厚，往者亦嘗關說及此，而今略驗矣。故獨不敢以延拜之遲爲恨，而以猶得及此暇時，講所未至，爲深喜。明公若察其願忠之意，而寬其忘分之誅，則願深考聖賢所傳之正，非孔子·子思·孟·程之書，不列於前，晨夜覽觀，窮其指趣而反諸身，以求天理之所在。旣以自正其心，而推之以正君心，又推而見於言語政事之間，以正天下之心，則明公之功名德業，且將與三代王佐比隆，而近世所謂名相者，其規模

2) 仰：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仰’, 唐本作‘知’]가 있다；《全書》‘知’

3) 濡：[추기 ‘濡’, 《儀禮》作‘濡’.]가 있다.

蓋不足道，況蘇氏浮靡機變之術，又其每下者哉！『“拆號”：試畢拆名.』

節要0007(0107) (時事出處7-1~2) (卷1:10左) (晦庵集 卷24)

答汪尚書書 〔同上.〕

(時事出處7-1)

熹孤賤無庸，學不加進，而戇愚日甚，與世背馳，自度不堪當世之用久矣。往者猶意明公來歸，必將有以上正君心、下起頹俗，庶幾或可效其尺寸，以佐下風，是以未敢決然遂爲自屏之計。而今也明公之歸，亦既累月矣，似又未有以大慰區區平昔之望，則熹也尚復何望於他人，而可輒渝素守，以從彼之昏昏哉？抑明公之教熹曰：“既到之後，若有未安，則在我矣。”兩得元履書，亦以公言見告如此。此則明公愛熹之深，而所以爲熹謀者，反未盡也。夫事之可否，方雜乎冥冥之中，而未知所決，則姑爲之以觀其後可也。今此身之不可仕，仕路之不見容，已昭然矣，尚何待於既至然後有所未安耶？古之君子，量而後入，不入而後量。今身在山林，尚恐不能自主，況市朝膠擾之域！當世之大人君子，至是而失其本心者，踵相尋也。若熹者，又可保其不失耶？故熹深有所不能無疑於明公之計，惟前書之懇，敢因是而

復有請焉。如蒙矜許，固爲大幸；若其不遂，則熹豈敢坐違朝命而不一行？但老人，年來多病，既不敢勞動登途，又不敢遠去膝下，只此一事，便自難處。藉¹⁾令單行，至彼就職，則便被拘縻；不就，則重遭指目。就職之後遽去，則又似無說；不去，則自違素心。凡此曲折，皆已思之爛熟，其勢必至顛沛，無可疑者。伏惟明公以其所以見愛之心施之於此而爲之謀，則必有所處矣。

(時事出處7-2)

前書戒以勿視元履爲去就，熹固已略言之矣。夫朝有闕政，宰執·侍從·臺諫，熟視却立，不能一言，使小臣出位犯分，顛沛至此，已非聖朝之美事。又不能優容獎勵，顧使之逡巡而去，以重失士心，又不俟其自請而直譴出之，則駭聽甚矣。陳公之待天下之士乃如此，明公又不少加調護而聽其所爲，則熹亦何恃而敢來哉？蓋熹非敢視元履爲去就，乃視諸公所以待天下之士者而爲進退耳。願明公思之，爲熹謝陳公，熹之坐違朝命，已三月矣，欲加之罪，不患無辭。既不早從所請，則不若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1) 藉：海州本‘籍’

朱子書節要 卷之一

正其違傲之罪而謫斥之，亦足以少振風聲，使天下之士知守道循理之不可爲，而一於阿諛委靡之習，以遂前日之非，亦一事也。不識明公其亦以爲然乎？『“勿視元履爲去就”：魏掞之爲國子學錄，論曾覲去國。』

節要0008(0108) (時事出處8) (卷1:12左) (晦庵集 卷24)

答張欽夫 〔南軒先生〕

昨所惠吳才老諸書，近方得暇一觀，始謂不過淺陋無取，未必能壞人心術如張子韶之甚。今乃不然，蓋其設意，專以世俗猜狹怨懟之心窺聖人，學者苟以其新奇而悅之，其害亦有不勝言者。道學不明，無一事是當，更無開眼處，奈何奈何？元履十六日已到家，昨日遣書來，未暇往見之。然想其脫去樊籠，快適當如何也！諸公既不能克己從善，使人有樂告之心，又曲意彌縫，恐有失士之誚。用心如此，亦已繆矣。〔“吳才老”：名棫，“張子韶”：名九成.〕

▶ 張棫：1133~1180. 字는 敬夫·欽夫，號는 南軒. 廣漢人. 長沙에 寓居하였다.

朱子書節要 卷之一

節要0009(0109) (時事出處9-1~3) (卷1:13右) (晦庵集 卷25)

答張敬夫書 〔乾道六年，右相虞允文，建遣使如金，以陵寢爲請，陳俊卿爭不得而去。卒遣范成大，金人不聽。起居郎張栻入對，極陳修攘之道，此書所論，卽此也。時先生持母服。〕

(時事出處9-1)

伏蒙不鄙，令誦所聞，以裨萬一，此見臨事而懼之意。推是心也，何往不濟？然此蓋非常之舉，廢興存亡，所繫不細。在明者尙不敢輕，況愚昧荒迷之餘，其何敢輕易發口耶？大抵來教綱領極正當，條目亦詳備，顧其間有所未盡，計非有所不及，恐以爲無事於言而不言耳，請試陳之。夫《春秋》之法，君弑，賊不討，則不書葬者，正以復讎之^レ大義爲重，而掩葬之常禮爲輕，以示萬世臣子，遭此非常之變，則必能討賊復讎，然後爲有以葬其君親者。不則雖棺槨衣衾，極於隆厚，實與委之於壑，爲狐狸所食・蠅蚋所嘬無異。其義可謂深切著明矣。而前日議者，乃引此以開所¹⁾請之端，何其與《春秋》之義背馳之甚耶！又況祖宗陵寢・欽廟梓宮，往者屢經變故，傳聞之說，有臣子所不忍言者，此其存亡，固不

1) 所：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所’, 考唐本, 作‘祈’.]가 있다；海州本・《全書》‘祈’

可料矣。萬一狡虜出於漢斬張耳之謀以悞²⁾我，不知何以驗之，何以處之？熹昨日道間見友人李宗思，相語及此。李云：“此決無可問。爲臣子者，但當思其所以不可問之痛，沫³⁾血飲泣，益盡死於復讎，是乃所以爲忠孝耳。”此語極當。若朝廷果以此義存心，發爲號令，則雖瘡痍跛躄之人，亦且增百倍之氣矣，何患怨之不報，恥之不雪，中原之不得，陵廟梓宮之不復，而爲是紕繆倒置·有損無益之舉哉！不知曾爲上論此意，請罷祈請之行否？此今日正名舉義之端，不可放過也。其他則所論盡之，但所謂德者，當如何而修，所謂人才者，當如何而辨，所謂政事者，當如何而立？此須一一有實下功夫處。又須審度彼己，較時量力，定爲幾年之規。若孟子大國五年·小國七年之說，其間施設次第，亦當一一子細畫爲科條，要使上心曉然開悟，知如此必可以成功，而不如此必至於取禍，決然不爲小人邪說所亂，不爲小利近功所移。然後可以向前檐⁴⁾當，鞠躬盡力，上成聖主有爲之志，下究先正忠義之傳。如其不然，則計

2) 悞：定州本·《全書》‘誤’

3) 沫：海州本에는 [주목추가 ‘沫’與‘瀼’同，洒面也.]가 있다.

4) 檐：[두주 ‘檐’，唐本从手。《韻會》，“‘檐’或作‘檐’。”]가 있다；海州本·定州本·《全書》‘檐’

慮不定，中道變移，不惟不能成功，正恐民心內搖，仇敵外侮，其成敗禍福，又非坐而待亡之比。家族不足惜，奈宗社何？此尤當審處，不可容易承當，後將有悔而不及者。願更加十思，不可以入而後量也。抑又有所獻，熹幸從遊之久，竊觀所存，大抵莊重沉密氣象，有所未足，以故所發多暴露而少含蓄，此殆涵養本原之功，未至而然。以此慮事，吾恐視聽之不能審而思慮之不能詳也。願深察此言，朝夕點檢，絕其萌芽⁵⁾，勿使能立，則志定慮精，上下信服，其於有爲，事半而功倍矣。熹嘗以爲內修外攘，譬如⁶⁾直內方外，不直內而求外之方，固不可，然亦未有今日直內而明日方外之理。須知自治之心不可一日忘，而復讎之義不可一日緩，⁷⁾乃可與語今世之務矣。〔“所請之端”：‘所’元本同，恐當作‘祈’。‘漢斬張耳之謀’：漢擊楚，使告趙，欲與俱，陳餘曰：“漢殺張耳乃從。”漢王求人類耳，斬遺其頭，陳餘乃遣兵助漢。‘沫血’：‘沫’與‘禡’同，洒面也。‘紕’：篇夷切，織者兩絲同齒曰紕。《史記》註，“紕繆，錯也。”“先正”：魏公。〕

5) 牙：[두주 ‘牙’，唐本作‘芽’，《韻會》，“‘芽’通作‘牙’。”]가 있다；海州本·《全書》‘芽’

6) 內修外攘……譬如：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7) 自治之心……一日緩：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時事出處9-2)

奏草已得，竊觀所論，該貫詳明，本末巨細，無一不舉。不欲有爲則已，如欲有爲，未有舍此而能濟者。但使介遂行，此害義理·失幾會之大者。若虜人有謀，不拒吾請，假以容車之地，使得往來朝謁，不知又將何以處之？今幸彼亦無謀，未納吾使，不若指此爲釁，追還而顯絕之，乃爲上策。若必待彼見絕而後應之，則進退之權，初不在我，而非所以爲正名之舉矣。尊兄所論，雖不見却，然只此一大節目，便已乖戾，而他事又未有一施行者，竊意虞公亦且繆爲恭敬，未必真有信用之實。不若早以前議與之判決，如其不合，則奉身而退，亦不爲無名矣。蓋此非細事，其安危成敗，間不容息，豈可以坐縻虛禮，逡巡閔¹¹⁾默，以誤國計，而措其身於顛沛之地哉？必以會慶爲期，竊恐未然之間，卒有事變，而名義不正，彌綸又疏，無復有著手處也。彼若幸而見聽，則更須力爲君相極言學問之道，使其於此開明，則天下之事，不患難立。詳觀四牘，却似於此有未盡也。熹常¹²⁾謂天下萬事，有大根本，而每事之中，又各有要

11) 閔：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韻會》，“‘櫛’通作‘閔’。”]이 있다.

12) 常：海州本 ‘嘗’

切處。所謂大根本者，固無出於人主之心術，而所謂要切處者，則必大本既立，然後可推而見也。如論任賢相·杜私門，則立政之要也；擇良吏·輕賦役，則養民之要也。公選將帥，不由近習，則治軍之要也。樂聞警戒，不喜導諛，則聽言用人之要也。推此數端，餘皆可見。然未有大本不立而可以與此者，此古之欲平天下者所以汲汲於正心誠意以立其本也。若徒言正心，而不足以識事物之要，或精覈事情，而特昧夫根本之歸，則是腐儒迂闊之論·俗士功利之談，皆不足與論當世之務矣。吾人向來非不知此，却是成己功夫於立本處未甚端的，故其論此，使人主亦無下功夫處。今乃知欲圖大者，當謹於微，欲正人主之心術，未有不以嚴恭寅畏爲先務·聲色貨利爲至戒，然後乃可爲者。此區區近日愚見之拙法，若未有孟子手段，不若且循此塗轍之無悔吝也。【“虞公”：允文，“會慶”：孝宗誕日。】

(時事出處9-3)

昨陳明仲轉致手書，伏讀再三，感幸交集。向者請對之云，乃爲不得已之計，不知天意慫慂，既以侍立開盡言之路，而聖心鑒納，又以講席延造膝之規，此豈人謀所

及哉？竊觀此舉，意者天人之際·君臣之間，已有響合之勢，甚盛甚盛，勉旃勉旃！凡平日之所講聞，今且親見之矣。蓋細讀來書，然後知聖主之心乃如此，而尊兄學問涵養之力，其充盛和平又如此，宜乎立談之頃，發悟感通，曾不旋踵，遂定腹心之契，眞所謂千載之遇也。然熹之私計，愚竊不勝十寒衆楚之憂，不審高明何以處之？計此亦無他術，但積吾誠意於平日，使無食息之間斷，則庶乎其可耳。夜直，亦嘗宣召否？夫帝王之學，雖與韋布不同，經綸之業，固與章句有異，然其本末之序，愚竊以爲無二道也。聖賢之言，平鋪放著，自有無窮之味。於此從容潛玩，默識而心通焉，則學之根本於是乎立，而其用可得而推矣。患在立說貴於新奇，推類欲其廣博，是以反失聖言平淡之眞味，而徒爲學者口耳之末習。至於人主能之，則又適所以爲作聰明自聖賢之具，不惟無益，而害有甚焉。進說之際，恐不可以不戒。筵中見講何書？愚意《孟子》一書，最切於今日之用，然輪日講解，未必有益。不若勸上萬幾之暇，日誦一二章，反復玩味，究觀聖賢作用本末，然後夜直之際，請問業之所至而推明之。以上之聰明英睿，若於此見得洞然無疑，則功利之說無所投，而僥倖之門無自啓

矣。今財利之柄，制於聚斂掊克之臣，末流之弊，不可勝救。愚意莫若因制國用之名而遂修其實，明降詔旨，令逐州逐縣各具民田歲入幾何，非¹³⁾泛科率幾何，所收金谷¹⁴⁾總計幾何，諸色支費總計幾何，類會考究而大均節之。使州縣貧富不至甚相懸，則民力之慘舒，亦不至大相絕矣。如此然後，先王不忍人之政，庶乎其可施也。又屯田實邊，最爲寬民力之大者，須就今日邊郡官田，略以古法畫爲丘井溝洫之制，使通行之，使彼此無疆場之爭，軍民無雜耕之擾，此則非惟利於一時，又可漸爲復古之緒。今日養民之政，恐無出於兩者。其他忠邪得失，不敢概舉。但政本未清，倖門未窒，殊未有以見陽復之效。願更留意，暇日爲上一二精言之。至于¹⁵⁾省中職事，施行尤切，伏想直道而行，無所回互，不待愚言之及矣。

13) 非：[두주 ‘非’, 《大全》作‘特’.]이 있다.

14) 谷：[두주 ‘谷’, 唐本作‘穀’.]이 있다；《全書》‘穀’

15) 于：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于’, 唐本作‘於’.]가 있다；《全書》‘於’

節要0010(0110) (時事出處10) (卷1:19左) (晦庵集 卷25)

與呂伯恭書 〔東萊先生。○《年譜》，“丙申二月，歸婺源，省先塋。六月乃還，是月除祕書郎。”〕

熹六月初始得離婺源，扶病觸熱，幸免他虞。到家未幾，忽聞除命，出於望外，不知所爲。然向年所叨異恩，已是朝廷愍勞惠養之意，況今又兩三年，精力益衰，豈復尚堪從官？不免復以此意懇辭，當以力請必得爲期耳。昨日得韓丈書，遣時未有是說，然見人說韓丈嘗於榻前復及姓名，勢必緣此。若然，則是向來哀懇，都無絲毫之效，足見平生言行不相副，無以取信於人如此，使人皇恐，無地自容。向來冒受恩命，已是辭却一年，後來見無收殺，又思此既是朝廷美意，又直許其退閒，於理疑若可受，故不能終辭。然朋友四面之責，已不勝其喋喋。況昔已取彼，今復受此，則是眞爲龍¹⁾斷，無復廉恥，雖有子貢之辨²⁾，亦不復能自明矣。在熹一身，固無足道，然區區自守，略已半生，辛勤勞苦，無所成

▶ 呂祖謙：1137~1181. 字는 伯恭, 號는 東萊. 開封人. 婺州에 寓居하였다.

1) 龍：《全書》‘簞’

2) 辨：[두주 ‘辨’恐當作‘辯’.]이 있다.

就³⁾，韓丈又豈忍必破壞之邪？況世衰道微，士大夫假眞售僞，託公濟私者，方驚於世，若又開此一塗，使清官美職可以從容辭遜而得，年除歲遷，何所不至？則是此弊由熹致之。平生所以自任者，雖不足言，然又不至如此之輕，實不忍以身啓此弊，爲後世嗤笑。已作韓丈書懇之，幸因書更爲一言，使其察此衷誠，力贊廟堂，因其辭避，早爲寢罷，不使蹤跡布露，反取譴訶，則拙者之幸也。又況如老兄者，未忘經世之心，而又富有其具，乃未收用，而使此荒拙猥在其先，此又豈所宜邪？年來百念俱息，唯覺親勝己·資警益之樂爲無窮，何時復奉從容，豁此意耶？又向來見人陷於異端者，每以攻之爲樂·勝之爲喜。近來唯覺彼之迷昧爲可憐，而吾道不振之可憂，誠實痛傷，不能自己耳。此不知年老氣衰而然耶，抑亦漸得情性之正也？向見吾兄於儒·釋之辨不甚痛說，此固爲深厚。然不知者便謂高明有意陰主之，此利害不小。熹近日見得⁴⁾學者若於此處見得不分明，便使忠誠孝友有大過人之行，亦須有病痛處，其爲正道之害益深。正當共推血誠，力救此弊，乃是吾黨之責耳。

3) 成就：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就’下, 唐本有‘今日’二字.]가 있다；《全書》에는 뒤에 ‘今日’이 있다.

4) 見得：海州本·定州本 ‘得見’

【“尙堪從官”：‘官’當作‘宦’。下〈與留丞相劄〉，亦有‘不堪從宦’之語。
“韓丈”：無咎，伯恭婦翁。所以託伯恭，使懇於韓。“冒受愚命”：先是乾道
九年癸巳，有改秩宮觀之命，遜避逾年，上意猶堅，不得已拜命。“喋”：
達協切，多言貌。】

節要0011(0111) (時事出處11) (卷1:21左) (晦庵集 卷25)

答韓尙書書 【無咎，名元吉，號南澗。○辭祕書之命。】

區區行役，前月半間，始得還家。忽聞除命，出於意望之外，自視才能，豈稱茲選？愧懼窘迫，不知所爲。然竊妄意此必尙書丈過恩推挽之力。既而府中遞到六月十五日所賜書，傅丈亦以所得別紙垂示，乃知台意所以眷念不忘者果如此，私感雖深，然非本心平日所望於門下者。¹⁾ 熹狷介之性，矯揉²⁾萬方，而終不能回；迂疏之學，用力既深，而自信愈篤。以此自知決不能與時俯仰，以就功名。以故二十年來，自甘退藏，以求己志。所願欲者，不過修身守道以終餘年，因其假³⁾日，諷誦遺經，參考舊聞，以求聖賢立言本意之所在。既以自樂，間亦筆之於書，以與學者共之，且以待後世之君子而已，此外實無豪髮餘念也。中間懇辭召命，反誤寵褒，初亦不敢奉承。既而思之，是乃君相灼知無用之

▶ 韓元吉：1118~1187. 字는 無咎，號는 南澗. 開封人. 上饒에 寓居하였다. 和靖(尹焞)의 門人.

1) 者：[두주 ‘者’, 唐本作‘也’.]가 있다；《全書》‘也’

2) 揉：《全書》‘揉’

3) 假：[두주 ‘假’, 《大全》·《館本》作‘暇’]가 있다；海州本·定州本·《全書》‘暇’

實，而欲假以閔勞惠養之恩，故少進其官，益其祿，而卒許以投閒，似若有可受者，以故懇避踰年，而終於拜受。私竊以爲是足以上承朝廷之美意，而下得以自絕於名宦之涂⁴⁾，自是以往，其將得以優游卒歲，就其所業，而無蹙迫之慮矣。而事乃有大繆不然者，熹亦安得默然而亡言哉？夫以熹之狷介迂疏，不能俯仰，世俗固已聞風而疾之矣。獨賴一時賢公名卿，或有誤而知之，然聽於下風，考其行事議論之本末，則於鄙意所不能無疑者尙多。今若不辭而冒受，則賓主之間，異同之論，必有所不能免者，無益於治，而適所以爲群小嘲笑之資。且熹之私願所欲就者，亦將汨沒而不得成。其或收之桑榆，而幸有所就，人亦必以爲已試不驗之書而不之讀矣。又況今日一出，而前日所以斟酌辭受而不敢苟然之意，亦且黯闇而不能以自明。諸公誠知之深·愛之厚，則曷爲不求所以申其志·全其守，而必脅歐⁵⁾縱臾，使至此極也耶？且士大夫之辭受出處，又非獨其身之事而已，其所處之得失，乃關風俗之盛衰，故尤不可以不審也。⁶⁾若熹者，向既以辭召命而得改官矣，今又因其

4) 涂：[두주 《韻會》，“‘途’道[通]作‘涂’.”]가 있다；定州本·《全書》‘途’

5) 歐：海州本·定州本‘驅’；《全書》‘毆’

6) 且士大夫……不審也：海州本에는 ‘其所處……盛衰’에 백권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所改之官而有此授，熹若受而不辭，則是美官要職可以從容辭遜，安坐而必致之者。⁷⁾ 近世以來，風頹俗靡，士大夫倚託欺謾，以取爵位者，不可勝數，獨未有此一流耳。而熹適不幸，諸公必欲彊⁸⁾之，使充其數，熹雖不肖，實不忍以身蒙此辱，使天下後世持清議者，得以唾罵而嗤鄙之也。⁹⁾ 且熹之言此於門下有年，苦言悲懇，無所不至，而執事者聽之藐然，方且從容遊談，大爲引重，而其要歸成效則不過使之內違素心·外貽深誚而後已。¹⁰⁾ 此熹所不能識，且復竊自計，其平生言行，必有大不相副者，而使執事者不信其言以至此者。¹¹⁾ 深自悔責，無所歸咎，然亦不敢終默默於門下，是以敢復言之，伏惟憐而察焉。【“傳丈”：傳自得時爲建寧府。 “縱臾”：本作‘慫慂’，方言。南楚，凡己不欲喜怒，而旁人說者，謂之‘縱臾’。〈荊山王傳〉，“日夜縱臾”師古曰：“獎勸也。” “以至此者”：‘者’恐當作‘也’。】

방점이 있다.

7) 者：[두주 ‘者’, 唐本作‘也’.]가 있다；《全書》 ‘也’

8) 彊：定州本 ‘疆’

9) 近世以來……嗤鄙之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10) 其要歸……而後已：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11) 此者：[두주 ‘此者’之‘者’, 考唐本, 作‘也’.]가 있다；《全書》 ‘此也’

節要0012(0112) (時事出處12) (卷1:24右) (晦庵集 卷25)

答呂伯恭書 〔淳熙¹⁾五年，差知南康軍，辭免。東萊累書勉行，此其答。〕

所被恩命，以熹之資歷分義·精神筋力，皆無可受之理。雖感君相矜憐之意，重以仁賢說誘之勤，終未敢起拜而恭受也。區區之志，狀中備見。更有一事，自數年來，絕意名宦，凡百世務，人情禮節，一切放倒。今雖作數行書與人，亦覺不入時樣。唯在山林，則可以如此恣意打乖，人不怪責。一日出來作郡，承上接下，豈容如此？又已慣却心性，雖欲勉強，亦恐旋學不成，徒尔發其狂疾，此是一事。又數年來，次輯數書，近方略成頭緒，若得一向無事，數年不死，則區區所懷，可以無憾，而於後學亦或不爲無補。今若出補郡吏，日有簿書期會之勞·送往迎來之擾，將何暇以及此？因循歲月，或爲終身之恨，而其爲政又未必有以及人，是其一出，乃不過爲兒女飢寒之計，而所失殊非細事。此皆未易與外人道，故狀中不敢及之，只欲老兄知之，更爲宛轉緩頰，

1) 淳熙：海州本‘乾道’。今按：朱熹가 南康軍知事に 임용된 것은 淳熙5年(1178년)의 일이므로 海州本에서 ‘乾道’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朱子書節要 卷之一

使上不得罪於君相，下不見疑於士大夫，足以²⁾ 扶接導養之功，正應於此用力，想不以爲煩也. 〔“足以”：下疑有闕文. 不然，‘足’字恐是‘所’字.〕

2) 以：[두주 ‘以’, 考唐本, 作‘矣’.]가 있다; 《全書》 ‘矣’

節要0013(0113) (時事出處13) (卷1:25左) (晦庵集 卷25)

答鄭自明書 〔鑑.¹⁾ 陳俊卿壻. 見〈俊卿行狀〉.〕

副封曩恨未見，今茲幸得竊讀，感歎之餘，斂衽敬服。嘗竊論之，以爲非獨忠諒懇切有以過人，於才辨智略亦非人所能及。不知劉元城·陳了翁輩如何尔？上聖聰明，開納如此，一旦感寤，去鼠輩如反覆手耳。太平萬歲，雖老且病，尙庶幾及見之，幸甚幸甚。補郡懷章，雖鬱公議，然得以此閒暇進德修業，益懋久大之規，天意亦有非偶然者矣。更願深自培養，以厚其基，篤志講學，以濬其源，使誠意充積而鋒穎潛藏，義理著明而議論條暢，則一日復進而立於朝，其所以動寤啓發者，決不但如今日之所就而止也。蓋前日文字固爲剴切，但論事多而論理少，數群小之姦欺雖詳，而於人主之所以端本清源·修德立政之意有未備也。此其所以然者，失於逆料聽者謂之迂闊而不敢言，亦自於此理講之未²⁾精，不免

▶ 鄭鑑：1145~1182. 字_는 自明，號_는 植齋. 莆田人.

1) 鑑：海州本·定州本‘自明，鑑字也.’

2) 未：海州本‘不’

於自以爲迂闊而不足言也。此外則伯恭所告讀書取人之意，亦所宜深留意者。蓋吾人所立已如此，使天無意於右³⁾宋則已，若有此意，異日之事，豈得而辭其責哉？然則今日吾人之進德修業，乃是異時國家撥亂反正之所繫，非但一身之得失榮辱也。惟高明深念之。然講學之方，未得面論，猶頗以爲恨也。向來一番前輩，少日粗有時望，晚年出來，往往不滿人意，正坐講學不精，不見聖門廣大規模，少有所立，卽自以爲事業止此，更不求長進了，荊公所謂“末俗易高，險塗難盡”者，亦可驗⁴⁾也。〔“無意於右宋”：‘右’恐當作‘佑’。〕

3) 右：[두주 ‘右’, 《韻會》, “去聲, 助也. 《詩》, ‘保右命之’, 或作‘佑’.”]가 있다.

4) 驗：[두주 ‘驗’, 唐本作‘念’.]이 있다；《全書》‘念’

節要0014(0114) (時事出處14) (卷1:26左) (晦庵集 卷26)

與袁寺丞書 〔樞，字機仲，嘗爲宗正寺丞，號梅巖，有清名直節。○在南康.〕

熹失計此來，無可言者。初若稍可支吾，亦不敢必爲去計。今內則精神昏憤，兩目生花，白晝對人，往往坐睡，而省閱文案·簽書決遣之際爲尤甚。此一當去也。外則財用耗竭，支遣不行，性本疏拙，不能稽考收拾，恐更一二月，轉見狼狽。此二當去也。至於刑獄，最是重事，而一經監司何問，官吏便欲望風希旨，變異情節，則是此事亦復不得自專。此三當去也。鄙性伉直，不能俯仰，所以忍飢杜門，不敢萌仕進意。今行年五十，乃復變其所守，爲此睢盱，以求苟免於譴辱，中夜思之，旣以自愧，而當其俯仰之時，大悶不聊，深恐不能自抑而忽發其狂疾。此四當去也。到官兩月，思歸之情，不能自閤，往往無日不發於言語書問之間。官吏知之，亦不復以尊重難危見期。所以號令不行，財賦不辦。而熹以一身孤客於此，携小兒¹⁾甥在此，無婦女看當，無日不

▶ 袁樞：1131~1205. 字는 機仲, 號는 梅巖. 建安人.

1) 兒：《全書》에는 뒤에 ‘外’가 있다.

病。熹時又須自視問其醫藥。家中碎小，想見無人收拾，亦復不成模樣。業已不爲久計，又不容復往般取，以耗公家。此五當去也。蒙喻作書從班言路諸公，此非所憚。但初意只一二月間便去，故不能虛爲此以違素心。今既不能得去，又有所奏請，事勢須關白，已不免作書與之。但言語拙直，不能婉順，其間未必不有觸其忌諱者。或反以速其抨彈，亦不可知。此六當去也。向來閒中私竊有所論著，自謂庶幾可以傳前聖之心·開後學之耳目，實非細事。今既來此，無復功夫可以向此，而衰困漸盡，與死爲鄰，萬一溘然於此，則此事遂成千古之恨，非獨熹不瞑目而已也。此七當去也。當去之事，略數之，有此七條，其他曲折，不暇徧舉。熹亦已有書懇諸公丐祠，然又不敢盡言此意，只告尊兄，力爲一言，使必從所請，乃千萬之幸。大抵自度材力事勢，祠廟之外不選，甚差遣都做不得，小卽小狼狽，大卽大狼狽，遠卽遠狼狽，近卽近狼狽。諸公儻相哀憐，必欲扶持而全安之，豈應使至此極耶？【“睢盱”：小人喜悅貌。《韻府》同。“家中碎小想見無人收拾”：時令人新喪。“般取”：‘般’·‘搬’同，移也。“抨彈”：‘抨’，音佯，彈也。杜詩，“抨弓落猱鼯。”】

節要0015(0115) (時事出處15) (卷1:28左) (晦庵集 卷26)

與臺端書 〔侍御史. 號臺端, 他人稱曰端公.〕

熹未見顏色, 比輒妄以名姓自通, 方以僭瀆自咎, 乃蒙教答, 又枉手帖之誨. 降屈威重, 謀及疏遠, 此古人之事, 而執事者行之, 甚盛甚盛. 顧熹之愚, 不足以當之, 然敢無詞以對? 蓋嘗竊謂欲起膏肓之疾者, 必攻其受病之處, 而其用功之緩速·制藥之寒溫, 又有不可以頃刻毫釐差者. 今天下之病在膏肓者久矣, 夫人¹⁾而能知之, 夫人而欲言之, 顧以不當其任, 則雖欲一效其伎而無所施耳. 乃者天子以執事有廉靖貞孤之操, 擢置諫垣, 納用其言, 屏去姦惡, 皆所謂膏肓之餘證. 海內有志之士知上之心蓋已深悟隱疾之在躬, 而欲假執事之藥以去之也, 又知執事之心所以姑從事於此者, 蓋亦以爲之兆耳. 其必將有以繼²⁾之, 則夫所謂病本者, 可去無疑也. 然而側聽累月, 未有所聞, 則又懼夫二豎子者知

▶ 黃洽 : 1122~1200. 字는 德潤, 號는 東里. 福州 候官人. 御史臺 소속 侍御史를 臺端이라 불렀으며, 당시에는 黃洽이었다.

1) 夫人 : 定州本에는 [추가 ‘凡人’]이 있다.

2) 繼 : 《全書》 ‘謹’

良醫之傷己，而先爲術以去之，以是憂疑，不知所定。尚幸聖心堅定，不入其言，而又進執事於臺端之重，是必君臣之間已有一定之計，足以少慰士大夫心。然熹之愚，竊獨私憂過計，意夫姦賊窺見端倪，則其所以自爲謀者，必將愈深愈切而有先執事以發其機者，不審執事何以處之？蓋伐木而剪其支³⁾葉，不若斧其根；壅水而捍其波流，不若塞其源；鳴金鼓·耀戈甲而噪⁴⁾呼以逐虎，不若乘其方睡而斃之之速也。今執事則既撼而覺之矣，又猶欲緩視徐趨，以當其虓怒決裂之勢，熹竊爲執事者危之也。然此等小人，有生以來，自朝至暮，無非罪惡，不可殫數。且又人主素以倡優奴僕畜之，初不責其名檢，而問者議臣乃復挾撻苛細而一一以陳之，其不納則宜矣。唯其日侍燕閒，逢迎縱臾，使人主之心恬於逸欲，而法家拂士之言，不得以進，狃於卑近，而正大久遠之計，不得以聞，賄賂公行，姦邪堵立，蓋凡所以爲天下國家之綱紀者，日傾月壞，而上下相蒙，莫敢以告，是則此一二人之罪所以上通於天，而深爲今日膏肓之病者。執事誠能聲此爲罪，揚于王庭，深贊聖主去邪

3) 支：海州本·定州本·《全書》‘枝’；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韻會》, “‘枝’, 通作‘支.’]가 있다.

4) 噪：《全書》‘譟’

勿疑之志，又引同列之賢，合謀并力，以決去之，則天下膏肓之病者，庶幾其可去矣。太⁵⁾平萬歲，熹雖不武，尙能爲執事誦之，不識執事亦有意乎？熹比因三月九日指揮，已略爲明主言之矣。顧疏賤之言，未足取信，而或以取戾，謹已束裝，恭俟嚴譴。惟執事者，毋以爲戒而亟深圖之，則天下幸甚。

5) 太：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太’, 唐本作‘大’.]가 있다；定州本 ‘大’

節要0016(0116) (時事出處16) (卷1:31右) (晦庵集 卷26)

與皇甫帥書

熹生長閩中，又嘗試吏泉·漳之間，其地密邇江西頃歲山寇出沒之處。紹興十八九年間，朝廷屢遣重兵，卒不得志，甚者至於敗衄，狼狽不還。及後專委陳太尉【敏】，招募土兵而後克之，所謂左翼軍者是也。蓋此輩初無行陳部伍，憑恃險阻，跳踉山谷之間，正得用其長技。而官軍乃以堂堂之陳當之，地形兵勢，凡彼之所長者，皆我之所短，是以每戰而每不勝也。近年茶寇形勢，正亦如此，所以江西官兵屢爲所敗，而卒以摧鋒敢死之兵困之，此往事之明驗也。竊計今日湖廣之寇，正亦類此。熹願太尉養威持重，擇形勝之地，堅壁以待之，而廣募土人鄉兵，厚其金帛，結以恩意，使之出入山林，上下溪谷，以與此獠從事，則彼之長技正與賊同，又倚太尉之威聲，以順討逆，彼假息遊魂之衆，亦將何所逃其命哉？熹書生也，輒語兵事，近於僭率而可笑。然私心惓惓，竊恐太尉不勝忠義奮發之心，直欲以輕兵銳進，深窮巢穴，草薶而禽狝¹⁾之，則非計之得也。大率東南形

勢，絕與西北不同，願更博訪而審度之，以圖萬全之功，則區區之望也.

▶ 皇甫斌：〈諸子目錄〉에서는 皇甫氏로서 당시에 장수였던 이로 皇甫倬과 그의 아들 皇甫斌을 들고 이 편지의 수신인이 皇甫斌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1) 獮：海州本·《全書》‘獮’

節要0017(0117) (時事出處17) (卷1:32右) (晦庵集 卷26)

與丞相筇子 【在南康. ○時趙雄爲右丞相.】

熹昨蒙誤恩，畀以符竹，自度疏野，不堪委寄，累辭不獲，黽俛¹⁾就事，今十閱月矣。惟念君相所以眷顧使令之意，不敢不竭駑頓²⁾以圖報稱。而材力有限，疾病相仍，形苦心勞，卒無善狀，政荒財匱，歲惡民流。自去秋以來，知舊往來涉其境者，問於道塗，黃童白叟，無不愁歎蹙頞，或苦其刑政之苛，或病其征賦之重，以至流聞遠邇，亦莫不然，貽書譙責·提耳告戒者，殆無虛日。以故去冬嘗以公狀申省自劾，又以筇目哀鳴，冀得早蒙敷奏，亟賜罷免。而鈞慈含覆，未遽矜從。疏遠賤微，何敢固必？謹以抑心自強，祇服官次，不敢復有所言矣。而一二月來，國言愈甚，士友之責愈深，使人日夕憂惶，不知所以自處。夫爲政而不宜於民，爲所厭苦，至於如此，誠無心可居官府，無顏可食俸祿，不免

▶ 趙雄：1128~1193. 字는 溫叔. 宋 孝宗 때 右丞相을 지냈다.

1) 俛：[두주 ‘俛’, 《韻會》, “‘勉’通作‘俛’.”]가 있다.

2) 頓：[두주 ‘頓’, 《韻會》, “‘鈍’通作‘頓’, 〈賈誼傳〉, ‘鑠鄧爲頓.’”]이 있다.

復冒威嚴，再有陳請。而又竊惟某官終欲曲賜保全，不忍以其罪戾之跡聞於天聽，故於公筭更不敢具述如上曲折。儻蒙陶鎔，得以病免，其何幸如之！仰瀆高明，俯伏俟罪。〔“國言”：出《左傳》，謂國人之謗言。〕

節要0018(0118) (時事出處18) (卷1:33右) (晦庵集 卷26)

與丞相別紙

熹區區愚懇，已具前幅，復不自量，輒有踰涯之請。忘其罪戾，敢私言之。熹愚昧之資，少卽疏嬾¹⁾，書史之外，酷好山水。今以某官造化之力，乃得爲吏廬阜之下，其丘林泉石，號爲東南最殊勝處，固已私愜所願。而去歲勞農山閒²⁾，又得所謂白鹿洞者，溪山邃密，林趣茂美，尤有幽絕之致。熹惟是雖遐僻，而實先朝所嘗留意，不當廢墜至於如此，乃卽其處，復立七架小屋五間，亦已具狀申省矣。因竊妄意，以爲朝廷儻欲復修廢官，以闡祖宗崇儒右文之化，則熹雖不肖，請得充備洞主之員，將與一二學徒讀書講道於其間，庶幾上有以副知遇使令之意，下有以遂其平生之懷。若復更蒙矜憐，假之稍廩，略如祠官之入，則在熹又爲過望，而於州縣亦不甚至有糜耗。顧以事體希闊，言之若草野而倨侮者，是以不敢輒具公狀申聞。惟冀鈞慈，深察愚悃，都

1) 嬾：《全集》‘懶’

2) 閒：定州本·《全集》‘間’

俞之暇，因事及之。萬一可從，則熹之受賜爲不淺矣。
狂妄之罪，亦惟有以寬之。〔“林趣”：‘趣’恐當作‘壑’。〕

節要0019(0119) (時事出處19) (卷1:34右) (晦庵集 卷26)

答黃教授書 〔灝，字商伯，南康人¹⁾，所以有仁里之云。〕

熹無狀，居此一年有餘，率意直前，不能違道干譽，得罪於士民多矣。請祠雖已報聞，然旦夕自當以他罪行遣，不至久爲仁里之害也。示喻曲折，深荷愛念。然必欲使熹餒啗虎狼²⁾，保養蛇蠍³⁾，使姦猾肆行，無所畏憚，而得歌頌之聲洋溢遠近，則亦平生素心所不爲也。姓高人事，文叔在此，備見首尾。此而可恕，則亦無以官吏爲矣。至如木炭錢事，亦是州郡所當爲，而幸上司之見聽，方恨不能推類盡蠲苛擾，初不以是而求歌頌於斯人也。區區不喜自辨⁴⁾，又於老兄不可有隱情，故久不知所以爲報，今偶有便，信筆及之，非欲較比是非，亦欲老兄深察於公私名實之間，而眞得其所謂本心之正⁵⁾耳。

▶ 黃灝：1130~1200. 字는 商伯. 南康 都昌人. 西坡先生이라 불림.

1) 南康人：海州本에는 앞에 ‘疑是’가 있다.

2) 虎狼：海州本 ‘狼虎’

3) 蠍：海州本·定州本 ‘蝎’. 今按：海州本·定州本の ‘蝎’은 誤字인 듯하다.

4) 辨：《全書》 ‘辯’

5) 本心之正：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節要0020(0120) (時事出處20) (卷1:34左) (晦庵集 卷26)

與王運使筇子 〔在南康.〕

熹復有少稟。近準使牒奉行詔書，取會本軍金谷¹⁾出納大數。初欲一一從實供申，偶會得池州式樣，官吏皆以爲當放其所爲，可無後悔，遂止據有正當窠名合收之數以爲收支之數，而凡州郡多方措畫以添助支遣者，皆不敢載。大約所供才十之二三，而米猶不在數中也。見欲一面如此攢寫供申，然在鄙意，終有未安。蓋聖詔所爲丁寧，使臺所謂取索，凡以欲知州縣有無之實而均給之，以寬民力耳。今乃如此，在熹素心，則爲上欺使臺以及君父，在州郡利害，則恐今既自謂有餘，後日將不得蒙均給之惠，以病其民也。是以深竊疑之，未敢不以實對。然官吏之說，則又有二端焉。其一以爲州郡措置所收窠名多不正當，恐有詰責，莫任其咎。此則便文自營之計，熹所不敢避也。其一以爲若盡實供具出數，今

▶ 王運使：未詳何人，或云王藺。王藺은 ? ~1214. 字는 謙仲，號는 軒山居士. 无爲軍廬江縣人.

1) 谷：海州本·定州本·《全書》‘穀’

日固未必實有均給之惠，而盡實供具入數，異時上官所見不同，或將按籍而取之，則州郡必致重困。此則其說不爲無理，而熹有所不敢違也。是以尤竊疑之，又未敢遽以實對。伏念旬日，不能自定。敢以此私于下執事，伏惟台慈開示所鄉，使得奉以從事，不勝幸甚。

節要0021(0121) (時事出處21) (卷1:35左) (晦庵集 卷26)

與顏漕筍子 〔淳熙辛丑，除提舉浙東常平茶鹽公事。時本路荐饑，不敢辭，即日單車上道。此其翌年竣事時書也。〕

熹衰病之餘，彊顏一出，適此大侵，費縣官數十萬，而越人之殍猶不可以數計。俯仰幽明，跼蹐憂愧，殆未易以言喻也。加以伉拙，不堪世俗之迫隘，中間求去不得，復此宿留。今幸二麥登場，賑救訖事，見攢帳目申發，即尋前請，庶幾觀變玩占，可以無大過耳。浙東山¹⁾佳處，都未得放懷登覽，剡中雖兩到，然憂累方深，無復佳興也。若便得報罷，當取道石橋·龍湫以歸，庶不負此行耳。

▶ 顏漕：未詳爲某，疑是顏師魯。顏師魯는 1118~1193. 字 幾聖. 福建 漳州人.

1) 山：海州本에는 [주목추기 ‘山’下當有‘水’字.]가 있다.

節要0022(0122) (時事出處22) (卷1:36右) (晦庵集 卷26)

上宰相書 [同上。○時宰王淮.]

熹嘗謂天下之事有緩急之勢，朝廷之政有緩急之宜。當緩而急，則繁細苛察，無以存大體，而朝廷之氣爲之不舒；當急而緩，則怠慢廢弛，無以赴事幾，而天下之事日入於壞。竊觀今日之勢，可謂當急而不可緩者矣。然今日之政則反是，愚不知其何以然也。去歲諸路之飢，浙東爲甚，浙東之飢，紹興爲甚。聖天子閔念元元之無辜，傾困倒廩以救之，而甚者至出內帑之藏以補其不足，德意之厚，與天同功。熹於是時憊臥田野，而明公實推挽之，使得與被使令趨走之末。仰惟知遇，撫已慚忤。然自受任以來，夙夜憂歎，恐無以仰承聖天子之明命而辱明公之知於此時也，是以不憚奔走之勞，不厭奏請之煩，以盡其職之當爲者，求以報塞萬一。而乃奏請諸事多見抑却，幸而從者，又率稽緩後時，無益於事。而其甚者，則又漠然無所可否，若墮深井之中。至其又甚者，則遂至於按劾不行，反遭傷中。而明公意所左右，又自曉然，使人憤懣，自悔其來，而求去不得。比

日以來，旱勢復作，雖已一面多方祈禱，必冀感通，然天道高遠，事有不可期者。而上自大農，下及閭巷，公私蓄積，頻年發散，亦自無餘，後日之憂，必有萬倍於前日者。熹是以徬徨怵迫，而復冒昧一罄其愚，惟明公試幸聽之。且以荒政論之，則於天下之事最爲當急而不可緩者。而荒政之中有兩事焉，又其甚急而不可少緩者也。一曰給降緡錢，廣糴米斛。¹⁾ 今二廣之米，艫舳相接於四明之境，乘時收糴，不至甚貴。而又顆粒勻淨，不雜糠粃，乾燥堅碩，可以久藏。欲望明公察此事理，特與敷奏，給降²⁾緡錢三二百萬，付熹收糴，則百萬之粟，旬月可辦。儲蓄既多，緩急足用，政使朝廷別有支撥，一紙朝馳而米夕發矣。且往時不免轉大農之粟發內帑之幣，以應四方之求矣，積之於此，與彼何異？而又乘賤廣糴，利重費輕，殆與臨期支撥糴貴傷財者不可同日而語。且今米船已集，求售無所，停住日久，坐失本利，後者懲創，因不復來，無窮之害，實自今始。此一事也。二曰速行賞典，激勵富室。³⁾ 蓋此一策，本以誘

▶ 王淮：1126~1189. 字는 季海. 당시 左丞相을 지냈다.

1) 一曰……米斛：海州本에는 ‘一’에만 방점이 있다.

2) 給降：《全書》‘降給’

3) 二曰……富室：海州本에는 ‘二’에만 방점이 있다.

民，事急則籍之以爲一時之用，事定則酬之以爲後日之勸。旋觀今日，失信已多，別有緩急，何以使衆？欲望明公察此事理，特與敷奏，照會元降，卽與推恩，使已輸者無怨恨不滿之意，未輸者有歆豔慕用之心。信令旣行，願應者衆，則緩急之間，雖百萬之粟，可指揮而辦。況是此策不關經費，揆時度事，最爲利宜。而乃遷延歲月，沮抑百端，使去歲者至今未及霑賞，而今歲者方且反覆却難，未見涯際，是失信天下，固足以爲今日之所甚憂，而自壞其權宜濟事之策者，亦今日之所可惜也。謀國之計乖戾若比⁴⁾，臨事而悔，其可及哉？此二事也。然或者之論，則以爲朝廷撙節財用，重惜名器，以爲國之大政將在於此，二者之請，恐難必濟。愚竊以爲不然也。夫撙節財用，在於塞侵欺滲漏之弊；愛惜名器，在於抑無功幸得之賞。今將預儲積蓄，以大爲一方之備，則非所謂侵欺滲漏之弊也；推行恩賞，以昭示國家之信，則非所謂無功幸得之賞也。且國家經費用度至廣，而耗於養兵者十而八九，至於將帥之臣，則以軍籍之虛數而濟其侵欺之姦；餽軍之臣則以簿籍之虛文而行其盜竊之計。苞苴輦載，爭多鬪巧，以歸於權倖之門者，

4) 比：《全書》‘此’。今按：문맥으로 보아 ‘此’가 옳다.

歲不知其幾巨萬。明公不此之正，顧乃規規焉較計豪末於飢民口吻之中，以是爲撙節財用之計，愚不知其何說也。國家官爵布滿天下，而所以予之者，非可以限數也。今上自執政，下及庶僚，內而侍從之華，外而牧守之重，皆可以交結託附而得。而北來歸正之人·近習戚里之輩，大者荷旄仗⁵⁾節，小者正任橫行，又不知其幾何人。明公不此之愛，而顧愛此迪功·文學·承信·校尉十數人之賞，以爲重惜名器之計，愚亦不知其何說也。然熹亦嘗竊思其故而得其說矣。大抵朝廷愛民之心不如惜費之甚，是以不肯爲極力救民之事，明公憂國之念不如愛身之切，是以但務爲阿諛順指之計，此其自謀可謂盡矣，然自旁觀者論之，則亦可謂不思之甚者也。蓋民之與財，孰輕孰重？身之與國，孰大孰小？財散猶可復聚，民心一失，則不可以復收；身危猶可復安，國勢一傾，則不可以復正。至於民散國危而措身無所，則其所聚有不爲大盜積者耶？明公試觀自古國家傾覆之由，何嘗不起於盜賊？盜賊竊發之端，何嘗不生於飢餓？赤眉·黃巾·葛榮·黃巢之徒，其已事可見也。數公當此無事之時，處置一二小事，尙且瞻前顧後，踰時越月而不

5) 仗：海州本·定州本‘杖’

能有所定，萬一荐饑之餘事果有不可知者，不審明公何以處之？明公自度果有以處之，則熹不敢言。若果無以處之，則與其拱手熟視而俟其禍敗之必至，孰若圖難於易，圖大於細，有以消弭其端而使之不至於此也？古之人固有雍容深密不可窺測，平居默然若無所營，而臨大事·決大策，不動聲氣而措天下於太山⁶⁾之安者。然從今觀之，自其平日無事之時，而規撫⁷⁾措畫固已先定於胸中，是以應變之際敏妙神速，決不若是其泄泄而杳杳也。況今祖宗之讎恥未報，文武之境土未復，主上憂勞惕厲，未嘗一日忘北向之志，而民貧兵怨，中外空虛，綱紀陵夷，風俗敗壞，政使風調雨節，時和歲豐，尚不可謂之無事，況其飢饉狼狽至於如此！爲大臣者乃不愛惜分陰，勤勞庶務，如周公之坐以待旦，如武侯之經事綜物，以成上意之所欲爲者，顧欲從容偃仰，玩歲愒日，以僥倖目前之無事。殊不知如此不已，禍本日深。熹恐所憂者當不在於流殍，而在於盜賊；受其害者當不止於官吏，而及於邦家。竊不自勝漆室嫠婦之憂。一念至此，心膽墮地，念不可不一爲明主言之，而猶未敢率

6) 太山：海州本·定州本‘泰山’

7) 撫：[두주 ‘撫’，唐本作‘撫’。《韻會》，“‘模’或作‘撫’。从木，是。”]가 있다；《全書》‘模’

然以進，敢先以告於下執事。惟明公深察其言，以前日遲頓寬緩之咎自列於明主之前，君臣相誓，務以盡變前規，共趨時務之急，而爲⁸⁾熹所陳荒政一二事者少加意焉，則熹雖衰病不堪吏役，尚可勉悉疲駑，以備鞭策。至其必不可支吾而去，後來之人，亦得以因其已成之緒葺理整頓，仰分顧憂。如其不然，則熹之愚昧衰遲，固不能爲此無麪之不托，而其狂妄，將有不能忍於明主之前者。明公不如早罷其官守，解其印綬，使⁹⁾毋得以其狂瞽之言上瀆聖聰，則熹也謹當緘口結舌，歸臥田間，養鷄種黍，以俟明公功業之成而羞愧以死，是亦明公始終之厚賜也。〔“按劾不行”：按唐仲友事。“餽”：音運，野餉也。“葛榮”：元魏 明帝時叛賊。“無麪之不托”：《韻會》麪入湯煮曰不托。今日餽餽無麪，固不能爲‘不托’。猶無米穀，不能爲救荒也。〕

8) 爲：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爲’, 唐本作‘於’]가 있다；《全書》‘於’

9) 使：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朱子書節要 卷之二 諸子目錄 【時事出處】

〔趙帥〕 名汝愚，字子直，宗室。居餘干。登第，嘗帥福建。光宗疾未執喪，公時知樞密，定策立寧宗，忠存社稷。拜左¹⁾相，爲韓侂胄所誣，謫死，天下冤之。後諡忠定。

〔梁丞相〕 名克家，字叔子。泉州晉江人。進士第一。相孝宗，風度峻整，力調護善類。諡文靖。

〔陳丞相〕 見上。

〔詹帥〕 帥，卽祭文所謂詹侍郎，而彼此皆不著名字。然此數書及祭文推重之辭，與論廣西鹽法事皆同，而下卷有答詹體仁 儀之書，論湘中學者之病，而欲其救之，其推重亦同，疑帥卽儀之也。朱門又有詹姓，名體仁，字元善者。然考其首末，與此自是兩人也。

〔周丞相〕 名必大，字子充，號平園。廬陵人。紹興進士，在翰苑制命，爲一時冠。相孝宗·光宗，何澹劾，出與祠。慶元僞禁，以公與趙汝愚·留正爲罪首。後諡文忠。

〔陳同甫〕 名亮。婺州永康人。才氣超邁，議論風生，

1) 左：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左’當作‘右’.]가 있다.

數上書言事，落落不合。後擢第授官，一夕卒。後諡文毅。○見《言行錄》。

〔李誠父〕 名信甫。延平先生之子。

〔張元善〕 先生嘗與李伯諫書云：“《通鑑》，南北朝，已託元善。”又云：“宋以後事，張元善已修得大字數卷來。”

〔留丞相〕 名正，字仲至。泉州永春人。孝宗末以右相受顧命。趙相定策立寧宗，公議不合，逃去，俄召復相。侂冑怒公，使劉德秀論去。後封魏公。卒，諡忠宣。

〔趙帥〕 見上。

〔趙尚書〕 卽趙帥。

〔留丞相〕 見上。

〔王樞使〕 名藺，字謙仲。廬江人。孝宗曰：“磊磊落落，惟卿一人。”公盡言無隱，疾²⁾惡太甚。

〔趙丞相〕 卽趙尚書。

〔李季章〕 名璧。眉之丹稜人。熹之子。侂冑，平章軍國事，公草其制，又爲草出師詔，拜參政。侂冑誅公，被謫，後復官。卒，諡文懿。有《鴈湖集》，又註《王荊公詩集》。

2) 疾：川谷本·全州本에는 [두주 ‘疾’本作‘嫉’.]이 있다.

【黃仁卿】名東，福州閩縣人。任沙縣丞。勉齋之兄。

【李公晦】名方子，號果齋。邵武光澤人。進士，爲國子學錄。端謹純篤，博學能文，爲學見大本。著《傳心精語》·《紫陽年譜》。○見《宋史·道學傳》。

【鄭參政】名僑，字惠叔。莆田人。進士第一，在政府，以不欺事君令名大節爲世所重。

【李季章】見上。

【留丞相】見上。

【楊子直】名方。長汀人。登第，仕至廣西漕使。久從先生游。有《語錄》。但性剛拗，於師門有不合，亦形於忿懟。

【項平父】名安世，號平菴。江陵人，一云括蒼人。登第，仕至龍圖湖南運判。以曾斬吳獵幕客王度報私怨，劾罷。著《易玩辭》等書。

【張定叟】名杓。³⁾ 南軒之弟。官至端明殿學士。天分高爽，吏材敏給，屢知臨安，南渡以來，京尹以杓為首。

【劉季章】名黼。廬陵人。特奏第一人。《鶴林玉露》稱爲醇儒。

【黃直卿】名榦，號勉齋。仁卿弟。蔭補，仕至主管

3) 杓：[두주 ‘杓’，《大全》·《宋史》·《一統志》皆作‘杓’.]이 있다.

明道宮．先生稱“其志堅思苦，與之處，甚有益”，以子妻之．臨終，授以深衣曰：“吾道之託在此．”公持心喪三年．諡文肅．著《儀禮經傳續解》·《文集》若干卷．
○見《宋史·道學傳》．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23(0201) (時事出處23-1~2) (卷2:1右) (晦庵集 卷27)

與趙帥書 [汝愚. 字子直. ○此下至詹帥書, 未詳年月. ○據《年譜》, 自淳熙壬寅辭江西提刑, 差主管台州 崇道觀, 復差雲臺·鴻慶, 至丁未, 復除江西提刑. 詳此數書, 當是奉祠在閒時也.]

(時事出處23-1)

適聞崇安宰丞同到精舍, 云被使檄有所營造, 不知果然否? 此是私家齋舍, 不當慫煩官司. 不唯在熹私義有所不安, 加以蹤跡孤危, 動輒得謗, 今更坐役官司, 起造屋宇, 此正是好題目, 彼等使¹⁾日夜窺伺而不可得者. 侍郎見念之悉, 豈當以此禍餉之乎? 春間在彼, 亦有朋友數人, 欲爲營葺, 已定要束矣. 尋聞去歲有人偽印圖榜, 列熹及劉平父名銜, 勸緣題疏, 有一後生親見印本. 因思如此乃是爲實前謗²⁾, 遂報諸人, 罷其所謀.

▶ 趙汝愚: 1140~1196. 字는 子直. 餘干에 거주하였다.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使: 기준본에는 [추가 按柳眉巖校本《大全》, ‘使’作‘所’.]가 있고, 川谷本에도 [추가 ‘使’, 《大全》作‘所’]있으며, 全州本에는 [두주 ‘使’, 《大全》作‘所’.]가 있다; 《全書》 ‘所’

2) 謗: 定州本에는 [추가 ‘謗’當作‘榜’.]이 있다.

況今乃煩官司，豈得爲穩便乎？向嘗蒙喻，蓋已有此意。其時亦嘗具稟，委之官司，恐不穩便，但未嘗究其說耳。官司爲之，於義既不可，於事亦不便。蓋其一則必有搔³⁾擾，其二則不能如法，萬一爲之，自此熹更不敢入精舍矣。聞之憂恐，急作此附遞拜懇，乞且行下罷役。若台意必欲不虛前諾，徐別圖之，亦未晚也。『“爲實前謗”：‘謗’疑當作‘榜’，卽圖榜也。』

(時事出處23-2)

熹衰病之餘，災患踵至，殊不自堪。伏蒙問恤，良以爲感。又蒙軫其乏絕，割清俸以周之，仰認眷存，尤切愧荷。但窮巷書生，蔬⁴⁾食菜羹，自其常分，不知後生輩以爲創見，便尔傳說，致誤台慈以爲深憂，亟加救接，至於如此。在熹之義，豈當復有辭避？實以近日偶復粗可支吾，未敢虛辱厚意，謹已復授來使，且以歸納。萬一他日窘急有甚於今，當別稟請，以卒承嘉惠也。人參·附子則已敬拜賜矣。但少有鄙懷，冒洩台聽，不審高明以近日所處劉家典庫事爲如何？若熹鄙見，則竊

3) 搔：海州本·定州本‘騷’

4) 蔬：海州本·定州本·《全書》‘疏’

以爲甚不類門下平日之舉措也。鄉里自此旬月以來，閭巷聚談，有識竊歎，下至三尺童子，亦皆憤然有不平之氣。熹恐門下於此偶未之思也。行迷雖遠，尙及改圖，以全素節，以息流議，不審門下亦有意乎？如其不然，則天下之士，將有以夷虜之道疑於門下而不入其鄉者矣。此熹之所大恐，蓋不特爲劉氏遊說也。久辱知遇，不敢不盡所懷，雖被譴絕，所不敢辭，伏惟有以察之而已。

節要0024(0202) (時事出處24) (卷2:3右) (晦庵集 卷27)

答梁丞相書 〔克家, 淳熙九年, 再入相.〕

熹伏讀賜教, 盛德不居, 退託愚懦, 仰惟明公之心正大光明, 表裏洞徹, 無一豪有我自私之意. 而熹以妄庸受知之久, 又勤下問, 至於如此, 亦豈能愒然自閉, 一無所進, 以效其尺寸之愚哉? 但以正此退藏, 不當出位, 是以於政體之是非·人材之邪正, 一豪不敢有所陳說, 而獨請以王通所謂願君侯正身以統天下者, 敬爲明公誦之.¹⁾ 其言雖近, 其指則遠, 伏惟明公於此試留意焉, 廣引人材, 勤攻己缺²⁾, 使凡政事之出於我者, 無一疵之可指, 則上以正君, 下以正人, 將無所求而不得. 如其不然, 則事之小不正者, 積之之多, 亦足以害吾之大正, 使吾至大至剛之氣, 自有所屈於中, 而德望威名, 自有所損於外, 是則且將見正於人之不暇, 尙何望其能

▶ 梁克家：1127~1178. 字는 叔子. 泉州 晉江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願君侯……誦之：海州本에는 ‘願君侯……通天下’에만 방점이 있다.

2) 缺：[두주 ‘缺’, 唐本作‘闕’.]이 있다；《全書》‘闕’

朱子書節要 卷之二

有正君定國之功哉？今天心未豫，而民力已殫，國威未振，而虜情叵測，惟明公於此深念而亟圖之，則熹也受賜多矣。狂言犯分，亦惟高明有以寬之。

節要0025(0203) (時事出處25) (卷2:3左) (晦庵集 卷27)

與陳丞相書 【見上. ○俊卿】

并伯¹⁾書云，廉夫有學《易》之意，甚善。然此書難讀，今之說者，多是不得聖人本來作經立言之意，而緣文生義，硬說道理。故雖說得行，而揆以人情，終無意味。頃來蓋嘗極意研索，亦僅得其一二，而所未曉者尚多。竊意莫若且讀《詩》·《書》·《論》·《孟》之屬，言近指遠而切於學者日用功夫也。抑嘗聞之，元城劉忠定公有言：“子弟寧可終歲不讀書，而不可一日近小人。”此言極有味。大抵諸郎爲學，正當以得師爲急，擇友爲難耳。【“并伯”：‘并’當作‘井’。林成季，字井伯，先生〈答井伯書〉，亦言此事，見《別集》四卷。“廉夫”：丞相孫。】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并伯：[두주 ‘并’, 考唐本, 作‘井’.]가 있다；定州本·《全書》‘井伯’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26(0204) (時事出處26-1~3) (卷2:4左) (晦庵集 卷27)

答詹帥書 [見《大全》八十七卷祭文. ○疑是詹儀之, 詳見〈目錄〉.]

(時事出處26-1)

熹自頃拜狀之後, 涉秋以來, 百病交攻, 幸以餘庇未至委頓, 以故所委文字久未能寫. 及來使到, 伏奉賜書, 乃始下筆, 欲俟其還自三山而授之. 而屢寫輒不入意, 比其還也, 猶三四易紙, 收拾補綴, 又五六日然後畢. 要是本不能書, 而又嘗略識古人書法, 不敢信手胡寫, 以孤見屬之意, 勉強爲之, 終是不能成字. 今既無收殺, 只得封納, 可用與否, 更在高明財¹⁾之也. 補貼處不入行道, 須得善工識字體者僂那取正. 其墨水寢漬, 不見元筆路處, 并令照應修減乃佳. [“僂”: 音纂, 聚也. “那”: 移也.]

▶ 詹儀之: 1123~1189. 字는 體仁. 健德府 遂安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3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財: [두주 ‘財’, 《韻會》, “‘裁’通作‘財’.”]가 있다.

(時事出處26-2)

熹向蒙下諭欲見諸經鄙說，初意淺陋，不足薦聞。但謂庶幾因此可以求教，故卽寫呈，不敢自匿。然亦自知其間必有乖繆以失聖賢本指·誤學者眼目處，故嘗布懇，乞勿示人。區區此意，非但爲一時謙遜之美而已也。不謂誠意不積，不能動人，今辱垂諭，乃聞已遂刊刻。聞之惘然，繼以驚懼。向若預知遣人抄錄之意已出於此，則其不敢承命固已久矣。見事之晚，雖悔莫追。竊惟此事利害，如前所陳，所繫已不細矣。又況賤迹方以虛聲橫遭口語，玷黜之禍，上及前賢，爲熹之計，政使深自晦匿，尙恐未能免禍。今侍郎丈乃以見愛之深·衛道之切，不暇以消息盈虛之理推之，至爲刻畫其書，流布遠近，若將以是與之較彊弱·爭勝負者。熹恐其未能有補於世教，而適以重不敏之罪，且於門下亦或未免分朋樹黨之譏。蓋未論東京禁錮·白馬清流之禍，而近世程伯禹·洪慶善之事亦可鑒矣。豈可遽謂今之君子不能爲前日之一德大臣³⁾耶？況所說經固有嫌於時事而不能避忌者，【如《中庸》九經之類。】指爲訕上而加以刑誅，亦何不可乎？去歲建昌學官偶爲刻舊作〈感興〉詩，遂爲諸生注釋，以

3) 一德大臣：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爲謗讟而納之臺諫，此教官者，幾與林子方俱被論列，此尤⁴⁾近事之明鏡。雖若無足畏避，然亦何苦而直觸此姦慝之鋒耶？欲布愚懇，便乞寢罷其事，又恐已興工役，用過官錢，不可自己。熹今有公狀申使府，欲望書押入案，收索焚毀。其已用過工費，仍乞示下實數，熹雖貧，破產還納，所不辭也。如其不然，此輩決不但已。一身目前利害初不足道，正恐以是反爲此道無窮之害耳。切乞更入思慮，不憚速改，千萬幸甚！但今日紛紛，本非爲程氏發，但承望風旨，視其人之所在而攻之耳。若此人尙談清虛，則并攻老子；幸修齋戒，則兼詆釋迦；曾讀《三經》·《字說》，則攻王氏；曾讀《權書》·《衡論》，則斥三蘇。怒室色市，彼亦何嘗有定論而可與之較是非曲直哉？但不察此而欲力與之爭，則必反以激成其勢而益堅其說，或遂眞爲道學之害，亦不爲難。此尤不可不慮耳。當時與王信伯辨者，恐亦尙是近道理人，故得以此言屈之。若在今日，彼豈有憚於此耶？『白馬清流』：白馬之禍，見《唐史》昭宣二年。“程伯禹洪慶善之事”：程瑀，字伯禹，著《論語說》；洪興祖，字慶善，序之。有人刊行，秦檜見而怒，抵二人罪，毀其板。“一德大臣”：指檜。“王信伯”：王頴，

4) 尤：海州本·定州本‘又’

字信伯，見《言行錄》。』

(時事出處26-3)

伏蒙開喻印書利病，敬悉雅意。然愚意本爲所著未成次第，每經繙閱，必有修改，是於中心實未有自得處，不可流傳以誤後學。加以此道年來方爲群小灰目，竊味聖賢垂戒，欲知進退存亡而不失其正之指，只合杜門却掃，陰與同志深究力行，以俟道之將行。不當如此用官錢刻私書，故觸其所不欲聞者，使其有所指以爲病，而其禍且上流於此學，使天下鉗口結舌，莫敢信鄉。是則欲道之行而反以扼⁷⁾之，此稷下·甘陵所以基坑焚黨錮之禍也。然今竊味台誨，必以利害休戚置之度外爲說，則亦無可言者。但兩年以來，節次改定，又已不少，其間極有大義所繫不可不改者，亦有一兩文字，若無利害，而不改終覺有病者。今不免就所示印本改定納呈，欲乞暇日一賜省覽，卽見前日之繆。本非可傳之書，削而焚之，上也；鐫而藏之，次也；必不得已，則改而正之，其字多於舊處，分作兩行注字亦可，此則最爲下策。雖未必便能不誤學者，亦且粗滿區區今日之心，然後患之

7) 扼：《全書》‘扼’

來，可以立矣。熹非自愛而憂之，實懼其不知妄作，未能有補於斯道斯民，而反爲之禍也。伏惟執事試深思之。浙中近年⁸⁾怪論百出，駭人聞聽，壞人心術，強者唱，弱者和，淫衍四出，而頗亦自附於伯恭。侍郎丈在遠，未必聞之。他日還朝，當爲深歎息也。高教授能留意學校，甚善。渠嘗從陸子靜學，有意爲己，必能開道其人也。近日諸處教官，亦有肯留意教導⁹⁾者，然其所習不過科舉之業，伎倆愈精，心術愈壞，蓋不如不教猶足以全其純愚之爲愈也。

8) 年：海州本·定州本‘來’

9) 導：海州本·定州本‘道’

節要0027(0205) (時事出處27-1~2) (卷2:8左) (晦庵集 卷27~28)

與周丞相書 〔必大. 字子充, 號平園. ○丁未三月, 差主管南京鴻慶宮, 七月, 除江西提刑, 辭, 不允.〕

(時事出處27-1)

熹遽被誤恩, 懇辭報聞, 未敢再告. 而袁吏部經由, 出示所被賜教別紙, 所以存問之意甚厚, 然於愚分, 終不自安. 近者忽聞江西代者以人言報罷, 有旨趣熹躬聽臨遣. 聞命隕越, 不知所爲. 既而方知正以丞相開陳之故, 是以有此. 熹竊恨丞相前日之賜不終, 而虛爲此紛紛也. 熹之衰病, 首尾七年, 去冬一二陰邪危惡之證, 雖已罷去, 然腹心之患, 甫益堅牢, 攻擊萬方, 略無動意. 若不自揆, 冒昧輕進, 竊恐不惟自取顛蹶, 亦或反貽丞相軫念之憂. 故今輒有笥子復申前懇, 欲望丞相始終哀憐, 少假鈞陶之力, 使得復供鴻慶守祧之役, 則生託榮名, 死題墓道, 無復有遺恨. 熹舊讀崔德符〈觀魚作〉詩, 有“丈夫五十年, 要須識行藏”之句, 未嘗不反

▶ 周必大: 1126~1204. 字는 子充, 號는 平園. 廬陵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復詠歎而有動於懷，不謂今日真踐斯境，而益知其言之有味也。

(時事出處27-2)

熹前日專人奏記，伏想尋當登徹。昨日先所遣人還，拜領鈞翰之賜，感慰之極，不可具言。至於進職疏恩，奉祠得請，又出陶鑄，尤以銜戢。然而丞相方且歛然深以前日不能力辨是非爲病，此則仰見大君子責己之周，又不自勝其愧仰也。崇福謹已拜命矣。惟是進職之恩，則有所未安者。蓋方以避仇自列，而彼黜已升，內揆於心，尙覺未免上九“繫帶”之嫌，況於他人，豈容戶曉？且於近制，此等遷除，雖非德選，亦必有所託以爲號。今此何名也哉？又況溫陵之行，情狀未白，此必快快尙有餘言。且其爲人亦嘗頗有時譽，今日之去，遠近必有爲之不平者。異時得以藉口，則非獨爲熹之害，竊恐丞相亦不得不以爲慮也。大抵近年習俗，凡事不欲以大公至正之道顯然行之，而每區區委曲於私恩小惠之際，本欲人人而悅之，而其末流之弊，常反至於左右拘牽，倍費財處，而卒又無以慰天下之公論。此則熹之所不敢言，而丞相之明，其自知之，亦不待熹之言矣。熹今有

公狀申省，并以笥子徧懇群公，語悉由衷，卽非備禮。切望矜察，早賜開陳，得遂鄙懷，乃荷大賜。〔“進職疏恩奉祠得請”：戊申七月，先生赴江西提刑，行且辭。八月又以足疾丐祠，除直寶文閣，主管西京崇福宮，辭職名及磨勘，皆不許，轉朝奉郎。“彼黜己升”：侍御史胡晉臣論林栗，出知泉州。“溫陵”：泉州也，指栗。〕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28(0206) (時事出處28-1~2) (卷2:10左) (晦庵集 卷28)

答陳同父書 〔亮〕

(時事出處28-1)

熹迂滯之見，書中已說盡，自看一過，亦覺難行，次第八九分是且罷休矣。萬一不如所料，又須別相度，今亦不可預定耳。來教所云，心亦慮之，但鄙意到此轉覺懶怯，況本來只是間¹⁾界學問，更過五七日，便是六十歲人，近方措置，種得幾畦杞菊，若一脚出門，便不能得此物喫，不是小事。奉告老兄，且莫相攛²⁾掇。留取閒漢在山裏咬菜根，與人無相干涉，了却幾卷殘書，與村秀才子尋行數墨，亦是一事。古往今來，多少聖賢豪傑，韞經綸事業不得做，只恁麼死了底何限？顧此腐儒，又何足爲輕重！況今世孔·孟·管·葛自不乏人也耶？來喻

▶ 陳亮：1143~1194. 字는 同甫, 號는 龍川. 婺州 永康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間：海州本 ‘閒’

2) 攛：[두주 ‘攛’, 又考《手鑑》, “與‘拉’同, 唐本作‘攛.’.]이 있다 ; 海州本·定州本 ‘獵’ ; 《全書》 ‘攛’

“恐爲豪士所笑”，不知何處更有豪士笑得？老兄勿過慮也。【書首‘烹’字下，有‘所遣人度月半前後到都城不知歲前便得歸否但’二十字。○據戊申辭免召命奏狀及申省狀等，此所謂書，即戊申上封事也。狀中亦有實封遣人齎進之語。“攬”：《大廣益會》，“呂盍切，擇持也。”《韻會》，“力涉切，理持也。”】

(時事出處28-2)

來書警誨，殊荷愛念。然使烹不自料度，冒昧直前，亦只是誦說章句，以應文備數而已，如何便擔當許大事？況只此僥冒，亦未敢承當，老兄之言，無乃太早計乎？然世間事思之，非不爛熟，只恐做時不似說時，人心不似我心。孔子豈不是至公血誠？孟子豈不是龐³⁾拳大踢？到底無著手處。況今無此伎倆，自家勾當一個身心，尚且奈何不下，所以從前不敢容易出來，蓋其自知甚審。而世間一種不相識有公論底人，亦莫不知之。只是吾黨中有相知日久相愛過深者，好而不知其惡，誤相假借，以爲粗識廉恥而又年紀老大，節次推排，遂有無實之名，以至上誤君父之聽。有此叨竊，每中夜以思，悚懼慚忤，無以少答上下之望，未嘗不發汗沾衣也。不

3) 龐：《全書》‘粗’

意以老兄之材氣識略過絕流輩，而亦下同流俗，信此虛聲，將欲彊⁴⁾焦僂以千鈞之重，而不憂其覆跌狼狽，以誤知人之明也。自今以往，牢關固拒，尙恐不免於禍，況敢望入帝王之門乎？彼去都城不遠，想已見得近日爻象矣。萬一再辭不得，卽不免束裝裹糧，爲生行死歸之計。承許見訪於蘭溪，甚幸，但恐無說話處。向來子約到彼，相守三日，竟亦不能一吐所懷。或先得手筆數行，略論大意，使未相見間，預得紬繹而面請其曲折，庶幾猶勝忽忽說話不盡，只成閒追逐也。〔戊申十一月，趣入對，再辭上封事。此書在其後。“踢”：音唐，又音宕，搶也。搶，飛掠也。“焦僂”：短人，長三尺，在南方。“生行死歸”：東漢 魏桓語，見桓帝 延熹二年。〕

4) 彊：海州本·定州本‘疆’

節要0029(0207) (時事出處29) (卷2:12左) (晦庵集 卷28)

與李誠父書【己酉五月二日】〔○延平先生子，名信甫.〕

久不拜狀，茲聞榮被親擢，進居六察之聯，深以爲慰。比日清和，伏惟台候動止萬福。先生抱道不試，然其心未嘗忘當世也。門人弟子既不足以少承厥志，而家有賢子足繼其業，學者之望，蓋非常人之比。況新天子繼照之初，慨然有志於治，而外則夷虜憑陵，國威不振，內則陰邪朋結，國論未定，此亦賢人君子效忠宣力垂名竹帛之秋也。尊兄平日立志持身，固有定論，然區區更願一意爲國，無徇常日往還厚善之私，深察天下公議之所在，精慮而決行之，使陰消於上而陽長於下，政事修理而國勢尊安，不亦老先生平日之所望於後人者乎？熹託契深厚，不敢效常人進諛詞以贊除用之喜，狂妄及此，不審尊兄以爲如何？胡公論事，皆合公論，甚彊¹⁾人意，但二小諫之去，殊可惜，乃不能遂其言，何耶？諸公排

▶ 李友諒：延平先生の子、字は誠父、李信甫・李信父 등으로도 불렸다.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彊：海州本・定州本 ‘疆’

朱子書節要 卷之二

逐正人，乃以尊兄塞責，此相輕之甚，謂兄必不能爲
薛·許耳。不可懷此小惠²⁾而忘大辱，幸深念之。『“新天
子”：光宗，“胡公”：晉臣。』

2) 惠：《全書》‘恩’

節要0030(0208) (時事出處30) (卷2:13左) (晦庵集 卷28)

與張元善書

狀稿錄呈，區區卑意，只是如此，更無他說。如云立節抗論，却非事實，而反以益其疑忌。蓋平生辭官，只是兩事，一則分不當得，二則私計不便而已，非有他也。清源之說，尤非所敢聞者。中固不見容，外亦非所堪，衰晚如此，精力昏耗，一事做不得，只得一日安靜，卽是一日之福，此外無所求也。對班果在何日？不知欲論何事？來書所云，非甚利害，不暇謀人者，何見事之遲耶？觀二諫之去·江夏之升，此乃不犯手勢而斡旋運轉無不如其意者。自古小人所以敗亂國家，豈皆凶惡猛鷲有可畏之威而後能之？但有患失之心，便自無所不至，先聖言之精且切矣。二諫之去，必須有曲折，幸子細報及。天下事只有個做，有個不做，無如此依違僥倖之理。彼之隱忍回互，蓋曰將以有爲也，而所就者亦止如此，與奮發直前者相去亦復幾何？向使奮發直前，果去禍根，却未必不做得事也。境外之事，則諉曰無後段，不知如此拱手安坐，幾時是有後段時？此事苦痛，更是

無告訴處。不知祖宗之靈何負於此輩，而忍至此也？誠父遷後相見否？聞渠曾與之鄰居，相與甚厚，須有以警覺之。縱不能回戈奮擊，且得不爲所使以害善良，亦幸事也。蕭果卿初除御史，虞丞相意也。人或賀之，蕭喟然曰：“彼見吾憤憤，謂我不能言，而以是處我也。其輕我甚矣！”不數日首論其黨，遂并攻之，論者服其勇云。詳觀所論，大率見得人情事幾未甚分明，此乃平日意思不甚沈靜¹⁾，故心地不虛不明，而爲事物所亂。要當深察此病而亟反之。古人所謂：“安而後能慮，定而後能應。”正爲此也。若只如此泛泛度日，卽恐枉得道氣之名而不享其利，徒有損而無益也。千萬留念。『“虞丞相”：允文。』

▶ 詹體仁：1143~1206. 字는 元善. 建寧府 浦城人. 외숙부 張氏의 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詹氏가 된 연유로 張體仁이라 부르기도 한다.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沈靜：海州本에 백권이 있다.

節要0031(0209) (時事出處31) (卷2:15右) (晦庵集 卷28)

與留丞相劄子 〔正. ○知漳州時.〕

熹輒有誠懇，仰瀆鈞聽。熹衰病餘生，不堪從宦，茲蒙誤恩假守，黽勉南來，意謂若幸無他疾痛，可以冒昧歲月，然於職事亦不敢不盡其愚。前此依準通融蠲減指揮，乞免上供，罷科茶錢及減無額經總制錢之額，以至恭奉聖旨，相度經界利病，皆是一郡永久利害，而經界尤利害之大者。所以不避僭率，極意盡言，不敢少有顧望前却·首鼠兩端之意。退而講究，巨細本末，不敢不盡，規摹措畫，蓋已什八九成矣。前此申奏，欲得及此秋冬之交，早賜行下。竊聞廟堂有意施行，版曹亦無異論，亦蒙丞相賜書喻意，謂必可行。熹區區自喜，竊謂漳民自此可脫塗炭之苦，而熹區區彊顏扶病，亦不虛爲此來矣。不幸心勞事拙，賦政不平。前九月中，州境屢有地震之異，未及自劾以聞，而舊疾發動，徧傳兩足，連及右臂，痛楚呻吟，不可堪忍。以至滿散錫宴之日，

▶ 留正：1129~1206. 字는 仲至. 泉州 永春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皆不得少伸臣子歸美報上之誠。今雖少能自力，扶曳出廳，執捉批判，而病中服藥，多是疏利發散之劑，精神氣血衰竭殆盡，無復筋力可以支吾。又況所請罷科茶錢·無額經總之屬，皆久不蒙開允。經界聞亦有陽爲兩可而陰實力沮之者。如此，使熹寧復更有顏面可臨吏民？鄙性狷急，不能俯仰，前日所以杜門空山，甘忍窮餓，而不敢有意於仕宦，正以此耳。今年六十有一，衰病侵凌，行將就木，乃欲變心從俗，以爲僥倖俸錢祿米之計，不亦可羞之甚乎？憤懣無聊，不能自抑，已具奏牘，干犯天威，乞從罷黜，而并以此私布腹心於下執事。伏惟某官少賜矜憐，曲加陶鑄，或使復得奉祠，歸死巖壑，則又千萬之幸。

節要0032(0210) (時事出處32-1~4) (卷2:16左) (晦庵集 卷28)

與留丞相書

(時事出處32-1)

熹遠守偏城，日荷臨庇，昨以哭子悲傷，私計不便干冒威嚴，已深震悚。而前此人還，蒙賜手教，存撫甚至，且有憐其久處瘴鄉之意。伏讀反側，不知所爲。幸今已聞奉祠之請既有成命，此蓋丞相察其哀懇而陶鎔及此，千萬幸甚。熹又蒙垂諭，深以士大夫之朋黨爲患，此古今之通病，誠上之人所當疾也。然熹嘗竊謂朋黨之禍，止於縉紳，而古之惡朋黨而欲去之者，往往至於亡人之國。蓋不察其賢否忠邪，而惟黨之務去，則彼小人之巧於自謀者，必將有以自蓋其迹；而君子恃其公心直道，無所回互，往往反爲所擠而目以爲黨。漢·唐·紹聖之已事，今未遠也。熹雖至愚，伏讀丞相所賜之書，知丞相愛君憂國之心，無一言一字不出於至誠惻怛，此天下之賢人君子所以相率而願附於下風也。而未能不以朋黨爲慮，熹恐丞相或未深以天下之賢否忠邪爲己任，是以上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4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之所以告于君者，未能使之判然不疑於君子小人之分；下之所以行於進退予奪者，未能有以服天下之心。慰天下之望，而陰邪讒賊常若反有侵陵干犯之勢。丞相又慮此身自陷於君子之黨而使彼之蓄憾久而爲禍深也，又稍故爲迷亂昏錯之態以¹⁾調柔之，反使之氣豪意健，旁若無人，敢於干祿之章，肆爲誣善之語，而朝廷亦不之問也。夫杜門自守，孤立無朋者，此一介之行也。延²⁾納賢能，黜退姦險，合天下之人以濟天下之事者，宰相之職也。奚必以無黨者爲是而有黨者爲非哉？夫以丞相今日之所處，無黨則無黨矣，而使小人之道日長。君子之道日消，天下之慮將有不可勝言者，則丞相安得辭其責哉？熹不勝愚者之慮，願丞相先以分別賢否忠邪爲己任，其果賢且忠耶，則顯然進之，惟恐其黨之不衆而無與共圖天下之事也；其果姦且邪耶，則顯然黜之，惟恐其去之不盡而有以害吾用賢之功也。不惟不疾君子之爲黨，而不憚以身爲之黨；不惟不憚以身爲之黨，是又將引其君以爲黨而不憚也。如此，則天下之事，其庶幾乎！前年逐二諫官，去年逐一御史，近聞又逐一諫官

1) 以：定州本‘而’

2) 延：海州本·定州本‘迎’

矣，上下不交，而天下將至於無邦。丞相不此之慮，而慮士大夫之爲黨，其亦誤矣。熹雖荷知獎，而未遂掃門之願，顧蒙出語之勤，似不爲無可取者，是以輒空胸臆，少答恩顧，不自知其狂且妄也。干冒威尊，俯伏震懼。【“掃門之願”：漢 魏敦欲見曹參，早掃齊相舍人之門，以自達。】

熹竊見紹興初年，趙忠簡公爲相，一時收用人材之盛，後來莫及。然細考其間，亦豈無不滿人意者？但其多寡之勢，此強彼弱，故雖少雜而不能害治，當時有小元祐之號。今者竊觀丞相之心卽趙公之心，然論一時人³⁾材賢佞之勢，則此少而彼多，此弱而彼彊，此則區區所以不能不深憂，而輒以分別賢否忠邪之說爲獻於門下也。伏乞鈞照。

(時事出處32-2)

七月四日，始被省筭，并領手教之賜，仰荷鈞慈垂念之厚。但所請上還進職恩命，未奉俞允。⁴⁾上恩隆重，威令已行，知友皆謂不當復有干冒，而反覆以思，竟未得

3) 人：定州本‘之’

4) 俞允：海州本·定州本‘允俞’

其所以可受之說，不免復從建寧借人持狀申省。愚慮惻款罄竭亡⁵⁾餘，不敢重浼崇聽，得賜省覽，詳悉聞⁶⁾陳，上謹聖朝予奪之公，下全匹夫辭受之義，則熹不勝千萬幸甚。如聞比日朝士有以不願爲忠臣之說當上心被親擢者，遠方傳聞，不知信否？如審有之，則小人過計之憂，恐其不得爲興邦之言也。又聞其人亦嘗出入門牆，深辱知顧，當是其時未有此論。如又不然，則知言知人之訓，妄意丞相更當留意。博求直諫之賢，置之東閣，與圖天下之事，則大人格心之效不日可見，而勲業之茂，不但踰於前後數公矣。諸葛武侯之教有曰：“諸有忠慮於國者，但勤攻吾之闕，則事可成，賊可死，功可翹足而待矣。”太祖皇帝嘗語侍臣：“唐太宗虛心求諫，容受盡言，固人主之難事。然曷若自不爲非，使人無得而諫之爲愈乎？”至哉言乎！大哉言乎！愚竊願以武侯之言爲丞相獻，又願丞相以太祖聖訓日啓迪於上前也。至如朋黨之論，則前記所陳有未究者，致煩鑄喻，至於勤緝。三復愧悚，不知所言。章·蔡之禍，誠如尊命，但忠賢奔播，至於如此，推本其原，蓋自有在。而九年之間，

5) 亡：海州本·定州本‘無’

6) 聞：[두주 ‘聞’, 考唐本, 作‘開’.]가 있다；海州本·《全書》‘開’

黜幽陟明，培固根本，其效見於靖康·建炎之際者，民到于今賴之，又自有不可誣者。若其無此，而元豐·紹聖便相傳襲，則後日之禍，豈但若此而已哉？前輩有論“嘉祐·元豐兼收並用異趣之人，故當時朋黨之禍不至於朝廷”者，世多以爲名言。熹嘗謂此乃不得已之論，以爲與其偏用小人而盡棄君子，不若如是之猶爲愈耳。非以爲君子不可專任·小人不可盡去，而此舉實可爲萬世法也。若使當時盡用韓·宣之徒而并絀王·蔡之屬，則其所以卒就慶曆之宏規·盡革熙寧之秕政者，豈不盡美而盡善乎？後之覽者，得其言而不得其心，知退守其所爲不得已之論，而不知進求其盡美盡善之策，是以國論日卑，而天下之勢卒至於委靡而不振，此可悲也。至如元祐，則其失在於徒知異己者之非君子，而不知同己者之未必非小人，是以患生於腹心之間，卒以助成仇敵之勢，亦非獨章·蔡之能爲己禍也。然則元祐之失，乃在於分別之未精，而丞相以爲太甚，熹竊有所未喻也。是以知言知人，聖有明誠，區區已效於前矣，深願丞相之加之意也。抑又聞之。天下事勢，有消長賓主之不同，以《易》而言，方其復而長也，一陽爲主於下，而五陰莫之能遏。及其遇而消也，五龍夭矯於上，而不足以當一

陰羸豕蹢躅之孚，甚可畏也。丞相觀於今日之勢，孰爲主而方長乎？孰爲客而方消乎？孰能制人，而孰爲制於人者乎？於是焉而汲汲乎以求天下之賢以自助，使之更進迭入，日陳安危治亂之明戒以開上心，排抑陰邪，無使主勢小傾而陷入其黨，尙恐後時而無及於事，不精而未免有失，亦何遽至預憂其分別太甚而爲異日之患乎？熹未獲趨拜，而辱知至深，且今分甘投老，無復世念，故不自嫌而冒昧及此。伏惟赦其狂妄而取其愚忠，千萬幸甚。『“始被省劄”：辛亥自漳州歸，寓建陽同由橋時。“聞陳”：‘聞’，元本作‘聞’，恐當作‘開’。‘太祖皇帝嘗語侍臣云云’：《宋鑑》太祖嘗云：“唐太宗受人諫疏直詆其失，曾不愧恥，豈若不爲之而使下無間言哉？”』

(時事出處32-3)

竊以孟冬漸寒，伏惟丞相國公鈞候起居萬福。熹昨者人還，伏奉省劄，喻以聖恩褒借，不許終辭之旨。又蒙鈞慈，加賜手教，所以開曉尤極懇至。伏讀再三，仰體吾君吾相委曲眷憐之意如此其厚，謹已齋祓，祇拜告命，奉表稱謝矣。熹未嘗有一日灑掃之勞於門下，而丞相所以知獎優異不在衆人之後，顧今精神耗竭，筋力疲憊，無復可期以伸報效。區區願丞相深觀《大易》陰陽消長·

否泰往來之變，謹察君子小人之分，而公進退之，毋爲調停之說所誤，使忠言日聞，聖德日新，而天下之人眞享富壽康寧之福，朝廷之上眞見平平蕩蕩之風，則衰病之軀，老死丘壑，無所憾矣。如於忠邪之分察之有未明，消長之戒信之有未篤，而又以一身利害之私參錯乎其間，則今所謂持平者，是乃所以深助小人之勢以爲君子之病，將見彼黨日盛，此勢日孤，天下之事將有不可爲者。丞相雖欲奉身而退，窮勝事而樂清時，亦不得辭後世良史之責矣。熹不勝感德之至，輒復冒昧言之。伏惟恕其狂妄，而采其千慮之一得焉，則又幸之大者。〔“祇拜告命奉表稱謝”：《年譜》，“辛亥三月，復除祕閣修撰·宮觀。四月，拜祠命，辭職名。解組，歸寓回由。七月，再辭職名，詔論撰之職，乃寵名儒，乃不敢辭。九月，除湖南運副，再辭。”此是十月書，有拜命之謝，無辭免之請，與《譜》不同。更詳之。〕

(時事出處32-4)

昨因致謝，輒罄鄙懷，狂妄僭率，不勝惶恐。然自遣人之後，卽得朝士私書，語及近事。恭聞丞相忠誠感格，天意爲回，重陰之底，復有陽復之漸，乃竊自幸其言之不效。旣又反覆以思，則恐今日之事未足爲喜，而前日

之論，猶有可思者也。蓋自古君子小人，雜居並用，非此勝彼，卽彼勝此，無有兩相疑而終不決者，此必然之理也。故雖舉朝皆君子，而但有一二小人雜於百執事之間，投隙抵巇，已足爲患，況居侍從之列乎？況居丞弼之任而潛植私黨，布滿要津乎？蓋二三大臣者，人主之所與分別賢否、進退人材，以圖天下之事，自非同心一德，協恭和衷，彼此坦然，一以國家爲念而無一豪有己之私間於其間，無以克濟。若以小人參之，則我之所賢而欲進之者，彼以爲害己而欲退之；我之所否而欲退之者，彼以爲助己而欲親之。且其可否異同，不待勉爭力辨而後決，但於相與進對之間，小爲俯仰前却之態，而已足以敗吾事矣。是豈可不先以爲慮，而輕爲他計，以發其害我之機哉？此猶姑以鈞敵之常勢言之耳。況今親疏新舊之情本自不侔，忠邪遜逆之趣又各有在，彼已先据必勝之地，而挾群黨以塞要衝，凡一舉手，一搖足，皆足以爲吾之害，下至近習纖人，亦或爲之挾持簡牘，關通內外，以助其勢；而吾乃兀然孤居，孑然特立，絕無蚍蜉蟻子之援，可與用力於根本之地，以覺上心而清言路，其可望以爲公道之助者，不能留之顛步之間，而欲求之千里之外。彼方爲主而我方爲客，彼方爲力而

我方爲肉，此固天下之危機敗證。而又時取彼所甚惡之人，置之不能爲助之處，徒益其疑而無補於事。愚恐雖能徧起天下之賢人君子置之內外，彼亦不必動其聲氣，但陰拱而微伺其勢似能害己，則便一眴⁷⁾目而群吠⁸⁾起，使來者或未及門，至者或未暖席，而已狼狽倉皇，奔迸四出矣，尙何國事之可圖哉？今日之事，丞相以爲但去一人，班列便無小人，臺閣便無異論乎？胡不觀於鄭尙書·王著作·孫司業之遂去而不留，袁溫州之已除而中寢，此皆誰實爲之也哉？以愚觀之，但見其操心益危·慮患益深，而爲祟益甚耳。語曰：“治水不自其原，末流彌增其廣。”又曰：“射人先射馬，禽賊當禽王。”蓋慮此也。去年劉副端初除，抗論震動朝野，善類相慶，而熹獨深憂之。今日之勢，何以異此？伏願丞相試熟計之，而亟陰求學士大夫之有識慮氣節者相與謀之，先使上心廓然，洞見忠邪之所在，而自腹心以至耳目喉舌之地，皆不容有毫髮邪氣留於其間，然後天下之賢可以次而用，天下之事可以序而爲也。如其不然，則自今以往，丞相之憂乃有甚於前日，是以熹竊危之，而未敢

7) 眴：[추기 《韻會》“‘瞬’或作‘眴’，目動。”]가 있고, 川谷本에는 [두주 《韻會》“‘瞬’或作‘眴’.”]이 있다.

8) 四：《全書》에는 없다.

以爲喜也。辱知之厚，不敢不盡愚，惟高明察之。抑天下之事固多以欲速而致敗，然見幾不蚤，猶豫留時，亦智者所甚懼也。今日在我之勢固爲甚危，然乘隙疾攻，正在此時，投機之會，間不容息。惟丞相深計而亟圖之，則不唯善類之幸，實宗社生靈之幸。烹死罪死罪。

【“踰”：即跬字，半步也。“劉副端初除抗論”：殿中侍御史謂之‘副端’，光宗 紹熙元年，侍御史劉光祖，乞禁道學之譏。見《宋史》。】

節要0033(0211) (時事出處33) (卷2:26右) (晦庵集 卷28)

與趙帥書 〔汝愚. ○湖南運副辭免之時.〕

經界一事，慮之已不爲不審矣。今雖有此一人之訴，朝廷亦合審其虛實，押下諸司，再令審覈，則其教誘資給誣罔之罪，必將可得。今所施行乃匆匆如此，是朝廷不以臣僚之言爲可信，又不以熹之言爲可信，又不以諸司之言爲可從，而偏聽此人之說與其教誘資給者之說也。丞相相知甚深，薦引存問不爲不厚，熹雖知不足以堪此，然平時狂妄，所以傾倒不敢自他者，亦不爲不至。今以此事觀之，乃知丞相所以見遇者，乃在漳州進士吳禹圭及諸教誘資給者之下，今雖無恥，其敢冒此而進哉？熹伉拙奇蹇，一出而遭唐仲友，再出而遭林黃中，今又遭此吳禹圭矣，豈非天哉！天實爲之，豈敢尤人？然復云云如此者，猶感丞相相知之意，而懼其以此待天下之士也。幸侍郎一爲誦之，千萬至望。〔“丞相”：指留正.〕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節要0034(0212) (時事出處34) (卷2:27右) (晦庵集 卷29)

與趙尚書書 〔汝愚。○紹熙三年壬子〕

今日之事，第一且是勸得¹⁾人主，收拾身心，保惜精神，常以天下事爲念，然後可以講磨治道，漸次更張。如其不然，便欲破去因循苟且之弊而奮然有爲，決無此理。既無此理，則莫若且靜以俟之，時進陳善閉邪之說，以冀其一悟。此外庶事，則唯其甚害於君心政體而立致患者，不得不因事救正。若其他閒慢，非安危存亡所繫者，皆可置而不論，如學校之政是也。此等事欲大更張，非唯任事者未必肯行，亦恐主議之人未必究知先王學校教育之本意良法，政使行之，未能有益而反有害。又況教官未必得人，將來姦弊百出，既已慮之，而未知所以爲計，又何必抗言極論，以爭此嘗試疏闊之策，而使旁觀者重有紛更不靜之譏乎？然欲爲前所謂時進陳善閉邪之說以冀上心之悟者，又在反之於身²⁾，以其所欲陳於上者先責於我，使我之身心安靜·精神專一，然後博延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權得：海州本에는 백권이 없다.

2) 反之於身：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天下之賢人智士，日夕相與切磋琢磨，使於天下之事皆有以洞見其是非得失之正，而深得其所以區處更革之宜。又有以識其先後緩急之序，皆無毫髮之弊，然後并心一力，潛伺默聽，俟其間隙有可爲者，然後徐起而圖之，乃庶幾乎其有益耳。尙書天姿³⁾高明，而於當世之務講之熟矣，至於前世名臣議奏，又嘗博觀而精擇之以爲一書，宜其投機合變，慮無遺策。而今者之議，以大言之則不時，以小言之則不巧，不唯熹之至愚以爲未安，而天下有識亦無不竊怪其不當出於明者之口也。抑其言又有大於此者，蓋又皆以爲尙書頗以簡貴自高，憚於降屈，而無好士受言之美也。不識尙書何以得此於梁·楚之間哉？其必有以取之矣。願反諸身而熟察之，⁴⁾有諸己而後可以求諸人，無諸己而後可以非諸人，雖敵己以下猶然，而況於南嚮⁵⁾萬乘之主乎？尙書誠以天下之事爲己任，則當自格君心之非始；欲格君心，則當自身始。蓋非獨熹之所望於下執事者如此，計善類之所望莫不然也。『何以得此於梁楚之間哉？』楚人曹丘生謂季布曰：“諺曰：‘得黃金百斤，不如得季布一諾。’足下何以得此於梁·楚之間哉？”』

3) 姿：《全書》‘資’

4) 願反……察之：海州本에는 방점이 없다.

5) 嚮：海州本·定州本‘向’

節要0035(0213) (時事出處35) (卷2:29右) (晦庵集 卷29)

與留丞相書 〔正。○癸丑十二月，除湖南安撫，辭免時也。〕

熹輒有愚悃，仰塵鈞聽。孤賤鄙儒，迂闊有素，中間諸公不知其不肖，往往誤有收拾使令之意。而熹方拙不能奉承，是以多致齟齬，而不能無遺恨於其後。爰自戊申之夏，狼狽出關，杜門空山，蓋已無復當世之念矣。不意相公曾未識其面目，乃於秉鈞之初首加拔用。熹以衰懶不堪劇部爲辭，又蒙改命，更畀郡符。到官一年，有請必遂，如褒贈漳浦高公·減免經總制錢之屬，皆前日守臣所屢請而不得者。是相公於熹知之不爲不深，而於漳之士民愛之不爲不厚矣。至於經界一事，乃獨屢上而不報，至其甚不得已而陽許之，則又多爲疑貳之言，以來讒賊之口，曾不一年而卒罷之。則熹於是始疑相公所以知熹者，不若其於鄉里小兒之深；所以愛夫漳之士民者，不如其於瑣瑣姻婭之厚；而匹夫之志，因以慨然自知其決不可以復入相公之門矣。是以湖南·廣西再命再辭，蓋不唯以粗伸己志，亦庶幾陰以解謝臨漳千里狼狽

〔編輯考〕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失業之民，而於相公則不敢以爲恨也。今者相公郊居累月，一旦來歸，未遑他事，而復首以不肖之姓名言於上前，付以湖南一路之寄。聖主以相公之言爲重，即使出命，而相公又申以手札之賜，慰喻勸勉，禮意勤渥，有加於前。君相之恩隆厚若此，政使賤軀羸頓，不堪上道；神識昏昧，不任治劇；亦當黽勉拜命，走伏官次，以稱所蒙。而熹之私心反復思之，終以前事有未能忘者，又竊惟¹⁾相公自居大位，悉引海內知名之士，無一不聚念²⁾於朝。今茲之事，雖相公出舍於郊，不得親回天意，而諸賢在列，各攄忠愍，並進苦言，不遺餘力，是乃無異出於相公之口。相公於此得士之多，致君之效，其亦以無愧古人矣。然則若熹之愚，姑亦勿問而置之度外，似亦未足以虧盛德之萬分，而況啓擬之恩・謙尊之美，相公又已行之乎？夫宰相以得士爲功，下士爲難，而士之所守，乃以不自失爲貴。今相公之得士如此，下士如此，已爲盛美，若又能容熹，使不自失其所守，則是古人所謂人有其寶³⁾者，亦何必使之回面汚行而爲終

1) 惟：《全書》에는 뒤에 ‘念’이 있다.

2) 念：[두주 ‘念’字, 考唐本, 在‘竊惟’下, 今在‘聚’下者, 實館本錯印也.]가 있고, 海州本에는 뒤에 [소주 ‘念’, 元本缺字, 恐當作‘會’.]가 있다; 《全書》에는 없다.

3) 人有其寶：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身之羞哉？抑今日之勢，天意雖若暫回，而恐未固；禍機雖若暫息，而恐未除。事會之來，乃有大於漳州之經界者，而恐不但如前日之易平也。願相公深以前事爲戒，公其心，遠其慮，毋使天下之士賢於熹者復有所激而不肯出於門牆，則熹今日之言，猶未爲無以報德也。區區此意，但欲相公知之。所有省狀公劄，則不敢盡吐所懷矣。儻蒙將上早賜施行，勿使至於再瀆，則熹千萬幸甚。『“相公郊居”：留正出郊。事見《宋史》。“聚念於朝”：唐本無‘念’字，恐此衍。“人有其寶”：宋子罕語。見《左》襄公十五年。』

節要0036(0214) (時事出處36) (卷2:31左) (晦庵集 卷29)

與王樞使謙仲筭子 〔藺. ○紹熙五年五月，至湖南. 六月，孝宗升遐，七月，寧宗即位，召赴行在. 八月，除煥章閣待制，此其赴闕之後.〕

烹麋鹿之性，久放山林，老入脩門，尤以爲苦. 雖荷閔勞之意，職務優閒，而其實則有甚難副者. 日夕悚懼，未知所以逃責. 伏惟高明有以教之，則千萬之幸也. 湘西精舍，漕臺想已稟聞，得賜一言，俾遂其役，千萬之望. 昨欲廟祀一二忠賢以厲凡百，已委官相視矣. 不知亦可并垂念否？二事皆關名教，計所樂聞，故敢輒以爲請，并幾矜察.

▶ 王藺：？~1214. 字는 謙仲，號는 軒山. 廬江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節要0037(0215) (時事出處37) (卷2:32右) (晦庵集 卷29)

與趙丞相書 〔汝愚。○甲寅，寧宗批與宮觀州郡，力辭還家，仍乞追¹⁾還職名。十二月，詔依舊煥章閣待制提舉鴻慶宮，乙卯正月，復辭，不允。二月，丞相亦罷。〕

熹竊以獻歲發春，伏惟丞相國公鈞候起居萬福。熹伏蒙賜教，并示差敕，得備祠官之數，皆出陶鎔，豈不知感？但鐫職之請，未蒙敷奏，特從所請，區區私分，深所未安。復有祈懇，切乞留念。熹今未敢請俸，必以得遂爲期，非若異時一再不獲，尚可黽勉冒受也。奏牘所陳之外，又有一事。蓋向來祧廟之議²⁾，上意已自開納，而丞相持之不下，便將太廟毀拆。及臺諫有言，不知只作如何處分，致後省復有云云。据其所言，亦未敢深以熹說爲非，但云未見本議，欲乞降出，而丞相又不降出，便從其請。以此而觀，其罪不在樓·陳，而丞相實任之也。夫絀始祖之尊，置之別廟，不使與於合食之列，而又并遷二祖，止祀八世，熹固已議之矣，而亦未敢盡其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追：海州本 ‘退’

2) 祧廟之議：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詞也。今太上聖壽無疆³⁾，方享天下之養，而於太廟遽虛一世，略無諱忌，此何禮也？熹愚暗，不見事機，向者誤謂丞相有相知之意，及今而後，知丞相之大不相知，而平日相與之意，初不出於誠實也。然則今日不唯得罪於人主，而丞相固亦謂其不堪言語侍從之選矣。然丞相以宗枝入輔王室，而無故輕納鄙人之妄議，毀撤祖宗之廟以快其私，其不祥亦甚矣。欲望神靈降歆，垂休錫羨，以永國祚於無窮，其可得乎？言及於此，令人痛心疾首，不如無生。丞相其亦念之，熹自此不敢復通記府之問矣。目盲不辨白黑，不能他及。唯乞以時爲國自重，千萬至懇。〔“後省”：謂給事中。“樓”：鑰。“陳”：傳良。〕

3) 疆：《全書》‘疆’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38(0216) (時事出處38) (卷2:33右) (晦庵集 卷29)

答李季章書 〔壁. 文簡公 燾之子.〕

燾歸來粗遣，但左目全盲，右目昏甚，又脾洩時作，頗妨應接耳。前日始拜祠命，職名義不當受，已復上免章。賤迹何繫重輕，計必得之也。昨聞子壽·德夫之去，方爲歎惜。忽報德修繼往，令人尤不能爲懷。今日之勢，政使衆賢交輔，未必能濟，顧乃楮之如此，其將奈何？不知德修徑歸蜀耶？或且留江湖間也？一書煩附便，幸勿沉浮。計此形勢，與集賢不能無關涉，不知能復幾許時耳。〔“子壽”：彭龜年，“德夫”：吳獵，“德修”：劉光祖，“集賢”：指季章.〕

▶ 李壁：1159~1222. 字는 季章, 號는 石林. 眉山 丹稜人. 李燾(1115~1184, 字는 仁甫)의 아들.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節要0039(0217) (時事出處39) (卷2:33左) (晦庵集 卷29)

答黃仁卿書 〔東. ○三月再辭職名之時.〕

趙公相見有何語？當時大事，不得不用此輩，事定之後，便須與分界限・立紀綱。若不能制而去，亦全得朝廷事體，不就自家手裏壞却。去冬亦嘗告之，而不以為然，乃謂韓是好人，不愛官職。今日弄得朝廷事體郎當，自家亦立不住，畢竟何益？且是群小動輒以篡逆之罪加人，置人於族滅之地，以苟自己一時之利，亦不復為國家計，此可為寒心者。惜乎此公有憂國之心而無其術，以至於此也。〔“此輩”：指韓侂胄.〕

▶ 黃東：字는 仁卿. 福州 閩人. 勉齋(黃榦)의 兄.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40(0218) (時事出處40-1~2) (卷2:34右) (晦庵集 卷29)

答李公晦書 〔方子. ○五月再乞致仕之時.〕

(時事出處40-1)

兩請既皆不遂，不免再告。鄙意休官尚可少緩，而辭職不容不力，正與諸人之見相反。然又未知今此果能遂此志否？累書所喻，未所得聞¹⁾，然事已爾，無可奈何，只得任之耳。試後去住如何？鄉里雖窮寂，然却無閒是非，亦可樂也。〔“未所得聞”：恐當作‘得所未聞’。〕

(時事出處40-2)

別紙.²⁾ 或者以爲鄉來封贈奏補磨勘之屬，皆已引用次對恩數，今日不當反有辭避，遠近知識所說，亦多如此。而熹鄙意竊謂前此供職講筵之日，帶此職名，便合受此

▶ 李方子：字는 公晦，號는 果齋. 邵武 光澤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未所得聞：[두주 按唐本，已作‘得所未聞’.]가 있으며，川谷本에는 [두주 考唐本，作‘得所未聞’]이 있다；《全書》‘得所未聞’

2) 別紙：《全書》에는 ‘答李公晦書【別紙】’라 하여 제목에 붙여 편집하였고，[교감기 二字原入正文，今據文意移至題中.]이 있다.

恩例；今年已罷講職，則自不合帶此職名，便不合受此恩例。前日之受，今日之辭，彼此一時，自不相須。設使前日爲不當受，則今日只有改正納還，豈可却因已嘗誤受而終遂其非之理？至於所謂已罷講職不當復帶侍從職名，則其理亦甚分明，但人不察耳。且如侍郎給舍班皆在待制上，及其補外，則往往止帶論撰職名，如近日鄧舍人是也。豈可以其在內嘗任侍從差遣，而補外亦必待帶侍從職名乎？嘗試屏去一切利害之私，而平心以觀之，則此理曉然不難知也。『“前此供職講筵之日云云”：七月九月十一月，三辭職名，十二月，詔依舊修撰宮觀，明年丙辰二月，申省乞改正已受從臣恩數。此書論改正之不可不爲，蓋先生先以煥章閣待制侍講供職，今因力辭，降爲祕閣修撰矣。待制，所謂侍從職名也；侍講，所謂講官也；修撰，所謂論撰職名也。先生意爲侍講則帶待制而受恩數，可矣，今既罷講職，鐫待制，降爲修撰，則向所受恩例，不可不改正納還也。』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41(0219) (時事出處41-1~2) (卷2:35左) (晦庵集 卷29)

與鄭參政劄子 [[僑. 慶元元年參知政事. ○此書在前書之前, 慶元乙卯十一月再辭職名時也. 蓋辭職名, 始於甲寅冬.]]

(時事出處41-1)

區區之請, 又復不遂, 雖荷容庇, 得免大戾, 然非素心所望於門下也. 今復有狀申奏, 并懇諸公矣. 此事直自去冬此等時節勞攘至今, 若使鄙意止爲備禮辭讓, 亦何苦冒觸天威・煩瀆朝聽, 更使不相樂者得以議其後而終不自己耶? 前此却荷趙公察知此意, 許以再上當爲開陳. 若渠更得一兩月不去, 則此事已定久矣. 不然, 則及國論未變・善類未逐之時, 冒昧受了, 今亦無由追悔. 却是後來過了許多時月, 入了許多文字, 說了許多道理, 下稍却只如此閔默受却, 則熹雖無狀, 豈有顏面可見友朋¹⁾? 今不得已, 須至再上, 以得爲期. 却望參政力賜主張, 協贊諸公同爲敷奏. 謂其所請實出誠意, 則

▶ 鄭僑: 1132~1202. 字는 惠叔, 號는 回溪. 莆田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友朋: 海州本・定州本 ‘朋友’

天意必須可回；或恐不欲盡奪，卽得降一二等，却得舊來所帶閣撰，熹亦不敢固辭矣。況此因熹力辭而改，卽非責降，而可以保庇孤蹤，免遭彈射，又可以仰全國家退人之禮，於事體殊無所傷，廟堂何憚而不肯爲乎？

(時事出處41-2)

熹山野伉拙，處世不諧，然自少日，卽蒙當世一二鉅公教誨期許，待以國士。居常厲志，不敢少貶以辱其門，亦庶幾得因濟會，少有毫髮以自效於當世。不意莫²⁾年此志不遂，而又適遭時論大變，威福下移，忠賢奔波，海內震駭。病中聞之，憤悶鬱結，覓死無路。亟欲草疏自通，幾或開悟，而子弟諸生，交謁更諫，以爲如此適增國家之累而無益。紛拏累日，疾勢遂侵，此乃窮命使然，是亦無足言者。今若得因病辭官，并脫無名之職，則與世長辭，含笑入地，無所恨矣。伏惟參政矜憐有素，切望乘此機會，曲賜保全。萬一更有纏撓，不遂所懷，則熹素心尙在，本未能平，一旦遇事感觸，不能自己，更以垂死之年，自貽投竄之禍，亦非參政之所欲也。抑時事如此，有識寒心，而參政從容其間，未肯身

2) 莫：[두주 《韻會》，“‘暮’本作‘莫’。”]가 있다；《全書》‘暮’

任其責，此亦中外所深疑者，而熹猶竊恐高明之有待而發也，不知其果然耶？其不然耶？³⁾ 如其果然，則安危之機相去日遠，亦不可以少緩矣。垂絕之言，無復倫次，唯此一念，炳然如丹，伏惟明公念之。『“濟會”：‘濟’疑當作‘際’。』

3) 不知……不然耶：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節要0042(0220) (時事出處42) (卷2:37左) (晦庵集 卷29)

與李季章書 〔壁. ○所引沈隱侯約¹⁾詩, 見《文選》.〕

平生少年日, 分手易前期. 及此同衰暮, 非復別離時. 勿言一樽酒, 明日難重持. 夢中不識路, 何以慰相思?

史院同僚餞別靈芝, 坐間或誦此言. 李季章見謂平生亦甚愛此, 盍書以見贈? 予謂如僕乃知此味, 季章未也, 胡爲亦愛此耶? 旣而思之, 解攜之際, 但有一人衰暮, 便足令滿坐作惡, 乃知隱侯之言猶有所未盡也. 因并書以寄季章, 以爲如何也? 〔“餞別靈芝”: 初御批之出, 臺諫給舍, 爭留不可, 先生遂出靈芝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約: 海州本에는 없다.

節要0043(0221) (時事出處43) (卷2:38右) (晦庵集 卷29)

與留丞相書

熹自少鄙拙，凡事不能及人，獨聞古人爲己之學而心竊好之，又以爲是乃人之所當爲而力所可勉，遂委己從事焉，庶幾粗以塞其受中以生之責，初不敢爲異以求名也。旣而閭里後生有相問者，因以所聞告之。而流傳之誤，乃有自遠至者。其才之高下·質之厚薄，雖爲不同，然皆以是心至，熹不得拒也。不謂熹之無狀，偶自獲罪於世，而誣誤連染，上累斯道，下及衆賢，例得詭僞之名，詆以不道之法，至有初不相識而橫罹其禍者。杜門循習，私竊負愧，雖欲悔之，而厥路無繇矣。顧其繼而來者，又未忍却，然每對之，未嘗不自笑其愚，而又憐彼之愚甚於熹也。今幸旬月以來，各以事歸，計亦聞知外間風色，自不敢復來矣。〔“詆”：當作‘抵’。〕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節要0044(0222) (時事出處44) (卷2:38左) (晦庵集 卷29)

與楊子直書 〔方. ○四年戊午乞致仕，以來年己未七十也.〕

熹一病沉綿，遂不能起。今遣人去下致仕文字，不知尙及拜受否也？世間喻於義者則爲君子，喻於利者卽是小人。而近年一種議論，乃欲周旋於二者之間，回互委曲，費盡心機，卒既不得爲君子，而其爲小人亦不索性，亦可謂悞用其心矣。人之將死，其言也善，惟老兄念之。

▶ 楊方：長汀人. 楊楫, 楊簡과 함께 ‘三楊’으로 불렸다.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45(0223) (時事出處45) (卷2:39右) (晦庵集 卷29)

與項平父書 〔安世〕

熹老病死矣，無復可言。今漫遣人去下致仕文字，念公平生故人，不可無數字之訣。時論一變，盡言者得禍，求全者得謗，利害短長之間，亦明者所宜審處也。

▶ 項安世：1129~1208. 字는 平父, 號는 平菴. 江陵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節要0046(0224) (時事出處46) (卷2:39左) (晦庵集 卷29)

答張定叟書 〔杓, 南軒之弟.〕

熹昧於攝理，百病交攻，初亦只是常年脚氣，而根本已衰，不能與病爲敵，遂至沈困，日甚一日。今已無復生全之望，亟上掛冠之請矣。自惟平生無所肖似，雖不及趨拜先忠獻公幕府，而荷知遇之意不薄，及遊兄伯仲間，又以道義德業相期於千載。敬夫棄我而先，已十餘年，而熹今衰病又如此，則亦不得久留矣。昨蒙朝廷不棄，累加收用，訖無補報，狼狽而歸。方此省愆，尙期後效，而時論一變，中外震駭，忠賢斥逐，下及韋布，蓋近世所無有。病中憤悶無聊，悲歎累日，顧念疏遠，言之無益，竟不能發一語以效其愚。適會疾亟¹⁾，遂姑出此下計，庶幾旦夕瞑目，有以見兄家父兄·平生師友於地下耳，此外尙何言哉！時事如此，有識寒心，默計中外群公，威望隱然，忠義明白，誰如吾定叟者？異時

▶ 張杓：1140~1198. 字는 定叟. 南軒(張式)의 從弟. 漢州 綿竹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會疾亟：海州本에는 방점이 없다.

扶傾補敗，洪濟艱難，烹雖瞑目，實不能不以此望於門下也。更願勉思令猷，益求彊²⁾輔，燕居深念，恬養本原，遠耳目之細娛，圖國家之大計，此又區區所深望也。游誠之才力可仗，不但救荒一事，得收置門下，異時儘有用處。但亦更願兼收並蓄，更得方正嚴重·有餘識遠慮·可敬畏者參錯其間，使勤攻吾闕，如崔州平·法孝直之於孔明，則天下之事庶乎其可濟也。〔“崔州平·法孝直之於孔明”：《三國志·董和傳》，“諸葛曰：‘昔交州平，屢聞得失，後交元直，勤見啓沃。’”元直，徐庶字也。〈法正傳〉只云：“亮與正，雖好尚不同，以公義相取。”云。此云“法孝直”，恐偶失照勘也。〕

2) 彊：海州本·定州本‘疆’

節要0047(0225) (時事出處47) (卷2:40左) (晦庵集 卷29)

答劉季章書 〔黼, ○五年己未, 詔從所請.〕

告老得謝, 固爲甚幸, 而無狀之蹤乃復累及從之. 方此踖蹐不能自安, 忽得來書, 乃聞其計, 尤深痛惜. 子壽憂悴, 殊可念. 近日樓大防又已行遣, 一時流輩芟夷略盡, 其勢必從頭別尋題目整頓一番. 聞鄉日湖南所按吏有訴冤於朝者, 已下本路體量改正, 次第首見及矣. 知在晉輔處相聚, 甚善, 可更勉其收拾身心, 向裏用力¹⁾, 不須向外枉費心神, 非唯無益, 當此時節, 更生患害不可知. 鄉日石刻及今所刊三冊, 勸其且急收藏, 不可印出. 鄉後或欲更爲此舉, 千萬痛止之也. 無疑志趣誠實, 但惜其橫起猜疑, 自立界限, 不肯鄉上進步²⁾, 書中枉費心力分疏. 〔“從之”: 孫逢吉字, 僞黨人. “晉輔”: 名覲. “無疑”: 曾三異字, 見十七卷.〕

▶ 劉黼: 字는 季章. 廬陵人.

〔編輯考〕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收拾……用力: 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 鄉上進步: 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二

節要0048(0226) (時事出處48) (卷2:41左) (晦庵集 卷29)

與黃直卿書 〔榦，○六年庚申三月，是月先生易簀。〕

三月八日，熹啓。人還得書，知已至三山，一行安樂。又知授學次第，人益信向。所示告文規約皆佳，深以爲慰。今想愈成倫理，凡百更宜加勉力。吾道之託在此者，吾無憾矣。衰病本自略有安意，爲愈夢達薦一張醫來，用礪砂·巴豆等攻之，病遂大變。此兩日愈甚，將恐遂¹⁾不可支吾。泰兒又遠在千里外，諸事無分付處，極以爲撓。然凡百已定，只得安之耳。異時諸子諸孫，切望直卿一一推誠力賜教誨，使不大爲門戶之差，至祝至祝。病昏且倦，作字不成，所懷千萬，徒切悽黯。不具。〔“泰兒”：疑指埜。〕

▶ 黃榦：1152~1221. 字는 直卿, 號는 勉齋.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1에 실려 있다.

1) 遂：[두주 下遂字, 唐本無.]가 있다；《全書》에는 [교감기 ‘遂’字元缺, 據浙本補.]가 있다.

定本 退溪全書 四

朱子書節要 卷之三

朱子書節要 卷之三 諸子目錄【汪張問答】

〈汪尚書〉 見上一卷.

〈張欽夫〉 見上一卷.

節要0049(0301) (汪張問答1-1~4) (卷3:1右) (晦庵集 卷30)

答汪尙書¹⁾

(汪張問答1-1)

別紙示及釋氏之說，前日正以疑晦未祛，故請其說。方虞僭越，得罪於左右，不意貶損高明，與之釃²⁾酢如此，感戢亡已。烹於釋氏之說，蓋嘗師其人·尊其道，求之亦切至矣，然未能有得。其後以先生君子之教，校夫先後緩急之序，於是暫置其說而從事於吾學，其始蓋未嘗一日不往來於心也。以爲俟卒究吾說而後求之，未爲甚晚耳，非敢遽結絕之也。而一二年來，心獨有所自安，雖未能卽有諸己，然欲復求之外學以遂其初心，不可得矣。然則前輩於釋氏未能忘懷者，其心之所安蓋亦必有如此者，而或甚焉，則豈易以口舌爭哉？竊謂但當益進吾學，以求所安之是非，則彼之所以不安於吾儒之學，而必求諸釋氏然後安者，必有可得而言者矣。所安之是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4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海州本·定州本에는 [소주 以下王張呂劉問答.]이 있다.

2) 釃: [추기 《韻會》, “或作‘酬’.”]가 있다; 定州本 ‘酬’

非既判，則所謂反易天常·殄滅人類者，論之亦可，不論亦可，固不卽此以定取舍也。上蔡所云“止觀”之說，恐亦是借彼修行之目，以明吾進學之事。若曰彼之參請猶吾所謂致知，彼之止觀，猶吾所謂克己也。以其語錄考之，其不以止觀與克己同塗共轍明矣。後之好佛者，遂掇去首尾，孤行此句，以爲己援。正如孔子言：“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豈眞慕夷狄？明道適僧舍，見其方食，而曰：“三代威儀，盡在是矣！”豈眞欲入叢林耶！胡文定所以取《楞嚴》·《圓覺》，亦恐是謂於其術中猶有可取者，非以爲³⁾吾儒當取之以資己學也。既蒙垂教，復不敢不盡所懷，恐未中理，乞賜開示，不憚改也。【“感戢”：‘戢’，藏也。“止觀”：《唐文粹》，“天台智者止觀。夫止觀者，何爲也？導萬法而復於實際者也。實際者，何也？性之本也。物之所以不能復者，昏與動使之然也。照昏者謂之明，駐動者謂之靜，明與靜，止觀之體也。在因謂之止觀，在果謂之智定，止觀之法，所以使群生行覺路而之妙境也。不知此教者則學何所入·功何所施·智何所發？”】

(汪張問答1-2)

熹茲者累日侍行，得以親炙。竊惟道德純備，固非淺

3) 爲：海州本·定州本‘謂’

陋所能窺測，而於謙虛好問·容受盡言之際，尤竊有感焉。蓋推是心以往，將天下之善皆歸之，其於任天下之重也何有？愚恐他日之事常人所不能任者，閣下終不得而辭也。是以不勝拳拳，每以儒·釋·邪·正之辨爲說，冀或有助萬分。而猶恐其未足於言也，請復陳之，幸垂聽焉。大抵近世言道學者，失於太⁴⁾高，讀書講義，率常以徑易超絕·不歷階梯爲快，而於其間曲折精微正好玩索處，例皆忽略厭棄，以爲卑近瑣屑，不足留情。以故雖或多聞博識之士，其於天下之義理，亦不能無所未盡。理既未盡，而胸中不能無疑，乃不復反求諸近，顧惑於異端之說，益推而置諸冥漠不可測知之域，兀然終日，味無義之語，以俟其廓然而一悟。殊不知物必格而後明，倫必察而後盡。彼既自謂廓然而一悟者，其於此猶懵然也，則亦何以悟爲哉！又況俟之而未必可得，徒使人抱不決之疑，志分氣餒，虛度歲月而徭徭耳。曷若致一吾宗，循下學上達之序，口講心思，躬行力究，寧煩毋略，寧下毋高，寧淺毋深，寧拙毋巧，從容潛玩，存久漸明，衆理洞然，次第無隱，然後知夫大中至正之極·天理人事之全，無不在是，初無迥然超絕不可及者。

4) 太：海州本‘大’

而幾微之間，豪⁵⁾釐畢察，醅酢之際，體用渾然，雖或使之任至重而處所難，亦沛然行其所無事而已矣，又何疑之不決而氣之不完哉！此其與外學所謂廓然而一悟者，雖未知其孰爲優劣，然此一而彼二，此實而彼虛，則較然矣。就使其說有實非吾儒之所及者，是乃所以過乎大中至正之矩，而與不及者亡以異也。【窮極幽深，過也；反倫悖理，不及也。】

(汪張問答1-3)

“道在六經，何必他求”，誠如台諭，亦可謂要言不煩矣。然世之君子，亦有雖知其爲如此而不免於淪胥者，何哉？以彼之爲說者曰：“子之所求於六經者，不過知性知天而已。由吾之術，無屈首受書之勞而有其效，其見解真實，有過之者，無不及焉。”世之君子，既以是中其好徑欲速之心，而不察乎他求之賊道，貴仕者又往往有主務家私之累，聲色勢利之娛，日力亦不足矣，是以雖知至道不外六經，而不暇求，不若一注心於彼而徼幸其萬一也。然則“何必”云者正矣，而熹竊恨其未嚴也。若易“必”以“可”，儻⁶⁾庶幾乎！蓋“不必”云者，無益之

5) 豪：定州本‘毫’

辭也；“不可”云者，有害之辭也。夫二者之間，相去遠矣。如鳥喙食之而殺人，則世之相戒者必曰不可食，而未有謂不必食而已者也。妄意如此，不審高明以爲如何？又蒙教喻以兩蘇之學不可與王氏同科，此乃淺陋辭不別白·指不分明之過，請復陳之於後。而來教又以歐陽·司馬同於蘇氏，則熹亦未能不以爲疑也。蓋歐陽·司馬之學，其於聖賢之高致，固非末學所敢議者，然其所存所守，皆不失儒者之舊，特恐有所未盡耳。至於王氏·蘇氏，則皆以佛·老爲聖人，既不純乎儒者之學矣，而王氏支離穿鑿，尤無義味，至於甚者，幾類俳優。本不足以惑衆，徒以一時取合人主，假利勢以行之，至於已甚，故特爲諸老先生之所排詆。【龜山與胡文定書及答蕭子莊書，可見其意矣。】在今日則勢窮禍極，故其失人人得見之。至若蘇氏之言，高者出入有無而曲成義理，下者指陳利害而切近人情，其智識才辨⁷⁾·謀爲氣概，又足以震耀而張皇之，使聽者欣然而不知倦，非王氏之比也。然語道學則迷大本，論事實則尙權謀，銜浮華，忘本實，貴通達，賤名檢，此其害天理·亂人心·妨道術·敗

6) 儻：海州本‘倘’

7) 辨：[두주 ‘辨’, 今館本作‘辯’.]가 있다.

風教，亦豈盡出王氏之下也哉？但其身與其徒，皆不甚得志於時，無利勢以輔之，故其說雖行而不能甚久。凡此患害，人未盡見，故諸老先生得以置而不論。使其行於當世，亦如王氏之盛，則其爲禍，不但王氏而已，主名教者，亦不得怱然而無言也。蓋王氏之學，雖談空虛而無精彩，雖急功利而少機變，其極也陋，如薛昂之徒而已。蔡京雖名推尊王氏，然其淫侈縱恣，所以敗亂天下者，不盡出於金陵也。若蘇氏，則其律身已不若荊公之嚴，其爲術要未忘功利，而詭祕過之。其徒如秦觀·李廌之流，皆浮誕佻輕，士類不齒，相與扇縱橫捭闔之辨⁸⁾以持其說，而漠然不知禮義廉恥之爲何物。雖其勢利未能有以動人，而世之樂放縱·惡拘檢者已紛然向之。使其得志，則凡蔡京之所爲，未必不身爲之也。世徒據其已然者論之，是以蘇氏猶得在近世名卿之列，而君子樂成人之美者，亦不欲逆探未形之禍以加譏貶。至於論道學邪正之際，則其辨有在豪⁹⁾釐之間者，雖欲假借而不能私也。今乃欲專貶王氏而曲貸二蘇，道術所以不明，異端所以益熾，實由於此。愚恐王氏復生，未有以默其

8) 辨：[두주 ‘辨’, 今館本作‘辯’.]이 있다.

9) 豪：定州本 ‘毫’

口而厭其心也。以閤下之明，秉天理以格人欲，據正道以黜異端，彼亦將何所遁其情哉？熹之愚昧么麼，豈不知其力之不足？所以慨然發憤而不能已，亦決於此而已矣，天下豈有二道哉？『“要言不煩”：管輅曰：“善《易》者，不論《易》也。”何晏曰：“可謂要言不煩矣。”見《三國志·輅傳》。』

(汪張問答1-4)

蘇學邪正之辨，終未能無疑於心。蓋熹前日所陳，乃論其學儒不至而流於詖淫邪遁之域，竊味來教，乃病其學佛未精而滯於智慮言語之間，此所以多言而愈不合也。夫其始之闢禪學也，豈能明天人之蘊，推性命之原，以破其荒誕浮虛之說而反之正哉？如〈大悲閣〉·〈中和院記〉之屬，直掠彼之粗以角其精，據彼之外以攻其內，是乃率子弟以攻父母，信枝葉而疑本根，亦安得不爲之詘哉？近世攻釋氏者，如韓·歐·孫·石之正，龜山猶以爲一杯水救一車薪之火，況如蘇氏以邪攻邪，是束縊灌膏而往赴之也，直以身爲燼而後已耳。來教又以爲蘇氏乃習氣之弊，雖不知道而無邪心，非若王氏之穿鑿附會以濟其私邪之學也。熹竊謂學以知道爲本，知道則學純而心正，見於行事，發於言語，亦無往而不得其正

焉。如王氏者，其始學也，蓋欲凌¹⁰⁾跨揚·韓，掩迹顏·孟，初亦豈遽有邪心哉？特以不能知道，故其學不純，而設心造事，遂流入於邪。¹¹⁾又自以爲是，而大爲穿鑿附會以文之，此其所以重得罪於聖人之門也。蘇氏之學雖與王氏若有不同者，然其不知道而自以爲是則均焉。學不知道，其心固無所取則以爲正，又自以爲是而肆言之，其不爲王氏者，特天下未被其禍而已。其穿鑿附會之巧，如來教所稱論成佛·說《老子》之屬，蓋非王氏所及。而其心之不正，至乃謂湯·武篡弑，而盛稱荀彧，以爲聖人之徒。凡若此類，皆逞其私邪，無復忌憚，¹²⁾不在王氏之下。借曰不然，而原情以差其罪，則亦不過稍從未減之科而已，豈可以是以爲當然而莫之禁乎！《書》曰：“天討有罪，五刑五用哉！”此刑法之本意也。若天理不明，無所準則，而屑屑焉惟原情之爲務，則無乃徇情廢法而縱惡以啓姦乎？楊朱，學爲義者也，而偏於爲我，墨翟，學爲仁者也，而流於兼愛。本其設心，豈有邪哉？皆以善而爲之耳。特於本原之際微有毫¹³⁾釐之

10) 凌：[두주 ‘凌’恐當作‘陵’.]이 있다.

11) 初亦……入於邪：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12) 逞其私邪……忌憚：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13) 毫：《全書》‘豪’

差¹⁴⁾，是以孟子推言其禍，以爲無父無君而陷於禽獸，辭而闕之，不少假借。孟子亦豈不原其情而過爲是刻核之論哉？誠以其賊天理·害人心於幾微之間，使人陷溺而不自知，非若刑名狙詐之術，其禍淺切而易見也，是以拔本塞源¹⁵⁾，不得不如是之力。《書》曰：“予畏上帝，不敢不正。”又曰：“予弗順天，厥罪惟均。”孟子之心亦若是而已爾。以此論之，今日之事，王氏僅足爲申·韓·儀·衍，而蘇氏學不正而言成理，又非楊·墨之比。愚恐孟子復生，則其取舍先後必將有在，而非如來教之云也。區區僭越，辨論不置，非敢自謂工訶古人而取必於然諾，實以爲古人致知格物之學有在於是，既以求益，而亦意其未必無補於高明也。

14) 本原……毫釐之差：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15) 源：海州本·定州本‘原’

節要0050(0302) (汪張問答2) (卷3:9左) (晦庵集 卷30)

與汪尙書【己丑】

去春賜教，語及蘇學，以爲世人讀之，止取文章之妙，初不於此求道，則其失自可置之。夫學者之求道，固不於蘇氏之文矣，然既取其文，則文之所述有邪有正，有是有非，是亦皆有道焉，固求道者之所不可不講也。講去其非以存其是，則道固於此乎在矣，而何不可之有？若曰惟其文之取，而不復議其理之是非，則是道自道·文自文也。道外有物，固不足以爲道，且文而無理，文安足以爲文乎？蓋道無適而不存者也，故卽文以講道，則文與道兩得而一以貫之¹⁾，否則亦將兩失之矣。中無主，外無擇²⁾，其不爲浮誇險詖所入而亂其知思也者幾希。況彼之所以自任者，不但曰文章而已，既亡以考其得失，則其肆然而談道德於天下，夫亦孰能禦之？愚見如此，累蒙教告，終不能移也。又蒙喻及二程之於濂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一以貫之：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 中無主，外無擇：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溪，亦若橫渠之於范文正耳。先覺相傳之祕，非後學所能窺測。誦其詩，讀其書，則周·范之造詣固殊，而程·張之契悟亦異。如曰“仲尼·顏子所樂”，“吟風弄月以歸”，皆是當時口傳心受的當親切處。後來二先生舉似後學，亦不將作第二義看。然則行狀所謂“反求之六經然後得之”者，特語夫功用之大全耳。至其入處，則自濂溪不可誣也。若橫渠之於文正，則異於是，蓋當時粗發其端而已。受學乃先生自言，此豈自誣者耶？【“舉似”：‘似’，向也。唐人詩：“臘月開花似北人。”】

節要0051(0303) (汪張問答3) (卷3:10左) (晦庵集 卷30)

答汪尚書

伏蒙垂教以所不及，反覆再四，開發良多。此足以見閒居味道，所造日深，而又謙虛退託，不自賢智如此。區區下懷，尤切欣幸。第顧淺陋不足以當誘掖之勤，茲爲媿懼耳。然竊思之，〈東〉·〈西銘〉雖同出於一時之作，然其詞義之所指·氣象之所及，淺深廣狹，迥然不同。是以程門專以〈西銘〉開示學者，而於〈東銘〉，則未之嘗言。蓋學者誠於〈西銘〉之言反復玩味而有以自得之，則心廣理明，意味自別。若〈東銘〉，則雖分別長傲遂非之失於豪釐之間，所以開警後學，亦不爲不切，然意味有窮，而於下學功夫蓋猶有未盡者，又安得與〈西銘〉徹上徹下·一以貫之之旨同日而語哉？竊意先賢取舍之意或出於此，不審高明以爲如何？至於“體用一原，顯微無間”之語，則近嘗思之。前此看得大段鹵莽，子細玩味，方知此序無一字無下落，無一語無次序。其曰：“至微者理也，至著者象也，體用一原，顯微無間。”蓋自理而言，則卽體而用在其中，所謂一原也；

自象而言，則卽顯而微不能外，所謂無間也。其文理密察·有條不紊乃如此。若於此看得分明，則卽〈西銘〉之書，而所謂一原無間之實，已瞭然心目之間矣，亦何俟於〈東銘〉而後足耶？又蒙語及前此妄論平易蹉過之言，稱許甚過，尤切惶恐。然竊觀來意，似以爲先有見處，乃能造夫平易，此則又似禪家之說，熹有所不能無疑也。聖門之教，下學上達，自平易處講究討論，積慮潛心，優柔磨飭，久而漸有得焉，則日見其高深遠大而不可窮矣。程夫子所謂“善學者，求言必自近。易於近者，非知言者也。”¹⁾亦謂此耳。今日²⁾此事非言語臆度所及，必先有見然後有以造夫平易，則是欲先上達而後下學，譬之是猶先察秋豪而後睹山岳，先舉萬石而後勝匹雛也。夫道固有非言語臆度所及者，然非顏·曾以上幾於化者，不能與也。今日爲學用力之初，正當學問思辨而力行之，乃可以變化氣質而入於道。顧乃先自禁切，不學不思，以坐待其無故忽然而有見，無乃溺心於無用之地，玩歲愒日，而卒不見其成功乎？就使僥倖於恍惚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所謂……知言者也：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2) 日：海州本에는 [추가 ‘日’元作‘日’.]이 있다.

之間，亦與天理人心·叙秩命討之實了無交涉，其所自謂有得者，適足爲自私自利之資而已。此則釋氏之禍橫流稽天而不可遏者，有志之士所以隱憂浩嘆而欲火其書也。舊讀〈明道行狀〉，記其學行事業累數千言，而卒道其言不過力排釋氏，以爲必闢之而後可以入道。後得〈呂滎公家傳〉，則以爲嘗受學於二程，而所以推尊稱美之辭甚盛。考其實，亦誠有以大過人者。然至其卒章而誦其言，則以爲佛之道與聖人合，此其師生之間分背矛盾，一南一北，不審台意平日於此是非之際何以處之？天之生物，使之一本，此是則彼非，此非則彼是，蓋不容並立而兩存也。〔“體用一原顯微無間”：程子〈易傳序〉語。‘原’，《程傳》及《近思錄》，皆从水。〕

節要0052(0304) (汪張問答4) (卷3:13右) (晦庵集 卷30)

答汪尚書論家廟

熹伏蒙垂問廟制之說，姑以所示兩條考之，竊謂至和之制，雖若不合於古，而實得其意，但有所未盡而已。政和之制則雖稽於古者，或得其數，而失其意則多矣。蓋古者諸侯五廟，所謂二昭二穆者，高祖以下四世有服之親也。所謂太祖者，始封之君，百世不毀之廟也。今世公侯有家而無國，則不得有太祖之廟矣。故至和四廟，特所謂二昭二穆，四世有服之親，而無太祖之廟。其於古制雖若不同，而實不害於得其意也。又況古者天子之三公八命，及其出封，然後得用諸侯之禮。蓋仕於王朝者，其禮反有所厭¹⁾而不得伸，則今之公卿，宜亦未得全用諸侯之禮也。禮家又言，夏四廟，至子孫而五，則是凡立五廟者，亦是五世以後，始封之君正東向之位，然後得備其數，非於今日立廟之初便立太祖之廟也。政和之制，蓋皆不考乎此，故二昭二穆之上，通數高祖之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厭 : 기준본에는 [추가 '厭'與'壓'同.]이 있다.

父以備五世。夫既非始封之君，又已親盡而服絕矣，乃苟以備夫五世而祀之，於義何所當乎？至於大夫三廟，說者以爲天子·諸侯之大夫皆同。蓋古者天子之大夫與諸侯之大夫，品秩之數不甚相遠，故其制可以如此。若今之世，則唯侍從官以上，乃可以稱天子之大夫，至諸侯之大夫，則州鎮之幕職官而已爾。是安可以拘於古制而使用一等之禮哉？故至和之制，專以天子之大夫爲法，亦深得制禮之意。但其自東宮三少而²⁾上乃得爲大夫，則疑未盡。而適士二廟·官師一廟之制，亦有所未備焉耳。政和之制，固未必深考古者天子·諸侯之大夫同爲一等之說，然其意實近之。但自大侍從至陞朝官並爲一法，則亦太無隆殺之辨矣。蓋官職高下，則有古今之不同，但以命數準今品數而論之，則禮之等差可得而定矣。然此亦論其得失而已，若欲行之，則政和之禮行於今日，未之有改，凡仕於今日而得立廟者，豈得而不用哉？但其所謂廟者，制度草略，已不能如唐制之盛，而況於古乎？此好禮之士所以未嘗不歎息於斯也。然考諸程子之言，則以爲高祖有服，不可不祭，雖七廟五廟，亦止於高祖，雖三廟一廟，以至祭寢，亦必及於高

2) 而：海州本‘以’

祖，但有疏數之不同耳。疑此最爲得祭祀之本意。今以祭法考之，雖未見祭必及高祖之文，然有月祭享嘗之別，則古者祭祀以遠近爲疏數，亦可見矣。禮家又言，“大夫有事，省於其君，干祫及其高祖。”此則可爲立三廟而祭及高祖之驗。而來教所疑私家合食之文，亦因可見矣。但干祫之制，他未有可考耳。凡此皆直據鄙見與其所聞而論之，以求教於門下。伏惟高明財擇。【“於義何所當乎”：以上論公卿二制之得失。“可得而定矣”：以上論大夫二制之得失。“干祫”：見《禮記·大傳篇》。祫本諸侯祭禮，以大夫而行合祭高祖之禮，有自下干上之義，故云干祫。】

節要0053(0305) (汪張問答5) (卷3:15左) (晦庵集 卷30)

答汪尚書

別紙下詢，尤見謙德之盛，愈下而愈光。顧熹之愚，不足以有所發耳。夫宋公以外祖無後而歲時祭之，此其意可謂厚矣。然非族之祀，於理既未安，而勢不及其子孫，則爲慮亦未遠。曷若訪其族親，爲之置後，使之以時奉祀之爲安便而久長哉？但貧賤之士，則其力或不足以爲此，或雖爲之，而彼爲後者無所顧於此，則亦不能使之致一於所後。若宋公，則其力非不足爲，若爲之而割田築室以居之，又奏授之官以祿之，則彼爲後者，必將感吾之誼而不敢乏其祀矣。此於義理甚明，利害亦不難曉。竊意宋公特欲親奉嘗之，以致吾不忘母家之意，而其慮遂不及此耳。若果如此，則使爲後者主其祭，而吾特往助其饋奠，亦何爲而不可？伏惟高明試一思之，如有可采，願早爲之，使異時史策書之，可以爲後世法，而宋公之事不得專美於前，則區區之深願也。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節要0054(0306) (汪張問答6) (卷3:16左) (晦庵集 卷30)

與汪尙書

郭子和云譙天授亦黨事後門人。熹見胡·劉二丈說親見譙公，自言識伊川於涪陵，約以同居洛中。及其至洛，則伊川已下世矣。問以伊川易學，意似不以爲然。至考其他言行，又頗雜於佛·老子之學者，恐未得以門人稱也。以此一事及其所著《象學》文字推之，則恐其於程門亦有未純師者。不知其所謂卒業者果何事耶？凡此皆熹所疑，敢并以請。得賜開喻，幸甚。〔“郭子和”：雍。“譙天授”：定。“胡”：憲。“劉”：恐是子翬。〕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海州本에는 편지 제목이 따로 없고 앞 편지와 함께 묶여 있다.

節要0055(0307) (汪張問答7) (卷3:17右) (晦庵集 卷30)

與張欽夫別紙

侯子《論語》抄畢內上。其間誤字顯然者，已輒爲正之矣。但其語時有不瑩，豈其不長於文字而然耶？抑別有以也。頃在豫章，見阜卿所傳語錄，有尹和靖所稱伊川語云：“侯師聖¹⁾議論，只好隔壁聽。”詳味此言，以驗此書，竊謂其學大抵明白勁正，而無深潛縝密·沈浸醲郁之味，故於精微曲折之際不免疏略，時有罅縫。不得於言而求諸心，乃其所見所存有此氣象，非但文字之疵也。〔“侯子”：仲良。〕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聖：《全書》‘正’

節要0056(0308) (汪張問答8) (卷3:17左) (晦庵集 卷30)

答張欽夫

答廣仲書，切中學者之病，然愚意竊謂此病正坐平時燭理未明·涵養未熟，以故事物之來，無以應之。若曰於事物紛至之時，精察此心之所起，則是似更於應事之外別起一念，以察此心。以心察心，煩擾益甚，且又不見事物未至時用力之要，此熹所以不能亡疑也。儒¹⁾者之學，大要以窮理爲先。蓋凡一物有一理，須先明此，然後心之所發，輕重長短，各有準則。《書》所謂“天叙”·“天秩”·“天命”·“天討”，《孟子》所謂“物皆然，心爲甚”者，皆謂²⁾此也。若不於此先致其知，但見其所以爲心者如此，識其所以爲心者如此，泛然而無所準則，則其所存所發，亦何自而中於理乎？且如釋氏擎拳豎拂·運水般柴之說，豈不見此心？豈不識此心？而卒不可與入堯·舜之道者，正爲不見天理，而專認此心以爲主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儒：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2) 謂：海州本·定州本 ‘爲’

宰，故不免流於自私耳。前輩有言“聖人本天，釋氏本心”，蓋謂此也。來示³⁾又謂：“心無時不虛。”熹以爲心之本體固無時不虛，然而人欲已私汨沒久矣，安得一旦遽見此境界乎？故聖人必曰正其心，而正心必先誠意，誠意必先致知，其用力次第如此，然後可以得心之正而復其本體之虛，亦非一日之力矣。今直曰無時不虛，又曰既識此心，則用無不利，此亦失之太快而流於異學之歸矣。若儒者之言，則必也精義入神，而後用無不利，可得而語矣。⁴⁾ 孟子存亡·出入之說，亦欲學者操而存之耳，似不爲識此心發也。若能常操而存，卽所謂“敬者純”矣，純則動靜如一，而此心無時不存矣。⁵⁾ 今也必曰動處求之，則是有意求免乎靜之一偏，而不知其反倚乎動之一偏也。然能常操而存者，亦是顏子地位以上人方可言此，今又曰識得便能守得，則僕亦恐其言之易也。明道先生曰：“既能體之而樂，則亦不患不能守。”須如此而言，方是擲撲不破，絕滲漏·無病敗耳。高明之意，大抵在於施爲運用處求之，正禪家所謂石火電光底消息也，而於優游涵泳之功，似未甚留意。是以求之太迫而

3) 示：海州本·定州本‘書’

4) 可得而語矣：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5) 若能……不存矣：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得之若驚，資之不深而發之太露。⁶⁾ 《易》所謂“寬以居之”者，正爲不欲其如此耳。愚慮及此，不識高明以爲如何？

6) 求之……太露：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節要0057(0309) (汪張問答9) (卷3:19左) (晦庵集 卷30)

與張欽夫〔下復有一書，劇論程集改字，文多不收.〕

昨見共父家問，以爲二先生集中誤字，老兄以爲嘗經文定之手，更不可改，愚意未曉所謂。夫文定固有不可改者，如尊君父·攘夷狄·討亂臣·誅賊子之大倫大法，雖聖賢復出，不能改也。若文字之訛，安知非當時所傳亦有未盡善者，而未得善本以正之歟？至所特改數處，竊以義理求之，恐亦不若先生舊文之善。若如老兄所論，則是伊川所謂“昔所未遑，今不得復作。前所未安，後不得復正。”者，又將起於今日矣。已作共父書詳言之，復此具稟。更望虛心平氣，去彼我之嫌，而專以義理求之，則於取舍從違之間知所處矣。道¹⁾術衰微，俗學淺陋極矣。振起之任，平日深於吾兄望之。忽聞此論，大以爲憂。若每事自主張如此，則必無好問察言之理。將來任事，必有不滿人意處。而其流風餘弊，又將傳於後學，非適一時之害也。只如近世諸先達，聞道固有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道：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深，涵養固有厚薄，擴充運用固有廣狹，然亦不能不各有偏倚處。但公吾心以玩其氣象，自見有當矯革處，不可以火濟火，以水濟水，而益其疾也。熹聞道雖晚，賴老兄提掖之賜，今幸略窺彷彿。²⁾然於此不能無疑，不敢自鄙外於明哲，故敢控瀝，一盡所言。不審尊意以爲如何？

2) 彷彿：《全書》‘仿佛’

節要0058(0310) (汪張問答10-1~2) (卷3:20左) (晦庵集 卷30)

答張欽夫

(汪張問答10-1)

二先生皆有隨俗墓祭不害義理之說，故不敢輕廢。至於節祠，則又有說。蓋今之俗節，古所無有，故古人雖不祭而情亦自安。今人既以此爲重，至於是日，必具殽羞相宴樂，而其節物亦各有宜，故世俗之情，至於是日，不能不思其祖考，而復以其物享之。雖非禮之正，然亦人情之不能已者。但不當專用此而廢四時之正禮耳。故前日之意，以爲既有正祭，則存此似亦無害。今承誨諭，以爲黷而不敬，此誠中其病。然欲遂廢之，則恐感時觸物，思慕之心又無以自止，殊覺不易處。且古人不祭，則不敢以燕，況今於此俗節既已據經而廢祭，而生者則飲食宴樂，隨俗自如，殆非事死如事生·事亡如事存之意也。必盡廢之然後可，又恐初無害於義理而特然廢之，不惟徒駭俗聽，亦恐不能行遠，則是已廢之祭拘於定制，不復能舉，而燕飲節物漸於流俗，有時而自如也。此於天理¹⁾，亦豈得爲安乎？夫三王制禮，因革不

同，皆合乎風氣之宜，而不違乎義理之正。正使聖人復起，其於今日之議，亦必有所處矣。愚²⁾意時祭之外，各因鄉俗之舊，以其所尚之時·所用之物，奉以大槃，陳於廟中，而以告朔之禮奠焉，則庶幾合乎隆殺之節，而盡乎委曲之情，可行於久遠而無疑矣。至於元日履端之祭，《禮》亦無文，今亦只用此例。『“盡廢之”：謂并飲食宴樂而廢之。“履端”：見《左傳》。』

(汪張問答10-2)

熹昨聞彪丈謂天命惟人得之，而物無所與，鄙意固已不能無疑。今觀所論，則似又指稟生賦形以前爲天命之全體，而人物所受皆不得而與焉，此則熹之所尤不曉也。夫天命不已，固人物之所同得以生者也，然豈離乎人物之所受而別有全體哉？觀人物之生生無窮，則天命之流行不已可見矣。但其所乘之氣有偏正純駁之異，是以稟而生者有人物賢否之不一。物固隔於氣而不能知，衆人亦蔽於欲而不能存，是皆有以自絕于天，而天命之不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天理：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 愚：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已者，初亦未嘗已也。人能反身自求於日用之間，存養體察，以去其物欲之蔽，則求仁得仁，本心昭著，天命流行之全體固不外乎此身矣。故自昔聖賢不過使人盡其所以正心修身之道，則仁在其中，而性命之理得。伊川先生所謂“盡性至命，必本於孝弟”，正謂此耳。夫豈以天命全體置諸被命受生之前·四端五典之外，而別爲一術以求至乎彼哉？釋氏雖自謂惟明一心，然實不識心體，雖云心生萬法，而實心外有法，故無以立天下之大本，而內外之道不備。然爲其說者，猶知左右迷藏，曲爲隱諱，終不肯言一心之外別有大本也。若聖門所謂心³⁾，則天序·天秩·天命·天討·惻隱·羞惡·是非·辭讓莫不該備，而無心外之法，故孟子曰：“盡其心者，知其性也。知其性則知天矣。存其心，養其性，所以事天也。”是則天人性命豈有二理哉？而今之爲此道者，反謂此心之外別有大本，爲仁之外別有盡性至⁴⁾命之方，竊恐非惟孤負聖賢立言垂後之意·平生承師問道之心，竊恐此說流行，反爲異學所攻，重爲吾道之累。故因來示得效其愚，幸爲審其是否而復以求教於彪丈，幸甚幸甚

3) 心：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4) 至：定州本 ‘知’

甚。『“彪丈”：彪德遠也。蓋彪乃胡五峯門人，與敬夫同門學。故因與敬夫書，而及此。○尹子固云：“《南軒集》，‘遠’作‘美’。”“所乘之氣”：‘乘’恐‘稟’字，當考。』

節要0059(0311) (汪張問答11) (卷3:23左) (晦庵集 卷31)

答張敬夫

竊承政成事簡，暇日復有講習之樂，英材心化，多士風靡，此爲吾道之幸，豈特一郡之福哉！伯恭漸釋舊疑，朋友之幸。但得渠於此有用力處，則歲月之間，舊病不患不除矣。此有李伯聞¹⁾者【名宗思】，舊嘗學佛，自以爲有所見，論辨累年，不肯少屈。近嘗來訪，復理前語，熹因問之：“‘天命之謂性’，公以此句爲空無一法耶？爲萬理畢具耶？若空則浮屠勝。果實則儒者是，此亦不待兩言而決矣。”渠雖以爲實，而猶戀著前見，則請因前所謂空者而講學以實之。熹又告之曰：“此實理也，而以爲空，則前日之見悞²⁾矣。今欲真窮實理，亦何藉於前日已悞³⁾之空見而爲此二三耶？”渠遂脫然肯捐舊習而從事於此。此人氣質甚美，內行修飭，守官亦不苟，

〔編輯考〕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聞：海州本에는 [소주 他處作‘聞’，疑作‘聞’者是.]가 있고, 定州本에는 [소주 今按, ‘聞’，他處作‘問’，疑作‘聞’者非. 又作‘諫’處尤多.]가 있다；《全書》‘問’

2) 悞：《全書》‘誤’

3) 悞：《全書》‘誤’

得其回頭，吾道殊有賴也。前此答福州一朋友書，正論此事，書才畢而伯聞⁴⁾至。不一二日，其言果驗，亦可怪也。今日⁵⁾上呈。二人伯恭皆識之。深卿者，舊從伯恭遊，聞其家學守之甚固，但聞全不肯向此學用功，正恐難猝拔也。〔“李伯聞”：今按，‘聞’，他處作‘聞’，疑作‘聞’者非。又作‘諫’處尤多。“家學”：指伯恭之家學。〕

4) 聞：《全書》‘聞’

5) 日：[두주 今‘日’字，唐本作‘以’.]가 있다；《全書》‘以’

節要0060(0312) (汪張問答12) (卷3:24左) (晦庵集 卷31)

與張敬夫

伯恭想時時相見，欲作書不暇，告爲致意。向得渠兩書，似日前只向博雜處用功，却於要約處不曾子細研究，病痛頗多。不知近日復如何？大抵博雜極害事，如《閩範》之作，指意極佳，然讀書只如此，亦有何意味耶？先達所以深懲玩物喪志之弊者，正爲是耳。范醇夫一生作此等功夫，想見將聖賢之言都只忙中草草看過，抄節一番，便是事了，元不曾子細玩味。所以從二先生許久，見處全不精明，是豈不可戒也耶？渠又爲留意科學文字之久，出入蘇氏父子波瀾，新巧之外更求新巧，壞了心路，遂一向不以蘇學爲非，左遮右攔，陽擠陰助，此尤使人不滿意。向雖以書極論之，亦未知果以爲然否。

【“渠”：指伯恭。】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節要0061(0313) (汪張問答13-1~8) (卷3:25左) (晦庵集 卷31)

答張敬夫

(汪張問答13-1)

建陽一二士人歸自臨安，云嘗獲奉教，亦錄得數十段答問來，其間極有可疑處。雖所錄或失本意，亦必有些來歷也。又有泛然之問，略不曾經思索，答之未竟而遽已更端者，亦皆一一酬酢。此非惟於彼無益，而在我者亦不中語默之節矣。又隨問遽答，若與之爭先較捷者，此其間豈無牽強草略處？流傳謬誤，爲害不細。就令皆是，亦徒爲口耳之資。程子所謂“轉使人薄”者，蓋慮此耳。元履嘗疑學徒日衆，非中都官守所宜，熹却不慮此，但恐來學者皆只是如此，而爲教者俯就太過，略不審其所自，則悔吝譏彈將有所不免矣。況其流弊無窮，不止爲一時之害，道之興喪，實將繫焉。願明者之熟慮之也。

(汪張問答13-2)

類聚¹⁾孔·孟言仁處，以求夫仁之說，程子爲人之意，可

謂深切。然專一如此用功，却恐不免長欲速好徑之心。滋入耳出口之弊，亦不可不察也。大抵二先生之前，學者全不知有仁字，凡聖賢說仁處，不過只作愛字看了。自二先生以來，學者始知理會仁字，不敢只作愛說。然其流復不免有弊者。蓋專務說仁，而於操存涵泳之功，不免有所忽略，故無復優柔²⁾厭飫之味。克己復禮之實，不但“其蔽也愚”而已；而又一向離了愛字，懸空揣摩，既無真實見處，故其爲說恍惚驚怪，弊病百端，殆反不若全不知有仁字而只作愛字看却之爲愈也。熹竊嘗謂若實欲求仁，固莫若力行之近。但不學以明之，則有擿埴冥行之患，故其蔽愚。若主敬致知交相爲助，則自無此蔽矣。若且欲曉得仁之名義，則又不若且將愛字推求。若見得仁之所以愛而愛之所以不能盡仁，則仁之名義意思瞭然在目矣，初不必求之於恍惚有無之間也。此雖比之今日高妙之說，稍爲平易，然《論語》中已不肯如此迫切注解說破。至《孟子》，方間有說破處，然亦多是以愛爲言，殊不類近世學者驚怪恍惚·窮高極遠之言也。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8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類聚：海州本에는 앞에 제목 ‘答張敬夫’가 있다.

2) 柔：海州本·定州本 ‘游’

【“撻埴冥行”：楊子“撻埴索塗，冥行而已”，言盲人以杖撻地求塗也。】

(汪張問答13-3)

“中”字之說甚善，而所論狀性形道之不同，尤爲精密，開發多矣。然愚意竊恐程子所云“只一個中字，但用不同”，此語更可玩味。夫所謂“只一個中字”者，中字之義未嘗不同，亦曰不偏不倚·無過不及而已矣；然“用不同”者，則有所謂“在中之義”者，有所謂“中之道”者是也。蓋所謂“在中之義”者，言喜怒哀樂之未發，渾然在中，亭亭當當，未有個偏倚過不及處。其謂之中者，蓋所以狀性之體段也。有所謂“中之道”者，乃卽事卽物自有個恰好底道理，不偏不倚，無過不及，其謂之中者，則所以形道之實也。只此亦便可見來教所謂狀性·形道之不同者。但又見得中字只是一般道理，以此狀性之體段，則爲未發之中；以此形道，則爲無過不及之中耳。且所謂“在中之義”，猶曰在裏面底道理云爾，非以“在中”之“中”字解“未發”之“中”字也。³⁾忠恕之說，竊意明道是就人分上分別淺深而言，伊川是就理上該貫上下而言。若就人分上說，則“違道不遠”者，賢人推之之事

3) 忠恕：[두주 ‘忠恕’以下，定本作別書，然唐本一書.]가 있다.

也；“一以貫之”者，聖人之不待推也。若就理上平說，則忠只是盡己，恕只是推己，但其所以盡·所以推，則聖賢之分不同，如明道之說耳。【聖人雖不待推，然由己及物，對忠而言，是亦推之也。】大抵明道之言發明極致，通透灑落，善開發人；伊川之言卽事明理，質慤精深，尤耐咀嚼。然明道之言一見便好，久看愈好，所以賢愚皆獲其益；伊川之言乍見未好，久看方好，故非久於玩索者不能識其味。此其自任所以有成人材·尊師道之不同。【明道渾然天成，不犯人力；伊川功夫造極，可奪天巧。】

類聚言仁，亦恐有病者，正爲近日學者厭煩就簡，避迂求捷，此風已盛，方且日趨於險薄，若又更爲此以導之，恐益長其計獲欲速之心，方寸愈見促迫紛擾，而反陷於不仁耳。然却不思所類諸說，其中下學上達之方，蓋已無所不具。苟能深玩而力行之，則又安有此弊？今蒙來喻，始悟前說之非，敢不承命。然猶恐不能人人皆肯如此慤實用功，則亦未免尙有過計之憂。不知可以更作一後序，略采此意，以警後之學者否？不然，或只盡載此諸往返議論以附其後，亦庶乎其有益耳。不審尊意以爲如何？

(汪張問答13-4)

又謂“已發之後，中何嘗不在裏面”，此恐亦非文意。蓋既言未發時在中，則是對已發時在外矣，但“發而中節”，即此在中之理發形於外，如所謂“即事即物，無不有個恰好底道理”是也。一不中節，則在中之理，雖曰天命之秉彝，而當此之時，亦且漂蕩淪胥而不知其所存矣。但能反之，則又未嘗不在於此。此程子所以謂“以道言之，則無時而不中；以事言之，則有時而中”也，所以又謂“善觀者，却於已發之際觀之”也。若謂已發之後，中又只在裏面，則又似向來所說以未發之中自爲一物。與已發者不相涉入，而已發之際，常挾此物以自隨也。然此義又有更要子細處，夫此心廓然，初豈有中外之限？但以未發已發分之，則須如此。亦若操舍存亡出入之云耳。并乞詳之。

〈太極圖〉立象盡意，剖析幽微，周子蓋不得已而作也。觀其手授之意，蓋以爲唯程子爲能受之。程子之祕而不示，疑亦未有能受之者爾。夫既未能默識於言意之表，則道聽塗說，其弊必有甚焉。觀其答張閔中書云：“書雖未出，學未嘗不傳，第患無受之者。”及⁴⁾《東見

4) 及：海州本에는 [추가 ‘及’, 元作‘乃’.]가 있다.

錄》中論橫渠清虛一大之說“使人向別處走，不若且只道敬”，則其微意亦可見矣。

(汪張問答13-5)

所引《家語》，只是證明《中庸章句》，要見自“哀公問政”至“擇善”“固執”處，只是一時之語耳，於義理指歸初無所害，似不必如此力加排斥也。大率觀書，但當虛心平氣以徐觀義理之所在，如其可取，雖世俗庸人之言，有所不廢；如有可疑，雖或傳以爲聖賢之言，亦須更加審擇。自然意味平和，道理明白，腳踏實地，動有據依，無籠罩自欺之患。若以此爲卑近不足留意，便欲以明道先生爲法，竊恐力量見識不到他地位，其爲泛濫，殆有甚焉。此亦不可不深慮也。

(汪張問答13-6)

以敬爲主，則內外肅然，不忘不助而心自存。不知以敬爲主而欲存心，則不免將一個心把捉一個心，外面未有一事時，裏面已是三頭兩緒，不勝其擾擾矣。就使實能把捉得住，只此已是大病，況未必真能把捉得住乎？儒·

釋之異，亦只於此便分了。如云常見此心光燦燦地，便是有兩個主宰了。不知光者是真心乎？見者是真心乎？來諭剖析雖極精微，却似未及此意。愚慮及此，不審是否，如何？

(汪張問答13-7)

熹昨承誨諭五王之事，以爲但復唐祚而不立中宗，則武曌可誅，後患亦絕，此誠至論。但中宗雖不肖，而當時幽廢特以一言之失，罪狀未著，人望未絕，觀一時忠賢之心，與其募兵北討之事，及後來諸公說李多祚之語，則是亦未遽爲獨夫也。乃欲逆探未形之禍，一旦舍之而更立宗室，恐反爲計校利害之私，非所以順人心，乘天理，而事亦未必可成也。愚慮如此。然而此外又未見別有長策，不知高明以爲如何？【“乘天理”：‘乘’，或云：“當作‘秉’。”】

(汪張問答13-8)

熹窮居如昨，無足言者。但遠去師友之益，兀兀度日，讀書反己，固不無警省處，終是旁無彊輔，因循汨沒，

尋復失之。近日一種向外走作，心悅之而不能自己者，皆準止酒例戒而絕之，似覺省事。此前輩所謂“下士晚聞道，聊以拙自修”者。若充擴不已，補復前非，庶其有日。舊讀《中庸》慎獨⁵⁾，《大學》誠意·毋自欺處，常苦求之太過，措詞煩猥。近日乃覺其非，此正是最切近處·最分明處，乃舍之而談空於冥漠之間，其亦悞⁶⁾矣。方竊以此意痛自檢勅⁷⁾，懷然度日，惟恐有怠而失之也。傷急不容耐之病，⁸⁾固亦自知其然，深以爲苦而未能革。若得伯恭朝夕相處，當得減損。但地遠，不能數見爲恨耳。此間朋友絕少進益者，擇之久不相見，覺得病痛日深。頃與伯恭相聚，亦深歎今日學者可大受者殊少也。奈何奈何。子壽兄弟氣象甚好，其病却是盡廢講學而專務踐履，却於踐履之中要人提撕省察，悟得本心，此爲病之大者。要其操持謹質，表裏不二，實有以過人者。惜乎其自信太過，規撫⁹⁾窄狹，不復取人之善，將流於異學而不自知耳。《鄉約》之書，偶家有藏本，

5) 慎獨：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6) 悞：《全書》‘誤’

7) 勅：海州本·《全書》‘勒’

8) 傷……病：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9) 撫：[두주 ‘撫’, 唐本从木.]가 있다；《全書》‘模’

且欲流行，其實恐亦難行，如所喻也。然使讀者見之，因前輩所以教人善俗者而知自修之日¹⁰⁾，亦庶乎其小補耳。

10) 日：[두주 唐本旁註, ‘日’疑‘目’字之誤.]가 있다；海州本·定州本·《全書》‘目’

節要0062(0314) (汪張問答14-1~2) (卷3:15左) (晦庵集 卷31)

答敬夫孟子說疑義

大體小體

此章之解，意未明而說太漫。蓋唯其意之未明，是以其說不得而不漫也。七八年前，見徐吉卿說曾問焦某先生爲學之要，焦云：“先立乎其大者。”是時熹說此章，正如此解之支離，聞之惘然不解其語。今而思之，乃知焦公之學於躬行上有得力處¹⁾。〔此章以下，先生答說，“徐吉卿”：未詳，“焦某”：天授定也。〕

心氣未和，每加鑄治，竟不能悛。中間嘗覺求理太多而涵泳之功少，故日常匆迫而不暇於省察，遂欲盡罷生面功夫，且讀舊所習熟者而加涵養之力，竟復汨沒，又不能遂。大抵氣質動擾處多難收斂也。且如近讀二《禮》，亦是無事生事也。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躬行……得力處：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節要0063(0315) (汪張問答15-1~3) (卷3:33左) (晦庵集 卷32)

答張敬夫

(汪張問答15-1)

諸諭一一具悉。比來同志雖不爲無人，然更事既多，殊覺此道之孤，無可告語，居常鬱鬱。但每奉教諭，輒爲心開目明耳。子澄所引馬·范出處，渠輩正坐立志不彊¹⁾而聞見駁雜，胸中似此等草木太多，每得一事可借以自便，卽遂據之以爲定論，所以緩急不得力耳。近來尤覺接引學者大是難事，蓋不博則孤陋而無徵，欲其博則又有此等駁雜之患。況其才質又有高下，皆非可以一格而例告之。自非在我者充足有餘，而又深識幾會，亦何易當此責耶？周君恨未之識。大率學者須更令廣讀經史，乃有可據之地。然又非先識得一個義理蹊徑，則亦不能讀，正惟此處爲難耳。建康連得書，規撫²⁾只如舊日。前日與之書，有兩語云：“憂勞惻怛，雖盡於鰥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3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彊：海州本·定州本 ‘疆’

2) 撫：[두주 ‘撫’, 唐本从木.]이 있다；《全書》 ‘模’

寡孤獨之情，而未有以爲本根長久之計；功勳名譽，雖播於兒童走卒之口，而未有以喻乎賢士大夫之心。”此語頗似著題，未知渠以爲如何？然亦只說得到此，過此尤難言也。尋常戲謂佛氏有所謂大心衆生者，今世絕未之見。凡今之人，營私自便，得少爲足，種種病痛，正坐心不大耳。【“渠輩”：指子澄，“周君”：周燮，字允升，南軒高弟，其藏修之所曰漣溪書室，見《語類》。“建康”：劉珙，知建康府。“難言”：謂難與言向上事也。】

(汪張問答15-2)

大抵日前所見累書所陳者，只是儻侗地見得個大本達道底影象，便執認以爲是了，却於“致中和”一句全不曾入思議，所以累蒙教告以求仁之爲急而自覺殊無立脚下功夫處。蓋只見得個直截根源傾湫倒海底氣象，日間但覺爲大化所驅，如在洪濤巨浪之中，不容少頃停泊。蓋其所見一向如是，以故應事接物處，但覺粗厲勇果增倍於前，而寬裕雍容之氣，略無毫髮。雖竊病之，而不知其所自來也。而今而後，乃知浩浩大化之中，一家自有一個安宅，正是自家安身立命·主宰知覺處，所以立大本·行達道之樞要。所謂“體用一源，顯微無間”者，乃在於

此。而前此方往方來之說，正是手忙足亂，無著身處。道邇求遠，乃至於是，亦可笑矣。〔右論中和第三書。前二書謂誤，故不抄。〕

(汪張問答15-3)

前書所稟寂然未發之旨·良心發見之端³⁾，自以爲有小異於疇昔偏滯之見，但其間語病尙多，未爲精切。比遣書後，累日潛玩，其於實體似益精明。因復取凡聖賢之書以及近世諸老先生之遺語，讀而驗之，則又無一不合。蓋平日所疑而未白者，今皆不待安排，往往自見灑落處。始竊自信以爲天下之理其果在是，而致知格物·居敬精義之功，自是其有所施之矣。聖賢方策，豈欺我哉！蓋通天下只是一個天機活物，流行發用，無間容息。據其已發者而指其未發者，則已發者人心，而凡未發者皆其性也，亦無一物而不備矣。夫豈別有一物拘於一時·限於一處而名之哉？卽夫⁴⁾日用之間，渾然全體，如川流之不息·天運之不窮耳。此所以體用·精粗·動靜·本末洞然無一毫之間，而鳶飛魚躍，觸處朗然也，存者存此而

3) 寂然……發見之端：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4) 卽夫：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已，養者養此而已。“必有事焉而勿正，心勿忘，勿助長”也。從前是做多少安排，沒頓著處。今覺得如水到船浮，解維正柁而沿洄上下，惟意所適矣。豈不易哉！始信明道所謂“未嘗致纖毫之力”者，真不浪語。⁵⁾ 而此一段事，程門先達惟上蔡謝公所見透徹，無隔礙處，自餘雖不敢妄有指議，然味其言，亦可見矣。近范伯崇來自邵武，相與講此甚詳，亦嘆以爲得未曾有而悟前此用心之左，且以爲雖先覺發明指示不爲不切，而私意汨漂，不見頭緒。向非老兄抽關啓鍵，直發其私，誨諭諄諄，不以愚昧而捨置之，何以得此？其何感幸如之！區區筆舌，蓋不足以爲謝也。但未知自高明觀之，復以爲如何爾。〔“已發者人心”：心爲已發之說，詳見第五書，然其說後來深自以爲非是，故今不收。“用心之左”：屬伯崇。“且以爲”：以下先生自言也。但語勢有未穩，疑或有闕誤。或云：“得未曾有以上，屬伯崇，以下，先生自言”，恐此爲是。○右論中和第四書。〕

5) 始信……浪語：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節要0064(0316) (汪張問答16) (卷3:37右) (晦庵集 卷32)

問張敬夫 〔此及下篇所論人心私欲，與今〈中庸序〉說不同。所以收此，欲見先生入道本末。〕

《遺書》有言，“人心私欲，道心天理。”熹疑“私欲”二字太重，近思得之，乃識其意。蓋心一也，自其天理備具，隨處發見而言，則謂之道心；自其有所營爲謀慮而言，則謂之人心。夫營爲謀慮，非皆不善也，便謂之私欲者，蓋只一豪¹⁾髮不從天理上自然發出，便是私欲。所以要得“必有事焉而勿正，勿忘，勿助長”，只要沒這些計較，全體是天理流行，卽人心而識道心也。故又以“鳶魚飛躍”明之。先覺之爲後人也，可謂切至矣。此語如何？更乞裁喻。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豪：海州本·定州本 ‘毫’

節要0065(0317) (汪張問答17) (卷3:37左) (晦庵集 卷32)

答張敬夫

人心私欲之說，如來教所改字極善。本語之失，亦是所謂本原未明了之病，非一句一義見不到也。但愚意猶疑向來妄論引“必有事”之語亦未的當，蓋舜·禹授受之際，所以謂人心私欲者，非若衆人所謂私欲者也，但微有一毫把捉底意思，則雖云本是道心之發，然終未離人心之境。所謂“動以人則有妄，顏子之有不善，正在此間”者是也。既曰有妄，則非私欲而何？須是都無此意思，自然從容中道，才方純是道心也。“必有事焉”，却是見得此理而存養下功處，與所謂純是道心者蓋有間矣。然既察本原，則自此可加精一之功而進夫純耳，中間儘有次第也。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節要0066(0318) (汪張問答18-1~2) (卷3:38右) (晦庵集 卷32)

答張敬夫問目

(汪張問答18-1)

“滿腔子是惻隱之心。”此是就人身上指出此理充塞處，最爲親切。若於此見得，卽萬物一體，更無內外之別。若見不得，却去腔子外尋覓¹⁾，卽莽莽蕩蕩，無交涉矣。陳經正云：“我見天地萬物皆我之性，不復知我身之所爲我矣。”伊川先生曰：“他人食飽，公無餒乎？”正是說破此病。《知言》亦云：“釋氏和²⁾虛空沙界爲己身，而不敬其父母所生之身。”亦是說此病也。

(汪張問答18-2)

舉措自吾仁中出，而俯仰無所愧怍，更無打不過處。愚竊以爲志於仁者，方是初學有志於仁之人，正當於日用之間念念精察有無打不過處，若有，卽深懲而痛改之，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覓：《全書》‘不見’

2) 和：《全書》‘以’[교감기 ‘以’，原作‘和’，據浙本改.]

又從而究夫所以打不過者何自而來，用力之久，庶乎一旦廓然而有以知仁矣。雖曰知之，然³⁾亦豈能便無打不過處？直是從此存養，十分純熟，到顏·曾以上地位，方是入此氣象。然亦豈敢自如此擔當？⁴⁾只是誠心恭己，而天理流行自無間斷爾。今說才志於仁，便自如此擔當了，豈復更有進步處耶？又且氣象不好，亦無聖賢意味。正如張子韶《孝經》首云：“直指其路，急策而疾趨之。”此何等氣象耶？

3) 然：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4) 到顏曾……擔當：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節要0067(0319) (汪張問答19-1~2) (卷3:39左) (晦庵集 卷32)

又論仁說

(汪張問答19-1)

昨承開諭仁說之病，似於鄙意未安，卽已條具請教矣。再領書誨，亦已具曉。然大抵不出熹所論也，請復因而申之。謹按程子言仁，本末甚備，今撮其大要，不過數言。蓋曰仁者，生之性也，而愛其情也，孝悌其用也，公者所以體仁，猶言“克己復禮爲仁”也。學者於前三言者可以識仁之名義，於後一言者可以知其用力之方矣。今不深考其本末指意之所在，但見其分別性·情之異，便謂愛之與仁了無干涉；見其以公爲近仁，便謂直指仁體最爲深切，殊不知仁乃性之德而愛之本。因其性之有仁，是以其情能愛。但或蔽於有我之私，則不能盡其體用之妙。惟克己復禮，廓然大公，然後此體渾全，此用昭著，動靜本末，血脈貫通爾。程子之言意蓋如此，非謂愛之與仁了無干涉也，非謂“公”之一字便是直指仁體也。由漢以來，以愛言仁之弊，正爲不察性·情之辨，而遂以情爲性爾。今欲矯其弊，反使“仁”字泛然無所歸宿，而

性·情遂至於不相管，可謂矯枉過直，是亦枉而已矣。其弊將使學者終日言仁而實未嘗識其名義，且又并與天地之心·性情之德而昧焉。竊謂程子之意必不如此，是以敢詳陳之。伏惟采察。

(汪張問答19-2)

愛之之理便是仁，若無天地萬物，此理亦有虧欠。於此識得仁體，然後天地萬物血脈貫通，而用無不周者，可得而言矣。蓋此理本甚約¹⁾，今便將天地萬物夾雜說，却鶻突了。夫子答子貢博施濟衆之問正如此也。更以“復見天地之心”之說觀之亦可見。蓋一陽復處，便是天地之心完全自足，非有待於外也。又如濂溪所云“與自家意思一般”者，若如今說，便只說得“一般”兩字，而所謂“自家意思”者，却如何見得耶？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此理本甚約：海州本에 방점이 있다.

節要0068(0320) (汪張問答20) (卷3:41右) (晦庵集 卷32)

答張欽夫〔論中和第六書〕

諸說例蒙印可，而未發之旨又其樞要，既無異論，何慰如之！然比觀舊說，却覺無甚綱領，因復體察，得見此理須以心爲主而論之，則性情之德·中和之妙皆有條而不紊矣。然人之一身，知覺運用，莫非心之所爲，則心者，固所以主於身，而無動靜語默之間者也。然方其靜也，事物未至，思慮未萌，而一性渾然，道義全具，其所謂中，是乃心之所以爲體而寂然不動者也。及其動也，事物交至，思慮萌焉，則七¹⁾情迭用，各有攸主，其所謂和，是乃心之所以爲用，感而遂通者也。然性之靜也而不能不動，情之動也而必有節焉，是則心之所以寂然感通·周流貫徹而體用未始相離者也。然人有是心，而或不仁，則無以著此心之妙；人雖欲仁，而或不敬，則無以致求仁之功。蓋心主乎一身而無動靜語默之間，是以君子之於敬，亦無動靜語默而不用其力焉。未發之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에 실려 있다.

1) 七：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前，是敬也。固已主乎存養之實；已發之際，是敬也。又常行於省察之間。方其存也，思慮未萌而知覺不昧，是則靜中之動，復之所以“見天地之心”也；及其察也，事物紛糾而品節不差，是則動中之靜，良之所以“不獲其身，不見其人”也。有以主乎靜中之動，是以寂而未嘗不感；有以察乎動中之靜，是以感而未常²⁾不寂。寂而常感，感而常寂，此心之所以周流貫徹而無一息之不仁也。然則君子之所以“致中和而天地位·萬物育”者，在此而已。蓋主於身而無動靜語默之間者心也；仁則心之道，而敬³⁾則心之貞也。此徹上徹下之道，聖學之本統。明乎此，則性情之德·中和之妙，可一言而盡矣。熹向來之說固未及此，而來喻曲折，雖多所發明，然於提綱振領處似亦有未盡。又如所謂“學者先須察識端倪之發，然後可加存養之功”，則熹於此不能無疑。蓋發處固當察識，但人自有未發時，此處便合存養，豈可必待發而後察，察而後存耶？且從初不曾存養，便欲隨事察識，竊恐浩浩茫茫，無下手處，而豪釐之差·千里之繆，將有不可勝言者。此程子所以每言孟子才高，學之無可依

2) 常：海州本·定州本‘嘗’

3) 敬：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據，人須是學顏子之學，則入聖人爲近，有用力處，其微意亦可見矣。來教又謂言靜則溺於虛無，此固所當深慮。然此二字，如佛者⁴⁾之論，則誠有此患。若以天理觀之，則動之不能無靜，猶靜之不能無動也；靜之不能無養，猶動之不可不察也。但見得一動一靜，互爲其根，敬義夾持，不容間斷之意，則雖下“靜”字，元非死物，至靜之中蓋有動之端焉。⁵⁾是乃所以見天地之心者。而先王之所以至日閉關，蓋當此之時，則安靜以養乎此爾，固非遠事絕物，閉目兀坐而偏於靜之謂。但未接物時，便有敬以主乎其中，則事至物來，善端昭著，而所以察之者益精明爾。伊川先生所謂“却於已發之際觀之”者，正謂未發則只有存養，而已發則方有可觀也。⁶⁾周子之言主靜，乃就中正仁義而言。以正對中，則中爲重；以義配仁，則仁爲本爾，非四者之外別有主靜一段事也。來教又謂熹言以靜爲本，不若遂言以敬爲本，此固然也。然“敬”字工夫，通貫動靜，而必以靜爲本，故熹向來輒有是語。今若遂易爲“敬”，雖若完全，然却不見敬之所施有先有後，則亦未得爲諦當也。至如來教所

4) 者：全州本에는 [두주 ‘者’, 《大全》館本作‘老’.]가 있다.

5) 則雖……端焉：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6) 未接……可觀也：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謂“要須察夫動以見靜之所存·靜以涵動之所本，動靜相須，體用不離，而後爲無滲漏也”，此數句卓然，意語俱到，謹以書之座右，出入觀省。然上兩句得⁷⁾序似未甚安，意謂易而置之，乃有可行之實。不審尊意以爲如何？〔“此二字”：‘二’疑當作‘一’，‘主靜乃就中正仁義而言’：以中仁屬靜，與〈圖說〉註異。詳下〈答伯恭書〉。‘得序’：‘得’疑當作‘語’，或‘次’字。〕

7) 得：[두주 考唐本, ‘得’作‘次’.]가 있다 ; 《全書》 ‘次’

定本 退溪全書 四

朱子書節要 卷之四 諸子目錄【呂劉問答】

《呂伯恭》 見上一卷。

《劉子澄》 名清之，號靜春。臨江人。舉進士，後見朱先生，慨然志義理之學。知衡州·袁州。著《訓蒙新書》等。○見《言行錄》。

節要0069(0401) (呂劉問答1-1~51) (卷4:1右) (晦庵集 卷33~35)

答呂伯恭

(呂劉問答1-1)

竊承進學之意甚篤，深所望於左右。至於見屬過勤，則非區區淺陋所堪。然不敢不竭所聞，以塞厚意。熹舊讀程子之書有年矣，而不得其要。比因講究《中庸》首章之指，乃知所謂“涵養須用敬，進學則在致知”者，兩言雖約，其實入德之門無踰於此。方竊洗心以事斯語，而未有得也，不敢自外，輒以爲獻。以左右之明，尊而行之，不爲異端荒虛浮誕之談所遷惑，不爲世俗卑近苟簡之論所拘牽，加以歲月，久而不舍，竊意其將高明光大，不可量矣。承喻所疑，爲賜甚厚。所未安者，別紙求教。然其大概，則有可以一言舉者。其病在乎略知道體之渾然無所不具，而不知渾然無所不具之中，精粗本末·賓主內外，蓋有不可以豪¹⁾髮差者，是以其言常喜合而惡離，却不知雖文理密察·縷析豪²⁾分，而初不害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51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2와 권3에 실려 있다.

1) 豪：海州本·定州本 ‘毫’

乎其本體之渾然也。往年見汪丈舉張子韶語明道“至誠無內外”之句，以爲“至誠”二字有病，不若只下個“中”字。大抵近世一種似是而非之說，皆是此個意見，惟恐說得不鶻突，真是謾人自謾·誤人自誤。士大夫無意於學，則恬不知覺；有志於學，則必入於此。此熹之所以深憂永嘆，不量輕弱而極力以排之。雖以得罪於當世而不敢辭也。來教又謂：“吾道無對，不當與世俗較勝負”，此說美則美矣，而亦非鄙意之所安也。夫道固無對者也，然其中却著不得許多異端邪說，直須一一剔撥出後，方曉然見得個精明純粹底無對之道。若和泥合水，便只著個無對包了，竊恐此無對中却多藏得病痛也。孟子言楊·墨之道不熄，孔子之道不著，而《大易》於君子小人之際，其較量勝負，尤爲詳密，豈其未知無對之道邪？蓋無對之中，有陰則有陽，有善則有惡，陽消則陰長，君子進則小人退，循環無窮，而初不害其爲無對也。況熹前說已自云“非欲較兩家已往之勝負，乃欲審學者今日趣向之邪正”，此意尤分明也。科舉之教無益，誠如所喻。然謂欲以此致學者而告語之，是乃釋氏所謂“先以欲勾牽，後令入佛智”者，無乃枉尋直尺之甚，³⁾尤

2) 豪：海州本·定州本‘毫’

非淺陋之所敢聞也。伊川《學制》固不必一二以循其跡，然郡學以私試分數較計餉啜，尤爲猥屑，似亦當罷之。

(呂劉問答1-2)

示喻曲折，深所望於左右。顧其間有未契處，不得不極論，以求至當之歸。至於立彼我·較勝負之嫌，則熹雖甚陋，豈復以此疑於左右者哉？持養斂藏之誨，敢不服膺。然有所不得已者，世衰道微，邪說交作，其他紛紛者固所不論，而賢如吾伯恭者，亦尙安於習熟見聞之地，見人之詭經誣聖·肆爲異說，而不甚以爲非，則如熹者，誠亦何心安於獨善，而不爲極言覈論以曉一世之昏昏也？使世有任其責者，熹亦何苦而譏譏若是耶？設使顏子之時上無孔子⁴⁾，則彼其所以明道而救世者，亦必有道，決不退然安坐陋巷之中以獨善其身而已。故孟子言禹·稷·顏子，易地則皆然。惟孟子見此道理，如揚子雲之徒，蓋未免將顏子只做個塊然自守底好人看。若近世，則又甚焉。其所論顏子者，幾於釋·老之空寂矣。熹竊謂學者固當學顏子者⁵⁾，如克己復禮·不遷怒貳過·不伐善施

3) 先以欲……直尺之甚：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4) 孔子：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勞之類，造次顛沛，所不可忘。但亦須審時措之宜，使體用兼舉，無所偏廢，乃爲盡善。若用有所不同⁶⁾，則所謂體者乃是塊然死物而已，豈眞所謂體哉！觀伊川先生十八歲時上書所論顏子·武侯所以不同，與上蔡論《韶》·《武》異處，便見聖賢之心無些私意，只是畏天命·循天理而已。此義與近世論內修外攘之說者亦相貫。夫吾之所以自治者，雖或有所未足，然豈可以是而遂廢其討賊之心哉？示喻蘇氏於吾道不能爲楊·墨，乃唐·景之流耳。今蘇氏之學，上談性命，下述政理，其所言者，非特屈·宋·唐·景而已。學者始則以其文而悅之，以苟一朝之利，及其既久，則漸涵入骨髓，不復能自解免。其壞人材·敗風俗，蓋不少矣。伯恭尙欲左右之，豈其未之思邪？其貶而置之唐·景之列，殆欲陽擠而陰予之耳。向見正獻公家傳，語及蘇氏，直以浮薄談⁷⁾目之。而舍人丈所著《童蒙訓》則極論詩文必以蘇·黃爲法。嘗竊歎息，以爲若正獻·滎陽，可謂能惡人者，而獨恨於舍人丈之微旨有所未喻也。然則老兄今日之論，未論

5) 學者……顏子者：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6) 同：《全書》‘周’

7) 談：[두주 唐本旁註, “談，一本作‘輩’.”]가 있다；《全書》에는 [교감기 ‘談’, 浙本作‘輩’.]가 있다.

其他，至於家學，亦可謂蔽於近而違於遠矣。更願思之，以求至當之歸，不可自悞而復悞人也。前書奉問謝公之說，正疑其不能無病。詳考從上聖賢以及程氏之說，論下學處，莫不以正衣冠・肅容貌爲先。蓋必如此，然後心得所存而不流於邪僻。《易》所謂“奈邪存其誠”，程氏所謂“制之於外，所以養其中”者，此也。但不可一向溺於儀章器數之末耳。⁸⁾ 若言所以正・所以謹者，乃禮之本，便只是釋氏所見，徒然橫却個所以然者在胸中，其實却無端的下功夫處。儒者之學，正不如此，更惟詳之。『“用有所不同”：‘同’疑當作‘周’。“正獻公”：呂公著 “舍人丈”：呂本中，“榮陽”：呂希哲。“蔽於近而違於遠”：近指舍人，遠指正獻。』

(呂劉問答1-3)

大抵伯恭天資溫厚，故其論平恕委曲之意多；而熹之質失之暴悍，故凡所論皆有奮發直前之氣。⁹⁾ 竊以天理揆之，二者恐皆非中道。但熹之發足以自撓而傷物，尤爲可惡，而伯恭似亦不可專以所偏爲至當也。無以報箴誨之益，敢效其愚，不審然否？因來及之，幸甚幸甚。欽

8) 但不可……末耳：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9) 天資……直前之氣：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夫書來，具道近事曲折，少釋憂懣。想贊助之力爲多。“出入無疾，朋來無咎”，大率致意，此語尤切當。然想已有成規，更願凡百愆重，以圖萬全。最是人材難全，懲其所短，則遺其所長，取其所長，則雜其所短，此須大段子細著眼力，乃可無悔吝耳。

(呂劉問答1-4)

動靜陰陽之說，竟未了然，何耶？豈非向來奉答者未得其要，有以致賢者之疑乎？比再觀之，方以爲病，欲別爲說以奉報。今以來喻所引者推明之，似却更分明也。夫謂“人生而靜”，是也，然其感於物者，則亦豈能終不動乎？今指其未發而謂之中，指其全體而謂之仁，則皆未離乎靜者而言之。至於處物之宜謂之義，處得其位謂之正，則皆以感物而動之際爲言矣，是則安得不有陰陽·體用·動靜·賓主之分乎？故程子曰：“仁體義用也。知義之爲用而不外焉者，可以語道矣。世之論義者多外之，不爾則混然而無別，非知仁義之說者也。”此意¹⁰⁾極分明矣。且體·用之所以名，政以其對待而不相離也。今以靜爲中正仁義之體，而又謂中正仁義非靜之用，不亦

10) 意：海州本·定州本‘義’

矛盾机梲¹¹⁾之甚乎？『“今指其未發而謂之中云云”：此義亦見上〈答敬夫書〉。但此與上，皆以中仁屬靜，〈圖說〉本註，以正義屬靜，恐正義爲靜的確，故〈記論性答稿後〉以此爲正論矣。然而此中仁爲靜，必有說，更詳之。○更詳之，別有說文，多不載於此。』

(呂劉問答1-5)

功夫易間斷，義理難推尋，而歲月如流，甚可憂懼。奈何奈何。

(呂劉問答1-6)

論治固有序，然體·用亦非判然各爲一事，無今日言此而明日言彼之理。如孟子論愛牛制產，本末雖殊，然亦罄其說於立談之間。大抵聖賢之言，隨機應物，初無理事精粗之別。其所以格君心者，自其精神力量有感動人處，非爲恐彼逆疑吾說之迂，而姑論無事之理以嘗試之也。若必如此，則便是世俗較計利害之私，何處更有聖賢氣象耶？愚見如此，更惟精思而可否之。區區之論所以每不同於左右者，前後雖多，要其歸宿，只此毫釐之間，講而通之，將必有日矣。

11) 梲：海州本에는 [추가 ‘梲’，〈書〉从 ㄹ.]가 있고，定州本에는 [소주 ‘梲’，〈秦誓〉从 ㄹ.]가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四

(呂劉問答1-7)

中夏久雨，伏惟純孝感格，體力支勝。熹自泉·福間得侍郎中丈教誨，蒙以契舊之故，愛予甚厚。比年以來，闊別雖久，而書疏相繼，獎厲¹²⁾警飭，皆盛德之言。感激銘佩，何日敢忘！區區尚冀異時得奉几杖於寂寞之濱，以畢餘誨。豈謂不淑，遽至於此¹³⁾！聞訃悲咽，不能爲懷。而山居深僻，無婺女之便，以故至今不能致一書，以道此懷，且候左右哀疚以來興寢之狀，往來於心，如食物之不下也，不審能亮之否？左右孝誠切至，何以堪此？然門戶之寄·朋友之望，實不爲輕，千萬節抑，以慰遠懷。『“郎中丈”：伯恭之先公。』

(呂劉問答1-8)

舊學雖不敢廢，然章句誦說之間，亦未見一安穩處。所欲相與講評反覆者，非書札所能寄也。示喻深知前此汗漫之非，幸甚。比來講究必已加詳密矣。累得欽夫書，亦深欲伯恭更於此用力也。

12) 厲：海州本·定州本‘勵’

13) 此：定州本‘人’

(呂劉問答1-9)

教告諄複，警策殊多。離群索居，其害至此，良可警懼。蓋初心之善未始不明，但失照管，卽隨事汨沒，不自覺耳。

(呂劉問答1-10)

謝遣學徒，杜門自治，深爲得策，所造詣想日深矣。恨未有承教之期，爲悵悵耳。但爲學¹⁴⁾子輩抄錄文字流傳太多，稽其所敝¹⁵⁾，似亦有可議者。自此恐亦當少認其出也。如何如何？

(呂劉問答1-11)

薛湖州昨日又得書，其相與之意甚勤。聞其學有用，甚恨不得一見之。然似亦有好高之病，至謂義理之學，不必深窮，如此則幾何而¹⁶⁾不流於異端也耶？『〔薛湖州〕：薛士龍季宣也。』

(呂劉問答1-12)

14) 學：[두주 ‘學’，唐本作‘舉’.]가 있다；《全書》‘舉’

15) 敝：定州本‘弊’

16) 而：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誨諭之詳，伏讀再三，警發甚至，其爲欣荷，又不自勝。但所謂飽經歷・真切磨”者，不敢當耳。區區已復詳具求教，顚俟益論也。辭免文字附沈尹專人，自七八月間去此，意其已到。近託人致懇廟堂，求聽所請，得報乃云文字未至，良以爲疑。杜門無事，乃有此撓。聞是韓丈拈出，前此亦未知。今既如此狼狽，却須得韓丈出手，大家收救，莫令到無收拾處，乃荷相念。然又不欲作書，彼亦未必以爲誠。然不知可煩老兄，因書一言所以不敢受之意，非出矯僞，得自廟堂上辭免文字，特依所乞，再授¹⁷⁾元官，差監嶽廟，便是一個出場也。康節恐是打乖法門，非辭受之正。伊川再受西監，止是叙復元官，還蒞舊職，又可逡巡解去，卽與今日事體全不相似，皆未敢援以自比。欽夫書來，亦云：“豈可逆料後患而先汨所守之義？”¹⁸⁾此語亦甚直截。然渠却不曾爲思量如何解免得脫，若只如此廝喏，恐非臣子所敢安也。千萬便爲盡¹⁹⁾以此意達之韓丈，得早爲解紛，幸甚幸甚。『“辭免文字”：辭祕書郎時。“廝喏”：‘喏’，《韻書》，“音匡，犬欲噬也。”然‘喏’或作‘捱’，《漢語解》，“捱，推也。”則‘廝喏’，是相持相維不

17) 授：海州本·定州本‘受’

18) 豈可……所守之義：海州本에는 방침이 있다.

19) 盡：海州本·定州本‘書’

相聽順之義.』

(呂劉問答1-13)

子澄去就從容，甚可喜。昨聞周子充辭郡得請，今又睹此，益知辭受由人而不在於時，豈彼能之而我不能哉？若來喻所云親切用工處，誠亦更當致力。想相見必熟講之矣。

(呂劉問答1-14)

梁公至此，相見之後，始知前此請之由衷，亦爲言於諸公。今茲之請，其必遂矣。此外無致力處，姑復任之，但惕息俟罪而已。去冬了叔母葬事，又人事出入，迫歲方小定。開正復擾擾，才得旬日休息，又以梁公遭憂，不免入城弔之，計又須旬日往返。加以親舊間死喪弔送，奔走不暇，鄉民又已嗷嗷告飢，此皆不免勞心費力。殊覺胸次塵埃，學業固無由進益，至於尤悔之積，亦有不暇點檢者。每一念之，如此紛紛，竟亦何益！欲舍此以求講論規誨之助而不可得，則亦悵然而已。『“梁公”：克家.』

朱子書節要 卷之四

(呂劉問答1-15)

所喻講學克己之功，哀多益寡，政得恰好，此誠至論。然此二事各是一件功夫，學者於此須是無所不用其極，然後足目俱到，無偏倚之患。若如來喻，便有好仁不好學之蔽矣。且《中庸》言學問思辯²⁰⁾而後繼以力行，程子於涵養進學亦兩言之，皆未嘗以此包彼而有所偏廢也。若曰講習漸明²¹⁾，便當痛下克己功夫²²⁾以踐其實，使有以真知其意味之必然，不可只如此說過，則其言爲無病矣。昨答敬夫，言〈仁說〉中有一二段已說破此病。

(呂劉問答1-16)

熹屏居如昨，近出展墓，遂登蘆山。小菴在孤峯絕頂之側，少留旬日，舉目雲山，盡數百里，足以消²³⁾滌塵滯，他無足言也。懇辭未報，若不將上，則不若不報之爲愈。今幸如此，且爾偷安耳。示喻專心致志之功，警發昏惰，爲幸甚矣。但年來浸益多事，雖書策功夫，亦不能得相接續，此爲可懼。至於朋友，亦正自難得人。大

20) 辯：海州本·定州本‘辨’

21) 講習漸明：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2) 功夫：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3) 消：《全書》‘稍’

抵氣習已偏而志力不彊²⁴⁾，殊未有以慰人意者。門墻之下，渠亦有其人乎？誘接之道，雖各不同，要是且令於平易明白處²⁵⁾漸加功夫，時加警策而俟其自得，此爲正法耳。【“渠”：上聲亦去聲，詎之，或作豈也。又未知詞也。《漢書》：“渠有其人乎。”】

(呂劉問答1-17)

聞攜書入山水勝處，想講學之餘，日有佳趣。小兒亦得從行，荷意愛厚矣，感刻何敢忘也！

(呂劉問答1-18)

人各有偏，非見徹克盡，所不能免，此誠至論，佩服不敢忘也。

(呂劉問答1-19)

懷玉之約，遲以明年，無所不可。但兒子說車馬自會稽遂如天台·鴈蕩，不審亦可留此勝概，以俟來春相與俱行否？若爾，則不必登懷玉，只自此徑走婺女，相就而

24) 彊：海州本·定州本‘疆’

25) 平易明白處：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行也。兒子歸來，不惟課業勝前，至於情性作爲，亦比往時小異，信乎親炙薰陶之效，舉家感德，不可名言。但惜乎其氣質本凡，又無意於大受，不足以希升堂之列耳。還日又蒙借人津遣，尤以懼荷。但歸來衰衰，俗務汨沒，不得如臨行所戒。次第場屋得失，初非所期，亦復任之耳。損減²⁶⁾收斂之喻，真實切當，謹銘座右，不敢忘也。〔“懷玉”：山名，在信州。〕

(呂劉問答1-20)

疢疾想一向平復久矣。杜門進學，所造想日深。所謂凝聚收斂是大題目，此不易之論，乃功夫根本。至謂察助長之失，乃其間節宣之宜耳，此語却恐未盡。蓋平論之，則“有事”·“勿正”·“勿忘”·“勿助”自是四事，不應偏察其一。若偏論之，則“助”者已是用意太過之病，若又以“察”隨之，竊恐²⁷⁾轉見紛擾。此須更審之，恐或立辭之病耳。

(呂劉問答1-21)

26) 損減：海州本·定州本‘減損’

27) 恐：海州本·定州本‘意’

昨聞幼弟之喪，復遭功衰之慘，伏惟悲痛何以堪處？而營治襄事，亦不能不勞神觀，區區尤劇馳情。叔京自冬初與邵武朋友三兩人來寒泉，相處旬日，既歸卽病。十一月末間手書來告訣，得之驚駭，卽走省，至則已不起數日矣。朋友間如此公者不易得，極可傷痛。熹開正當復往，爲料理葬²⁸⁾。比來甚覺衰憊，不堪奔走，然不得不爲一行也。

(呂劉問答1-22)

昨承枉過，得兩月之款，警誨之深，感發多矣。別去忽忽²⁹⁾兩月，向仰不少忘。便中奉告，承已稅駕，欣慰之劇。信後秋氣已清，伏惟尊候萬福。熹還家數日，始登蘆山³⁰⁾之頂，清曠非復人境，但過清，難久居耳。至彼，與季通方議丹丘之行，忽得來教，爲之惘然。却悔前日不且挽留，或更自鵝湖追逐入懷玉深山，坐數日也。損約收斂，此正區區所當從事。日前外事有不得已而應者，自承警誨，什損四五矣。自此向裏漸漸整治，庶幾寡

28) 葬：川谷本에는 [추가 ‘葬’ 上下, 疑有闕文.]이 있다.

29) 忽忽：海州本에는 [주목추가 ‘忽’, 元作‘忽’.]이 있다；《全書》‘忽忽’. 今按：朱熹의 어투와 글의 문맥으로 보아 ‘忽忽’이 맞는 표현으로 보인다.

30) 蘆山：海州本에는 [주목추가 ‘蘆’, 元作‘蘆’.]가 있다.

過。但恐密切處不似外事易謝絕也。《綱目》草稿略具，俟寫校淨本畢，卽且休歇數月。向後但小作功程，卽亦不至勞心也。向來之病，非書累人，乃貪躁內發而然。今當就此與作節度，庶幾小瘳耳。『“昨承枉過”：淳熙乙未五月，伯恭過寒泉精舍。“還家”：先生送伯恭，至信州鵝湖寺還家，謂自信州還也。“丹丘之行”：卽溫台之行丘。』

(呂劉問答1-23)

數日來蟬聲益清，每聽之，未嘗不懷高風也。

(呂劉問答1-24)

近復一到武夷，留近旬月，窮探徧歷，乃知昔之未始遊也。摩挲舊題，俯仰陳迹，而叔京遂爲古人，重以傷歎耳。塾子久累誨督，感刻已深。又承許其稍進，尤切銘篆。苦淡之習，欲其自知進步，恐無此日。更得明示好惡而³¹⁾痛加撙節，則爲幸又不可言矣。

(呂劉問答1-25)

汪丈遽至於此，想同此傷嘆。此公實爲今日善類之宗

31) 而：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主，一旦³²⁾隕沒，何痛如之！卽欲奔往哭之，又不敢輒至近甸，然旦夕歸婺源，或當便道一過其家。情義所在，有不得而避者。然亦不敢見人，幸勿語人也。

(呂劉問答1-26)

承喻以期會之所，甚幸。但區區此行，迫不得已，須一至衢，正以不欲多歷郡縣，故取道浦城以往。只擬夜入城寺，遲明卽出，却自常山·開化過婺源，猶恐爲人所知，招致悔咎。今承誨諭欲爲野次之款，此固所深願。但須得一深僻去處，踰伏兩三日乃佳。自金華不入衢，徑趣³³⁾常山道間尤妙。石巖寺不知在何處？若在衢·婺間官道之旁，卽未爲穩便。蓋去歲鵝湖之集，在今思之，已非善地矣。更熟籌度之。【“過婺源”：淳熙三年先生歸源省墓。】

(呂劉問答1-27)

示喻令學者兼看經史，甚善甚善。此間來學者少，亦欲放此接之。但少通敏之姿，只看得一經或《論》·《孟》，

32) 旦：海州本‘朝’

33) 趣：[두주 《韻會》, “‘趨’亦作‘趣’.”]가 있다; 海州本·定州本‘趨’

已無餘力矣。然恐亦當令多就經中留意爲佳。蓋史書鬧熱，經書冷淡，後生心志未定，少有不偏向外去者，此亦當預防也。如何？

(呂劉問答1-28)

昨承遠訪，幸數日款，誨論開警良多。別忽五六日，雖在道途，不忘向仰。乍晴漸熱，伏惟尊候萬福。熹十二日早達婺源，乍到，一番人事冗擾，所不能免。更一兩日，徧走山間墳墓，歸亦不能久留也。道間與季通講論，因悟向來涵養功夫全少，而講說又多彊³⁴探必取。尋流逐末之弊，推類以求，衆病非一，而其源皆在此。恍然自失，似有頓進之功。若保此不懈，庶有望於將來。然非如近日諸賢所謂頓悟之機也。向來所聞誨諭諸說之未契者，今日細思，吻合無疑。大抵前日之病，皆是氣質躁妄之偏，不曾涵養克治，任意直前之弊耳。自今改之，異時相見，幸老兄驗其進否而警策之也。

(呂劉問答1-29)

熹前月至昭武見端明 黃丈，旬日而歸，黃丈端莊渾厚，

34) 彊：海州本·定州本‘疆’

老而不衰，議論不爲詭激，而指意懇切，亦自難及。見之使人不覺心服，益自愧其淺之爲丈夫也。伏承誨諭辭受之說甚詳，蓋一出於忠誠義理之心，非世俗欣厭利害之私所能及。三復玩味，使人心平氣和，恨其聞之晚也。儒·釋之辨，誠如所喻。蓋正所當極論明辨處，若小有依違，便是陰有黨助之意，使人不能不致疑。而不知者遂以迷於向背，非小病也。自今切望留意於此，豈可退託以廢任道之實，幸其衰熄而忽防微之戒哉？〔按《年譜》，先生丙申二月歸婺源省墓，卽前書所云過婺源是也。先是丁亥八月，如長沙訪南軒，道經昭武，謁黃端明，前後十年事，編次恐錯。‘黃丈’：中。〕

(呂劉問答1-30)

竊聞新除，不勝慰喜。而區區私請亦遂從欲，尤以欣幸。諸公若早知出此，則無如許紛紛矣。老兄憂時之切，惓惓不忘，竊計裂裳裹足，不俟屨而就途矣。所願慨然以身任道，無所回隱，因上心之開明，及時進說，以慰善類之望，千萬幸甚。往者固憂鄭自明之舉莫之或繼，其爲安危禍福之機，有不容息者。今得賢者進，爲少寬畎畝之憂矣。大兒方幸依託，不知今當如何？欲便遣人取

之，又以懇叔度催畢親事，更俟其報。若只此歲裏，則未能便喚歸也。然老婦之病日益進，深以此事爲憂，得并爲一言速之，千萬幸甚。〔“區區私請”：淳熙丙申，辭祕書差武夷 冲佑觀時也。“叔度”：潘景憲，先生子塾婦翁。〕

(呂劉問答1-31)

熹私門禍故，老婦竟不起疾，悲悼不可爲懷。兒子遠歸，已後其母，又切傷痛也。一體胖合，情義不輕，而自此門內細碎，便有不得不關心者。衰懶詎復堪此，奈何奈何？近年一種議論，專務宛轉回互，欲以潛回主意，陰轉事機。此在古人，固有以此而濟事者，然皆居亂世·事昏主，不得已而然者。竊謂今日主相樂聞忠言，非不切至，特蔽於陰邪，不能決然信用。而或者乃欲以彼術施之，計慮益巧，誠意益衰。以上聰明，亦豈不悟其爲此？此所以屢進而卒不效也。不審高明以爲如何？然當默之，勿以語人也。熹祠命已下，偶值喪禍，未及拜受。上恩如此，何以爲報！正惟修身守道³⁵⁾，以求無負其³⁶⁾寵之意而已。〔“老婦竟不起疾”：三年十一月，令人劉氏卒。〕

35) 修身守道：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36) 其：《全書》‘獎’

“無負其寵”：‘其’，唐本作‘獎’。】

(呂劉問答1-32)

來書諸諭，差彊人意，更願益以其大者自任，上有以正積弊之源，下有以振久衰之俗，則區區之望也。今瞋眩之藥³⁷⁾進未效，其他小小溫平可口之劑，固無望其有補矣。不勝畎畝私憂，輒復及此，惟高明深念之也。
《綱目》近亦重修及三之一，條例整頓，視前加密矣。異時須求一爲櫟括，但恐不欲入此千古是非林中擔當一分。然其大義例，熹已執其咎矣。但恐微細事情有所漏落，却失眠目，所以須明者一爲過目耳。

(呂劉問答1-33)

熹比與純叟及廖子晦同登雲谷，遂來武夷。數日講論甚適，今將歸矣。偶浦城 林叔文見訪亦累日，云嘗從徐誠叟學，頗能道其緒言。今欲至澗³⁸⁾中謁知舊，以葬其親，意亦可憐。或恐有求館客者，其人老成篤實，得垂記念，幸甚。【“廖子晦”：《韻會》，“‘廖’，力救切。人姓，又以音料。”

37) 婁：[두주 ‘婁’，唐本同。《韻會》，“‘屢’或作‘婁’。”][추가 字書通作‘屢’]가 있다；海州本·定州本·《全書》‘屢’

38) 澗：《全書》‘浙’

朱子書節要 卷之四

亦訓人姓者爲誤。』

(呂劉問答1-34)

進長著廷，行膺獻納之選，吾道爲有望矣。前後誨諭之意，非不詳悉，亦竊自念一向如此，實於大義有所不安。又思今日致身事主以扶三綱者，世不乏人，決不至以熹故遂使大倫至於廢闕，故願乞其庸繆衰殘之身，以偷安自逸，盡此餘年。且萬一不免復有祈請，全仗老兄力爲主張，使不至大段狼狽也。『“乞其庸繆衰殘之身”：辭知南康軍。』

(呂劉問答1-35)

得伯崇書，聞嘗苦末疾，甚駭聞聽。不知賢者清修寡欲，何以忽有此疾？當是耽書過甚，或失飲食起居之節，致外邪客氣得以乘虛投隙而入耳。然計根本完固，非久當遂平復，尙恃此以不恐耳。

(呂劉問答1-36)

自發鉛山後，一向不聞動靜，殊以爲懷。到此始得叔介書，知已出都門，體候益輕快，喜可知也。熹去月之晦已交郡事，違負夙心，俯仰愧歎。重以衰病，精力昏耗，

驟從吏役，尤覺不堪。尙幸地狹人稀，獄訟絕簡少，然猶治事終日，不得少休。亦緣乍到，不知事之首尾，綱紀又皆廢墜，諸邑無復稟畏，極費料³⁹⁾理。民貧財匱，不得不少勞心力，更看一二日後如何。若更如此，則住不得，便須告歸。若能少定，則或推遷至夏末也。廬阜勝絕，粗慰鄙懷。漱玉·三峽皆已一到，簡寂亦深秀可喜也。每至勝處，輒念向來鵝湖之約，爲之悵然。今殊未有並遊之日，但願早脫此羈繫，亟往問訊，庶獲款教耳。未間，千萬珍重。【“到此”：到南康。】

(呂劉問答1-37)

學中元範教授立得濂溪祠堂，并以二程先生配食，又立得陶靖節·劉凝之父子·李公擇·陳了翁祠，通榜曰“五賢”。蓋四公此間人，而了翁亦嘗謫居於此也。陶公栗里只在歸宗之西三四里，前日略到，令人歎慕不能已已。此來不曾了得公家一事，但做得此祠堂，看得廬山耳。然非暇日不敢出，出又有所費，初亦不敢數數。今覺日子無多，不免每旬一出也。罷書才到郡，徑走谷廉，轉山北，拜濂溪書堂之下而歸，亦足以少復鴈門之

39) 料：海州本에는 [추가 ‘料’, 本作‘科’.]가 있다.

踦矣。今日周先生之子來訪，令人悵然。明日亦約與俱游山也。〔“元範”：楊大灋字。“鴈門之踦”：西漢末段會宗爲鴈門守，坐事免後，復爲都護，故云。本傳‘踦’與‘奇’同。〕

(呂劉問答1-38)

廬阜奇處盡在山南，玉淵·三峽蓋已婁⁴⁰⁾到。三峽之西有懸瀑瀉石龕中，雖不甚高，而勢甚壯，舊名臥龍，有小菴，已廢。近至其處，不免捐俸金結茅，欲畫孔明像壁間，俟得解郡事，且入其間，盤礴旬日而後去耳。此來百事敗人意，獨此差自慰耳。塾不知已到否？此兒來，自此徑去，渠至中路，又聞同中子歸家，其不聽人言語皆類此，到彼幸時呼來痛鐫責之，渠於老兄教誨卽⁴¹⁾不敢忽也，千萬至懇。

(呂劉問答1-39)

誨諭數事，極感垂念。學中向來略爲說《大學》，近已終篇。今却只是令教官挑覆所授《論語》諸生說未到處，略爲發明。兼亦未嘗輒升講坐，侵官瀆告，如來教所慮

40) 婁：海州本·定州本‘屢’

41) 卽：海州本·定州本‘亦’

也。但只如文翁·常袞之爲，區區志願，止於如此耳。政事固欲簡靜，但今時仕宦之人不務恤民，多是故縱吏胥，畏憚權豪，凡有公事，略加點檢，無不坐此二病者。勢不得已，須差擇一二根治，此外則絕不敢有毫髮之擾。財賦適諸縣皆不得人，弛廢殊甚。爲丞佐所迫，亦不免迫人吏監禁斷遣。然思爲縣者，亦豈不欲了辦財賦，見知州郡，何苦如此逋慢？想亦是有做不行處。每握筆欲判此等文字，未嘗不慨然太息。乃知真是腐儒，不敢諱人指目也。平生讀書，要作如何利益底事？今到此，此等事便做不得。中夜以思，實不遑安處。每誦韋蘇州句云：“身多疾病思田里，道有流亡愧俸錢。”此中百姓倏來忽往，更無固志，未嘗不低徊愧歎也。修造事，學中二祠，只是因舊設像，別無地步可起造。其他方作得劉凝之菴亭并門。凡此等皆用初到送代者折送香藥及逐月供給中不應得者椿管爲之，不敢破使官錢。至如前書所說臥龍菴，又自用俸錢，亦不敢破此錢矣。園中蓬蒿沒人，尙未能芟除，何暇及他事耶！

(呂劉問答1-40)

比讀何書？所進想日超詣⁴²⁾，因來及之，滌此塵坌，幸

甚。熹此來不得讀書，胸次覺茆塞。至於平日疾惡之心，施之政事，亦不免有刻急之譏，無復寬裕和平之氣，甚可懼也。不知所聞如何？幸有以警之。

(呂劉問答1-41)

昨聞尊嫂宜人奄忽喪逝，深爲驚愕。卽欲遣人致慰問而未暇及。便中乃辱手書訃告，益愧不敏。竊惟伉儷義重，痛悼難堪。然尊體未盡平復，深宜節抑，以慰友朋之望也。熹黽俛於此，恰已半年，求去不得，深以爲撓。自秋中得報，卽欲再請，而諸公皆以爲雖大臣故老，典藩亦必期年而後敢請，意若以犯分僭越爲咎者，是以遲遲。又以秋來若不甚大病，作書懇請，雖極諄諄，覺得亦有難說處，不免少忍逾冬，以應期年之說，庶幾得之。郡事比亦甚簡靜，民間亦肯相信。如中間舉行別籍異財之令，父子復合者數家。此緣⁴³⁾子澄力勸下令，初恐其未必從令，不謂其能爾也。

(呂劉問答1-42)

42) 超詣：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43) 緣：海州本·定州本‘亦’.

子壽相見，其說如何？子靜近得書，其徒曹立之者來訪，氣質儘佳，亦似知其師說之誤。持得子靜近答渠書，却說人須是讀書講論，然則自覺其前說之誤矣。但不肯翻然說破今是昨非之意，依舊遮前掩後，巧爲詞說。只此氣象，却似不佳耳。

(呂劉問答1-43)

荊州近寄一詩來，讀之令人感慨，今亦錄去。渠以信陽事，甚不自安。叔度·子約書云都下諸人頗不直，果如何？然世間人口無真是非，未知果孰爲是也。『“荊州”：南軒，“信陽事”：信陽守劉大辯，希賞誘致流民，奪見戶熟田，以與之。公劾奏，朝用劉請。』

(呂劉問答1-44)

人至，辱手書，得聞春來尊體益輕健，放杖徐行，又有問花隨柳之樂，甚慰。記文定本辭約義正，三復歎仰，已送山間，屬黃子厚隸書，到卽入石矣。欽夫竟不起疾，極可痛傷。蓋緣初得疾時，誤服轉下之藥，遂致虛損。一向不可扶持，從初得疾，又緣奏請數事例遭譴却，而同寮無助之者，種種不快而然。雖云天數，亦人

朱子書節要 卷之四

事有以致之，此尤可痛耳。熹前月初遣人請祠，至今未還，今又專人再懇，勢必可得。只俟命下，便自此便道一過長沙哭之也。『“記丈定本”：先生要伯恭作〈白鹿洞書院記〉，有未穩處，往復參訂而後定，故云定本。』

(呂劉問答1-45)

得韓丈 上饒書及尤延之書，皆令勸老兄且屏人事，捐書冊，專精神，近醫藥，區區之意，亦深念此，幸更於此少留意焉，千萬之望。

(呂劉問答1-46)

雨餘蒸鬱，伏惟玩心有相，起處享福。熹自被報聞之命，不敢復有請。但前日妄發，本蘄密贊聖聰，昨日乃聞降付⁴⁴⁾後省。不密失身，從是始矣。然業已致身事主，生死禍福，惟其所制，非己所得專也。此間只有三五擔行李及兒甥一兩人，去住亦不費力，但屏⁴⁵⁾息以俟雷霆之威耳。前日如自明諸人文字及近習者皆不降出，此乃付外，又不可曉。區區愚忠，猶不能無冀幸於萬一耳。

44) 付：海州本·定州本‘附’

45) 屏：海州本에는 [추가 ‘屏’, 元作‘并’.]이 있다.

欽夫之逝，忽忽半載，每一念之，未嘗不酸噎。同志書來，亦無不相弔者，益使人慨歎。蓋不惟吾道之衰，於當世亦大有利害也。自向來人還，至今不得定叟書，今日方再遣人往致葬奠。臨風哽愴，殆不自勝。計海內獨尊兄爲同此懷也。援筆至此，爲之淚落。痛哉痛哉！祭文真實中有他人所形容不到處，歎服。今此人去，亦有一篇，謹錄呈。蓋欽夫向來嘗有書來，云見熹諸經說，乃知閒中得就此業，殆天意也。因此略述向來講學與所以相期之意，而嘆吾道之孤且窮，於欽夫則不能有所發明也。盛文所叙從善受言⁴⁶⁾，使言者得自盡，施於褊狹，所警⁴⁷⁾尤多。平日亦知敬服渠此一節，而不能學。今老矣，而舊病依然，未知所以藥之也。不唯如此，近日覺得凡百應接，每事須有些過當處，不知如何整頓得此身心四亭八當，無許多凹凸也？耐煩忍垢之誨，敬聞矣。今大綱固未嘗敢放倒，但不免時有偷心，以爲何爲自苦如此？故事有經心而旋即遺忘者，亦有不敢甚勞心力而委之於人者，亦有上說不從·下教不入而意思闌珊·因循廢弛者。此兩月來，既得不允指揮，不敢作此

46) 從善受言：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47) 警：海州本에는 [추기 ‘警’, 元作‘驚’.]이 있다.

念。又爲狂妄之舉，準備竄謫，尤不敢爲久計。身寄郡舍，而意只似燕之巢於幕上也。所論荊州從遊之士多不得力，此固當深警。然彼猶是他人不得力，今自循省，乃是自己不會得力，此尤爲可懼也。⁴⁸⁾不知老兄看得此病合作如何醫治？幸以一言就緊切處見教，千萬之望。子壽兄弟得書，子靜約秋涼來遊廬阜，但恐此時已換却主人耳。渠兄弟今日豈易得？但子靜似猶有些舊來意思。聞其門人說，子壽言其雖已轉步而未曾移身，然其勢久之亦必自轉。回思鵝湖講論時是甚氣勢？今何止什去七八耶？元範立碑之說，向曾見告。嘗語之云：“熹固不足道，但恐人笑老兄耳。”意其已罷此議。不謂乃復爲之，聞之令人汗下。幸已蒙喻止，必且罷休矣。平生性直，不解微詞廣譬，道人於善，故見人有小失，每忍而不欲言。至於不得已而有言，則衝口而出，必至於傷事而後已，此亦太陽之餘證也。〔“前日妄發”：應詔上封事。“自明”：鄭鑑字。“定叟”：張杓字，南軒弟。〕

(呂劉問答1-47)

適此旱災，祈禱未能感格。今早禾已不可救，若更數日

48) 此尤……懼也：海州本에는 망집이 있다.

不雨，卽晚禾亦不可保。觀此事勢，必致大段狼狽，遂不敢言去，只得竭盡駑力。切幸因風有以見教於其思慮之所不及者，幸甚幸甚。囊封付出，乃邸吏云爾。方竊怪之，當時誠亦輕發，然今已不可悔矣。積其誠意，待時而發，固所當然。但恐如諺所謂“今年自家雪裏凍殺，不知明年甚人喫大碗不托”耳。言之痛心，苦事苦事！謹密之戒，乃今聞之。初但不敢以草本示人及與人說其中所論，不謂乃并此題目不得漏洩也。數年前風俗尙不如此，自今當深戒之耳。旣云有調護者，卽是嘗有譴怒之意，亦幸密見告也。近緣旱虐，百事放寬，又覺得雨露太勝雪霜。然亦且得如此，前日誠有過當處也。塾不知果能漸解事否？人家後生，只得自有意做好人，便有可望。此郎正坐無此根本，使人憂心耳。新參近通問否？大承氣證，却下四君子湯，如何得相當？然尙幸其不發病耳。老兄與之分厚，須痛箴之。吾輩與百萬生靈性命盡在此漏船上，若喚得副手梢工不至沉醉，緩急猶可恃也。⁴⁹⁾ 〔“大碗不托”：麵入湯煮曰不托，今日饔飩。〕

(呂劉問答1-48)

49) 吾輩……可恃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弘大平粹”四字，謹書坐隅，以爲終身之念。稟賦之偏，前日實是不曾用力消磨，豈敢便論分數？然自今不敢不勉，更望時有以提撕警策之也。

(呂劉問答1-49)

閏月二十七日方得合符而歸。初欲乘此一走長沙，自彼取道分寧，往還甚徑。尋以女弟之訃，悲傷殊甚，誼不可以他適，遂罷前議。替後只走山南山北旬日，拜謁濂溪書堂而歸，以四月十九日至家。雖幸息肩，又苦人事紛冗，老幼病患，未能有好況。然大概已是入清涼境界中矣。道中看《中庸》，覺得舊說有費力處，略加修訂，稍覺勝前。計他書亦須如此。義理無窮，知識有限，求之言語之間，尙乃不能無差，況體之身·見諸事業哉？稍定，從頭整頓一過，會須更略長進也。子靜舊日規模終在，其論爲學之病，多說如此卽只是意見，如此卽只是議論，如此卽只是定本。熹因與說既是思索，卽不容無意見；既是講學，卽不容無議論；統論爲學規模，亦豈容無定本？但隨人材質病痛而救藥之，卽不可有定本耳。渠却云：“正爲多是邪意見·閑議論，故爲學者之病。”熹云：“如此卽是自家呵叱亦過分了，須著‘邪’字·

‘閑’字方始分明，不教人作禪會耳。又教人恐須先立定本，却就上面整頓，方始⁵⁰⁾說得無定本底道理。今如此一概揮斥，其不爲禪學者幾希矣。”渠雖唯唯，然終亦未窮竟也。大抵兩頭三緒，東出西沒，無提撮⁵¹⁾處。從上聖賢，無此樣轍。方擬湖南，欲歸途過之，再與子細商訂。偶復蹉跌，未知久遠竟如何也。然其好處自不可掩覆，可敬服也。子澄相聚月餘，意思儘好，直至湖口渡頭方分手也。【“合符而歸”：自南康解紱而歸。】

(呂劉問答1-50)

熹一出兩年，仙洲久不到。前日方得一往，會大雨竟日，瀑水甚壯。旣而復霽，遂得窮搜澗壑，水石可觀處，非止一二，悉已疏薶，而聚土累石爲臺以臨之。自此往遊，觀賞益富，不但如前日矣。但恨不能致杖屨之一來。論著當益有次第，每書各得數段見教爲幸。⁵²⁾

(呂劉問答1-51)

50) 始：海州本·定州本‘是’

51) 撮：海州本에는 [추가 ‘轍’, 元作‘輒’.]이 있다.

52) 爲幸：海州本·定州本‘幸甚’

承喻整頓收斂則入於著力，從容游泳又墮於悠悠，此正學者之通患。然程子嘗論之曰：“亦須且自此去，到德盛後，自然左右逢其原。”今亦當且就整頓收斂處著力，但不可用意安排，等候卽成病耳。

節要0070(0402) (呂劉問答2-1~2) (卷4:29左) (晦庵集 卷35)

別紙

(呂劉問答2-1)

“參前倚衡”之說，甚簡當。尹公云：“此只是收拾心，令有頓放處。”此意亦好。

學者推求言句工夫常多，點檢日用工夫常少，今日此等人極多。然或資質敏利，其言往往有可采者，則不免資其講論之益。而在我者躬行無力，又無以深矯其弊，方此愧懼。今得來喻，敬當徧以警告常所與往來者，使自省察耳。却是老成敦篤·志行可保之人，往往又却遲鈍，看道理不透。求其有精神而醇者，真難得耳。

(呂劉問答2-2)

“懲創太過，不免倚著”之病，近亦深覺其然。然嘗見明道有言¹⁾：“學者須守下學上達之語，乃學之要。”又似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近亦……有言：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且如此用功，基脚却稍牢固，²⁾未敢便離却下學之地，別求上達處也。但當更於存養踐履上著力，不可只考同異·校詳略，專爲章句之學而已。大抵道理平鋪放著，極低平處，有至高妙底道理，不待³⁾指東畫西，說南道北，然後爲得不傳之妙也。明者思之，以爲如何？『“懲創太過”：謂懲於禪學之高虛，太著於下學之低平。』

“養忠厚，革澆浮”之論甚善。要當以此爲主，而剖析精微之功自不相妨耳。和靖錄中說伊川未嘗言前輩之短，此意甚善。今人往往見二先生兄弟自許之高，便都有個下視前輩意思。此俗不可長。和靖之言，要當表而出之也。

2) 基脚……牢固：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3) 待：海州本‘得’

節要0071(0403) (呂劉問答3-1~3) (卷4:30左) (晦庵集 卷35)

論淵源錄

(呂劉問答3-1)

明道言當與元豐大臣共政，乃是聖賢之用，義理之正，非姑爲權譎，苟以濟事於一時也。然亦須有明道如此廣大規模·和平氣象，而其誠心昭著，足以感人，然後有以盡其用耳。常人之心既不足以窺測此理，又無此等力量，自是信不及。設有信者，又不免以權譎利害之心爲之，則其悖理而速禍也爲尤甚矣。此今之君子所以不能無疑於明道之言也。

(呂劉問答3-2)

折柳事有無不可知，但劉公非妄語人，而《春秋》有傳疑之法，不應遽削之也。且伊川之諫，其至誠惻怛·防微慮遠，既發乎愛君之誠，其涵養善端·培植治本，又合乎告君之道，皆可以爲後世法。而於輔導少主，尤所當知。至其餘味之無窮，則善學者雖以自養可也。『“劉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3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公”：元城。】

(呂劉問答3-3)

范公不爲程門弟子，下卷范公語中論之已詳。至於國忌齋筵，葷素所宜，則以范公之賢，於己之所行，自當顧義理之是非以爲從違，不當視同列之喜怒以爲前却也。使其果欲依違兩間，曲全交好，則具素饌既忤東坡，具酒肉²⁾亦忤伊川。若慮於彼而忽於此，則亦非所以兩全矣。況他書所記，亦云范醇夫輩食素，秦·黃輩食肉，則所記雖不同，而范公之不畏東坡而每事徇從，亦當時所共知矣。故嘗竊意范公雖不純師程氏，而實尊仰取法焉。其於東坡，則但以鄉黨游從之好素相親厚，而立朝議論趣向略同。至其制行之殊，則迥然水火之不相入。且觀其辦理伊川之奏，則其心豈盡以東坡爲是哉？但不能辨之於當時，而發之於數年之後，此則剛強不足，不免乎兩徇之私者，而其所重在此，故卒不能勝其義理之公也。大抵程·蘇學行邪正不同，勢不兩立，故東坡之於伊川素懷憎疾，雖無素饌之隙，亦不相容。若於范

2) 酒肉：[두주 ‘酒肉’, 唐本作‘肉食’.]가 있다；《全書》에는 [교감기 ‘酒肉’, 浙本作‘肉食’]이 있다.

公，則交情既深，而其氣象聲勢無足畏者，故雖有右袒之嫌，而不以害其平生之驩也。〔“辨理伊川之奏”：辨奏，見《宋史》。“素饌之隙”：元祐初，國忌行香，伊川令具素饌，子瞻令具肉食，曰：“爲劉氏左袒。”於是范醇夫輩食素，秦·黃輩食肉，見《言行錄》。〕

節要0072(0404) (呂劉問答4) (卷4:32左) (晦庵集 卷35)

答呂伯恭¹⁾

熹昨見奇卿，敬扣之以比日講授次第，聞只令諸生讀《左氏》及諸賢奏疏，至於諸經·《論》·《孟》，則恐學者徒務空言而不以告也。不知是否？若果如此，則恐未安。蓋爲學之序，爲己而後可以及人，達理然後可以制事。故程夫子教人先讀《論》·《孟》，次及諸經，然後看史，其序不可亂也。若恐其徒務空言²⁾，但當就《論》·《孟》·經書中教以躬行之意，庶不相遠。至於《左氏》·奏疏之言，則皆時事利害，而非學者切身之急務也，其爲空言，亦益甚矣。而欲使之從事其間而³⁾得躬行之實，不亦背馳之甚乎？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 1) 海州本에는 제목이 없고 앞의 글과 함께 묶여 있다.
- 2) 空言：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 3) 而：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節要0073(0405) (呂劉問答5-1~4) (卷4:33右) (晦庵集 卷35)

答劉子澄 〔清之，號靜春先生.〕

(呂劉問答5-1)

四月十三日，左迪功郎·監潭州南嶽廟朱熹謹西向再拜，復書主簿學士足下。熹至愚極陋，自幼事事不能及人，顧乃不自度量，妄竊有意於古人爲己之學。雖講之有年矣，而未始有聞也。徒以從事之久，足迹相接於先生長者之門，反復論辨，不絕於一二友朋之口，是以人或以務學之名歸之。而世之不識其面目·不接其言議者，遂相與疑之，以爲是果何如人也。誠使一日見其面目，聽其辭氣，而徐察其所爲，則冗然一庸人耳，其不唾之而去者幾希。執事以盛年壯氣·清節直道發軔進塗，既有聞於當世矣，而說學好問之意勤勤有加，又將有意於古人爲己之學者而然邪？誠如是，則所以取友而輔仁者，擇之亦宜¹⁾審矣。乃道聽於人，枉道垂顧，以禮於

▶ 劉清之：1139~1189. 字는 子澄, 號는 靜春. 臨江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4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亦宜：海州本·定州本 ‘宜亦’；《全書》에는 [교감기 ‘亦宜’, 閩本·浙本作‘宜亦’.]이

名爲務學而未始有聞之庸人，畀之手書，辭高而禮下。熹誠不佞，不識執事於夫人之言何所取信，而遽爲謙屈以至於此也？既又留連竟日，告語不倦，雖疏食菜羹，相與共之，略無厭怠之色，則又疑執事眞若有取於熹者。顧朴²⁾陋荒淺，殆不能有以裨補一二爲慚，率意妄言，間亦自知其可笑也。然則執事果何所取於斯哉？恐懼增劇，因風陳布，莫究所懷。

(呂劉問答5-2)

來書深以異學侵畔爲憂，自是而憂之，則有不勝其憂者。惟能於講學體驗處加功，使吾胸中洞然無疑，則彼自不能爲吾疾矣。若不求衆理之明而徒恃片言之守，則雖早夜憂虞，僅能不爲所奪，而吾之胸中初未免於憤憤，則是亦何足道？願老兄專以聖賢之言反求諸身，一一體察³⁾，須使一一曉然無疑，積日既久，自當有見。但恐用意不精，或貪多務廣，或得少爲足，則無由明爾。熹比來溫習，略見日前所未到一二大節目，頗覺省力。

있다.

2) 朴：《全書》‘樸’

3) 體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但昏弱之姿⁴⁾，執之不固，尤悔日積，計有甚於吾友之所患者。然以所聞質之，則似不可不兩進也。程夫子曰：“涵養須用敬，進學則在致知。”此二言者，體用本末，無不該備。試用一日之功，當得其趣。夫涵養之功，則非他人所得與，在賢者加之意而已。若致知之事，則正須友朋講學之助，庶有發明。不知今者見讀何書？作如何究索？與何人辨論？惟毋欲速，毋蓄疑，先後疾徐，適當其可，則功日進而不窮矣。向見前輩有志於學而性涉猶豫者，其內省甚深，下問甚切，然不肯沛然用力於日用間，以是終身抱不決之疑，此可以爲戒而不可以爲法也。

(呂劉問答5-3)

反復書辭，具悉近況。但學者正欲胸中⁵⁾廓然大公，明白四達，方於致知窮理有得力處。今乃追咎往昔，念念不忘，竊恐徒自煎熬，無復⁶⁾理義悅心之味也。程子所謂“迫切不中理，則反爲不誠”，亦正慮此耳。升高自

4) 姿：全州本에는 [두주 此書《大全》重出，而一處‘姿’作‘資’.]가 있다.

5) 學者……胸中：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6) 今乃……無復：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下，陟遐自邇，能不遺寸晷而不計近功，則終必有至矣。如何如何？大抵聖賢立言，本自平易，而平易之中，其旨無窮。今必推之使高，鑿之使深，是未必真能高深而固已離其本指·喪其平易無窮之味矣。

(呂劉問答5-4)

卒章所問甚切，在賢者處之必已熟矣，淺陋何足以及此？然竊謂此事難以言語定論，須且虛心觀理，積習功夫⁷⁾，令一日之間胸次洞然，則隨事隨物無不各有一定之理矣。無補於事而祇⁸⁾以取名，固所不爲⁹⁾，然亦有義所當爲，而或疑於二者，則亦不得而避也。如此處，極要斟酌，須是理明義精¹⁰⁾，則源源自見，不待問人矣。

7) 虛心……功夫：海州本에는 망점이 있다.

8) 祇：《全書》‘祇’[교감기 ‘祇’，原作‘抵’，據閩本·浙本改.]

9) 無補……不爲：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10) 理明義精：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節要0074(0406) (呂劉問答6) (卷4:36右) (晦庵集 卷35)

與劉子澄¹⁾

近看溫公論東漢名節處，覺得有未盡處。但知黨錮諸賢趨死不避爲光武·明·章之烈，而不知建安以後，中州士大夫只知有曹氏，不知有漢室，却是黨錮殺戮之禍有以毆之也。且以荀氏一門論之，則荀淑正言於梁氏用事之日，而其子爽已濡跡於董卓專命之朝。其孫彧，則遂爲唐衡之婿·曹操之臣，而不知以爲非矣。蓋剛大直方之氣折於凶虐之餘，而漸圖所以全身就事之計，故不覺其淪胥而至此耳。想其當時，父兄師友之間，亦自有一種議論文飾蓋覆，使驟而聽之者不覺其爲非而真以爲是必有深謀奇計可以活國救民於萬分有一之中也。邪說橫流，所以甚於洪水猛獸之害，孟子豈欺予哉！年來讀書，只覺得此意思分明，參前倚衡，自不能舍。雖知以是²⁾爲人所惡，而終窮以死，其心誠甘樂之，不自以爲悔也。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與劉子澄：《全書》‘答劉子澄’

2) 是：海州本‘此’

來喻之云，眞知我者，尙何言哉！然亦願子澄深察此意，有以自振於頽波之中也。欽夫得書云嘗得子澄書，於所謂云云者，亦頗有所疑也。

節要0075(0407) (呂劉問答7-1~2) (卷4:37右) (晦庵集 卷35)

答劉子澄

(呂劉問答7-1)

日前爲學緩於反己，追思凡百多可悔者，所論著文字，亦坐此病，多無著實處。回首茫然，計非歲月功夫所能救治，以此愈不自快。前時猶得敬夫·伯恭時惠規益，得以警省。二友云亡，耳中絕不聞此等語，因循媮墮¹⁾，安得不至於此？今乃深有望於吾子澄，自此惠書，痛加鐫誨，乃君子愛人之意也。²⁾ 游誠之聞到三山已久，一向不得書。其人強敏可喜，而忮狠之根不除，又計較世俗利害太切，切恐不免上蔡〈鸚鵡〉之譏耳。塊坐窮山，無嚴師畏友之益，其不爲小人之歸也鮮矣。奈何奈何。³⁾ 直卿赴試長沙，病於清江，甚令人懸心。然必是已向安，遂西行矣。此間⁴⁾後生中，只有渠尚可望，但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墮：海州本·定州本 ‘惰’

2) 前時……意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3) 塊坐……奈何：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4) 間：今按：陶山本 원문에는 ‘間’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제 異本에는 ‘間’으로 되어

亦傷太狹耳。《小學》書曾爲整頓否？幸早爲之，尋便見寄，幸幸。來喻又有避主張程氏之嫌，程氏何待吾輩主張？然立言垂訓，事關久遠，亦豈當避此嫌耶？其詳雖已見於《近思》，然其一言半句，灼然親切，不可不使後學早聞而先入者，自不妨特見於此書也。若只欲其合於世俗而使庸人愛之，則《符讀書城南》一篇足矣，何事勞吾人捃摭之功哉？熹向承見語有爲昆弟之約，未敢遽信。而忽蒙加以非據之稱，一向因循，不得辭避。今欲復尋故約而罷去無實之稱，如蒙報書，須用此禮，卽大幸也。千萬痛察痛察。

(呂劉問答7-2)

到泉南，宗司教官有陳葵者，處州人，頗佳。其學似陸子靜，而溫厚簡直過之。但亦傷不讀書，講學不免有杜撰處。又自信甚篤，不可回耳。蓋世俗啾喧，自其常態，正使能致焚坑⁵⁾之禍，亦何足道？却是自家這裏無人接續，極爲可憂耳。⁶⁾ 讀所寄文字，切切然有與世俗爭較

있으므로 ‘間’으로 수정하였다.

5) 坑：海州本 ‘阮’

6) 却是……可憂耳：海州本에 방점이 있다.

曲直之意，竊謂不必如此。若講學功夫實有所到，自然見得聖人所謂不知不愠不是虛語。今却爲只學人弄故紙，要得似他不俗，過了光陰，所以於此都無實得力處。又且心知其爲玩物喪志而不能決然舍棄，此爲深可惜者。且既謂之玩物喪志，便與河南數珠不同，彼其爲此，正是恐喪志耳。《班范外事》不知編得於己分有何所益？於世教有何所補？而埋沒身心於此，不得超脫，亦無惑乎子靜之徒高視大言而竊笑吾徒之枉用心也。⁷⁾且羅守之賢如此，與之同官相好，乃不能補其所不足，而反益其所有餘，又從而自陷焉，亦獨何哉！數年來，此道不幸，朋舊凋喪，區區所望以共扶此道者，尙賴吾子澄耳。今乃如此，令人悼心失圖，悵然累日，不知所以爲懷。不審子澄能俯聽愚言而改之乎？不然則已矣，無復有望於此世矣。奈何奈何！《小學》書却非此比，幸早成之。精舍詩拈筆可就，亦不妨早見寄也。濂溪書堂聞規摹⁸⁾甚廣，鄙意恐不必如此。將來無人住得，亦只是倒了。不若裁損制度而壯其材植，更爲買少田以贍守者，使其可以長久，乃爲佳耳。公度聞近到建昌娶婦，

7) 班范外事……用心也：海州本에는 망점이 있다.

8) 摹：《全書》‘模’

朱子書節要 卷之四

甚念一見之而不可得，奈何奈何？因書更勸其向裏做工夫，莫又錯了路頭也。⁹⁾ 【“羅守”：羅願。】

9) 向裏……路頭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節要0076(0408) (呂劉問答8-1~7) (卷4:39左) (晦庵集 卷35)

與劉子澄

(呂劉問答8-1)

襄陽之役，不爲無補，細讀來書及詩，令人慨歎。此事未知將來分付甚人，天意必有在矣。吾徒之力，無如之何，只有講學修身，傳扶大教，使後生輩知有此道理，大家用力，庶幾人材風俗，他日有以爲濟世安民之助而已。所喻¹⁾戲謔本欲詞之巧而然，此固有之。然亦是自家有此玩侮之意以爲之根，而日用之間流轉運用，機械活熟，致得臨事不覺出來。又自以爲情信詞巧主於愛人，可以無害於義理，故不復更加防遏，以至於此。蓋不惟害事，而所以害於心術者尤深。昔橫渠先生嘗言之矣。此當痛改，不可緩也。近覺²⁾所聞所知眞實行得，令人大段歡喜，與尋常會得說得不同。此不可不知，不可不勉也。³⁾博雜之病，亦是把做小事忽略了，以爲不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7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所喻：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 近覺：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足以喪人之志，又不自知是自家病痛，却以應副人情爲解。此亦是大病，非小病，須痛斬截也。吾人未老⁴⁾先衰，餘日幾何，而費日力於此，却於自家身心上都不著力，豈不是顛倒迷惑之甚耶？季章甚不易，比來作何功夫？須更切己用力，乃有實頭進步處耳。此間學者未有大段可分付者，然亦有⁵⁾一二，將來零星湊合，或可大家扶時⁶⁾也。

(呂劉問答8-2)

端良止此，極可傷惜。信道不及，亦是合下看得記誦詞章太重了，後來又於此得味，所以一向不肯放下，未必專爲禁忌指目也。若使見得此道理重，便斬作萬段，亦須向前，豈容復有顧慮耶？近年道學外面被俗人攻擊，裏面被吾黨作壞⁷⁾，婺州自伯恭死後，百怪都出。至如子約，別說一般差異底話，全然不是孔·孟規模，却做管·商見識，令人駭歎。然亦是伯恭自有些拖泥帶水，

3) 此不可……不勉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4) 吾人未老：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5) 有：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6) 時：海州本·定州本·川谷本·全州本·《全書》‘持’

7) 近年……作壞：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致得如此，又令人追恨也。子靜一味是禪，却無許多功利術數。目下收斂得學者身心，不爲無力。然其下梢⁸⁾無所据依，恐亦未免害事也。汝昭歲前到山間，只得一宿，便發病遽歸。近聞尙未全安。渠却是將護太過，易得生疾耳。伯起聞已到官，想經由必款曲。居晦近一再相會，皆爲人多，說話不得。旦⁹⁾夕無事，當招其入山，或過武夷相聚數日也。蔡季通·劉韜仲諸人近日皆長進，潘德夫之子友端廷對甚切直，尤延之甚愛之。爲同寮所抑，頗降其等。此不足計，渠兄弟皆好，此輩後生將來皆可望也。熹又三四日祠祿便滿，前日因便已託尤延之爲再請，勢必得之。食貧，不得已復爲此舉，甚不滿人意。公度不及別書，向來諸生頗復來集否？離群之後，誰更進益耶？西山詩，蘇·黃之外，却是三孔有筆力，但不知所謂“攬搶枉矢”指何人耳。晁·張一時聲價如此，詩在衆人中未覺穎出也。此等小技，直是有定分，況其大者，功力不到處，可強耶？廣陵歸塗必取道浙中，到衢·信間，能略見過，喚集朋友說話數日否？老矣多病，後會不可知，“此日足可惜”也。〔“端良”：羅願字。“三孔”：文

8) 梢：《全書》‘稍’

9) 旦：海州本·定州本‘朝’

仲·武仲·經仲，“晁”：以道，“張”：文潛。】

(呂劉問答8-3)

知欲一來建安，甚善甚善。前書亦嘗奉問，欲就中路深僻處相聚數時，不知曾踏逐得此去處否？麻姑當是佳處，但聞去城差近，不免人事之擾，却不濟事耳。武夷結茅雖就，然亦苦此。覺得却是朋友直來相訪，只就書院中寢食，則都無外面閑人相擾也。仲叔來此，前此在社倉宿實¹⁰⁾，相去差遠，近方移來閣下，渠又告歸。其人資性平和，看文字亦易曉，然似亦習成閑懶，離群之後，全不曾做得功夫。到此方討冊子看，便未有可商量處。如倉庫無紅腐貫朽之積，軍士無超距投石之勇，只是旋收旋支，或鼓或罷，終是不成頭緒。已向渠說，別後惜取光陰，須看教滿肚疑難，不能得相見，相見後三五日說不透，方是長進也。伯恭無恙時愛說史學，身後爲後生輩糊塗說出一般惡口小家議論，賤王尊霸，謀利計功，更不可聽。子約立腳不住，亦曰“吾兄蓋嘗言之”云爾。中間不免極力排之，今幸少定。然其彊¹¹⁾不可令

10) 實：《全書》‘食’

11) 彊：海州本·定州本‘疆’

者，猶未肯豎降幡也。子靜寄得對語來，語意圓轉渾浩，無凝滯處，亦是渠所得效驗。但不免¹²⁾些禪底意思。昨答書戲之云：“這些子恐是蔥嶺帶來。”渠定不伏。然實是如此，諱不得也。近日建昌說得動地，撐眉努眼，百怪俱出，甚可憂懼。渠亦本是好意，但不合只以私意爲主，更不講學涵養，直做得如此狂妄。世俗滔滔，無話可說，有志於學者又爲此說引去，眞吾道之不幸也。公度書來，似有此病痛，不知季章如何？學問固是須著勇猛，然此勇猛却要有個用處。若只兩手握拳，努筋著力，枉費十分氣力，下梢¹³⁾無可成就，便須只是怪妄而已。吳伯起資質本是大段昏弱，故得此氣力，便能振厲，而短長相輔¹⁴⁾，不至於怪，然亦失之偏枯，恐不能大有所就。若資性中本有些子精神，被此發作，如陽藏人喫却伏火丹砂，其不發狂者幾希耳。近日因看《大學》，見得此意甚分明。聖賢已是八字打開了，但人自不領會，却向外狂走耳。『“宿實”：‘實’，唐本作‘食’。‘建昌’：南康軍有建昌縣，縣人包顯道輩，皆禪學，恐指此人。明時有建昌

12) 不免：《全書》에는 뒤에 ‘有’가 있다.

13) 梢：《全書》‘稍’

14) 輔：[두주 ‘輔’, 唐本作‘補’.]가 있다；《全書》에는 [교감기 ‘酒肉’, 浙本作‘肉食’]이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四

路，屬江西，然似非謂此路之人。“見得此意”：指吾學而言，非指上文也。
“八字打開”：言分明也。禪書亦多用此語。】

(呂劉問答8-4)

《大學》近再看過，方見得下手用功處路陌徑直。日前看得誠是不切，亂道誤人也。趙子直入蜀，前日至武夷別之。亦與說游誠之·周居晦，渠却云今只要尋個不說話底人。看此議論，似已怕此一等人了，宜乎作貴人也。更進一步，便參到周子充地位矣。念果爲湖南之行，卽相望益遠，令人作惡耳。宋憲樂善愛民，可與共事。諸子頗有意向學¹⁵⁾，但前此未得師友，今在彼又爲戴溪鵬突。若到彼，可力與救拔，亦一事也。【“湖南之行”：子澄嘗知衡州，州屬湖南。“宋憲”：若水爲提刑，是風憲之任，故云‘憲’。“諸子”：若水三子，見下。“戴溪”：宋爲湖南提刑，復石鼓書院，延戴溪爲師。】

(呂劉問答8-5)

居官無修業之益，若以俗學言之，誠是如此。若論聖門所謂德業者，却初不在日用之外，只押文字便是進德修業地頭，不必編綴異聞乃爲修業也。近覺向來爲學實有

15) 向學：海州本·定州本에는 [소주 宋若水先生，有墓誌，三子見下.]가 있다.

向外浮泛之弊，不惟自誤，而誤人亦不少。¹⁶⁾ 方別尋得一頭緒，似差簡約端的，始知文字言語之外，眞別有用心處，恨未得面論也。浙中後來事體大段支離乖僻，恐不止似正似邪而已。極令人難說，只得惶恐，痛自警省，恐未可專執舊說以爲取舍也。《小學》能爲刊行，亦佳。但須更爲稍加損益乃善。

(呂劉問答8-6)

老兄歸來無事，又得祠祿添助俸餘，無復衣食之累，杜門讀書，有足樂者。不審比來日用事復如何？且省雜看，向裏做些功夫爲善。熹病雖日衰，然此意思，却似看得轉見分明親切。歲前看《通書》極力說個“幾”字，儘有警發人處。近則公私邪正，遠則廢興存亡，只於此處看破，便幹¹⁷⁾轉了。此是日用第一親切工夫。精粗隱顯，一時穿透。堯·舜所謂“惟精惟一”·孔子所謂“克己復禮”，便是此事。食芹而美，甚欲獻之吾君也。廬陵舊學子却須聚集，高·劉諸人頗長進否？今日無事可爲，只有收拾後生，磨礱成就，是著得力處。而此間朋友鼓

16) 近覺……不少：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17) 幹：川谷本에는 [추가 ‘幹’當作‘幹’.]이 있다；《全書》‘幹’

作不起，深爲可慮。不知彼中如何？更望留意，以身率之，乃所望也。

(呂劉問答8-7)

季章蓋所謂爲切問近思之學者，眞不易得。但似有迫切狹吝之意，見得道理到處十分到，不到處亦十分不到。想見都不讀書理會文義，雖理會，亦是先將己意向前攙斷，扭捏主張，所以有來喻云云之病。景陽又忒寬慢，自己分上想見是不親切也。公度向時得見，資質儘過諸人，但後來覺得亦有局促私吝之意，不知今又如何也。卷子批在紙背，請更詳之。似此講論，以今觀之，問者本無所疑，答者初無所見，多是臨時應課塞白。恐無所益，又有一種切己病痛。日用功夫，只在當人著實向前，自家了取，本不用與人商量，亦非他人言說所能干預。縱欲警覺同志，只合舉起話頭，令其思省，其聞之者亦只合猛省提掇，向自己分上著力，不當更著言語，論量應對。如人有病，只合急急求藥，既得藥，只合急急服餌，不當更著言語形容此病，更著言語贊歎此藥也。今將實踐履事却作閑言語說了，方其說時，意在於說而不在於行，此恐不惟無益，而又反有害也。以愚見

觀之，似不若將聖賢之書大家講究一件，有疑卽問，有見卽答，無疑無見者，不必拘以課程，如此，却似實有功夫，不枉了閑言語。不知老兄以爲如何也？〔“扭”：女九切，手轉貌。“捏”：年結切，捻也。〕

朱子書節要 卷之五 諸子目錄【陸陳辨答】

〔陸子壽〕 名九齡，號復齋。撫州金谿人。乾道進士，爲全州教授。嘗與弟九淵講學鵝湖。贈直祕閣，諡文建。¹⁾

〔陸子美〕 名九韶，號梭山老圃。隱居講學，晝行夜書。遺戒不得銘墓。按《大明一統志》，以子美爲長。《續考·象山年譜》：“陸氏兄弟六人，子美第四子，壽第五子，靜第六。”然則《大全》書，豈非以其與書先後爲次歟？

〔陸子靜〕 名九淵。爲學深思頓悟。第進士，知荊門軍。徙居象山，生徒數十百人，詩文語錄傳世。諡文安。○象山在廣信貴溪縣²⁾南。○子壽及公，俱見《言行錄》。

〔陳同甫〕 見上二卷。

1) 建：[두주 ‘建’當作‘達’.]이 있다.

2) 縣：[두주 ‘縣’下脫‘西’字.]가 있다.

節要0077(0501) (陸陳辨答1) (卷5:1右) (晦庵集 卷36)

答陸子壽 〔九齡·復齋先生〕

先王制禮，本緣人情。吉凶之際，其變有漸，故始死全用事生之禮，既卒哭祔廟，然後神之。然猶未忍盡變，故主復于寢而以事生之禮事之。至三年而遷于廟，然後全以神事之也。此其禮文見於經傳者不一，雖未有言其意者，然以情度之，知其必出於此無疑矣。其遷廟一節，鄭氏用《穀梁》練而壞廟之說，杜氏用賈逵·服虔說，則以三年爲斷。其間同異得失，雖未有考，然《穀梁》但言壞舊廟，不言遷新主，則安知其非於練而遷舊主，於三年而納新主邪？至於《禮》疏所解鄭氏說，但據《周禮》“廟用卣”一句，亦非明驗。故區區之意，竊疑杜氏之說爲合於人情也。來諭考證雖詳，其大概以爲既吉則不可復凶，既神事之則不可復以事生之禮接爾。竊恐如此非惟未嘗深考古人吉凶變革之漸，而亦未暇反求於孝子慈孫深愛至痛之情也。至謂古者几筵不終喪，而力詆鄭·杜之非，此尤未敢聞命。據《禮》，小斂有席，至虞而後有几筵。但卒哭而後不復饋食於下室耳¹⁾。

古今異宜，禮文之變，亦有未可深考者。然《周禮》自虞至祔曾不旬日，不應方設而遽徹之如此其速也。又謂壞廟則變昭穆之位，亦非也。據禮家說，昭常爲昭，穆常爲穆，故《書》謂文王爲“穆考”，《詩》謂武王爲“昭考”。至《左傳》，猶謂畢·原·豐·郇爲“文之昭”，邶·晉·應·韓爲“武之穆”，則昭穆之位，豈以新主祔廟而可變哉？但昭主祔廟，則二昭遞遷。穆主祔廟，則二穆遞遷爾。又謂古者每代異廟，故有祔于祖父祖姑之禮。今同一室，則不當專祔於一人。此則爲合於人情矣。然伊川先生嘗譏關中學禮者有役文之弊，而呂與叔以守經信古，學者庶幾無過而已，義起之事，正在盛德者行之。然則此等苟無大害於義理，不若且依舊說，亦夫子存羊愛禮之意也。大凡讀書處事，當煩亂疑惑之際，正當虛心博采以求至當。或未有得，亦當且以闕疑闕殆之意處之。若遽以己所粗通之一說而盡廢己所未究之衆論，則非惟所處之得失或未可知，而此心之量亦不宏矣。閑

▶ 陸九齡：1132~1180. 字는 子壽, 號는 復齋. 撫州 金溪人. 梭山, 象山の 兄弟.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 1) 下室耳：海州本에는 [소주 《儀禮經傳》朔月奠下, 引本經記, 但云: “朔月若薦新, 則不饋于下室”, 反哭下云: “猶朝夕哭不奠”, 與書中文小異. 更詳之.]가 있다.

并及之，幸恕狂妄。『“穀梁練而壞廟之說”：魯文公作僖主，《穀梁》云云。“周禮廟用卣”：《周禮·春官》，“鬯人廟用脩。”‘脩’當作‘卣’。‘卣’，鄭玄說見〈太宗伯〉，蓋鄭以廟用卣爲喪畢祫禘之禮，然諸儒多以鄭說爲非，故此亦云“非明驗”。“不復饋食於下室耳”：按《儀禮》，朔月若薦新，則不饋於下室。據註，下室，燕寢，若今內堂也。殯宮中大小斂奠·朝夕奠，皆無黍稷，惟下室中不異平時日設饋食。至月朔，殯宮殷奠有黍稷，則不復饋於下室也。○卒哭後不饋下室，經無此文。更詳之。』

節要0078(0502) (陸陳辨答2) (卷5:3右) (晦庵集 卷36)

答陸子美 〔九韶·梭山先生〕

伏承示諭〈太極〉・〈西銘〉之失，備悉指意。今亦不暇細論，只如〈太極〉篇首一句，最是長者所深排。然殊不知不言無極¹⁾，則太極同於一物，而不足爲萬化之根；不言太極²⁾，則無極淪於空寂，而不能爲萬化之根。只此一句，便見其下語精密，微妙無窮。而向下所說許多道理，條貫脈絡，井井不亂，只今便在目前，而亘古亘今，擲撲不破。只恐自家見得未曾如此分明直截，則其所可疑者，乃在此而不在彼也。至於〈西銘〉之說，猶更分明。今亦且以首句論之，人之一身，固是父母所生。然父母之所以爲父母者，卽是乾坤。若以父母而言，則一物各一父母。若以乾坤而言，則萬物同一父母矣。萬物既同一父母，則吾體之所以爲體者，豈非天地

▶ 陸九韶：1128~1205. 字는 子美, 號는 梭山. 撫州 金溪人. 復齋, 象山の 兄.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無極：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 太極：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之塞？吾性之所以爲性者，豈非天地之帥哉？古之君子惟其見得道理眞實如此，所以親親而仁民，仁民而愛物，推其所爲，以至於能以天下爲一家・中國爲一人而非意之也。今若必謂人物只是父母所生，更與乾坤都無干涉，其所以有取於〈西銘〉者，但取其姑爲宏闊廣大之言以形容仁體而破有我之私而已，則是所謂仁體者全是虛名，初無實體，而小己之私却是實理，合有分別；聖賢於此，却初不見義理，只見利害，而妄以己意造作言語，以增飾其所無・破壞其所有也。若果如此，則其立言之失，“膠固”二字，豈足以盡之？而又何足以破人之梏於一己之私哉！大抵古之聖賢千言萬語，只是要人明得此理。此理既明，則不務立論，而所言無非義理之言，不務正行，而所行無非義理之實，無有初無此理，而姑爲此言以救時俗之弊者。不知子靜相會，曾以此話子細商量否？草草布此，如有未當，切幸痛與指摘，剖析見教。理到之言，不得不服也。

朱子書節要 卷之五

節要0079(0503) (陸陳辨答3-1~2) (卷5:4左) (晦庵集 卷36)

答陸子靜 〔九淵·象山先生〕

(陸陳辨答3-1)

熹頓首再拜上啓子靜 崇道監丞老兄。今夏在玉山，便中得書，時以入都旋復還舍，疾病多故，又苦無便，不能卽報。然懷想德義與夫象山泉石之勝，未嘗不西望太息也。前書誨諭之悉，敢不承教。所謂古之聖賢惟理是視，言當於理，雖婦人孺子，有所不棄；或乖理致，雖出古書，不敢盡信，此論甚當，非世儒淺見所及也。但熹竊謂言不難擇而理未易明，若於理實有所見，則於人言之是非，不翅白黑¹⁾之易辨，固不待訊其人之賢否而爲去取。不幸而吾之所謂理者，或但出於一己之私見，則恐其所取舍未足以爲群言之折衷也。況理旣未明，則於人之言恐亦未免有未盡其意者，又安可以遽絀古書爲

▶ 陸九淵：1139~1192. 字는 子靜. 存齋先生, 또는 象山선생이라고 稱함. 撫州 金溪人. 梭山, 復齋의 弟. 陸王 心學의 代表人物.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白黑：《全書》‘黑白’

不足信，而直任胸臆之所裁乎？來書反復，其於無極·太極之辨詳矣。然以熹觀之，伏羲作《易》，自一畫以下，文王演《易》，自“乾元”以下，皆未嘗言太極也，而孔子言之。孔子贊《易》，自太極以下，未嘗言無極也，而周子言之。夫先聖後聖，豈不同條而共貫哉？若於此有以灼然實見太極之眞體，則知不言者不爲少，而言之者不爲多矣，何至若此之紛紛哉！今既不然，則吾之所謂理者，恐其未足以爲群言之折衷，又況於人之言有所不盡者，又非一二而已乎？且夫〈大傳〉之“太極”者，何也？卽兩儀·四象·八卦之理具於三者之先，而縊²⁾於三者之內者也。聖人之意，正以其究竟至極，無名可名，故特謂之太極。猶曰“舉天下之至極無以加此”云爾，初不以其中而命之也。至如“北極”之“極”·“屋極”之“極”·“皇極”之“極”·“民極”之“極”，諸儒雖有解爲中者，蓋以此物之極常在此物之中，非指“極”字而訓之以中也。極者至極而已。以有形者言之，則其四方八面合轅將來，到此築底，更無去處；從此推出，四方八面都無向背，一切停勻，故謂之極耳。後人以其居中而能應四外，故指其處而以中言之，非以其義爲可訓中

2) 縊：[두주 《韻會》，“‘蘊’通作‘縊’。”]가 있다；海州本·定州本‘蘊’

也。至於太極，則又初無形象方所之可言，但以此理至極而謂之極耳。今乃以中名之，則是所謂理有未明而不能盡乎人言之意者也。若論“無極”二字，乃是周子灼見道體，迥出常情，不顧旁人是非，不計自己得失，勇往直前，說出人不敢說底道理，令後之學者曉然見得太極之妙不屬有無，不落方體。若於此看得破，方見得此老真得千聖以來不傳之祕，非但架屋下之屋·疊牀上之牀而已也。至於〈大傳〉既曰“形而上者謂之道”矣，而又曰“一陰一陽之謂道”，此豈真以陰陽爲形而上者哉？正所以見一陰一陽雖屬形器³⁾，然其所以一陰而一陽者，是乃道體之所爲也。故語道體之至極，則謂之太極；語太極之流行，則謂之道。雖有二名，初無兩體。周子所以謂之“無極”，正以其無方所·無形狀，以爲在無物之前，而未嘗不立於有物之後；以爲在陰陽之外，而未嘗不行乎陰陽之中；以爲通貫全體，無乎不在，則又初無聲臭影響之可言也。今乃深詆無極之不然，則是直以太極爲有形狀·有方所矣，直以陰陽爲形而上者，則又昧於道器之分矣。又於“形而上者”之上復有“況太極乎”之語，則是又以道上別有一物爲太極矣。至熹前書所謂

3) 器：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不言無極，則太極同於一物而不足爲萬化根本；不言太極，則無極淪於空寂而不能爲萬化根本”，乃是推本周子之意，以爲當時若不如此兩下說破，則讀者錯認語意，必有偏見之病，聞人說有，卽謂之實有，見人說無，卽以爲⁴⁾眞無耳。自謂如此說得周子之意已是大煞分明，只恐知道者厭其漏洩之過甚，不謂如老兄者，乃猶以爲未穩而難曉也。又謂〈大傳〉明言“《易》有太極”，今乃言‘無’，何耶？此尤非所望於高明者。今夏因與人言《易》，其人之論正如此。當時對之，不覺失笑，遂至被劾。彼俗儒膠固，隨語生解，不足深怪。老兄平日自視爲如何，而亦爲此言耶？老兄且謂〈大傳〉之所謂有⁵⁾，果如兩儀·四象·八卦之有定位·天地五行萬物之有常形耶？周子之所謂“無⁶⁾”，是果虛空斷滅，都無生物之理耶？老子“復歸於無極”，“無極”乃無窮之義。如“莊生入無窮之門，以遊無極之野”云爾，非若周子所言之意也。今乃引之而謂周子之言實出乎彼，此又理有未明而不能盡乎人言之意者也。高明之學超出方外，固未易以世間言語論量·意見測度，今欲奉報，又恐徒爲紛

4) 爲：海州本·定州本‘謂’

5) 有：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6) 無：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紛，重使世俗觀笑。若遂不言，則恐學者終無所取正。較是二者，寧可見笑於今人，不可得罪於後世。是以終不獲已而竟陳之。不識老兄以爲如何？

(陸陳辨答3-2)

又記頃年嘗有“平心”之說，而前書見喻曰：“甲與乙辨，方各自是其說，甲則曰願乙平心也，乙亦曰願甲平心也。平心之說，恐難明白，不若據事論理可也。”此言美矣。然熹所謂“平心”者，非直使甲操乙之見·乙守甲之說也，亦非謂都不論事之是非也，但欲兩家姑暫置其是己非彼之意，然後可以據事論理，而終得其是非之實。如謂治疑獄者當公其心，非謂便可改曲者爲直·改直者爲曲也，亦非謂都不問其曲直也，但不可先以己意之向背爲主，然後可以審聽兩造之辭，旁求參伍之驗，而終得其曲直之當耳。今以麤⁷⁾淺之心，挾忿懟之氣，不肯暫置其是己非彼之私，而欲評義理之得失，則雖有判然如黑白之易見者，猶恐未免於誤，況其差有在於毫釐之間者，又將誰使折其衷而能不謬也哉？

7) 麤：《全書》‘粗’

子美尊兄自是天資質實重厚，當時看得此理有未盡處，不能子細推究，便立議論，因而自信太過，遂不可回。見雖有病，意實無他。老兄却是先立一說，務要突過有若·子貢以上，更不數近世周·程諸公，故於其言不問是非，一例吹毛求疵，須要討不是處。正使說得十分無病，此意却先不好了。況其言之粗率，又不能無病乎？顏子以能問於不能，以多問於寡，有若無，實若虛，犯而不校；曾子三省其身，惟恐謀之不忠·交之不信·傳之不習。其智之崇如彼而禮之卑如此，豈有一毫自滿自足·強辯取勝之心乎？來書之意，所以見教者甚至，區區鄙見，亦不敢不爲老兄傾倒也。不審尊意以爲如何？如曰未然，則“我日斯邁而⁸⁾月斯征”，各尊所聞，各行所知，亦可矣，無復可望於必同也。

8) 而：海州本‘爾’

節要0080(0504) (陸陳辨答4) (卷5:10左) (晦庵集 卷36)

答陳同甫

病中不能整理別頭項文字，閒取舊書諷詠之，亦覺有味，於反身之功亦頗有得力處，他亦不足言也。示喻見予之意甚厚，然僕豈其人乎？明者於是乎不免失言之累矣。震之九四，向來顏魯子以納甲推賤命，以爲正當此爻，常恨未曉其說。今同甫復以事理推配，與之暗合如此，然則此事固非人之所能爲矣。武夷九曲之中，比縛得小屋三數間，可以遊息。春間嘗一到，留止旬餘。溪山回合，雲煙開斂，旦¹⁾暮萬狀，信非人境也。此生本不擬爲時用，中間立脚不牢，容易一出，取困而歸。自近事而言，則爲廢斥，自初心而言，則可謂“爰得我所”矣。承許見顧，若得遂從容此山之間，款聽奇偉驚人之論，亦平生快事也。但聞未免俯就鄉舉，正恐自此騫騰，未暇尋此寂漠之濱耳。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旦：海州本 ‘朝’

節要0081(0505) (陸陳辨答5) (卷5:11右) (晦庵集 卷36)

與陳同甫

比忽聞有意外之禍，甚爲驚歎。方念未有相爲致力處，又聞已遂辨¹⁾白而歸，深以爲喜。人生萬事，眞無所不有也。比日久雨蒸鬱，伏惟尊候萬福。歸來想諸況仍舊，然凡百亦宜痛自收斂。此事合說多時，不當至今日。遲頓不及事，固爲可罪，然觀老兄平時自處於法度之外，不樂聞儒生禮法之論。雖朋友之賢如伯恭者，亦以法度之外相處，不敢進其逆耳之論，每有規諷，必宛轉回互，巧爲之說，然後敢發。平日狂妄深竊疑之，以爲愛老兄者似不當如此，方欲俟後會從容面罄其說，不意罷逐之遽，不及盡此懷也。今茲之故，雖不知所由，或未必有以召之，然平日之所積，似亦不爲無以集衆尤而信讒口者矣。老兄高明剛決，非吝於改過者。願以愚言思之，紬去“義利雙行·王霸並用”之說，而從事於懲忿窒慾·遷善改過之事，粹然以醇儒之道自律，則豈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3에 실려 있다.

1) 辨：海州本‘辦’

朱子書節要 卷之五

免於人道之禍，而其所以培壅本根·澄原正本，爲異時發揮事業之地者，益光大而高明矣。荷相與之厚，忘其狂率，敢盡布其腹心。悚仄悚仄。〔下書又云：“大率世間議論，不是太過，卽是不及。中間自一條平穩正當大路，却無人肯向上頭立脚，殊不可曉。”〕

節要0082(0506) (陸陳辨答6-1~7) (卷5:12右) (晦庵集 卷36)

答陳同甫

(陸陳辨答6-1)

熹衰病杜門，忽此生朝，孤露之餘，方深哽愴，乃蒙不忘，遠寄新詞，副以香果佳品，至於裘材，又出機杼，此意何可忘也！但兩詞豪宕清婉，各極其趣，而投之空山樵牧之社，被之衰退老朽之人，似太不著題耳。示喻縷縷，殊激懦衷。以老兄之高明俊傑，世間榮悴得失本無足爲動心者。而細讀來書，似未免有不平之氣。區區竊獨妄意，此殆平日才太高·氣太銳·論太險·跡太露之過，是以困於所長，忽於所短，雖復更歷變故，顛沛至此，而猶未知所以反求之端也。嘗謂天理·人欲二字，不必求之於古今王伯之迹，但反之於吾心義利邪正之間。察之愈密，則其見之愈明，持之愈嚴，則其發之愈勇。孟子所謂“浩然之氣”者，蓋斂然於規矩準繩不敢走作之中，而其自任以天下之重者，雖賁·育莫能奪也。是豈才能血氣之所爲哉？老兄視漢高帝·唐太宗之所爲，而察其心果出於義耶，出於利耶？出於邪耶，正耶？若高

帝，則私意分數猶未甚熾，然已不可謂之無。太宗之心，則吾恐其無一念之不出於人欲也。直以其能假仁借義以行其私，而當時與之爭者才能知¹⁾術既出其下，又不知有仁義之可借，是以彼善於此而得以成其功耳。若以其能建立國家·傳世久遠，便謂其得天理之正，此正是以成敗論是非，但取其獲禽之多而不羞其詭遇之不出於正也。千五百年之間，正坐如此，所以只是架漏牽補，過了時日。其間雖或不無小康，而堯·舜·三王·周公·孔子所傳之道，未嘗一日得行於天地之間也。若論道之常存，却又初非人所能預。只是此個自是亘古亘今常在不滅之物，雖千五百年被人作壞，終殄滅他不得耳。漢·唐所謂賢君，何嘗有一分氣力扶助得他耶！老兄人物奇偉英特，恐不但今日所未見。向來得失短長，正自不須更挂齒牙，向人分說。但鄙意更欲賢者百尺竿頭進取一步，將來不作三代以下人物，省得氣力爲漢·唐分疏，卽更脫灑磊落耳。李·孔·霍·張²⁾，則吾豈敢？然夷吾·景略之事，亦不敢爲同父願之也。大字甚荷不鄙，但尋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7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知：海州本·定州本 ‘智’

2) 李孔霍張：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常不欲爲寺觀寫文字，不欲破例。此亦拘儒常態，想又發一笑也。寄來紙却爲寫張公集句〈坐右銘〉去，或恐萬一有助於積累涵養・晬面盎背之功耳。聞曾到會稽，曾遊山否？越中山水氣象終是淺促，意思不能深遠也。武夷亦不至甚好，但近處無山，隨分占取做自家境界。春間至彼，山高水深，紅綠相映，亦自不惡。但年來窘束殊甚，詩成屋未就，亦無人力可往來，每以爲念耳。

(陸陳辨答6-2)

聞葺治園亭，規模甚盛，甚恨不得往同其樂而聽高論之餘也。“樓台側畔楊花過，簾幕中間燕子飛”，只是富貴者事，做沂水・舞雩意思不得，亦不是躬耕隴畝・抱膝長嘯底氣象。却是自家此念未斷，便要主張將來做一般看了。竊恐此正是病根，與平日議論同一關捩也。二公詩皆甚高，而正則摹寫尤工，卒章致意尤篤，令人歎息。所惜不曾向頂門上下一針，猶落第二義也。〈坐右銘〉固知在所鄙棄，然區區寫去之意，却不可委之他人，千萬亟爲取以見還爲幸，自欲投之水火也。〔“關捩”：‘捩’當从木，音麗。《韻書》，“琵琶撥曰‘板’。”又關捩，或云：“治者鼓風板所安之木。”〕

(陸陳辨答6-3)

來教累紙，縱橫奇偉，神怪百出，不可正視。雖使孟子復生，亦無所容其喙，況於愚昧蹇劣，又老兄所謂賤儒者，復安能措一詞於其間哉？然於鄙意實有所未安者，不敢雷同曲相阿徇，請復陳其一二，而明者聽之也。來教云云，其說雖多，然其大概不過推尊漢·唐，以爲與三代不異；貶抑三代，以爲與漢·唐不殊。而其所以爲說者，則不過以爲古今異宜，聖賢之事不可盡以爲法，但有救時之志·除亂之功，則其所爲雖不盡合義理，亦自不妨爲一世英雄。然又不肯說此不是義理，故又須說天地人並立爲三，不應天地獨運而人爲有息。今既天地常存，即是漢·唐之君只消如此，已能做得人底事業³⁾，而天地有所賴以至今。其前後反覆，雖縷縷多端，要皆以證⁴⁾成此說而已。若熹之愚，則其所見固不能不與此異，然於其間又有不能不同者。今請因其所同而核其所異，則夫豪⁵⁾釐之差，千里之繆，將有可得而言者矣。來書“心無常泯，法無常廢”一段⁶⁾，乃一書之關鍵，鄙

3) 業：海州本에는 [추가 ‘業’, 《文抄》作‘來’.]가 있다.

4) 證：定州本 ‘訂’

5) 豪：海州本·定州本 ‘毫’

6) 段：海州本 ‘端’[추가 ‘端’, 《文抄》作‘段’.]

意所同，未有多於此段者也；而其所異，亦未有甚於此段者也。蓋有是人則有是心，有是心則有是法，固無常泯常廢之理。但謂之無常泯，卽是有時而泯矣；謂之無常廢，卽是有時而廢矣。蓋天理人欲之並行，其或斷或續，固宜如此。至若論其本然之妙，則唯有天理而無人欲，是以聖人之教，必欲其盡去人欲而復全天理也。若心，則欲其常不泯而不恃其不常泯也，法則欲其常不廢而不恃其不常廢也。所謂“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者，堯·舜·禹相傳之密旨也。夫人自有生而梏於形體之私，則固不能無人心矣。然而必有得於天地之正，則又不能無道心矣。日用之間，二者並行，迭爲勝負，而一身之是非得失·天下之治亂安危，莫不係焉。是以欲其擇之精而不使人心得以雜乎道心，欲其守之一而不使天理得以流於人欲，則凡其所行，無一事之不得其中，而於天下國家無所處而不當。夫豈任人心之自危而以有時而泯者爲當然·任道心之自微而幸其須臾之不常泯也哉？夫堯·舜·禹之所以相傳者既如此矣，至於湯·武，則聞而知之，而又反之以至於此者也。夫子之所以傳之顏淵·曾參者此也，曾子之所以傳之子思·孟軻者亦此也。故其言曰：“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

焉。”又曰：“吾道一以貫之。”又曰：“道不可須臾離也，可離非道也。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恐懼乎其所不聞。”又曰：“其爲氣也，至大至剛，以直養而無害，則塞乎天地之間。”此其相傳之妙，儒者相與謹守而共學焉，以爲天下雖大，而所以治之者不外乎此。然自孟子既沒，而世不復知有此學，一時英雄豪傑之士或以資質之美・計慮之精，一言一行偶合於道者，蓋亦有之；而其所以爲之田地根本者，則固未免乎利欲之私也。而世之學者，稍有才氣，便自不肯低心下意做儒家事業・聖學功夫，又見有此一種道理，不要十分是當，不礙諸般作爲，便可立大功名・取大富貴，於是心以爲利，爭欲慕而爲之。然又不可全然不顧義理，便於此等去處指其須臾之間偶未泯滅底道理，以爲只此便可與堯・舜・三代比隆，而不察其所以爲之田地本根者之無有是處也。夫三才之所以爲三才者，固未嘗有二道也。然天地無心而人有欲，是以天地之運行無窮而在人者有時而不相似。蓋義理之心頃刻不存⁷⁾，則人道息；人道息，則天地之用雖未嘗已，而其在我者則固卽此而不行矣。不可但見其穹然者常運乎上，頽然者常在乎下，便以爲人道

7) 義理……不存：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無時不立而天地賴之以存之驗也。夫謂道之存亡在人而不可舍人以爲道者，正以道未嘗亡而人之所以體之者有至有不至耳，非謂苟有是身則道自存，必無是身然後道乃亡也。天下固不能人人爲堯，然必堯之道行，然後人紀可修·天地可立也；天下固不能人人皆桀，然亦不必人人皆桀而後人紀不可修·天地不可立也。但主張此道之人，一念之間不似堯而似桀，卽此一念之間便是架漏度日·牽補過時矣。且曰心不常泯而未免有時之或泯，則又豈非所謂半生半死之虫哉？蓋道未嘗息而人自息之，所謂“非道亡也，幽·厲不由也”，正謂此耳。惟聖盡倫，惟王盡制，固非常人所及。然立心之本，當以盡者爲法而不當以不盡者爲準。故曰：“不以舜之所以事堯事君，不敬其君者也；不以堯之所以治民治民，賊其民者也。”而況謂其非盡欺人以爲倫·非盡罔世以爲制，是則雖以來書之辨⁸⁾，固不謂其絕無欺人罔世之心矣。欺人者，人亦欺之，罔人者，人亦罔之，此漢·唐之治所以雖極其盛，而人不心⁹⁾服，終不能無愧於三代之盛時也。夫人只是這個人，道只是這個道，豈有三代·漢·唐之別？但

8) 辨：[두주 ‘辨’, 今館本註, “當作‘辯’.”]이 있다.

9) 心：海州本·定州本 ‘深’

以儒者之學不傳，而堯·舜·禹·湯·文·武以來轉相授受之心不明於天下，故漢·唐之君雖或不能無暗合之時，而其全體却只在利欲上。此其所以堯·舜·三代自堯·舜·三代，漢祖·唐宗自漢祖·唐宗，終不能合而爲一也。今若必欲撤去限隔，無古無今，則莫若深考堯·舜相傳之心法，湯·武反之之功夫，以爲準則而求諸身；却就漢祖·唐宗心術微處痛加繩削，取其偶合而察其所自來，黜其悖戾而究其所從起，庶幾天地之常經·古今之通義有以得之於我；不當坐談既往之迹，追飾已然之非，便指其偶同者以爲全體，而謂其真不異於古之聖賢也。且如約法三章固善矣，而卒不能除三族之令，一時功臣，無不夷滅；除亂之志固善矣，而不免竊取宮人私侍其父，其他亂倫逆理之事，往往皆身犯之。蓋舉其始終而言，其合於義理者常少，而其不合者常多；合於義理者常小，而其不合者常大。但後之觀者於此根本功夫自有欠闕，故不知其非而以爲無害於理。抑或以爲雖害於理，而不害其獲禽之多也。觀其所謂學成人而不必於儒，攬金·銀·銅·鐵爲一器而主於適用，則亦可見其立心之本在於功利，有非辨¹⁰⁾說所能文者矣。夫成人之道，以儒者

10) 辨：[두주 ‘辨’, 今館本作‘辯’.]이 있다.

之學求之，則夫子所謂“成人”也。不以儒者之學求之，則吾恐其畔棄繩墨，脫略規矩，進不得爲君子，退不得爲小人。正如攪金·銀·銅·鐵爲一器，不唯壞却金銀，而銅鐵亦不得盡其銅鐵之用也。不傳之絕學一事，却恐更須討論，方見得從上諸聖相傳心法，而於後世之事有以裁之而不失其正。若不見得，却是自家耳目不高·聞見不的，其所謂洪者，乃混雜而非眞洪；所謂慣者，乃流徇而非眞慣。竊恐後生傳聞，輕相染習，使義利之別不明，舜·跖之塗不判，眩流俗之觀聽，壞學者之心術，不惟老兄爲有識者所議，而朋友亦且陷於收司連坐之法，此熹之所深憂而甚懼者，故敢極言以求定論。若猶未以爲然，卽不若姑置是事而且求諸身，不必徒爲譊譊，無益於道，且使卞莊子之徒得以竊笑於旁而陰行其計也。〔“卞莊子”：《史》，陳軫曰：“莊子欲刺虎，館豎子止之曰：‘兩虎方食牛，食甘必鬪，鬪則大者傷，小者死，從傷刺之，一舉必有雙虎之名。’莊子從之，果有雙虎之功。”魯卞邑大夫。〕

(陸陳辨答6-4)

古之聖賢，從本根上便有惟精惟一功夫，所以能執其中，徹頭徹尾無不盡善。後來所謂英雄，則未嘗有此功夫，

但在利欲場中頭出頭沒，其資美者乃能有所暗合而隨其分數之多少以有所立。然其或中或否，不能盡善。則一而已。來喻所謂“三代做得盡，漢·唐做得不盡”者，正謂此也。然但論其盡與不盡，而不論其所以盡與不盡，却將聖人事業去就利欲場中比並較量，見有彷彿¹¹⁾相似，便謂聖人樣子不過如此，則所謂豪¹²⁾釐之差，千里之繆者，其¹³⁾在此矣。且如管仲之功，伊·呂以下誰能及之？但其心乃利欲之心，迹乃利欲之迹，是以聖人雖稱其功，而孟子·董子皆秉法義以裁之，不少假借。蓋聖人之目固大，心固平，然於本根親切之地·天理¹⁴⁾人欲之分，則有毫釐必計·絲髮不差者。此在後之賢所以密傳謹守以待後來，惟恐其一旦舍吾道義之正，以徇彼利欲之私也。今不講此，而遽欲大其目·平其心，以斷千古之是非，宜其指鐵爲金·認賊爲子，而不自知其非也。若夫點鐵成金之譬，施之有教無類·遷善改過之事則可，至於古人已往之迹，則其爲金爲鐵，固有定形，而非後人口舌議論所能改易久矣。今乃欲追點功利之鐵，以成

11) 佛：定州本‘髣’

12) 豪：海州本·定州本‘毫’

13) 其：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14) 天理：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道義之金，不惟費却閑心力，無補於既往，正恐礙却正知見，有害於方來也。若謂漢·唐以下便是眞金，則固無待於點化，而其實又有大不然者。蓋聖人者，金中之金也。學聖人而不至者，金中猶有鐵也。漢祖·唐宗用心行事之合理者，鐵中之金也。曹操·劉裕之徒，則鐵而已矣。夫金中之金乃天命之固然，非由外鑠，淘擇不淨，猶有可憾。今乃無故必欲棄舍自家光明寶藏而奔走道路，向鐵爐邊查礦中撥取零金，不亦悞乎！帝王本無異道，王通分作兩三等，已非知道之言。且其爲道，行之則是，今莫之御而不爲，乃謂不得已而用兩漢之制，此皆卑陋之說，不足援以爲據。若果見得不傳底絕學，自無此蔽矣。今日許好¹⁵⁾閒議論，皆原於此學之不明，故¹⁶⁾乃以爲筌籛邊物而不之省。其爲喚銀作鐵，亦已甚矣。來諭又謂：“凡所以爲此論者，正欲發儒者之所未備，以塞後世英雄之口而奪之氣，使知千塗萬轍，卒走聖人樣子不得。”以愚觀之，正恐不須如此費力。但要自家見得道理¹⁷⁾分明，守得正當，後世到此地者，自

15) 好：[두주 ‘好’, 考唐本, 作‘多’.]가 있으며, 海州本에는 [주목추가 ‘好’, 《文抄》作‘多’.]가 있다; 《全書》 ‘多’

16) 故：[두주 ‘故’, {考唐本}, 作‘顧’.]가 있다.

17) 道理：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然若合符節，不假言傳。其不到者，又何足與之爭耶！況此等議論，正是推波助瀾，縱風止燎，使彼益輕聖賢而愈無忌憚，又何足以閑¹⁸⁾其口而奪其氣乎？『“許好閑議論”：‘好’，《文抄》作‘多’。』

(陸陳辨答6-5)

來喻衰衰，讀之惘然。反復數過，尙不能該其首末。蓋神思之衰落如此，況能相與往復·上下其論哉？向來讀書頗務精熟，中間亦幸了得數書，自謂略能窺見古人用心處，未覺千歲之爲遠。然亦無可告語者，時一思之以自笑耳。其間一二有業未就，今病已矣，不能復成書矣。不知後世之子雲·堯夫復有能成吾志者否？然亦已置之，不能復措意間也。只今日用功夫，養病之餘，却且收拾身心，從事於古人所謂小學者，以補前日粗疏脫略之咎，蓋亦心庶幾焉，而力或有所未能也。¹⁹⁾ 全父聞之，當復見笑。然韓子所謂“斂退就新懦，趨營悼前猛”者，區區故人之意，尙不能不以此有望於高明也。如何如何？此外世俗是非毀譽，何足挂齒牙間？細讀來書，

18) 閑：海州本·定州本·《全書》‘閑’

19) 蓋亦……未能也：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似於此未能無小芥蒂也。大風吹倒亭子，却似天公會事發，彼洛陽亭館又何足深羨也？嘗論孟子“說大人，則藐之”，孟子固未嘗不畏大人，但藐其巍巍然者耳。辦得此心，卽更掀却臥房，亦且露地睡，似此方是真正大英雄人。然此一種英雄，却是從戰戰兢兢·臨深履薄²⁰⁾處做將出來。若是血氣麤²¹⁾豪，却一點使不著也。伯恭平時亦嘗說及此否？此公今日何處得來！然其於朋友不肯盡情，亦使人不能無遺恨也。〈抱膝吟〉久做不成，蓋不合先寄陳·葉二詩來，田地都被占却，教人無下手處也。況今病思如此，是安能復有好語，道得老兄意中事耶？承欲爲武夷之游，甚慰所望。但此山冬寒夏熱，不可居。惟春暖秋涼，紅綠紛葩，霜清木脫，此兩時節爲勝游耳。今春纔得一到，而不暇宿。秋來以病，未能再往，職事甚覺弛廢。若得來春命駕，當往爲數日款也。但有一事處之不安，不敢不布聞；私居貧約，無由遣人往問動靜，而歲煩遣介存問生死，遂爲故事。旣又闕然不報，而坐受此過當之禮，雖兄不以爲譴，而實非愚昧所敢安也，自此幸損此禮，因人入城時，以一二字

20) 戰戰……履薄：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1) 麤：《全書》‘粗’

付叔度·子約俾轉以來，亦足以道情素，不爲莫往莫來者矣。如何如何？

(陸陳辨答6-6)

所謂“不能自爲時”者，則又非區區所敢聞也。但願老兄毋出於先聖規矩準繩之外，而用力於四端之微，以求乎堯公之所樂，如其所以告於巍巍當坐之時之心，則其行止忤合付之時命，有不足言矣。就其不遇，獨善其身，以明大義於天下，使天下之學者皆知吾道之正而守之以待上之使令，是乃所以報不報之恩者，亦豈必進爲而撫世哉！佛者之言曰：“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爲報佛恩。”而杜子美亦云：“四鄰耒耜出，何必吾家操？”此言皆有味也。夫聖賢固不能自爲時，然其仕久止速²²⁾，皆當其可，則其所以自爲時者亦非他人之所能奪矣，豈以時之不合而變吾所守以徇之哉？〔“塵刹”：佛書十方國土之通稱也。其說三千世界，計之，十千爲一塵，塵十千爲一刹，刹十千爲一廣大刹。“四隣耒耜出”：杜〈大雨〉詩，作“四隣出耒耜云云。”“仕久止速”：當作‘仕止久速’。〕

(陸陳辨答6-7)

22) 仕久止速：定州本‘仕止久速’

自聞榮歸，日欲遣人致問，未能。專使之來，伏奉手誨，且有新詞厚幣佳實之貺²³⁾，感認不忘之意，愧忤亡喻。老兄志大宇宙，勇邁終古，伯恭之論，無復改評。今日始於後生叢中出一口氣，蓋未足爲深賀。然出身事主，由此權輿，便不碌碌，則異時事業亦可卜矣。但來書諸論，鄙意頗未盡曉。又如“二者相似而寔不同”處，亦所未喻。若如鄙意，則須是先得吾身好·黨類亦好，方能得吾君好·天下國家好。而所謂好者，又有虛實·大小·久近之不同。若自吾身之好而推之，則凡所謂好者皆實·皆大而又久遠。若不自吾身推之，則彌縫掩覆，雖可以苟合於一時，而凡所謂好者，皆爲他日不可之病根矣。蓋修身事君，初非二事，不可作兩般看。此是千聖相傳正法眼藏，平日所聞於師友而竊守之。今老且死，不容改易。如來喻者，或是諸人事宜，非老僕所敢聞也。不知象先所論與此如何？向見此公差彊人意，恨未得款曲盡所懷耳。【“榮歸”：同父，紹興²⁴⁾四年及第，未幾卒。“他日不可”：‘可’疑是‘好’字。“正法眼藏”：《傳燈錄》，佛以無上微妙祕密圓明眞實正法眼藏付迦葉。又《困知記》引《楞嚴》諸說而斷之曰：“其言反覆多端，不過以藏識爲主。藏卽所謂如來藏也。以其含藏善惡種子

23) 貺：《全書》‘況’

24) 紹興：全州本에는 [두주 ‘紹興’當作‘紹熙’.]가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五

故謂之藏。”今據此說觀之，‘正法眼藏’，恐只以佛之眼目見識能含藏真實善法故謂之也。先生借引以喻此道之正傳耳。』

定本 退溪全書 四

朱子書節要 卷之六 諸子目錄【問答論事】

【胡原仲】名憲，文定從子，崇安人，號籍溪。入太學，與劉勉之陰習伊·洛之說，歸隱故山，召爲祕書正字。與祠歸，先生師事之。○見《言行錄》。

【范直閣】名如圭，字伯達。胡文定之甥，建陽人。從舅氏受《春秋》。第進士，知泉州，罷居邵武。忠孝誠實，得於天性，有集十卷。○見《言行錄》。

【卓夫人】劉公子羽繼室。是生平甫，見先生所撰〈劉公神道碑〉。

【黃端明】名中，字通老。邵武人。廷試第一¹⁾，以龍閣致仕。先生以公端莊靜重有溫厚和平之氣可師，裁書，請納拜而見之。謚簡肅。

【王龜齡】名十朋，號梅溪。溫州 樂清人。擢第一，官至太子詹事·龍閣，致仕。謚忠文。先生稱其光明正大，磊磊落落君子人。

【陳丞相】見上一卷。

【劉共父】名珙，子羽長子，崇安人。從季父子翬學。登進士，官同知樞密院事。精明果斷。臨數鎮，民愛之。

1) 一：[두주 {‘一’}當作‘二’.]가 있다.

如父母。諡忠肅。

【韓無咎】即一卷‘韓尙書’。

【芮國器】名燁。烏程人。與弟暉力學，同登第，任國子司業。○《一統志》，‘燁’作‘曄’。

【鄭景望】名伯熊。永嘉人。爲建寧太守。見《大全》八十一卷跋語。

【尤延之】名袤，號美軒，又號遂初。常州無錫人。登第嘗爲江西漕，改江東提刑，終禮部尙書。少從喻樗學，在掖垣極言攻道學之非。諡文簡，中興四詩人之一。

【郭冲晦】²⁾ 名雍。父忠孝，師事伊川，著《易說》，號兼山。雍傳其學，通世務，隱陝州。孝宗朝，召不起，賜號頤正先生。後又號冲晦先生，又自號白雲。然其學，去程門遠甚云。

【程可久】名迥，號沙隨。寧陵人。靖康之亂，徙紹興之餘姚。登第，官至上饒令。嘗受學於嘉興 聞人茂德³⁾·嚴陵 喻樗。著《古易章句》等書。先生稱其博雅君子人也。

【程泰之】⁴⁾ 名大昌。休寧人。進士，以龍閣學士致仕。

2) 郭冲晦：[두주 按，字子和，先賜冲晦處士，後更封頤正先生.]이 있다.

3) 聞人茂德：[두주 聞人姓，茂德名.]이 있다.

4) 程泰之：[두주 諡文簡.]이 있다.

篤學於古今事，靡不考究。著《禹貢論》·《易原》·《演繁露》等書。

〔李壽翁〕名椿，洛州人。⁵⁾ 官吏部侍郎。先生爲撰墓誌銘。劉靜春題其所著《觀畫書》云：“李公尉衡山時，遊胡文定之門云。”

〔陳體仁〕

〔顏魯子〕

5) 洛州人：[두주 ‘洛’當作‘洛’. 按, 公洛州永年縣人.]이 있다.

節要0083(0601) (問答論事1-1~2) (卷6:1右) (晦庵集 卷37)

與籍溪胡原仲先生 〔憲. 紹興己卯, 由司直授校書正字.¹⁾〕

(問答論事1-1)

熹拜覆正字文²⁾丈尊前. 熹拜違教席, 忽已月餘, 瞻慕之誠, 食息不置. 卽日秋暑未闌, 伏惟祕府清暇, 尊候動止萬福. 官居廩食之況不敢問, 物情時變, 必已了³⁾然於胸中矣. 如有用我, 而將奚先? 此則區區所欲聞也. 因來賜書, 願以開示, 少紓畎畝之憂, 幸甚. 吾道不幸, 范丈前月十八日遂不起疾. 憂時深切, 信道篤誠, 世豈復有斯人哉! 前此往哭其殯, 視其家生理蕭然, 未知所稅. 衆議葬於渭曲, 從其卜居之志, 甚善. 但聞其家欲居泰寧, 似非良計. 然伯修樂之, 人不得而問也. 熹初與元履諸人議, 以爲居建陽, 一則便於墳

▶ 胡憲：1086~1162. 字는 原仲, 號는 籍溪. 崇安人. 胡文定(胡安國)의 從子.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正字：定州本에는 뒤에 ‘○以下問答辨事’가 있다.

2) 文：《全書》‘丈’

3) 了：《全書》‘瞭’

墓，二則便於講學，三則便於生事，言之甚詳，未有見從之意。竊惟范丈平日教誨之誼，未敢默然，故敢復言於左右。伏想一慟之餘，亦當念之至此。因書一提其耳，或能改轍東來，則甚善也。【“范丈”：如圭。“泰寧”：縣名，屬邵武。“伯修”：如圭子念祖。】

(問答論事1-2)

秋已向深，江上消息如何？得且平善，甚幸。然愚意反以爲憂，蓋今出師防戍，轉輸科斂所不能免，聞沿江海州縣已騷然矣。歲歲如此，何以支吾？此不待兩兵相加而坐受弊之勢也。前日劉子源來此，道嶺上拜別所聞誨言，以爲必極論天下事，至於慷慨洒涕，有以見仁人之心不能忘世如此。伏計必有規模素定於胸中。熹竊謂天下形勢如前所云者，亦當路所不可不知也。救之之術，獨在救其本根而已。若隨其變而一一應之，則其變無窮，豈可勝救也哉！而所謂救其本根之術，不過視天下人望之所屬者，舉而用之，使其舉措用舍必當於人心，則天下之心翕然聚於朝廷之上，其氣力易以鼓動。如羸病之人，鍼藥所不能及，燂其丹田氣海，則氣血萃於本根而耳目手足利矣。【“燂”：本作‘熱’，儒劣切，燒也。《記》：“燂蕭聲。”】

節要0084(0602) (問答論事2-1~2) (卷6:2左) (晦庵集 卷37)

與范直閣 〔如圭·胡文定之甥〕

(問答論事2-1)

胡丈書中復主前日一貫之說甚力，但云：“若理會得向上一着，則無有內外·上下·遠近邊際，廓然四通八達矣。”熹竊謂此語深符鄙意。蓋既無有內外邊際，則何往而非一貫哉？熹頃至延平，見李愿中丈，問以“一貫”·“忠恕”¹⁾之說。見謂忠恕正曾子見處，及門人有問，則亦以其所見諭之而已，豈有二言哉！熹復問以近世儒者之說如何。曰：“如此則道有二致矣，非也。”其言適與卑意不約而合，謾以布聞。李丈名侗，師事羅仲素先生。羅嘗見伊川，後卒業龜山之門，深見稱許，其棄後學久矣。李丈獨深得其闡奧，經學純明，涵養精粹。延平士人甚尊事之，請以爲郡學正。雖不復應舉，而溫謙

▶ 范如圭：1102~1160. 字는 伯達. 建陽人. 胡文定(胡安國)의 甥.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一貫忠恕：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慤厚，人與之處久而不見其涯，鬱然君子人也。先子與之遊數十年，道誼²⁾之契甚深。『“胡丈”：原仲。』

(問答論事2-2)

熹奉親屏處，幸粗遣免。山間深僻，亦可觀書。又得胡丈來歸，朝夕有就正之所，窮約之中，此亦足樂矣。迫於親養，夏末須爲武林之行，計不三四月未得定居也。伏蒙別紙垂諭“忠恕”義，仰荷不棄其愚，與之反復，爲賜甚厚。謹以來教所示熟思之矣，敢復爲說以請益焉。熹所謂“忠恕”者，乃曾子於“一貫”之語默有所契，因門人之問，故於所見道體之中，指此二事日用最切者以明道之無所不在；所謂“已矣”者，又以見隨寓各足，無非全體也。“忠恕”兩字，在聖人有聖人之用，在學者有學者之用。如曾子所言，則聖人之忠恕也，無非極致。二程所謂“維天之命，於穆不已，天地變化，草木蕃”者，正所以發明此義也。如夫子所以告學者與子思《中庸》之說，則爲學者言之也，故明道先生謂：“曾子所言與違道不遠異者，動以天爾。”蓋動以天者，事皆處極，曾子之所言者是也。學者之於忠恕，未免參校彼

2) 誼：海州本·定州本‘義’

己，推己及人，則宜其未能誠一於天，安得與聖人之忠恕者同日而語也？若曾子之所言，則以聖人之忠恕言之，而見其與性·與天道者未嘗有二，所以爲一貫也。然此所謂異者，亦以所至之不同言之，猶《中庸》“安行”·“利行”·“勉行”之別耳。苟下學而上達焉，則亦豈有所隔閡哉？愚見如此，更乞教其不至者，重賜鐫曉，使得所正焉，不勝幸甚。〔“武林”：指臨安。“所謂忠恕”：‘所’疑‘竊’字。〕

節要0085(0603) (問答論事3) (卷6:4左) (晦庵集 卷37)

與慶國卓夫人 〔劉子羽繼室也. 見先生所撰〈劉公神道碑〉.〕

熹輒有愚見，初欲面稟，今既不成行，敢此布之。五哥嶽廟近自春中以來，頓減遊燕，復近書冊。若常能如此，寡過可期。更望因書褒勸，以獎成之。且聞尊意欲爲經營幹官差遣，不知然否？熹則竊以爲不可。近世人家家子弟多因爲此壞却心性，一生仕宦費力。蓋其生長富貴，本不知艱難，一旦仕宦，便爲此官，逐司只有使長一人可相拘轄，又間有寬厚長者，卽以貴遊子弟相待，不欲以法度見繩，上無職事了辦之責，下無吏民窺伺之憂，而州縣守倖勢反出己，不¹⁾可以凌²⁾轢，故後生子弟爲此官者，無不傲慢縱恣，席勢凌人。其謹飭者雖不至此，亦緣不親民事，觸事懵然，非如州縣小吏等級相承，職事相轄，一日廢慢則罪戾及之，故仕於州縣者，

▶ 卓夫人：劉子羽의 繼室. 劉玪(平甫)의 母. 劉玪은 劉子羽의 동생인 劉子翬의 後嗣가 되었다.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不：[두주 ‘不’, 唐本作‘下’.]가 있다；《全書》‘下’

2) 凌：[추가 ‘凌’, 《韻會》, “作‘陵’.”]이 있다.

常曉事而少過。愚意以爲平父可且令參部，受簿尉之屬，乃爲正當。若不欲如此，卽舍人兄爲營一稍在人下·有職事·喫人打罵差遣，乃所以成就之。若必欲與求幹官，乃是置之有過之地，誤其終身，恐非太碩人高明教子之本意也。受恩深厚，冒昧及此，皇恐皇恐！【“五哥”：劉珥，夫人出也。“平父”：珥字也。“舍人兄”：劉珙，平父兄也。】

節要0086(0604) (問答論事4) (卷6:5左) (晦庵集 卷37)

上黃端明〔中〕

具位熹敢齋沐裁書，請納再拜之禮于致政尚書端明文丈¹⁾台座。熹聞之，孟子有言，天下有達尊三，爵一，齒一，德一。此言三者之尊達于天下，人所當敬而不可以慢焉者也。雖然爵也齒也，蓋有偶然而得之者，是以其尊施于朝廷者則不及於鄉黨，施于鄉黨者則不及於朝廷，而人之敬之也亦或以貌而不以心。惟德也者，得於心，充於身，刑於家而推於鄉黨，而達於朝廷者也。有是而兼夫二者之尊焉，則通行天下，人莫不貴。雖斂然退避，不以自居，而人之所以心悅而誠服者，蓋不可解矣。恭惟明公以兩朝侍從元老上還印綬而退處于家，自天子不敢煩以政，賜之几杖而乞言焉，其位與年固非偶然而得之者矣。而明公則未嘗以是而自異於人，其所以默而成之，不言而信者，則日新又新而未嘗有止也。此

▶ 黃中：1096~1180. 字는 通老. 邵武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文丈：《全書》‘丈丈’[교감기 ‘丈丈’. 原作‘文丈’，據浙本改.]

天下知德之士所以莫不竊慕下風之義，俱有執鞭之願，而熹之愚，則有甚焉者。蓋其平生氣稟偏駁，治己則不能謹於細微，立志則不能持於常久，以至待人接物之際，溫厚和平之氣不能勝其粗厲猛起之心，是以常竊自悼，以爲安得朝夕望見明公之盛德容貌而師法其萬一，庶幾可以飭身補過於將來，而不遂爲小人之歸也。今日之來，蓋將頓首再拜于堂下，以償其夙昔之願。伏惟明公坐而受之，使得自進於門人弟子之列，而不孤其所以來之意，則熹之幸也。鄉往之深，不自知其僭越，敢以書先于將命者而立於廡下，以聽可否之命。熹不勝惶恐之至。

節要0087(0605) (問答論事5) (卷6:7右) (晦庵集 卷37)

與王龜齡〔十朋·號梅溪〕

熹窮居晚學，無所肖似。往者學不知方，而過不自料，妄以爲國家所恃以爲重，天下所賴以爲安，風俗所以旣漓而不可以復淳，紀綱所以旣壞而不可以復理，無一不係乎人焉，是以聞天下之士有聲名節行，爲時論所歸者，則切切然以不得見乎其人爲歎。及其久也，或得見之，或不得見之，而熹之拳拳不少衰也。聞其進爲時用，則私以爲喜；聞其阨窮廢置，則私以爲憂。及夫要其所就而觀之，則始終大節眞可敬仰者蓋無幾人；而言論風旨卒無可稱·功名事業卒無可紀者，亦往往而有。以此喟然自歎，知天下所謂聲名節行者，亦未足以定天下之人，而天下之事未知其果將何寄也。自是以來，雖不敢易其賢賢之心·緩其憂世之志，然亦竊自笑其前日所求於人之重而所以自待者反輕，如孟子之所譏也，於是始復取其所聞於師友者，夙夜講明，動靜體察，求仁格物，不敢弛其一日之勞，以庶幾乎有聞者，而於前日之所爲切切然者，則旣有所不暇矣。當是時，聽於士大

夫之論，聽於輿人走卒之言，下至於閭閻市里·女婦兒童之聚，亦莫不曰天下之望，今有王公也。已而得其爲進士時所奉大對讀之，已而得其在館閣時上奏事讀之，已而得其爲柱史·在臺諫·遷侍郎時所論諫事讀之，已而又得其爲故大丞相魏國公之誄文及《楚東酬唱》等詩讀之，觀其立言措意，上自奏對陳說，下逮燕笑從容，蓋無一言一字不出於天理人倫之大，而世俗所謂利害得喪·榮辱死生之變，一無所入於其中，讀之眞能使人胸中浩然，鄙吝消落，誠不自意古人¹⁾頑廉懦立之效，乃於吾身見之。於是作而歎曰：士之求仁，固當以反求諸己爲務，然豈不曰事其大夫之賢者云哉？今以前日失數公者自懲，是以一噎而廢食也。於是慨然復有求見於左右之意而未獲也。昨聞明公還自夔州，撫臨近甸，而熹之里閭交游適有得佐下風者，因以書賀之，蓋喜其得賢大夫事之；而自傷無狀，獨不得一從賓客之後，以望大君子道德之餘光也。不意夤緣與其向來鄙妄無取之言皆得徹聞於視聽，明公又不以凡陋爲可棄，狂僭爲可

▶ 王十朋：1112~1171. 字는 龜齡, 號는 梅溪. 温州 樂清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古人：[두주 古人本作‘克’. 蓋克字, 隸體从古从人.]가 있다；《全書》‘克’

罪，而辱枉手筆，以抵宋侔，盛有以稱道。竊惟明公之志，豈非以世衰道微，遺君後親之論交作肆行，無所忌憚，舉俗滔滔，思有以障其橫流者，是以有取於愚者一得之慮，因以不求其素而借之辭色也耶？明公之志則正矣·大矣，而熹之愚，未有稱明公之意也。雖然有一於此，其惟益思砥礪，不敢廢其所謂講明體察·求仁格物”之功者²⁾，使理日益明，義日益精，操而存之日益固，擴而充之日益遠，則明公之賜，庶乎其有以承之，而幸明公之終教之也。雖然明公以一身當四海士大夫軍民一面之責，其一語一默·一動一靜之間，所係亦不輕矣。伏惟盛德大業前定不窮，其剛健中正·篤實輝光者固無所勉強。以熹之所睹記，則古語所謂“行百里者半九十里”，明公其亦念之。況今人物眇然，如明公者僅可一二數，是以天下之人責望尤切，而明公尤不可以不戒。不審明公以爲如何哉？熹又聞之，古之君子，“尊德性”矣，而必曰“道問學”；“致廣大”矣，必曰“盡精微”；“極高明”矣，必曰“道中庸”；“溫故知新”矣，必曰“敦厚崇禮”。蓋不如是，則所學所守必有偏而不備之處。惟其如是，是故居上而不驕，爲下而不倍，有道則

2) 之功者：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足以興，無道則足以容，而無一偏之蔽也。熹之區區以此深有望於門下，蓋所謂德性·廣大·高明·知新者必有所措，而所謂問學·精微·中庸·崇禮者又非別爲一事也。狂易無取，明公其必有以裁之。往者明公在夔，成都 汪公聲聞密邇，竊意有足樂者。此來時通問否？此公涵養深厚，寬靜有容，使當大事，必有不動聲色而內外賓服者。明公相知之深，一日進爲於世，引類之舉，其必有所先矣。熹杜門養親，足以自遣。昨嘗一至湖湘，出資交遊講論之益。歸來忽被除命，既不敢辭而拜命矣。然明公未歸朝廷，熹亦何所望而敢前也？引領牙纛，未有瞻拜之期，向風馳義，日以勤止。輒敢復因宋倅相爲介紹，致書下執事，以道其拳拳之誠。伏惟照察。【“必有所措”：‘措’疑當作‘指’。‘汪公’：應辰。】

節要0088(0606) (問答論事6) (卷6:11右) (晦庵集 卷37)

與陳丞相【一本作‘與龔實之’。】〔丞相，名俊卿。〕

熹竊觀古之君子有志於天下者，莫不以致天下之賢爲急。而其所以急於求賢者，非欲使之綴緝言語・譽道功德，以爲一時觀聽之美而已，蓋將以廣其見聞之所不及・思慮之所不至，且慮夫處已接物之間，或有未盡善者，而將使之有以正之也。是以求之不得不博，其禮之不得不厚，其待之不得不誠，必使天下之賢，識與不識，莫不樂自致於吾前以輔吾過，然後吾之德業，得以無媿乎隱微而寢極乎光大耳。然彼賢者其明既足以燭事理之微，其守既足以遵聖賢之轍，則其自處必高，而不能同流合污以求譽；自待必厚，而不能陳詞飾說以自媒；自信必篤，而不能趨走唯諾以苟容也。是以王公大人雖有好賢樂善之誠，而未必得聞其姓名・識其面目，盡其心志之底蘊；又況初無此意，而其所取特在乎文字言語之間乎？恭惟明公以厚德重望爲海內所宗仰者有年矣，而天下之賢士大夫似未得盡出於門下也。豈明公所以好之者未至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歟？所以求之者未力歟？所以待之者未盡歟？此則必有可得而言之者矣。蓋好士而取之文字言語之間，則道學德行之士，吾不得而聞之矣；求士而取之投書獻啓之流，則自重有恥之士，吾不得而見之矣；待士而雜之妄庸便佞之伍，則志節慷慨之士，寧有長揖而去耳。而況乎所謂對偶駢儷・諛佞無實，以求悅乎世俗之文，又文字之末流，非徒有志於高遠者鄙之而不爲，若乃文士之有識者，亦未有肯深留意於其間者也。而間者竊聽於下風，似聞明公專欲以此評天下之士。若其果然，則熹竊以爲誤矣。江右舊多文士，而近歲¹⁾以來，行誼志節之士有聞者亦彬彬焉。惟明公留意，取其彊明正直者以自輔，而又表其惇厚廉退者以厲俗，毋先文藝以²⁾後器識，則陳太傅不得專美於前，而天下之士亦庶乎不失望於明公矣。衰病屏伏，所欲面論者非一，而不獲前，姑進其大者如此。若蒙采擇，則熹所不及言者，必有輕千里而告於明公者矣。

1) 歲：定州本‘世’

2) 以：[두주 ‘以’, 今館本註, “恐當作‘而.’.”]가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六

節要0089(0607) (問答論事7-1~2) (卷6:12左) (晦庵集 卷37)

與劉共父 〔珙·共父，嘗再知潭州，故與敬夫同刊文定本，所以并及南軒.〕

(問答論事7-1)

近略到城中，歸方數日。見平父示近問，承寄聲存問，感感。但所論二先生集，則愚意不能無疑。伯逢主張家學，固應如此，熹不敢議。所不可解者，以老兄之聰明博識·欽夫之造詣精深而不曉此，此可怪耳。若此書是文定所著，即須依文定本爲正。今此乃是二先生集，但彼中本偶出文定家，文定當時亦只是據所傳錄之本，雖文定，蓋不能保其無一字之訛也。今別得善本，復加補綴，乃是文定所欲聞。文定復生，亦無嫌間。不知二兄何苦尙爾依違也？此間所用二本，固不能盡善，亦有灼然却是此間本誤者，當時更不曾寫去。但只是平氣虛心看得義理通處，便當從之。豈可肚裏先橫却一個胡文定

▶ 劉珙：1122~1178. 字는 共父，諡號는 忠肅. 崇安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後，不復信道理耶？如〈定性書〉及〈明道敘述〉·上富公與謝帥書中刪却數十字，及辭官表倒却次序，〈易傳序〉改‘沿’爲‘泝’，祭文改‘姪’爲‘猶子’之類，皆非本文，必是文定刪改。熹看得此數處有無甚害者，但亦可惜改却本文，蓋本文自不害義理故也，〈敘述〉及富·謝書是也。有曲爲回互而反失事實·害義理者，辭表是也。曲爲回互，便是私意害義理矣。惟〈定性書〉首尾，雖非要切之辭，然明道謂橫渠實父表弟，聞道雖有先後，然不應以聞道之故傲其父兄如此。語錄說二先生與學者語，有不合處，明道則曰：“更有商量”，伊川則直云：“不是”。明道氣象如此，與今所刪之書氣象類乎，不類乎？且文定答學者書，雖有不合，亦甚宛轉，不至如此無含蓄，況明道乎？今如此刪去，不過是減得數十個閒字，而壞却一個從容和樂底大體氣象。恐文定亦是偶然一時意思，欲直截發明向上事，更不暇照管此等處。或是當時未見全本，亦不可知。今豈可曲意徇從耶？向見李先生本出龜山家，猶雜以游察院之文。比訪得游集，乃知其誤。以白先生，先生歎息曰：“此書所自來，可謂端的，猶有此誤，況其他，又可盡信耶？”只此便是虛己從善·公平正大之心。本亦不是難事，但

今人先着一個私意橫在肚裏，便見此等事爲難及耳。又“猶子”二字，前論未盡。《禮記》云：“喪服，兄弟之子猶子也。”言人爲兄弟之子喪服，猶己之子，非所施於平時也。況“猶子”¹⁾本亦不是稱呼，只是記禮者之辭，如下文嫂叔之“無服”·姑姊妹之“薄”也。今豈可沿此遂謂嫂爲“無服”，而名姑姊妹以“薄”乎？古人固不謂兄弟之子爲姪，然亦無云猶子者，但云“兄之子”，“弟之子”，孫亦曰“兄孫”耳。二先生非不知此，然猶從俗稱姪者，蓋亦無害於義理也。此等處文定既得以一時已見改易二程本文，今人乃不得據相傳別本改正文定所改之未安處，此何理耶？又明道〈論王霸筭子〉等數篇，胡本亦無，乃此間錄去，有所脫誤，非文定之失。伊川〈上仁廟書〉，此間本無，後來乃是用欽夫元寄胡家本校，亦脫兩句。此非以他人本改文定本，乃是印本自不曾依得文定本耳。似此之類，恐是全不曾參照，只見人來說自家刻得文字多錯，校得不精，便一切逆拒之，幾何而不爲訑訑之聲音顏色，拒人於千里之外乎？夫樂聞過，勇遷善²⁾，有大於此者，猶將有望於兩兄，不意

1) 子：[두주 ‘猶子’之‘子’，本作‘字’。唐本同.]이 있다；《全書》‘字’。

2) 樂聞……遷善：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只此一小事，便直如此，殊失所望。然則區區所以劇論不置者，正恐此私意根株消磨不去，隨事滋長，爲害不細，亦不專爲二先生之文也。近以文定當立祠於鄉郡說應求·邦彥，二公皆指其小節疑之，魏元履至爲扼腕。今二兄欲尊師之，而又守其尤小節處以爲不可改，是文定有所謂大者，終不見知於當世也。此等處，非特二先生之文之不幸，亦文定之不幸耳。今旣用官錢刊一部書，却全不賭是，只守却胡家錯本文字以爲至當，可謂直截不成議論。恐文定之心却須該徧流通，決不如是之陋也。若說文定決然主張此書，以爲天下後世必當依此，卽與王介甫主張《三經》·《字說》何異？作是說者，却是謗文定矣。設使微似有此，亦是克未盡底己私，所謂賢者之過。橫渠所謂“其不善者共改之”，正所望於後學，不當守己殘³⁾而妬道眞，使其遺風餘弊波蕩於末流也。程子嘗言：“人之爲學，其失在於自主張太過。”橫渠猶戒以自處太重，無復以來天下之善。今觀二兄主張此事，得無近此？聖賢稽衆舍己·兼聽并觀之意似不然也。每恨此道衰微，邪說昌熾，舉世無可告語者。望二兄於千里之外，蓋不翅飢渴之於飲食，乃不知

3) 殘：[두주 唐本旁註, “殘”字, 一本空.]이 있다.

主意如此偏枯。若得從容賓客之後，終日正言，又不知所以不合者復幾何耳。欽夫尊兄不及別狀，所欲言者不過如此，幸爲呈似。所云“或不中理，却望指教”，熹却不敢憚改也。向所錄去數紙合改處，當時極費心力，又且勞煩衆人，意以爲必依此改正，故此間更無別本。今既不用，切勿毀棄，千萬盡爲收拾，便中寄來，當十襲藏之，以俟後世耳。向求數十本，欲徧遺朋友，今亦不須寄來，熹不敢以此等錯本文字誤朋友也。〔“印本”：即胡家本，乃胡家子弟所傳印文定本也。“應求”：陳俊卿。“邦彥”：陳良翰。〕

(問答論事7-2)

熹前幅所稟訪問人材事，初若率然，既而思之，此最急務。然其意有未盡者，輒詳論之如左云：古之大臣，以其一身任天下之重，非以其一耳目之聰明·一手足之勤力爲能周天下之事也。其所賴以共正君心·同斷國論，必有待於衆賢之助焉。是以君子將以其身任此責者，必咨詢訪問，取之於無事之時，而參伍校量，用之於有事之日。蓋方其責之必加於己而未及也，無旦暮倉卒之須，則其觀之得以久；無利害紛拏之惑，則其察之得以精。誠心素著，則其得之多；歲引月長，則其蓄之富。自重

者無所嫌而敢進，則無幽隱之不盡；欲進者無所爲而不來，則無巧僞之亂真。久且精，故有以知其短長之實而不差；多且富，故有以使其更迭爲用而不竭。幽隱畢達，則讜言日聞而吾德修；取舍不眩，則望實日隆而士心附。此古之君子所以成尊主庇民之功於一時，而其遺風餘韻猶有稱思於後世者也。今之人則不然，其於天下之士固有漠然不以爲意者矣，其求之者又或得之近而不知其遺於遠，足於少而不知其漏於多，求之備而不知其失於詳也。其平居暇日所以自任者雖重，而所以待天下之士者不過如此，是以勤勞惻怛雖盡於鰥寡孤獨之情，而未及乎本根長久之計，恩威功譽雖播於兒童走卒之口，而未諭乎賢士大夫之心。此蓋未及乎有爲，而天下之士先以訑訑之聲音顏色待之矣。至於臨事倉卒而所蓄之材不足以待用，乃始欲泛然求己所未知之賢而用之，不亦難哉？或曰：“然則未當其任而欲先得天下之賢者，宜奈何？”曰：“權力所及則察之舉之，禮際所及則親之厚之，皆不及則稱之譽之，又不及則鄉之慕之。如是而猶以爲未足也，又於其類而求之，不以小惡掩大善，不以衆短棄一長，其如此而已。”抑吾聞之李文公之言曰：“有人告曰：‘某所有女，國色也。’天下之人必將極其力而

求之，無所愛也；有人告曰：‘某所有人，國士也。’天下之人則不能一往而先焉。此豈非好德不如好色者乎？”
嗚呼！欲任天下之重者，誠反此而求之，則亦無患乎士之不至矣。【“李文公”：唐李翱，諡文公，語見文集。】

節要0090(0608) (問答論事8) (卷6:19右) (晦庵集 卷37)

答韓無咎 〔元吉. 號南澗.〕

誨諭儒·釋之異在乎分合之間，既聞命矣。頃見蘇子由·張子韶書，皆以佛學有得於形而上者而不可以治世，嘗¹⁾竊笑之。是豈知天命之性而叙·秩·命·討已粲然無所不具於其中乎？彼其所以分者，是亦未嘗真有得於斯耳。不審高明以爲如何？

〔編輯考〕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嘗：[두주 ‘嘗’, 唐本作‘常’.]이 있다.

節要0091(0609) (問答論事9-1~2) (卷6:19左) (晦庵集 卷37)

與芮國器【燁】

(問答論事9-1)

竊聞學政一新，多士風動，深副區區之望。但今日學制近出崇·觀，專以月書季考爲陞黜，使學者屑屑然較計¹⁾得失於毫釐間。而近歲之俗，又專務以文字新奇相高，不復根據經之本義。以故學者益驚於華靡，無復探索根原²⁾·敦勵名檢之志。大抵所以破壞其心術者，不一而足，蓋先王所以明倫善俗·成就人材之意，掃地盡矣。惟元祐間伊川 程夫子在朝，與修學制，獨有意乎深革其弊。而當時咸謂之迂闊，無所施行。今其書具在，意者後之君子必有能舉而行之，區區願執事少加意焉，則學者之幸也。

▶ 芮燁：1114~1172. 字는 國器. 烏程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較計：海州本·定州本 ‘計較’

2) 原：海州本·定州本 ‘源’

(問答論事9-2)

昨者妄以鄙見薦聞，伏蒙垂諭，反復其說，幸甚幸甚。然熹竊以爲未嘗行之，不可逆料今日之不可行。且事亦顧理之所在如何耳，理在當行，不以行之難易爲作輟也。盡心竭力而爲之，不幸而至於眞不可行，然後已焉，則亦無所憾於吾心矣。蘇氏之學，以雄深敏妙之文煽其傾危變幻之習，以故被其毒者，淪肌浹髓而不自知。今日正當拔本塞源，以一學者之聽，庶乎其可以障狂瀾而東之。若方且懲之而又遽有取其所長之意，竊恐學者未知所擇，一取一捨之間，又將與之俱化而無以自還。是則執事者之所宜憂也。

節要0092(0610) (問答論事10) (卷6:20左) (晦庵集 卷37)

答鄭景望 〔伯熊，永嘉人，爲建寧太守。〕

龔帥過建陽，遣人相聞，不及一見爲恨。今日季教授¹⁾見訪，云嘗小款，道其語皆出於忠厚長者。然在愚意，尙未有深解處。²⁾如論范忠宣救蔡新州及元祐流人，以爲至當之舉。熹嘗竊論此矣，以爲元祐諸賢憂確之不可制，欲以口語擠之，固爲未當；而范公乃欲預爲自全之計，是亦未免於自私，皆非天討有罪之意也。至其論諸公忽反爾之言·違好還之戒，自取禍敗，尤非正理。使後世見無禮於君親者拱手坐視而不敢逐，則必此言之爲也。且舜流四凶，族爲皋陶者亦殊不念反爾之戒，何耶？推此心以往，恐無適而非私者。邵子文以爲明道所見與忠宣合，正恐徒見所施之相似，而未見所發之不同。蓋毫釐之間，天理人欲之差，有不可同年而語者矣。又

▶ 鄭伯熊：1124~1181. 字는 景望, 數文先生이라 칭함. 永嘉人. 二程의 書を 간행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季教授：[두주 ‘季’, 今館本註, “當作‘李’.”]가 있다.

2) 未有深解處：《全書》에는 [교감기 ‘未有’, 浙本作‘有未’]가 있다.

聞深以好名爲戒，此固然矣。然偏持此論，將恐廉隅毀頓，其弊有甚於好名。故先聖云：“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而又曰：“君子求諸己。”詳味此言，不偏不倚，表裏該備，此其所以爲聖人之言歟！學者要當於此玩心，則“勿忘”·“勿助”之間，天理卓然，事事物物無非至當矣。〔“龔帥”：茂良。“未有深解處”：未有當乙。○此書下，又有〈與景望論輕刑書〉，今見〈舜典〉小註。〕

節要0093(0611) (問答論事11) (卷6:22右) (晦庵集 卷37)

答尤延之【袤】〔號美軒。〕

熹杜門竊食，不敢與聞外間一事，尙不能無虎食其外之憂。衰病疲繭，雖在山林，亦不能有尋幽選勝之樂。但時有一二學子相從於寂寞之濱，講論古人爲己之學，至會心處，輒復欣然忘食，不自知道學之犯科也。年來目昏，不敢甚讀書。經說閒看，疏漏頗多，不免隨事改正，比舊又差勝矣。《綱目》不敢動着，恐遂爲千古之恨。蒙教楊雄·荀彧二事，按溫公舊例，凡莽臣皆書“死”，如太師王舜之類，獨於楊雄匿其所受莽朝官稱而以“卒”書，似涉曲筆，不免却按本例書之曰“莽大夫楊雄死”，以爲足以警夫畏死失節之流，而初亦未改溫公直筆之正例也。荀彧却是漢侍中光祿大夫而參丞相軍事，其死乃是自殺，故但據實書之曰“某官某人自殺”，而系於曹操擊孫權至濡須之下，非故以彧爲漢臣也。然悉書其官，亦見其實漢天子近臣而附賊不忠之罪，非與其爲漢臣也。此

▶ 尤袤：1127~1194. 字는 延之, 號는 美軒·遂初. 常州 無錫人. 南宋의 저명한 시인.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等處，當時極費區處，不審竟得免於後世之公論否？胡氏論彧爲操謀臣，而劫遷·九錫二事皆爲董昭先發，故欲少緩九錫之議，以俟他日徐自發之。其不遂而自殺，乃劉穆之之類，而宋齊丘於南唐事亦相似。此論竊謂得彧之情，不審尊意以爲何如？李淙·謝廓皆略識之。吳仲權亦聞其名，今日下位後生中尙不爲無人，雖眞僞相半，然亦且得勸勉獎就之，未敢輕有遺棄也。陳同父近得書，大言如昨，亦力勸之，令其稍就斂退。若未見信，卽後日之患猶或有甚於此者，甚可念也。叔祖奉使葬事，甚荷憐念。叔祖當日挺身請使，留虜中十六年，竟保全節而歸。以奏對論和不可專恃，且虜有可圖之釁，忤秦丞相，遂廢以死。在虜中時，嘗有祭徽廟文，或傳以歸，乙覽感動，錫賚甚寵。鄙意輒欲次其行事以請於左右，幸而并賜之銘，則宗族子孫皆受不貲之惠矣。叔祖受知於晁景迂，學甚博，詩甚工也。〔“虎食其外”：《莊子》，“單豹養其內，虎食其外；張毅養其外，病攻其內。”“劉穆之”：爲劉裕腹心，裕求九錫不由己，愧懼發病死。“宋齊丘”：爲李昇謀篡，及昇立，恥無功多負犯，竟自縊死。“叔祖”：朱弁。〕

朱子書節要 卷之六

節要0094(0612) (問答論事12) (卷6:23左) (晦庵集 卷37)

與郭冲晦 〔雍，父忠孝，師事伊川，著《易說》，號兼山。〈雍傳〉，“其學通世務，隱陝州。孝宗朝，召不起，賜號頤正先生，後又賜號冲晦。”〕

熹窮鄉晚出，妄竊有志於道，雖幸有聞於師友，而行之不力，荏苒頽侵，今犬馬之年五十有一矣。修身齊家，未有可見之效，而志氣不彊，不能固守貧賤之節，彊起從宦，舊學愈荒，施之於人，尤齟齬而不合。大抵志不能帥氣，理未能勝私，中夜以思，怛然內疚。高明不鄙，不知將何以教誨之？熹所拱而俟也。向來次輯諸書，雖亦各有據依，不敢妄意損益，然疑信異傳，不無牴牾。嘗得執事所辨數事，每念一扣門下，以畢其說，而相去絕遠，無從致問。今幸得通姓名，近刻程先生·尹和靖二帖及〈白鹿〉·〈五賢〉一¹⁾記，各納一本，恐有可因以垂教者，切望不棄。〔此書後，往復論《易》·〈西銘〉·性善·養氣等說，皆以郭說爲非。〕

▶ 郭雍：1106~1187. 字는 子和，號는 白雲，賜號는 頤正先生. 洛陽人，湖北 峽州에 은거.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一：[두주 ‘一記’之‘一’，唐本作‘二’.]가 있다；《全書》‘二’

節要0095(0613) (問答論事13-1~3) (卷6:24左) (晦庵集 卷37)

答程可久【迥】〔即沙隨程氏也.〕

(問答論事13-1)

所諭爲學本末，甚詳且悉．前書所謂世道衰微，異言蜂出，其甚乖刺者，固已陷人於犯刑受辱之地，其近似而小差者，亦足使人支離繳繞而不得以聖賢爲歸．岐多路惑，甚可懼也．願且虛心徐觀古訓，句解章析，使節節透徹·段段爛熟，自然見得爲學次第，不須別立門庭，固守死法也．

(問答論事13-2)

示諭曲折，令人慨歎．然今日上下相迫，勢亦有不得已者．故事之從違可否，常在人而不可必．唯審時量力·從吾所好爲在己而可以無不如志爾．先生研精於《易》，至有成書，樂行憂違，伏想胸中已有成算，固

▶ 程迥：字는 可久，號는 沙隨．應天府 寧陵人．《周易》에 정통하여 《古易章句》 등을 남김．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3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六

非晚學所得而輕議也。〔前此累書，咨問古度量·黍尺·田制及論易理·筮占等說，茲未盡錄。〕

(問答論事13-3)

忽聞有奉祠之命，爲之惘然。得非反以貳車改正之舉而激之至此也邪？世路險巇，人情不可測。以長者之寬平博厚處之，尙未能坦然無所繫閔，況如鄙狹之姿，又安可望於少行其志耶？行亦力請祈還故官，仰繼後塵爾。

〔“貳車”：明道〈游鄴山詩序〉，“聞貳車晁公來游云云。”○《翰墨全書》，“通判爲倅車，倅，副也。謂爲太守之副。”又《白集》謂之貳藩。〕

節要0096(0614) (問答論事14-1~2) (卷6:25左) (晦庵集 卷37)

答程泰之【大昌】〔著《衍繁露》.〕

(問答論事14-1)

當期

《易》卦之位，震東離南·兌西坎北者爲一說，十二辟卦分屬十二辰者爲一說。及焦延壽爲卦氣直日之法，乃合二說而一之，既以八卦之震·離·兌·坎二十四爻直四時，又以十二辟卦直十二月，且爲分四十八卦爲之公·侯·卿·大夫，而六日七分之說生焉。若以八卦爲主，則十二卦之乾不當爲巳之辟，坤不當爲亥之辟，艮不當侯於申酉，巽不當侯於戌亥。若以十二卦爲主，則八卦之乾不當在西北，坤不當在西南，艮不當在東北，巽不當在東南。彼此二說，互爲矛盾。且其分四十八卦爲公·侯·卿·大夫，以附於十二辟卦，初無法象，而直以意言，本已無所據矣，不待論其減去四卦二十四爻而後可以見其失也。楊雄《太元》¹⁾次第，乃是全用焦法，其

▶ 程大昌：1123~1195. 字는 泰之，諡號는 文簡. 徽州 休寧人. 《詩論》·《考古編》등을 지음.

八十一首，蓋亦去其震·離·兌·坎者，而但擬其六十卦耳。諸家於八十一首多有作擬震·離·兌·坎者，近世許翰始正其誤。至立踦贏二贊，則正以七百二十九贊又不足乎六十卦六日七分之數而益之，恐不可反據其說以正焦氏之失也。『“六日七分”：法見《天原發微·卦氣篇》。“太玄”：法一首九贊，猶易一卦六爻也，八十一首爲七百二十九贊。每二贊當一日，止於三百六十四日四分日之二，欠四分日之三。乃立踦贊以當其二，立贏贊以當其一，則所剩者有一分。』

(問答論事14-2)

熹昨聞〈禹貢〉之書已有奏篇，轉借累年，乃得其全。猶恨繪事易差，間有難考究處。近乃得溫陵印本，披圖按說，如指諸掌，幸甚幸甚。此書之傳，爲有益於學者。但頃在南康兩年，其地宜在彭蠡·九江·東陵·敷淺原之間，而考其山川形勢之實，殊不相應。因考諸說，疑晁氏 九江·東陵之說，以爲洞庭·巴陵者爲可信。敷淺原合是衡山東北一支盡處，疑卽今廬阜，但無明文可考耳。閣下向者固嘗經行，而留意之久，記覽之富，其必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太元：《全書》‘太玄’

有以質之。故敢輒獻所疑，伏惟有以教之，幸也。〔此書

所論九江·敷淺原之說，今見〈禹貢〉蔡氏傳，故此略抄。〕

節要0097(0615) (問答論事15) (卷6:27右) (晦庵集 卷37)

答李壽翁 [[〈椿誌銘〉，見《大全》七十四卷。]]

熹竊嘗聞之，侍郎知《易》學之妙，深造理窟，每恨不得執經請業。茲辱誨諭，警省多矣。《麻衣易說》，熹舊見之，常疑其文字言語，不類五代國初時體製，而其義理尤多淺俗，意恐只是近三五十年以來人收拾佛·老術數緒餘所造。嘗題數語於其後，以俟知者。及去年至此，見一戴主簿者，名師愈，即今印本卷後題跋之人。初亦忘記其有此書，但每見其說《易》專以《麻衣》爲宗，而問其傳授來歷，則又祕而不言。後乃得其所著他書觀之，則其文體意象，多與所謂《麻衣易說》者相似，而間亦多有附會假託之談，以是心始疑其出於此人。因復徧問邦人，則雖無能言其贗作之實者，然亦無能知其傳授之所從也。用此決知其爲此人所造不疑。然是時其人已老病昏塞，難可深扣，又尋即物故，遂不復可致詰。但今考其書，則自《麻衣》本文及陳·李·戴·汪題

► 李椿：1111~1183. 號는 壽翁. 洺州 永年縣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四家之文，如出一手，此亦其同出戴氏之一驗。而其義理¹⁾，則於鄙意尤所不能無疑。今以台諭之及，當復試加考訂，他日別求教也。程君《著說》亦嘗見之，其人見爲進賢令，至此數得通書，愷悌博雅，君子人也。自別有《易說》，今以呈納，伏幸視至。〔“程君”：即可久。〕

1) 義理：定州本‘理義’

節要0098(0616) (問答論事16) (卷6:28左) (晦庵集 卷37)

答陳體仁

來教謂《詩》本爲樂而作，故今學者必以聲求之，則知其不苟作矣。此論善矣，然愚意有不能無疑者。蓋以〈虞書〉考之，則詩之作，本爲言志而已。方其詩也，未有歌也；及其歌也，未有樂也。以聲依永，以律和聲，則樂乃爲詩而作，非詩爲樂而作也。三代之時，禮樂用於朝廷而下達於閭巷，學者諷誦其言以求其志，詠其聲，執其器，舞蹈其節，以涵養其心，則聲樂之所助於《詩》者爲多。然猶曰“興於詩，成於樂”，其求之固有序矣。是以凡聖賢之言詩，主於聲者少，而發其義者多。仲尼所謂“思無邪”，孟子所謂“以意逆志”者，誠以《詩》之所以作，本乎其志之所存，然後《詩》可得而言也。得其志而不得其聲者有矣，未有不得其志而能通其聲者也。就使得之，止其鍾鼓之鏗鏘而已，豈聖人“樂云樂云”之意哉？況今去孔·孟之時千有餘年，古樂

▶ 陳知柔：？～1184. 字는 體仁，號는 休齋居士. 永春人，朱熹와 忘年之交를 맺음.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散亡，無復可考，而欲以聲求《詩》，則未知古樂之遺聲，今皆以推而得之乎？三百五篇，皆可協之音律，而被之絃歌已乎？誠既得之，則所助於《詩》多矣，然恐未得爲《詩》之本也。況未必可得，則今之所講，得無有畫餅之譏乎？故愚意竊以爲¹⁾詩出乎志者也，樂出乎詩者也。然則志者詩之本，而樂者其末也。末雖亡，不害本之存，患學者不能平心和氣·從容諷詠以求之情性之中耳。有得乎此，然後可得而言，顧所得之淺深如何耳。有舜之文²⁾德，則聲爲律而身爲度，《簫韶》·《二南》之聲，不患其不作。此雖未易言，然其理蓋不誣也。不審以爲如何？『“今皆以推”：‘以’當作‘可’。‘然後可得而言’：恐脫‘詩’字，或‘詩’字在‘後’字下。‘有舜之文’：‘之文’當作‘文之’。』

1) 爲：海州本·定州本‘謂’

2) 之文：海州本‘文之’

節要0099(0617) (問答論事17) (卷6:29左) (晦庵集 卷37)

答顏魯子

熹昨蒙諭及深衣，謹并幅巾大帶納上，皆溫公遺製也。但帶當結處合有黑紐之組，所未能備。其說見於《書儀》本章，可考而增益也。又有黑履，亦見《書儀》，此不敢納呈。去古益遠，其冠服制度僅存而可考者，獨有此耳。然遠方士子亦所罕見，往往人自爲制，詭異不經，近於服妖，甚可歎也。若得當世博聞好禮者表而出之，以廣其傳，庶幾其不泯乎。

▶ 安度：字는 魯子, 號는 如山. 宋 高宗 紹興 연간에 진사가 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定本 退溪全書 四

朱子書節要 卷之七 諸子目錄【問答】

〔袁機仲〕 一卷作‘袁寺丞’.

〔趙提學〕 名善譽. 胡一桂《啓蒙翼傳》云:“公有《易說》二卷. 嘗爲寺丞, 將漕湖陰.”

〔周益公〕 二卷作‘周丞相’.

〔留丞相〕 見二卷.

〔曾裘父〕¹⁾ 名季狸, 號艇齋. 《瀛奎律髓·紅梅詩》註云. ○先生嘗稱其廩廩乎有前輩之遺風.

〔耿直之〕 名秉. 《語類》云:“嘗爲浙漕, 及鎮江有善政.”

〔薛士龍〕 名季宣. 永嘉人. 師李漑²⁾, 漑嘗從伊川學. 公博覽精思. 官知湖州. 所著有《經書訓義》·《浪語集》.

〔林謙之〕 名光朝, 號艾軒. 莆田人. 專心踐履. 登第, 爲廣東提刑. 屢破³⁾茶寇, 孝宗喜, 召爲祭酒·中書舍人. ○《一統志》, “以伊·洛之學倡東南.”

1) 曾裘父: [두주 《文獻通考》, “南豐人. 蕭然布衣, 而名流愛敬.”]가 있다. 今按: 全州本에는 이 두주가 없다.

2) 李漑: [두주 ‘李漑’, 《宋史》作‘袁漑’.]가 있다.

3) 破: [두주 ‘破’當作‘敗’.]가 있다.

【江元適】名泳，續集稱爲隱君。

【詹體仁】名儀之，嚴州遂安人。南軒守嚴，東萊分教，公日以學問爲事。官終吏部侍郎。餘見二卷詹帥下。

【楊廷秀】名萬里，吉水人。第進士，調零陵丞。時張紫巖謫居，勉以正心誠意之學，以‘誠’名齋。以寶文閣待制致仕。際遇三朝，始終一節。開禧邊急，幽憤不食，卒。諡文節。

【李季章】見二卷。

【范文叔】名仲黼，成都人。嘗任國子博士。蜀人高其行。東從南軒·東萊游，入僞籍。先生銘其母王氏墓。○《一統志》，“公嘗與魏了翁·李心傳·虞剛簡輩講學蜀東門外，得程·朱微旨”云。

【陳君舉】⁴⁾ 名傅良，號止齋。永嘉人。第進士，官至寶謨閣待制。諡文節。與張南軒·呂東萊爲友，文擅當時。

【劉德修】⁵⁾ 名光祖，號後溪。簡州陽安人。第進士，光宗初爲侍御史，乞禁道學之譏，讀者流涕，入黨錮。

4) 陳君舉：[두주 按, 溫州瑞安人, 永嘉, 溫州郡號. 公有《詩解詁》等書.]가 있다.

5) 劉德修：[두주 終顯謨閣直學士奉祠卒. 有集.]가 있다.

嘗撰〈涪學記〉，坐謫房州，後自便。諡文節。趙汝愚稱論，諫激烈似蘇軾，懇惻似范祖禹。

【黃文叔】⁶⁾ 名度，紹興人。第進士，官禮部尚書，謝病歸卒。志在經世，而以學爲本。嘗爲正言，將論侂冑，爲所覺，斥去。然侂冑素憚公，不敢加害。

【徐元敏】

【林正夫】⁷⁾ 名湜，福州長溪人。登進士，官至龍圖閣。有《槃隱類稿》。嘗以監察御史疏言：“宰執皆小人，彈擊皆君子云云。”時論多之。

【戴邁】

【林巒】 《實紀》，“泉州人。”

【呂侁】

【楊宋卿】

【柯國材】 名翰，同安人。先生在同安，〈舉翰差學職狀〉，“進士柯翰，守道恬退，不隨流俗，專以講究經旨爲務。”

【許順之】 名升，號存齋。同安人。從學於朱子，子稱其天性恬澹，無物欲之累，後果深得道學之蘊，爲時

6) 黃文叔：[두주 有《詩書周禮說》等書.]가 있다.

7) 林正夫：[두주 夫, 《實紀》作‘甫’.]가 있다.

名儒。○右《一統志》云云。又《實紀》云：“朱子爲作字序·齋記，稱其學專用心於內。然公實溺禪，終不回。”

〔陳齊仲〕 《實紀》，“同安人。” 朱子答書，有曰：“《詩》解，用意甚深。”

〔王近思〕 《實紀》，“名力行。泉州同安人，嘗著〈朱氏傳授支派圖〉，及錄《辛亥問答》。”

〔魏元履〕 見一卷。

〔魏應仲〕

〔范伯崇〕 名念德，伯達子。朝奉郎，江東帥機。先生嘗稱其學大進，臨沒，屬以修正禮書。又嘗爲廬陵屬邑主簿，先生記其廳。○劉白水女壻，於先生爲姪。

節要0100(0701) (問答1) (卷7:1右) (晦庵集 卷38)

答袁機仲【樞】『○以清名直節，受知阜陵，位至侍郎。憤世疾邪，不安于朝，退居梅巖.¹⁾』

以上五條，鄙意傾倒無復餘蘊矣。然此非熹之說，乃康節之說；非康節之說，乃希夷之說；非希夷之說，乃孔子之說。但當日諸儒既失其傳，而方外之流陰相付受，以爲丹竈之術。至於希夷·康節，乃反之於易，而後其說始得復明於世。然與見今《周易》次第行列多不同者，故聞者創見，多不能曉而不之信，只據目今見行《周易》緣文生義，穿鑿破碎，有不勝其杜撰者。此《啓蒙》之書所爲作也。若其習聞易曉，人人皆能領略，則又何必更著此書，以爲屋下之屋·牀上之牀哉！更願高明毋以爲熹之說而忽之，姑且虛心遜志，以求其通曉，未可好高立異而輕索其瑕疵也。玩之久熟，浹洽於心，則天地變化之神·陰陽消長之妙，自將瞭²⁾於心目之間，而其可驚可喜·可笑可樂，必有不自知其所以然而然者矣。言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梅巖：定州本에는 뒤에 ‘○以下至終，皆問答.’이 있다.

2) 瞭：[두주 《啓蒙》 ‘瞭’下有‘然’字.]가 있다.

之不盡，偶得小詩，以寄鄙懷曰：“忽然半夜一聲雷，萬戶千門次第開。若識無心涵有象，許君親見伏羲來。”³⁾說得太郎當了，只少個拄杖卓一下，便是一回普說矣。狂妄僭率，幸勿鄙誚也。〔“以上五條”：五條所辨，〈河圖〉·〈洛書〉，先天·後天，七·八·九·六，四爻·五爻，重卦等說，散見於《啓蒙》及《易圖說》，可考而知，今此不錄。“瞭於心目之間”：瞭下恐脫‘然’字。“若識無心涵有象”：‘心’，《啓蒙》作‘中’，‘涵’作‘含’。〕

3) 忽然……伏羲來：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節要0101(0702) (問答2) (卷7:2右) (晦庵集 卷38)

答袁機仲別幅

來喻以東南之溫厚爲仁，西北之嚴凝爲義，此〈鄉飲酒義〉之言也。然本其言，雖分仁義而無陰陽柔剛之別，但於其後復有陽氣發於東方之說，則固以仁爲屬乎陽，而義之當屬乎陰，從可推矣。來喻乃不察此，而必欲以仁爲柔·以義爲剛。此既失之，而又病夫柔之不可屬乎陽·剛之不可屬乎陰也，於是彊以溫厚爲柔·嚴凝爲剛，又移北之陰以就南，而使主乎仁之柔；移南之陽以就北，而使主乎義之剛。其於方位氣候悉反易之，而其所以爲說者，率皆參差乖迕¹⁾而不可合。又使東北之爲陽·西南之爲陰亦皆得其半而失其半。愚於圖子已具見其失矣。蓋嘗論之，陽主進而陰主退，陽主息而陰主消。進而息者其氣彊，退而消者其氣弱，此陰陽之所以爲柔剛也。陽剛溫厚，居東南主春夏，而以作長爲事；陰柔嚴凝，居西北主秋冬，而以斂藏爲事。作長爲生，斂藏爲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迕：[두주 ‘迕’，《韻會》，“‘忤’通作‘迕’”，《漢書》，“好惡乖迕。”]가 있다.

殺，此剛柔之所以爲仁義也。以此觀之，則陰陽·剛柔·仁義之位，豈不曉然？而彼楊子雲之所謂於仁也柔·於義也剛者，乃自其用處之末流言之。蓋亦所謂陽中之陰·陰中之陽，固不妨自爲一義，但不可以雜乎此而論之爾。向日妙湛蓋嘗面稟易中卦位義理層數甚多，自有次第，逐層各是一個體面，不可牽彊合爲一說。學者須是旋次理會，理會上層之時，未要攪動下層，直待理會得上層都透徹了，又却輕輕揭起下層理會將去。當時雖似遲鈍，不快人意，然積累之久，層層都了，却自見得許多條理千差萬別，各有歸著，豈不快哉！若不問淺深，不分前後，輒成一塊，合成一說，則彼此相妨，令人分疏不下，徒自紛紛成鹵莽矣。此是平生讀書已試之效，不但讀《易》爲然也。【“得其半而失其半”：所謂嚴凝者，得於北而失於東；所謂溫厚者，得於南而失於西也。【右先生說。】“妙湛”：疑是寺名。曾與機仲會此論《易》。】

節要0102(0703) (問答3) (卷7:3左) (晦庵集 卷38)

答袁機仲

《易》說已悉，若只如此，則熹固已深曉，不待諄諄之告矣。所以致疑，正恐高明之見有所未盡而費力穿鑿，使陰陽不得據其方盛之地，仁義不得保其一德之全，徒爾紛紜，有損無益爾。今既未蒙省察，執之愈堅，則區區之愚，尚復何說！竊意兩家之論，各自爲家，公之不能使我爲公，猶我之不能使公爲我也。不若自此閉口不談，各守其說，以俟義·文之出而質正焉。然以高明之見，自信之篤，竊恐義·文復出，亦未肯信其說也。魏鄭公之言：“以爲望獻陵也，若昭陵，則臣固已見之矣。”佛者之言曰：“諸人知處，良遂揔知；良遂知處，諸人不知。”正此之謂矣。世間事，吾人身在閒處，言之無益，此正好從容講論，以慰窮愁。而柄鑿之不合文如此，是亦深可歎者，而信乎其道之窮矣！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節要0103(0704) (問答4) (卷7:4左) (晦庵集 卷38)

答趙提舉【善譽】

慕用之久，往歲雖辱寵臨，而倥傯卒迫，不能少款，每以爲恨。近乃竊窺所著《易》·《論語》書，又歎其得之之晚而不獲親扣名理也。高明不鄙，遠辱貽書，感慰亡¹⁾量，不敢無以報也。蓋道體之大無窮，而於其間文理密察，有不可以毫釐差者。此聖賢之語道，所以既言“發育萬物，峻極于天”，以形容其至大，而又必曰“禮儀三百，威儀三千”，以該悉其至微；而其指示學者修德凝道之功，所以既曰“致其廣大”而又必曰“盡其精微”也。近世之言道者則不然，其論大抵樂渾全而忌剖析，喜高妙而略細微。其於所謂廣大者則似之，而於精微有不察，則其所謂廣大者亦未易以議其全體之眞也。今且以經言論之，其所發明，固不外乎一理，然其所指則不能無異同之別。而就其所同之中，蓋亦不無賓主·

▶ 趙善譽：1143~1189. 字는 靜之, 號는 恕齋. 《易說》을 지음.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亡：海州本·定州本 ‘無’

親疏·遠近之差焉。如卦之所以八者，以奇偶之三加而成也。而爻之所以三，則取諸三才之象，而非奇偶所能與，此理之一而所指之不同者也。四象之說，本爲畫卦，則當以康節之說爲主，而七·八·九·六，東·西·南·北，水·火·金·木之類爲客。得其主，則客之親疏遠近皆卽此而可定；不得其主，而曰是皆一說，則我欲同而彼自異，終有不可得而同者矣。此所指之同而不能無賓主之分者也。是皆樂渾全而忌剖析之過也。至於乾·坤之純而不雜者，聖人所以形容天地之德，而爲六十四卦之綱也。乾之純於剛健而不雜，又聖人所以形容天理自然之全體而爲坤之綱也。所以贊其剛健柔順之全德，以明聖人體道之妙·學者入德之方者，亦云備矣，未嘗以其偏而少貶之也。至於諸爻，雖或不免於有戒，然乾九三之危，以其失中也；其得無咎，以其健而健也。坤六五之元吉，以其居尊而能下也；上六之龍戰，以其太盛而亢陽也。是豈惡乾之剛而欲其柔，惡坤之柔而欲其剛哉？今未察乎其精微之蘊，而遽指其偏以爲當戒，意若有所未足於乾·坤而陋小之者，是不亦喜高妙而略細微之過乎？至於用九·用六，乃爲戒其剛柔之偏者。然亦因其陰變爲陽·陽變爲陰之象而有此戒，如歐陽子之云

者，非聖人創意立說而強爲之也。大抵《易》之書本爲卜筮而作，故其詞必根於象數，而非聖人已意之所爲。其所勸戒，亦以施諸筮得此卦此爻之人，而非反以戒夫卦爻者。近世言《易》者殊不知此，所以其說雖有義理而無情意，雖大儒先生，有所不免。比因玩索，偶幸及此，私竊自慶，以爲天啓其衷。而以語人，人亦未見有深曉者，不知高明以爲如何？舊亦草筆其說，今謾錄二卦上呈，其他文義未瑩者多，未能卒業，姑以俟後世之子雲耳。近又嘗編一小書，略論象數梗概，并以爲獻。妄竊自謂學《易》而有意於象數之說者，於此不可不知，外此則不必知也。心之精微，言不能盡，臨風引領，馳想增劇。〔“爲坤之綱也”：下疑有闕文。“一小書”：《啓蒙》。〕

節要0104(0705) (問答5) (卷7:7右) (晦庵集 卷38)

答周益公 〔必大〕

前者累蒙誨諭范碑曲折，考据精博，論議正平，而指¹⁾意深遠，尤非常情所及。然隱之於心，竊有所不能無疑者。蓋嘗竊謂呂公之心固非晚生所能窺度，然當其用事之時，舉措之不合衆心者蓋亦多矣。而又惡忠賢之異己，必力排之，使不能容於朝廷而後已。是則一世之正人端士莫不惡之。況范·歐二公，或以諷議爲官，或以諫諍爲職，又安可置之而不論？且論之而合於天下之公議，則又豈可謂之太過也哉？逮其晚節，知天下之公議不可以終拂，亦以老病將歸而不復有所畏忌，又慮夫天下之事或終至於危亂，不可如何，而彼衆賢之排去者，或將起而復用，則其罪必歸於我而并及於吾之子孫，是以寧損故怨，以爲收之桑榆之計。蓋其慮患之意，雖未必盡出於至公，而其補過之善，天下實被其賜，則與世之遂非長惡·力戰天下之公議以貽患於國家者相去遠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指：海州本에는 [추가 ‘指’, 唐本作‘措’.]가 있다；《全書》‘措’

矣。至若范公之心，則其正大光明，固無宿怨，而惓惓之義，實在國家。故承其善意，既起而樂爲之用。其自訟之書，所謂“相公有汾陽之心之德，仲淹無臨淮之才之力”者，亦不可不謂之傾倒而無餘矣。此最爲范公之盛德而他人之難者，歐陽公亦識其意而特書之。蓋呂公前日之貶范公自爲可罪，而今日之起范公自爲可書。二者各記其實，而美惡初不相掩，則又可見歐公之心亦非淺之爲丈夫矣。夫呂公之度量心術，期以濟務則誠然矣。然有度量則宜有以容議論之異同，有心術則宜有以辨人才之邪正，欲成天下之務則必從善去惡·進賢退姦，然後可以有濟。今皆反之，而使天下之勢日入於昏亂，下而至於區區西事一方之病，非再起范公，幾有不能定者。則其前日之所爲，又惡在其有度量心術而能成務也哉？其用人也，欲才德之兼取，則亦信然矣。然范·歐諸賢，非徒有德而短於才者，其於用人，蓋亦兼收而並取。雖以孫元規·滕子京之流恃才自肆，不入規矩，亦皆將護容養以盡其能，而未嘗有所廢棄，則固非專用德而遺才矣。而呂公所用，如張·李·二宋，姑論其才，亦決非能優於二公者。乃獨去此而取彼，至於一時豪俊跼弛之士，窮而在下者不爲無人，亦未聞其有以羅致而器

使之也。且其初解相印而薦王隨·陳堯佐以自代，則未知其所取者爲才也耶，爲德也耶？是亦不足以自解矣。若謂范·歐不足以知呂公之心，又不料其子之賢而攻之太過，則其所攻事皆有迹，顯不可掩，安得爲過？且爲侍從諫諍之官，爲國論事，乃視宰相子弟之賢否以爲前却，亦豈人臣之誼哉？若曰范·呂之仇初未嘗解，則范公既以呂公而再逐，及其起任西事而超進職秩，乃適在呂公三入之時。若范公果有怨於呂公而不釋，乃悶默受此而無一語以自明其前日之志，是乃內懷憤毒，不能以理自勝，而但以貪得美官之故，俛而受其籠絡，爲之驅使。未知范公之心其肯爲此否也？若曰歐公晚悔前言之失，又知其諸子之賢，故因范碑以自解，則是畏其諸子之賢，而欲陰爲自託之計，於是寧賣死友以結新交，雖至以無爲有，愧負幽冥而不遑恤。又不知歐公之心其忍爲此否也？況其所書但記解仇之一事，而未嘗并譽其他美，則前日斥逐忠賢之罪，亦未免於所謂欲蓋而彰者，又何足以贖前言之過而媚其後人也哉？若論忠宣之賢，則雖亦未易輕議，然觀其事業規模，與文正之洪毅開豁終有未十分肖似處，蓋所謂可與立而未可與權者。乃翁解仇之事，度其心未必不深恥之，但不敢出之

於口耳。故潛於墓碑刊去此事，有若避諱然者。歐公以此深不平之，至屢見於書疏，非但《墨莊》所記而已。況《龍川志》之於此，又以親聞張安道之言爲左驗。張實呂黨，尤足取信無疑也。若曰范公果無此事而直爲歐公所誣，則爲忠宣者正當沫血飲泣，貽書歐公，具道其所以然者，以白其父之心迹，而俟歐公之命以爲進退。若終不合，則引義告絕而更以屬人，或姑無刻石，而待後世之君子以定其論，其亦可也。乃不出此，而直於成文之中刊去數語，不知此爲何等舉措？今不信范公出處文辭之實，歐公丁寧反復²⁾之論，而但取於忠宣進退無據之所爲以爲有無之決，則區區於此，誠有不能識者。若撫實而言之，但曰呂公前日未免蔽賢之罪，而其後日誠有補過之功；范·歐二公之心則其終始本末如青天白日，無纖毫之可議。若范公所謂平生無怨惡於一人者，尤足以見其心量之廣大高明，可爲百世之師表；至於忠宣，則所見雖狹，然亦不害其爲守正，則不費詞說而名正言順，無復可疑矣。不審尊意以爲如何？所與子約書中疑“學道三十年”爲後學之言者，則熹深惑焉，而尤以爲不可以不辨。不審明公何所惡於斯言而疑之也？

2) 復：海州本·定州本‘覆’

以道爲高遠玄妙而不可學邪，則道之得名，正以人生日用當然之理，猶四海九州百千萬人當行之路爾，非若老·佛之所謂道者，空虛寂滅而無與於人也。以道爲迂遠疏闊而不必學耶，則道之在天下，君臣父子之間·起居動息之際，皆有一定之明法，不可頃刻而暫廢。故聖賢有作，立言垂訓以著明之，巨細精粗，無所不備。而讀其書者，必當講明究索，以存諸心·行諸身而見諸事業，然後可以盡人之職而立乎天地之間；不但玩其文詞，以爲綴緝纂組之工而已也。故子游誦夫子之言曰：“君子學道則愛人，小人學道則易使”，而夫子是之，則學道云者，豈近世後學之言哉？若謂歐公未嘗學此而不當以此自名耶，則歐公之學，雖於道體猶有欠闕，然其用力於文字之間，而泝其波流以求聖賢之意，則於《易》·於《詩》·於《周禮》·於《春秋》皆嘗反復窮究，以訂³⁾先儒之繆；而《本論》之篇，推明性善之說，以爲息邪距詖之本，其賢於當世之號爲宗工巨儒而不免於祖尙浮虛·信惑妖妄者又遠甚。其他文說，雖或出於遊戲翰墨之餘，然亦隨事多所發明，而詞氣藹然，寬平深厚，精切的當，眞韓公所謂“仁義之人”者；恐亦未

3) 訂：定州本‘證’

可謂其全不學道，而直以燕·許·楊·劉之等期之也。若謂雖嘗學之，而不當自命以取高標揭己之嫌耶，則爲士而自言其學道，猶爲農而自言其服田，爲賈而自言其通貨，亦非所以爲夸。⁴⁾ 若韓公者，至乃自謂己之道乃夫子·孟軻·楊雄所傳之道，則其言之不讓益甚矣，又可指爲後生之語而疑之耶？【“范”：仲淹，“隱”：度也，“呂公”：夷簡，“呂公之度量心術，期以濟務”·“其用人也，欲才德之兼取”·“范歐不足以知呂公之心，又不料其子之賢而兩攻之太過”·“范呂之仇初未嘗解”·“歐公晚悔前言之失，又知其諸子之賢，故因范碑以自解”：皆〈周書〉語，“龍川志”：蘇子由所著，“燕”：張說，“許”：蘇頌，“楊”：億，“劉”：子儀。】

4) 爲士……爲夸：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節要0105(0706) (問答6) (卷7:13右) (晦庵集 卷38)

答留丞相

前此偶因垂問，率易呈獻，亦以姑備燕申餘暇遮眼止睡之須。不謂乃蒙親賜點閱，日有程課，以及終篇；而斟酌取予詳審精切，又有專門名家所不逮者。此周公執贄還贄之心，畢公克勤小物之意，此所以爲聖賢之盛節，而非近世諸公所及也。熹雖凡陋，然其用力於此，不爲不久，而歷選平生，講磨論說，其得此於人蓋鮮。不意臨老乃有遇於明公也。更有他書，欲遂傾困倒廩以跪進於几下，而私居乏人，艱¹⁾於繕寫，少假歲月，當遂此心。儻得一一悉蒙印證，則亦足以自信而無憾於方來矣。顧所不能無恨者，猶以登門之晚，而其質疑請益，乃有十年之遲。伏想明公於此亦不能不慨然其間也。²⁾【“呈獻”：謂獻《詩傳》也。“周公執贄還贄”：《荀子》，周公謂伯禽之傳曰“吾所執贄而見者十人，還贄而見者三十人云云，以正吾身定天下。”○按〈士相見禮〉，賓執贄來見，主人既見後，主人親往，還其贄於賓，禮也。此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4에 실려 있다.

1) 艱：定州本‘難’

2) 顧所不能……其間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周公自言“有我先執贄而往見者，有彼先執贄來，我往還贄而見者，以此二等待天下之士也。”』

朱子書節要 卷之七

節要0106(0707) (問答7) (卷7:14右) (晦庵集 卷38)

與曾裘父 〔季理. 號艇齋. 見《瀛奎律髓紅梅詩注.〕

向聞垂意《魯論》，聖門親切指要，正在此書，想所造日以深矣，恨未得聞一二也。敬夫得書否？比來講論尤精密，亦嘗相與講所疑否？元履遇合非常，未知所以稱塞。士友蓋多榮之，而熹竊有懼焉。想高懷正如此，當有以警策之也。

▶ 曾季理：字는 裘父，號는 艇齋. 南豐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節要0107(0708) (問答8) (卷7:14右) (晦庵集 卷38)

答耿直之【秉】〔○《語類》云：“嘗爲浙漕及鎮江，有善政.”〕

熹生長窮僻，少日所聞於師友者，不過修身窮理·守正
俟命之說，雖行之不力，有愧夙心，亦未嘗敢舍之而從
人也。頃歲入浙，從士大夫游，數月之間，凡所聞者，
無非枉尺直尋·苟容偷合之論，心竊駭之。而獨於執事
者見其綜理名實，直道而行，卓然非當世之士也。茲者
又承示及所與學官弟子講論之說，不唯有以見賢侯在
泮弦歌之盛，而潛心大業，體用圓融之妙，所以警發昧
陋者，又爲深切。三復欣幸，不知所言。

節要0108(0709) (問答9-1~2) (卷7:14左) (晦庵集 卷38)

答薛士龍【季宣】

(問答9-1)

熹竊伏窮山，講服盛名之日久矣。去年邂逅林擇之，歸自宣城，又能道餘論一二，皆成已成物之大致。區區益願承教於前，顧以憂患之餘，屏跡田里，而執事名問¹⁾方昭，德業方起，隱顯異趣，私竊揣料，未容遽遂鄙懷，則亦悵然太息而已。茲者林擴之之來，遠貽書翰，所以教告甚悉。感幸之至，不容於心。然而三復來教，則有熹愚不敢當者二焉，請陳其說，而左右者察之。熹自少愚鈍，事事不能及人。顧嘗側聞先生君子之餘教，粗知有志於學，而求之不得其術，蓋舍近求遠，處下窺高，馳心空妙之域者二十餘年。比乃困而自悔，始復退而求

▶ 薛季善：1134~1173. 字는 士龍, 永嘉人. 知湖州를 역임함. 저서로 《經書訓義》가 있음.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問：[두주 《韻會》, “‘聞’通作‘問’.”.]이 있고, 海州本에는 [추가 ‘問’當作‘聞’.]이 있다; 定州本 ‘聞’

之於句讀文義之間，謹之於視聽言動之際，而亦未有聞也。方將與同志一二友朋并心合力以從事於其間，庶幾銖積絲累，分寸躋攀，以幸其粗知理義之實，不爲小人之歸。而歲月侵尋，齒髮遽如許矣，懷然大懼日力之不足，思得求助於當世有道之君子以速其進而未得也。執事乃不知此，而反以講道教人之事期之，此熹之所以不敢當者一也。至於聖賢出處之義，則亦略聞之矣。顧以才智淺劣，自知甚明，而又學無所成，不堪酬酢，故自十數年來，日益摧縮，不敢復有當世之念。雖昨來奉親之日急於甘旨之奉，猶不敢自彊²⁾其所不足以犯世患；矧今孤露餘生，形神凋喪，懶廢無用，益甚於前，誠不忍復爲影纓結綬之計，以重不孝之罪。是以杜門空山，甘忍窮寂，以遂區區之志，而庶幾或寡過焉。執事又不知此，而反以行道濟時之事責之，此熹所以不敢當者二也。感服至意，無以爲謝，敢布腹心，伏惟加憐察焉。繼此儻未斥絕，尚冀有以警誨之，使不迷於入德之塗，則執事之賜厚矣。他非所敢望也。湖學之盛，甲於東南，而其湮廢亦已久矣。蓋自熙寧設置教官之後，學者不復得自擇師，是以學校之政名存實亡，而人才之出不

2) 彊：海州本‘疆’

復如當日之盛。今得賢太守身爲之師，其必將有變矣。然竊嘗讀安定之書，考其所學，蓋不出乎章句誦說之間。以近歲學者高明自得之論校之，其卑甚矣。然以古準今，則其虛實淳漓·輕重厚薄之效，其不相逮至遠。是以嘗竊疑之，敢因垂問之及而請質焉。因風見教及此，幸甚。【“影”：與‘飄’同音。‘影’，長組貌。“湖學”：時薛知湖州，故論湖學。】

(問答9-2)

垂諭湖學本末，不勝感歎。而所論胡公之學蓋得於古之所謂灑掃應對進退者，尤爲的當，警發深矣。竊意高明所以成己成物之要，未嘗不在於此，而廣大精微之蘊，其所超然而獨得者，又非言之所能諭也。跼伏之蹤，未由承教於前，徒切歎仰。儻不棄外，時得惠音以鞭策之，實爲萬幸。而來教之云，倒置已甚，讀之愧汗踖踖，不知所以自容。萬望矜察。自此書來，存訪死生之外，削去虛文，直以道義啓告誘掖，此真區區所望於門下者。鄙懷慙慙，亦得無所慚憚而悉布之，以求藥石之誨。不審尊意能容而聽之否？

節要0109(0710) (問答10) (卷7:17左) (晦庵集 卷38)

答林謙之【光朝】〔○號艾軒，官至工部侍郎，莆田人。〕

茲承祇召還朝，不獲爲問以候行李。伏奉黃亭所賜教帖，恭審執御在行神相，起居萬福，感慰之至。比日伏想已遂對揚，從容啓沃，必有以發明道學之要·切中當世之病者，恨未得聞。至於不次之除·非常之數，則不足爲執事道也。熹愚不適時，自量甚審，所願不過力田養親，以求寡過而已。所謂趨赴事功，自當世賢人君子事，豈熹所敢議哉？抑熹久欲有請於門下，而未敢以進。今輒因執事之問而一言之：蓋熹聞之，自昔聖賢教人之法，莫不使之以孝弟忠信·莊敬持養爲下學之本，而後博觀衆理，近思密察，因踐履之實以致其知。其發端啓要，又皆簡易明白，初若無難解者。而及其至也，則有學者終身思勉而不能至焉。蓋非思慮揣度之難，而躬行默契之不易。故曰：“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夫聖門之學所以從容積累，涵養成就，隨其淺深，無非實學者，其以此與？今之學者則不然，蓋未明一理，而已傲然自處以上

智生知之流，視聖賢平日指示學者入德之門至親切處，例以爲鈍根小子之學，無足留意。其平居道說，無非子貢所謂“不可得而聞”者，往往務爲險怪懸絕之言以相高。甚者至於周行却立·瞬目揚眉，內以自欺，外以惑衆。此風肆行，日以益甚，使聖賢至誠善誘之教反爲荒幻險薄之資，仁義充塞，甚可懼也。熹綿力薄材，學無所至，徒抱憂歎，末如之何。竊獨以爲非如執事之賢，素爲後學所觀仰者，不能有以正而救之，故敢以爲請。執事誠有意焉，則熹雖不敏，且將勉策駑頓，以佐下風之萬一，不識執事亦許之否乎？謹此布聞，因謝先辱。餘惟爲道自重，以慰後學之望。【“黃亭”：在武夷近處。】

節要0110(0711) (問答11-1~3) (卷7:19右) (晦庵集 卷38)

答江元適【泳】

(問答11-1)

孤陋晚生，屏居深僻，未嘗得親几杖之遊，乃蒙不鄙，使賢子遺之手書，致發明道要之文三編，存問繾綣，拜受踟躕，若無所容。熹天資魯鈍，自幼記問言語不能及人。以先君子之餘誨，頗知有意於爲己之學，而未得其處，蓋出入於釋·老者十餘年。近歲以來，獲親有道，始知所向之大方。竟以才質不敏，知識未離乎章句之間。雖時若有會於心，然反而¹⁾求之，殊未有以自信。其所以奉親事長·居室延交者，蓋欲寡其過而未能也。日者誤蒙收召，草野之臣，其義不敢固辭。造朝之際，無以待問，輒以所聞於師友者一二陳之。豈胸中誠有是道以進之吾君哉，特欲發其大端，冀萬一有助焉耳。不謂流

▶ 江泳：1124-1172. 字는 元適, 號는 西莊. 隱君이라 불림. 衢州 開化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3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而：海州本·定州本 ‘以’；海州本에는 [추가 ‘以’, 唐本作‘而’.]가 있다.

傳，復誤長者之聽。伏讀誨喻，慚負不知所言。然厚意不可虛辱，敢因所示文編，其間有不能無疑者，略抒其愚，以請於左右，伏惟幸復垂教焉云云。『“未得其處”：‘處’恐當作‘要’。』

(問答11-2)

別紙所喻汪洋博大，不可涯涘，然竊以平生所聞於師友者驗之，雖其大致規模不能有異，至其所以語夫進修節序之緩急先後者，則或不同矣。蓋熹之所聞，以爲天下之物無一物不具夫理，是以聖門之學，下學之序始於格物以致其知。不離乎日用事物之間，別其是非，審其可否，由是精義入神，以致其用。其間曲折纖悉，各有次序，而一以貫通，無分段，無時節，無方所。以爲精也而不離乎粗，以爲末也而不離乎本，必也優游潛玩，鑒飫而自得之，然後爲至。固不可自畫而緩，亦不可以欲速而急。譬如草木，自萌芽生長以至於枝葉華實，不待其日至之時而揠焉以助之長，豈不無益而反害之哉？凡此與來教所謂傷時痛俗，急於自反，且欲會通其旨要，以爲駐足之地者，其本末指意似若不同。故前後反復之言，率多違異。今姑論其大概，以爲求教之目，其他曲

折，則非得面承不能究也。『“不具夫理”：‘夫’，續集作‘天’，恐誤。‘理’下，續集有所謂‘寂然不動，感而遂通者，舉目無不在焉’十七字。‘一以貫通’：‘以’，續集作‘理’，恐誤。』

(問答11-3)

熹嘗謂天命之性，流行發用，見於日用之間，無一息之不然，無一物之不體。其大端全體，卽所謂仁。而於其間事事物物莫不各有自然之分，如方維上下定位不易，毫釐之間不可差繆，卽所謂義。立人之道，不過二者，而二者則初未嘗相離也。是以²⁾學者求仁精義，亦未嘗不相爲用。其求仁也，克去己私，以復天理，初不外乎日用之間。其精義也，辨是非·別可否，亦不離乎一念之際。蓋無適而非天理人心體用之實，未可以差殊觀也。孟子告齊王曰：“權然後知輕重，度然後知長短，物皆然，心爲甚。主請度之。”嗚呼！此求仁之方也，而精義之本在焉，孟子其可謂知言之要矣。今執事以反身自認，存眞合體者自名其學，信有意於求仁矣。而必以精義之云爲語道之精體，而無與乎學者之用力，又以辨是非·別可否爲空言，不充實用而有害乎簡易之理，則

2) 是以：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熹恐其未得爲至當之論也。近世爲精義之說，莫詳於《正蒙》之書，而五峯 胡先生者，亦曰“居敬，所以精義也”。此言尤精切簡當，深可玩味。抑所謂反身自認·存眞合體者，以孔子“克己復禮”·孟子“勿忘勿助”之說驗之，則亦未免失之急迫，而反與道爲二。大抵天人初無間隔，而人以私意自爲障礙，故孔·孟教人，使之克盡己私，卽天理不期復而自復。惟日用之間所以用力循循有序，不凌不躐，則至於日至之時，廓然貫通，天人之際不待認而合矣。今於古人所以下學之序，則以爲近於傀儡而鄙厭之，遂欲由徑而捷出，以爲簡易，反謂孔·孟未嘗有分明指訣，殊不知認而後合，揠苗助長，其不簡易而爲傀儡，亦已大矣。熹竊以爲日用之間，無一事一物不是天真本體，孔·孟之言，無一字一句不是分明指訣。故孔子曰：“吾無隱乎爾。”又曰：“天何言哉！”而子貢曰：“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夫豈平日雅言常行之外，而復有所謂分明指訣者哉？〔“傀儡”：‘傀’，音詭，怪異也。‘儡’，音磊。木偶戲，亦作‘魁橐’。〕

節要0111(0712) (問答12) (卷7:22左) (晦庵集 卷38)

答詹體仁【儀之】

湘中學者之病，誠如來教，然今時學者，大抵亦多如此。其言而不行者固失之，又有一種只說踐履而不務窮理，亦非小病。欽夫往時蓋謂救此一種人，故其說有太快處，以啓流傳之弊。今日正賴高明有以救之也。爲學是分內事，纔見高自標致，便是不務實了，更說甚底？今日正當反躬下學，讀書則以謹訓說爲先，修身則以循規矩爲要，除却許多懸空閒說，庶幾平穩耳。

▶ 詹儀之：？～1189. 字는 體仁. 嚴州 遂安人. 吏部侍郎을 역임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節要0112(0713) (問答13) (卷7:23右) (晦庵集 卷38)

答楊庭秀【萬里】〔○誠齋先生〕

程弟轉示所惠書教，如奉談笑，仰見放懷事外，不以塵垢粃糠累其胸次之超然者，三復歎羨，不能已已。數日偶苦脾疾，心腹撓悶，意緒無聊。值此便風，不敢不附報。自力布此，僅能問何如，他皆未暇及也。時論紛紛，未有底止。契丈清德雅望，朝野屬心，切冀眠食之間，以時自重，更能不以樂天知命之樂而忘與人同憂之憂，毋過於優游，毋決於遁思，則區區者猶有望於斯世也。

▶ 楊萬里：1127~1206. 字는 廷秀, 號는 誠齋, 諡號는 文節. 吉水人. 寶文閣待制를 역임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節要0113(0714) (問答14-1~4) (卷7:23左) (晦庵集 卷38)

答李季章【壁】〔○巽巖 燾之子. 見《宋史》.〕

(問答14-1)

兩書縷縷，皆有飄然遠引之意，不審果以何日決此計耶？燾懇祠得請，深荷上恩。旣還舊官，無復可辭之誼。孤危之跡，雖未可保，然姑無媿於吾心可也。承問及先人紹興中文字，遺稿中筭子第三篇，疑卽此奏。今以納呈，筆削之際，儻得附見，千萬幸甚。諸公爭和議時，先人與胡德輝·范伯達諸公同入文字，皆史院同寮也。當時此一宗議論不知有無登載？魏元履所集《戊午讜議》一書甚詳，亦嘗見之否耶？如館中未有，得行下建寧抄錄上送，亦一事也。〔“胡德輝”：胡理，祕書著作。“范伯達”：如圭，正字。〕

(問答14-2)

燾罪戾之蹤，竟不免吏議，然已晚矣，又幸寬恩，未卽流竄，杜門念咎，足以遣日，不足爲故人道也。累年欲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4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修《儀禮》一書，釐析章句而附以傳記，近方了得十許篇，似頗可觀。其餘度亦歲前可了。若得前此別無魔障，卽自此之後，便可塊然兀坐，以畢餘生，不復有世間念矣。元來典禮淆訛處，古人都已說了，只是其書衰作一片，不成段落，使人難看。故人不曾看，便爲憊人舞文弄法，迷國誤朝。若梳洗得此書頭面出來，令人易看，則此輩無所匿其姦矣，於世亦非少助也。

勿廣此說，恐召坑焚之禍。

(問答14-3)

熹今歲益衰，精神筋力，大非前日之比。加以親舊凋零，如蔡季通·呂子約，皆死貶所，令人痛心。益無生意，決不能復支久矣。留衛公得《詩說》，日閱數版，手加點抹，書來頗極稱賞，仍盡能提其綱，亦甚不易。老年¹⁾精力乃能及此，又不厭章句訓詁之煩也，要是天姿深靜純實，故能若此。亦恨其聞此之晚，不得早效區區之愚耳。德修·文叔家居，亦何所務？各有一書，煩爲致之。子直亦然也。今年閩中鄭·黃·鄧皆物故，氣象極覺蕭索。楊子直得祠又遭駁，項平父聞亦杜門不敢見

1) 老年：海州本·定州本‘年老’

人，其他吾人往往藏頭縮頸，不敢吐氣，甚可笑也。『“留衛公”：正。“德修”：劉光祖。“文叔”：黃度。“子直”：楊方。“項平父”：名安世。』

(問答14-4)

熹伏承不鄙，貺以先正文簡公詩編行實，并及三夫人二壙刻文，跼領伏讀，足慰平生高山仰止之心。而反復再三，又見其立德立言明白磊落，所以開發蒙吝，有不一而足者，幸甚幸甚。至於不察熹之愚陋，而將使之纂次其事，刻之幽宮以視來世，則熹之不德不文，人知其不足以勝此寄矣。顧念平生未嘗得拜文簡公之函丈，而讀其書，仰其人則爲日蓋已久。又嘗聽於下風，而知公之所以相知，亦有不待識其面目而得其心者，是以願自附焉而不敢辭也。唯是今者方以罪戾書名僞籍，平居杜門，屏氣齟舌，不敢輒出一語以干時禁，而廩廩²⁾度日，猶懼不免。乃於此時忽爾破戒，政使不自愛惜，亦豈不爲公家之累？是以彷徨顧慮，欲作復止，而卒未有以副來命之勤也。伏惟執事姑少察此而深計之。竊意高文大筆，取之今世，不爲無人，固不必眷眷於一無狀罪廢之

2) 廩廩：《全書》‘凜凜’

朱子書節要 卷之七

人，而使盛德百世之傳不得以時定也。『“文簡公”：李燾，字
仁父，壁父。“齧”：音窄，齧也。“廩”：通作‘懔’。』

節要0114(0715) (問答15-1~2) (卷7:26右) (晦庵集 卷38)

答范文叔 〔僞學籍有范仲黼，卽文叔也.〕

(問答15-1)

讀書不覺有疑，此無足怪。蓋往年經無定說，諸先生所發或不同，故讀書不能亡疑。比年以來，衆說盡出，講者亦多，自是無所致疑。但要反復玩味，認得聖賢本意·道義實體，不外此心，便自有受用處耳。尹和靖門人贊其師曰：“丕哉聖謨，《六經》之編。耳順心得，如誦己言。”要當至此地位，始是讀書人耳。

(問答15-2)

《春風堂記》久已奉諾，安敢忘之！但近覺孤危之迹爲當世所憤疾，日以益甚，遂絕口不敢爲人出一語，非獨畏禍，亦義理之當然也。兼亦覺得此等空言無益於實，僅同戲劇，區區裝點，是亦徒爲玩物喪志而已。若論爲

▶ 范仲黼：字는 文叔. 成都 華陽人. 著作郎을 역임하였음. 張栻의 문인.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己切實功夫，豈此等所能助？而爲仁由己，亦何待他人之助耶？況明道先生氣象如此，乃是“不違仁”之影子。今於影外旁觀而玩其形似，孰若深察其心之所到而身詣之之爲實耶？竊謂爲仁之要，固不出乎聖賢之言，若子夏所謂“博學篤志”·“切問近思”，夫子所謂“克己復禮”·所謂“恭敬忠恕”，可以備見其用力之始終矣。幸深味乎此而實加功焉，則爲有以慰區區之望，固不在於言語文字之間而已也。

節要0115(0716) (問答16) (卷7:27左) (晦庵集 卷38)

答陳君舉〔傳良·止齋先生·永嘉人〕

熹自頃寓書之後，南來擾擾，未能嗣音。至於懷仰德義，則無日而不勤也。乃蒙不忘，專人枉教，誨示之勤，尤荷不鄙。然嘗謂人之爲學，若從平實地上循序加功，則其目前雖未見日計之益，而積累功夫，漸見端緒，自然不假用意裝點，不待用力支撐，而聖賢之心·義理之實，必皆有以見其確然而不可易者。至於講論之際，心卽是口，口卽是心，豈容別生計較，依違遷就，以爲諸俗自便之計耶？今人爲學既已過高而傷巧，是以其說常至於依違遷就而無所分別。蓋其胸中未能無纖芥之疑有以致然，非獨以避咎之故而後詭於詞也。若熹之愚，自信已篤。向來之辯雖至於遭讒取辱，然至于今日，此心耿耿，猶恨其言之未盡，不足以暢彼此之懷·合異同之趣，而不敢以爲悔也。不識高明何以教之？惟盡言無隱，使得反復其說，千萬幸甚。老病幽憂，死亡

▶ 陳傳良：1137~1203. 字는 君舉, 號는 止齋. 諡號는 文節. 永嘉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七

無日。念此一大事，非一人私說・一朝淺計，而終無面寫之期，是以冒致愚悃。鄉風引領，不勝馳情。

節要0116(0717) (問答17) (卷7:28左) (晦庵集 卷38)

與劉德修【光祖】『○慶元六年，諫大夫張釜劾光祖撰《涪州學記》云云。謫房州時，光祖主管玉虛觀。』

忽閱邸報，有房陵之行，爲之悵然，寢食俱廢，累日不能自釋。不審彼以何日就道？自簡至房，道里幾何？取道何州？閱幾日而後至？風土氣候不至甚異否？居處飲食能便安否？官吏士民頗知相尊敬否？吾道之窮，一至於此！然亦久知會有此事，但不謂在目前耳。馮·李亦復不容，季章得郡而名見乃弟疏中，恐亦非久安者。李良仲鴻飛冥冥，使人深羨，第恨不得扣其玄中之趣。范文叔却幸未見物色，想亦深自晦也。熹足弱氣痞已半年矣，策杖人扶，僅能略移跬步。而腹脅脹滿，不能俯案，觀書作字，一切皆廢。衰憊至此，無復久存之理。承教無期，尚冀以時深爲世道自愛耳。『“李良仲”：《語類》有“李杞，字良仲”，未知是此人。“不得扣其玄中之趣”：按《語類》，李良仲，紹熙甲寅，已見先生於靈芝矣。今此書則在先生納祿之後，而云云似有未識之恨，疑別有一良仲也。』

▶ 劉光祖：1142~1222. 字는 德修，號는 後溪，諡號는 文節. 簡州 陽安人. 侍御史를 역임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七

節要0117(0718) (問答18) (卷7:29右) (晦庵集 卷38)

答黃文叔【度】〔○浦江人. 隆興癸未進士. ○度將論侂冑, 侂冑以御筆除度知平江府, 度辭歸.〕

去歲趨召北歸, 道聞新天子以執事爲賢, 擢居言路, 方與善類同深喜幸, 以爲必將有以開寤¹⁾上心, 謹始建極, 以慰中外之望. 而未一二日, 已聞出守之命, 則又爲之惘然昏惑, 莫曉所謂. 而又決知吾道之將不行矣. 曾未兩月, 果已罷遣. 還家又苦疾病, 乃於呻吟之中, 忽奉手教之辱, 三復醒然, 過望幸甚. 然而執禮過謙, 稱道浮實, 比擬非倫, 則非淺陋之所敢當也. 豈其戲耶? 則執事莊士也, 非以言爲戲者也. 以爲誠耶, 則懼其有傷執事者闕理之明·知人之哲也. 至論古昔聖賢所處之難易, 則執事之意可知矣. 如熹之愚, 蓋嘗不自揆度, 而妄竊有志於此. 然學未聞道, 言語無力, 精神不專, 不足以動人悟物. 蓋昔人所謂說將尙不下者, 而又何足以

▶ 黃度: 1138~1213. 字는 文叔, 號는 遂初, 諡號는 宣獻. 紹興人. 禮部尙書를 역임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寤: [두주 ‘寤’, 《韻會》, “‘悟’通作‘寤’”, 《漢書》, “尙不覺寤.”]가 있다.

議此耶？雖然今亦老矣，衰病益侵，旦暮且死，此心雖不敢忘，亦無復有望於將來矣。顧今運祚方隆，聖德日新，有永之圖，必將與明者慮之，則夫所謂致一以格天者，乃執事事也。執事其亦察乎舜之所謂入心道心者爲如何，擇之必精，而不使其有人心之雜；守之必固，而無失乎道心之純；則始終惟一，而伊尹之所以格天者在我矣。於以正君定國而大庇斯人於無窮，豈不偉哉！鄙見如此，不識執事以爲如何？如有未當，願反復之，以卒承教之願，千萬幸也。『“趨召北歸”：寧宗初，自湖南赴召。“果已罷遣”：先生極論獨斷，侂冑使優戲以問之，御筆除宮觀歸。“說將尙不下”：《後漢·第五倫傳》，“蓋延爲馮翊太守，多不法，倫數切諫，延恨之，故滯不得舉。後倫每讀詔書，歎曰：‘此聖主也，一見決矣。’等輩笑曰：‘爾說將尙不下，安能動萬乘乎？’”將，州將也，指蓋延也。』

節要0118(0719) (問答19) (卷7:30左) (晦庵集 卷38)

答徐元敏

伏觀尊誨之微指，大率以〈曲禮〉首章爲修己治人之大要，喜其易行而病於難久。此非擇善之精·反躬之切，何以及此？顧念平昔所聞於師友者，其大端誠不外是。然行之不力，一暴十寒，其樂舒肆·喜談謔之病，殆有甚於高明之所患者，而何能有以少補於萬分？抑又聞之，主敬者存心¹⁾之要，而致知者進學²⁾之功。二者交相發焉，則知日益明，守日益固，而舊習之非自將日改月化於冥冥之中矣。

1) 存心：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 進學：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節要0119(0720) (問答20) (卷7:31右) (晦庵集 卷38)

答林正夫[湜]

慕仰高風，固非一日。今茲楊通老來，忽奉手誨之辱，執禮過恭，尤使人恐懼趑趄而無所避也。雖然高明之所以見屬之意，豈若世之指天誓日而相要於聲利之場者哉？況在今日而言之，尤足以見誠之至而好之篤。是以不敢隱其固陋，而願自附於下風焉。蓋嘗聞之先生君子，觀浮圖者，仰首注視而高談，不若俯首歷階而漸進。蓋觀於外者，雖足以識其崇高鉅麗之爲美，孰若入於其中者能使眞爲我有而又可以深察其層累結架之所由哉？自今而言，聖賢之言具在方冊，其所以幸教天下後世者，固已不遺餘力；而近世一二先覺又爲之指其門戶·表其梯級，而先後之學者由是而之焉，宜亦甚易而無難矣。而有志焉者或不能以有所至，病在一觀其外，粗覘彷彿，而便謂吾已見之，遂無復入於其中，以爲眞有而力究之計。此所以驟而語之，雖知可悅，而無以深得其

▶ 林湜：1132~1202. 字는 正夫, 號는 盤隱. 福州 長溪人. 監察御史를 역임함.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味，遂至半途而廢，而卒不能以有成耳。竊計高明所學之深·所守之正，其所蘊蓄蓋已施之朝廷而見於議論之實，於此宜不待於愚言矣。然既蒙下問，不可以¹⁾虛辱；而熹之所有不過如此，若不以告於門下，以聽執事者之采擇，則又有非區區之所敢安者。是以敢悉布之，可否之決，更俟來教，熹所虛佇而仰承也。通老在此相聚甚樂，比舊頓進，知有切磋之益。惜其相去之遠，忽起歸興而不可留也。德修崎嶇遠謫，令人動心。然聞其平居對客誦言，固每以此自必，乃今爲得所願，然所關繫則不淺矣。有寫其記文以來者，已屬通老呈白，想亦深爲廢卷太息也。〔“楊通老”：楫。〕

1) 以：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節要0120(0721) (問答21) (卷7:32左) (晦庵集 卷39)

答戴邁

熹來此，得足下於衆人之中，望其容色，接其議論，而知足下之所存若有所蓄積，而未得其所以發之者，心獨期足下可共進於此道。及以《論語》之說授諸生，諸生方愕眙不知所向，而足下獨以爲可信也，手抄口誦而心惟之。熹謂足下將得其所以發之者矣，甚慰所望。今辱書及以所抄四大編示之，而責其淺陋之辭託名經端，則非熹之任，而足下之過也。夫執經南面而以其說與門人弟子相授受，此其非熹之任明矣。熹無所復道，獨敢竊議足下之所以過，願寬其僭易而幸聽之。夫學，期以自得之而已，人知之·不知之，無所與於我也。今足下自謂其已自得之耶，則宜無汲汲於此，而熹之言亦何爲足下重？不然，雖熹妄言之，於足下何有？足下之爲甚過。足下勉自求之，期有以自得之而後已，熹雖荒落矣，尚能與足下上下其說而講評之。四編且以歸書室，而具其所以然者報足下，幸察。【“眙”：丑吏切，驚貌。】

▶ 戴邁：朱熹의 문인. 未詳.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節要0121(0722) (問答22) (卷7:33左) (晦庵集 卷39)

答林巒

辱示書及所爲文三篇，若以是質於熹者。熹少不喜辭，長復嬾¹⁾廢，亡以副足下意。然嘗聞之，學之道非汲汲乎辭也，必其心有以自得之，則其見乎辭者非得已也。是以古之立言者，其辭粹然，不期以異於世俗，而後之讀之者知其卓然非世俗之士也。今足下之詞富矣，其主意立說高矣，然類多採摭先儒數家之說以就之耳。足下之所以自得者何如哉？夫子所謂“德之棄”者，蓋傷此也。足下改之，甚善。示喻推所聞以講學閭里間，亦甚善。《記》曰：“教然後知困。”知困則知所以自彊²⁾矣。熹所望於足下者在此，足下勉旃！

► 林巒：泉州人。未詳。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嬾：《全書》‘懶’

2) 彊：定州本‘疆’

節要0122(0723) (問答23) (卷7:34右) (晦庵集 卷39)

答呂僊

惠書甚慰。所守審如是，足下之所存，誠遠且大，非熹所能及也。顧不能不以貧自累而求有以得於人，則足下之忍其大而不忍其細，又非熹之所能知也。抑熹之官於此，祿不足以仁其家，而無以副足下之意，敢以所聞爲謝，冀足下之堅其守也。貧者士之常，惟無易其操，則甚善。

▶ 呂僊：未詳.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節要0123(0724) (問答24) (卷7:34左) (晦庵集 卷39)

答楊宋卿

熹聞詩者志之所之，在心爲志，發言爲詩。然則詩者豈復有工拙哉，亦視其志之所向者高下如何耳。是以古之君子德足以求其志，必出於高明純一之地，其於詩固不學而能之。至於格律之精粗・用韻屬對・比事遣辭之善否，今以魏・晉以前諸賢之作考之，蓋未有用意於其間者，而況於古詩之流乎！近世作者乃始留情於此，故詩有工拙之論，而葩藻之詞勝，言志之功隱矣。熹不能詩，而聞其說如此，無以報足下意，姑道一二。盛編再拜封納，并以爲謝。

► 楊宋卿：未詳。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節要0124(0725) (問答25-1~2) (卷7:35右) (晦庵集 卷39)

答柯國材【翰】

(問答25-1)

熹奉親粗遣，武學闕尙有三年，勢不能待。目今貧病之迫已甚，旦夕當宛轉請祠也。親年日老，生事益聊落，雖吾道固如此，然人子之心不能不慨然耳。時事竟爲和戎所悞，今歲虜人大入，據有淮南，留屯不去。監前事之失，不汲汲於渡江，欲圖萬全之舉，此可爲寒心。而我之所以待敵者，內外本末一切剝弊，又甚於往年妄論之時矣。奈何奈何？遠書不能詳言也。熹自延平逝去，學問無分寸之進，汨汨度日，無朋友之助，未知終何所歸宿。邇來雖病軀粗健，然心力凋弱，目前之事十忘八九。至於觀書，全不復記，以此兀兀，於致知格物之地，全無所發明。思見吾國材精篤之論而不可得，臨書況¹⁾

▶ 柯翰：？～1177. 字는 國材. 泉州 同安人.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2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況：海州本·定州本 ‘恍’

然也。不合無愧之說，在我固然；第所不能無恨者，精神言語不足以感悟萬一爲恨耳。若人人持不合無愧之說，則君臣之大倫廢矣。如何如何？《春秋》工夫未及下手，而先生棄去。蓋亦以心志凋殘，不堪記憶。此書雖云本根天理，然實與人事貫通，若不稽考事迹，參以諸儒之說，亦未易明也。故未及請其說。然嘗略聞其一二，以爲《春秋》一事各是發明一例，如看風水移步換形。但以今人之心求聖人之意，未到聖人洒然²⁾處，不能無失耳。此亦可見先生發明之大旨也。〔“武學闕”：孝宗隆興元年，除武學博士。“先生”：延平。〕

(問答25-2)

石丈相聚，所談何事？其篤誠好學，已不易得，而議論明快，想講論之際少所凝滯也。書來有少反復，草草作答，不能盡所言。大抵講學³⁾只要理會義理，非人所能爲，乃天理也。天理自然，各有定體，以爲深遠而抑之使近者，非也；以爲淺近而鑿之使深者，亦非也。學者患在不明此理而取決於心。夫心何常之有？好高者已

2) 洒然：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3) 講學：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過高矣，而猶患其卑；滯於近者已太近矣，而猶病其遠。此道之所以不明不行，而學者所以各自爲方而不能相通也。前此以陳·許二友好爲高奇·喜立新說，往往過於義理之中正⁴⁾，故常因書箴之。蓋因其病而藥之，非以爲凡講學者皆當畫於淺近而遂止也。然觀聖賢之學與近世諸先生長者之論，則所謂高遠者，亦不在乎創意立說之間。伊川云：“吾年二十時，解釋經義，與今無異。然思今日意味，覺得與少時自別。”又尹和靖門人稱尹公於經書不爲講解，而耳順心得，如誦己言。此豈必以創意立說爲高哉？今吾輩望此地位甚遠。大概讀書且因先儒之說，通其文義而玩味之，使之浹洽於心，自見意味可也。如舊說不通，而偶自見得別有意思，則亦不妨。但必欲於傳注之外別求所謂自得者而務立新說，則於先儒之說或未能究而遽舍之矣。如此則用心愈勞而去道愈遠，恐駸駸然失天理之正⁵⁾而陷於人欲之私，非學問之本意也。且謂之自得，則是自然而得，豈可彊求也哉？今人多是認作“獨自”之“自”，故不安於他人之說而必己出耳。凡此皆石丈書中未及盡布者，或因講論之

4) 義理之中正：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5) 天理之正：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七

次，聞爲及之，幸甚幸甚。并以呈齊仲·順之，不知如此卑說還可高意否？二公更不及別書也。『“石丈”：子重，“陳”：齊仲，“許”：順之。』

節要0125(0726) (問答26-1~15) (卷7:38右) (晦庵集 卷39)

答許順之 〔升〕

(問答26-1)

熹衰老幸向安，然氣體虛弱，非復昔時，心力亦未復，都不敢思慮，舊業荒廢，無所發明。反而求之，似於存養用力處未有地位，甚以自懼耳。如吾友於此却已有餘，第未能達於詞命之間，恐其間亦有未徹底處，却宜於事物名數上着少工夫。蓋既無精粗本末之異，卽此亦不可忽也。

(問答26-2)

前書因見讀《禮》，故勸以致詳微細，因有“損所有餘，勉所不足”之言。來書乃謂：“本末精粗，本無二致，何用如此分別？”此又誤矣。若每每如此，則更無用功處，更無開口處矣。子夏對子游之語，以爲“譬之草木，區

▶ 許升：字는 順之，號는 存齋. 同安人. 朱熹의 문인.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15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以別矣”，何嘗如此儻侗來？惟密察於區別之中，見其本無二致者，然後上達之事可在其中矣。如吾子之說，是先向上達處坐却。聖人之意，正不如是，雖至於堯·舜·孔子之聖，其自處常只在下學處也。上達處不可著工夫，更無依泊處。日用動靜語默，無非下學，聖人豈曾離此來？今動不動便先說個本末精粗無二致，正是鵲巢吞棗。向來李丈說鐵籠罩却之病，恐未免也。

(問答26-3)

承在縣庠爲諸生講說，甚善甚善。但所寄諸說，求之皆似太過。若一向如此，恐駸駸然遂失正途，入於異端之說，爲害亦不細。差之豪¹⁾釐，謬以千里，況此非特豪²⁾釐之差乎！恐當且以³⁾二先生及范·尹二公之說爲標準，反復玩味，只於平易慤實之處認取至當之理。凡前日所從事一副當高奇新妙之說並且倚閣，久之見實理，自然都使不着矣。蓋爲從前相聚時，熹亦自有此病，所以相漸染成此習尚。今日乃成相誤，惟以自咎耳。如子韶之

1) 豪：海州本·定州本‘毫’

2) 豪：海州本·定州本‘毫’

3) 且以：定州本‘置’

說，直截不是正理，說得儘高儘妙處，病痛愈深。此可以爲戒而不可學也。何由面話，究此精微？臨風鬱結，無有窮已。國材·元聘爲況如何？昨寄得疑難來，又是一般說話。大抵齊仲·順之失之太幽深，而二公失之太執著。【執著者有時而通，幽深者蕩而不反矣。】中間一條平坦官路却沒人行著，只管上山下水，是甚意思？因書可錄此意及二序送之，爲致不及書之意。范伯崇學大進，劉德明者亦稍識理趣，皆可喜耳。伯崇《雜說》一紙附去，可見其持守不差·見理漸明之大概矣。然其說有少未盡，更求之，却以見喻。伯崇去年春間得書，問《論語》數段，其說甚高妙。因以呈李先生。李先生以爲不然，令其慤實做工夫，後來便別。此亦是一格也。然其⁴⁾當時高妙之說，亦只是依諸先生說而推言之過當處耳，非如順之所示，硬將文義拗橫說却也。切宜速改，至祝至祝。大抵文義，先儒盡之。蓋古今人情不相遠，文字言語只是如此，但有所自得之人，看得這意味不同耳，其說非能頓異於衆也。不可只管立說求奇，恐失正理，却與流俗詭異之學無以異也。只據他文理反復玩味，久之自明。⁵⁾

4) 其：定州本에는 없다.

5) 反復……自明：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且是胸中開泰，無許多勞攘，此一事已快活了。⁶⁾ 試依此加功，如何？〔“子韶”：張九成。“二公”：國材·元聘。〕

(問答26-4)

讀書大抵只就事上理會，看他語意如何，不必過爲深昧之說，却失聖賢本意，自家用心亦不得其正，陷於支離怪僻之域，所害不細矣。切宜戒之，只就平易慤實處理會也。“必有事焉”之書，不曾接得，不知如何？上蔡云：“出入起居，無非事者。正以待之，則先事而迎。忘則涉乎去念，助長則近於留情。聖人之心如鏡，所以異於衆人也。”觀此所謂“事”者，只是“事事”之“事”，遇此一事，則事此一事，本體昭然，此便見所謂“操則存，舍則亡”也。見此理極平易，只在目前，人自貪慕高遠，所以求之過當而自失之也。〔上蔡說，《延平答問》以爲明道答上蔡語，此直以爲上蔡語，恐當以《答問》爲是。〕

(問答26-5)

石丈惠書，以“夫子”見謂。詳此二字，古人用之本非尊稱，如伐顓臾之季氏·毀仲尼之叔孫，皆得以稱，蓋猶

6) 此一事……快活了：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曰“夫夫”·“之人”之比耳。然以孔門弟子稱仲尼以此，故後之人往往避其號。蓋不惟不敢使人以是加諸己，亦不敢以是加諸人也。熹初通書，不欲紛紜及此，幸爲一言，繼此惠音削去二字，乃所願望，不然，不敢拜而受也。告爲深陳之，至懇至懇。且旣以道相知，凡百禮文之過其宜者，恐亦有可刊落者。得并及之，幸甚幸甚。

(問答26-6)

此間窮陋，夏秋間伯崇來，相聚得數十日，講論稍有所契。自其去，此間幾絕講矣。幸秋來老人粗健，心間⁷⁾無事，得一意體驗，比之舊日，漸覺明快，方有下工夫處。日前真是一目⁸⁾引衆盲耳。其說在石丈書中，更不縷縷。試取觀之爲如何，却一語也。更有一絕云：“半畝方塘一鑑開，天光雲影共徘徊。問渠那得清如許？爲有源頭活水來。”試舉似石丈，如何？

(問答26-7)

書中所諭，皆的當之論，所恨無餘味耳。更向平易著實

7) 問：定州本‘閒’

8) 目：[두주 ‘目’, 唐本作‘盲’.]이 있다; 《全書》‘盲’

處子細玩索，須於無味中得味，乃知有餘味之味耳。〈敬齋記〉所論極切當，近方表裏看得無疑。此理要人識得，識得卽雖百千萬億不爲多，無聲無臭不爲少。⁹⁾ 若如所疑，卽三綱五常都無頓處，九經三史皆爲剩語矣。此正是順之從來一個窠臼，何故至今出脫不得？豈自以爲是之過耶？聞有“敬字不活”之論，莫是順之敬得來不活否？却不干“敬”字事，惟敬故活，不敬便不活矣。此事所差豪¹⁰⁾釐，便有千里之繆，非書札所能盡，切在細思，會當有契耳。

(問答26-8)

今歲却得擇之在此，大有所益，始知前後¹¹⁾多是悠悠度日，自茲策勵，不敢不虔。但道力衰薄，未知能終不退轉否耳。《大學》之說，近日多所更定。舊說極陋處不少，大抵本領不是，只管妄作，自悞悞人，深爲可懼耳。

(問答26-9)

9) 識得……爲少：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10) 豪：海州本·定州本 ‘毫’

11) 後：[두주 ‘後’恐當作‘此’.]가 있다.

熹一出幾半年，學問思辨之益，警發爲多。大抵聖門求[○]仁[○]格[○]物之學，無一事與釋氏同，所以尋常議論間偶因記憶自然及之，非是特然立意，與之爭勝負·較曲直也。想見孟子之闢楊·墨亦是如此，故其言曰：“予豈好辯哉？予不得已也。”今觀所與祝弟書，乃有“謗釋氏”之語，殊使人驚歎。不知吾友別後所見如何而爲是語也？及細讀二書，則所可怪者不特此耳。且論其大者，如所謂“棲心淡泊，與世少求，玩聖賢之言可以資吾神·養吾眞者，一一勘過”，只此二十餘字，無一字不有病痛。夫人心是活物，當動而動，當靜而靜¹²⁾，動靜不失其時，則其道光明矣。是乃本心全體大用，如何須要棲之淡泊然後爲得？且此心是個什麼，又如何其可棲也耶？聖賢之言，無精粗巨細，無非本心天理之妙。若眞看得破，便成已成物更無二致·內外本末一以貫之，豈獨爲資吾神·養吾眞者而設哉？吾友若信得及，且做年歲工夫，屏除舊習，案上只看¹³⁾《六經》·《語》·《孟》及程氏文字著，開擴心胸，向一切事物上理會¹⁴⁾，【第一不得喚作塵事昏心也。】方知“體用一源·顯微無間”是眞實語¹⁵⁾，不但

12) 夫人心……而靜：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13) 看：海州本에는 [추가 ‘看’字疑誤，與‘著’字恐倒換.]이 있다.

14) 吾友……理會：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做兩句好言語說而已也。又承見警，此則甚荷相愛之深。然儒者之學，於此亦只是順理而已，當顯則顯，當默則默。若涵養深淳，則發必中節，更無差互。既未到此地位，自是隨其氣習所發不同。然若一向矯枉過直，則柔弱者必致狂暴·剛彊者必爲退縮，都不見天理之當然。惟聖門之學以求仁格物爲先，所以發處自然見得是非可否不差毫髮，其工夫到與不到，却在人。今吾友見教，要使天下之人不知有自家方做得事，且道此一念從何處來？喚做本心得否？喚做天理得否？直是私意上又起私意，縱使磨挫掩藏得全不發露，似個沒氣底死人，亦只是計校利害之私，與聖門求仁格物·順理涵養氣象大故懸隔。信知儒·釋只此豪¹⁵⁾釐間，便是繆以千里處。却望吾友更深思之，仍將此書徧呈諸同志，相與反復商確，不可又似向來說“先覺”之義，更不與徐·柯二丈見也。朋友商論，正要得失分明·彼此有益，何必於¹⁷⁾此掩覆？只此是私意根株，若不拔去，使之廓然大公，何緣見得義理眞實處耶？所論“好善優於天下，只是一個公字”，此等處，何不公之甚也？【“只看六經·語·

15) 是眞實語：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16) 豪：海州本·定州本 ‘毫’

17) 於：川谷本에는 [추가 ‘於此’‘於’，疑‘如’之誤.]가 있다.

孟及程氏文字著”：‘著’與‘看’字，疑當互換.】

(問答26-10)

尤溪書來，議論極佳。不知平日講論於此等處有異同否？若無異同，則亦可疑耳。擇之所見日精，工夫日密，甚覺可畏。如熹輩，今只是見得一大綱如此，不至墮落邪魔外道耳。若子細工夫，則豈敢望渠也？徐·柯二丈及汝器·近思諸友相聚，說何等話？【聞已喫肉，甚善。推此類而擴充，則異說不能惑矣。】【○“尤溪”：石子重，時爲尤溪，名塈.¹⁸⁾】

(問答26-11)

學者正當於旦晝之所爲處理會克己復禮·懲忿窒慾¹⁹⁾，令此氣常清，則仁義之心常存²⁰⁾，非是必待夜間萬慮澄寂，然後用功也。若必如此，則日間幹當甚事也？孟子此四句，只是說人心是個活物，須是操守，不要放舍²¹⁾，亦不須如此安排也。²²⁾ 心一也，操而存則義理明而謂之道心²³⁾，舍²⁴⁾而亡則物欲肆而謂之人心。【亡不

18) 塈：今按：〈答石子重〉의 제목 원주에는 이름이 ‘塈’으로 되어 있다.

19) 克己……窒慾：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0) 仁義……常存：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1) 舍：《全書》‘捨’

22) 不須……安排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是無，只是走出逐物去了。】自人心而收回，便是道心；自道心而放出，便是人心。頃刻之間，恍惚萬狀，所謂“出入無時，莫知其鄉”也。所引“仁”字，尤不是，正是倒說了。且更平心玩味，不要說得太高妙·無形影，非唯教他人理會不得，自家亦理會不得也。大率講學本爲聖賢之言難明，故就下面說出教分明。若是向上面說將去，卽轉見理會不得矣。如建州人未識泉州，須且教他從南劍州問路去，豈可教他過漳州尋耶？此是大病，不可不知。

(問答26-12)

春來弔喪問疾，略無少暇。前月末間，元履又不起疾，交遊凋落，可爲傷嘆。而歲月如流，悔吝日積，亦將無聞而死，爲可懼耳。

(問答26-13)

尤川學政甚肅，一方向風，極可喜。擇之書來，云古田宰聞之亦欲效顰，果爾則石宰之化不止行於尤川矣。天

23) 操而存……道心：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24) 舍：《全書》‘捨’

下事無不可爲，但在人自彊如何耳，觀此可見也。順之既有室家，不免略營生理。書中所說，不知當如何措畫？此固不得不爾也。粗有衣食之資，便免俯仰於人，敗人意思，此亦養氣²⁵⁾之一助也。但不可汲汲皇皇，役心規利耳。想順之於此必有處決，不至如此也。【“尤川”：即尤溪。子重爲尤溪，命擇之掌教學，學者甚盛。】

(問答26-14)

閣中安好，想亦能甘淡泊，相助經家務也。修身齊家，只此是學，更欲別於何處留心耶？相見似無可說，別後又覺得有無限說話合商量，以此臨風每深懷想耳。

(問答26-15)

所示數條，鄙意有未安者，已具紙尾。大抵舊來多以佛·老之似亂孔·孟之眞，故每有過高之弊。近年方覺其非，而亦未能盡革，但時有所覺，漸趨平穩耳。順之此病尤深，當痛省察矯揉也。鄧尉持己愛人如此，甚不易得。但今時學者輕率大言，先將恭敬退讓之心壞了，不是小病。若實有爲己之意，先去此病然後可耳。

25) 養氣：海州本에는 백권이 있다.

節要0126(0727) (問答27) (卷7:47右) (晦庵集 卷39)

答陳齊仲

相馬之說，恐與忠恕之意不同。蓋忠恕之理則一，而人之所見有淺深耳，豈有所揀擇取舍於其間哉？學者欲知忠恕一貫之指，恐亦當自“違道不遠”處著力，方始隱約得一個氣象，豈可判然以爲二物而不相管耶？格物之論，伊川意雖謂眼前無非是物，然其格之也，亦須有緩急先後之序，豈遽以爲存心於一草木器用之間而忽然懸悟也哉？且如今爲此學，而不窮天理·明人倫·講聖言·通世故，乃兀然存心於一草木·一器用之間，此是何學問？如此而望有所得，是炊沙而欲其成飯也。來諭似未看破此處病敗，恐不¹⁾免出入依違之弊耳。〔“隱約”：依係髣髴之意。〕

► 陳齊仲：齊仲은 字. 同安人.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不：海州本·定州本 ‘未’

節要0127(0728) (問答28-1~4) (卷7:48右) (晦庵集 卷39)

答王近思 〔力行〕

(問答28-1)

窮居且爾，憂苦之餘，無復仕進意，杜門修身，以畢此生而已。累書所問，緣多出入，無人收拾，往往散落，以此不及奉報。然其大略只是要做文字·應科舉·誇世俗而已。年來懶廢，於此尤悉棄置，不能有所可否於其間也。

(問答28-2)

示諭學之難易及別紙所疑，足見好問之意。本欲一一答去，然熟觀之，似未嘗致思而泛¹⁾然發問者。若此又率然奉答，竊恐祇爲口耳之資而無益問學之實。今且請吾友只將所問數條自加研究，自設疑難，以吾心之安否驗

▶ 王力行：字는 近思，泉州 同安縣，朱熹의 문인.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4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泛：海州本·定州本 ‘汎’

衆理之是非，縱未全通，亦須可見大略，然後復以見諭。計其間當有不待問而決者矣。

(問答28-3)

前此欲銘先夫人之墓，以未嘗習爲之，無以應命。亦自念君子之事親以誠，正不在此；但能篤志力行，使人謂之君子之子，則其爲親榮也大矣。祭文尤所未解。凡喪，父在父爲主，今自主之，一失也。古者將葬祖奠，遣奠祝以事告而無文辭，二失也。古人居喪則言不文，蓋哀戚勝之，不能文也。今文甚矣，又將振而矜之，此三失也。孔子曰：“喪與其易也，寧戚。”吾友其未之思歟？大抵吾友誠慤之心，似有未至，而華藻之飾，常過其哀，故所爲文，亦皆辭勝理·文勝質，有輕揚詭異之態，而無沉潛溫厚之風。不可不深自警省，訥言敏行²⁾，以改故習之謬也。

(問答28-4)

平時無事，是非之辨似不能惑。事至而應，則陷於非者十七八。雖隨即追悔，後來之失，又只如故。今欲

2) 訥言敏行：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臨事時，所謂可喜·可怪·可畏·可沮者，不能移其平時之心，其道何由？

此是本心陷溺之久·義理浸灌未透之病。且宜讀書窮理，常不間斷，則物欲之心自不能勝，而本心之義理安且固矣。

節要0128(0729) (問答29-1~3) (卷7:49左) (晦庵集 卷39)

答魏元履〔揆之·號艮齋.〕

(問答29-1)

欲爲《春秋》學，甚善。但前輩以爲此乃學者最後一段事，蓋自非理明義精，則止是較得失，考同異，心緒轉雜，與讀史傳·撫故實無以異。況如老兄心中本鬧，恐非所以矯失而趨中也。愚意以爲不若只看《論語》，用年歲工夫，却看證¹⁾候淺深，別作道理。然但《論語》中看得有味，餘經亦迎刃而解矣。聖人之言，平易中有精深處，不可穿鑿求速成，又不可苟且閒看過。直須是置心平淡愜實之地，玩味探索²⁾而虛恬省事以養之，遲久不懈，當自覺其益；切不可輕易急迫之心求旦暮之功，又不可因循媮³⁾惰·虛度光陰也。《語錄》中一兩段說此事處，別紙上呈，可見此非臆說，亦見《春秋》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3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證：定州本 ‘訂’

2) 玩味探索：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3) 媮：《全書》 ‘偷’

之未易學也。若於此見得一義理血脈，方覺從前一團私意妄想，自家身心尙且奈何不下，如何說得行道救時底話？真是可笑。

(問答29-2)

裘父所云欲於《論語》作數說，此語可疑。尋常讀書，只爲胸中偶有所見，不能默契，故不得已而形之於口；恐其遺忘，故不得已而筆之於書，初不覺其成說也。若讀書而先有立說之心，則此一念已外馳矣，若何而有味耶？老兄所論昭烈知有權而不知有正，愚意則以謂先主見幾不明，經權俱失。當劉琮迎降之際，不能取荊州，烏在其知權耶？至於狼狽失據，乃不得已而出於盜竊之計，善用權者正不如此。若聲罪致討，以義取之，乃是用權之善。蓋權不離正，正自有權，二者初非二物也。⁴⁾ 子房用智之過，有微近譎處。其小者如躡足之類，其大則挾漢以爲韓而終身不以語人也。若武侯卽名義俱正，無所隱匿。其爲漢復讎之志，如青天白日，人人得而知之，有補於天下後世，非子房比也。蓋爲武侯之所爲則難，而子房投間乘隙，得爲卽爲，故其就之爲易

4) 權不離……二物也：海州本에는 방점이 있다.

耳。頃見李先生亦言：“孔明不若子房之從容，而子房不若武侯之正大也。”

(問答29-3)

比來觀何書？大抵人當有以自樂，則用行捨藏之間，隨所遇以安之。和靜先生云：“如霧則行，如潦則休。”此言有味也。三哥失解，能自遣否？後生所慮，學不足·身不立爾，得失區區，何足深介意也？

節要0129(0730) (問答30) (卷7:51左) (晦庵集 卷39)

與魏應仲【元履子】

三哥年長，宜自知力學，以副親庭責望之意，不可自比兒曹，虛度時日。逐日早起，依本點《禮記》·《左傳》各二百字，參以《釋文》，正其音讀。儼然端坐，各誦百遍。訖，誦《孟子》三二十遍，熟復玩味訖，看史數板，反復數遍。大抵所讀經史，切要反復精詳，方能漸見旨趣。誦之宜舒緩不迫，令字字分明。更須端莊正坐，如對聖賢，則心定而義理易究。不可貪多務廣。涉獵鹵莽，纔看過了，便謂已通。小有疑處，即更思索，思索不通，即置小冊子逐日抄記，以時省閱，俟歸日逐一理會。切不可含糊護短，恥於資問而終身受此黯暗以自欺也。又置簿記逐日所誦說起止，以俟歸日稽考。起居坐立，務要端莊，不可傾倚，恐至昏怠。出入步趨，務要凝重，不可票輕，以害德性。以謙遜自牧，以和敬待人。凡事切須謹飭，無故不須出入。少說閒話，恐廢

▶ 魏孝伯：字는 應仲，建州 建陽人，魏掞之의 아들로 朱熹의 문인이다.

[編輯考]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朱子書節要 卷之七

光陰。勿觀雜書，恐分精力。早晚頻自點檢所習之業，每旬休日，將一旬內書溫習數過，勿令心少有放佚，則自然漸近道理，講習易明矣。

節要0130(0731) (問答31-1~8) (卷7:52左) (晦庵集 卷39)

答范伯崇【癸未】〔名念德，先生姪壻〕

(問答31-1)

熹嘗問先生瞽瞍殺人事，先生曰：“劓瞍父子只爲無此心，所以爲法律所縛，都轉動不得。若舜之心，則法律縛他不住，終身訢然，樂而忘天下，求仁得仁，何怨之有？然此亦只是論其心爾，豈容他如此去得？”問先儒八議之說如何，曰：“此乃蔽罪時事，其初須著執之，不執則士師失其職矣。”熹嘗以先生之意參諸明道及文定之說，竊謂劓瞍父子之事，其進退可否，只看輒之心如何爾。若輒有拒父之心，則固無可論；若有避父之心，則衛之臣子以君臣之義當拒¹⁾劓瞍而輔之。若其必辭，則請命而更立君可矣。設或輒賢而國人不聽其去，則爲輒者又當權輕重而處之，使君臣父子之間道並行而不相悖，亦必有道。苟不能然，則逃之而已矣。義至於此，已極

▶ 范念德：字는 伯崇，朱熹의 동서.

[編輯考] 같은 제목으로 8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 海州本·定州本에는 권5에 실려 있다.

1) 拒：定州本 ‘推’

精微，但不可有毫髮私意於其間耳。來喻以謂蒯瞶之來，諸大夫²⁾當身任其責，請命于³⁾天子而以逆命討之，是矣。但又云“輒不與謀其事，避位而聽於天子”，則恐不免有假手於大夫以拒父，而陰幸天子之與己之心焉。掩耳盜鍾，爲罪愈大。【許多私意都在，只是免得自家犯手，情理尤不好也。】又云：“遽然興師，以脅其父，於人子之心安乎？”自衛國言之，則興師以拒，得罪於先君，而不當立之世子，義也。自輒言之，則雖已不與謀，而聽大夫之所爲，請命於天子而討之，亦何心哉？來喻本欲臣子之義兩得，立意甚善。但推而言之，便有此病。似是於輒之處心緊要處看得未甚灑落，所以如此。故愚竊謂輒之心，但當只見父子之親爲大，而不可一日立乎其位，自始至終，自表至裏，只是一個逃而去之，便無一事，都不見其他，方是直截。不審伯崇以爲如何？【“先生”：延平。“八議”：親·故·功·賢·能·勤·貴·賓。】

(問答31-2)

孟子論取之而燕民不悅，則勿取，文王是也。取之而燕

2) 夫：海州本·定州本‘臣’

3) 于：《全書》‘於’

民悅，則取之，武王是也。此亦止爲齊王欲取燕，故引之於文·武之道，非謂文王欲取商，以商人不悅而止，而武王見商人之悅而歸己，而遂往取之也。如言仲尼不有天下，益·伊尹·周公不有天下，豈益·周公·伊尹·仲尼皆有有天下之願，而以無天子薦之與天意未有所廢而不得乎？直是論其理如此耳。凡此類皆須研究體味，見得聖人之心脫落自在，無私毫惹絆處，方見義理之精微，於日用中自然得力。所謂知至而意誠也。蓋幾微之間，衆理昭晰，雖欲自欺而不可得矣。至此方可說言外見意·得意忘言。不然，止是鑽故紙耳。『“私毫”：‘私’恐當作‘絲’。』

(問答31-3)

在喪廢祭，古禮可考者如此。但古人居喪，衰麻之衣不釋於身，哭泣之聲不絕於口，其出入居處·言語飲食，皆與平日絕異，故宗廟之祭雖廢，而幽明之間兩無憾焉。今人居喪與古人異，卒哭之後，遂墨其衰，凡出入居處·言語飲食與平日之所爲皆不廢也，而獨廢此一⁴⁾事，恐亦有所未安。竊謂欲處此義者，但當自省所以居喪之禮，

4) 一：海州本·定州本에는 없다.

果能始卒一一合於古禮，卽廢祭無可疑；若他時不免墨衰出入，或其他有所未合者尚多，卽卒哭之前不得已準《禮》且廢，卒哭之後可以略放《左傳》杜注之說，遇四時祭日，以衰服特祀於几筵，用墨衰常祀於家廟可也。但卒哭之期，須既葬·立主·三虞之後，卜日而祭以成事方可耳。若神柩在而欲以百日爲斷，墨衰出入，則決然不可。愚見如此，不知伯崇以爲如何？

(問答31-4)

須送行語，哀苦中不復能爲文。然觀伯諫之言，已是藥石，但更須求所以立其本耳。日用之間，以莊敬爲主，凡事自立章程，鞭約近裏，勿令心志流漫，其剛之大⁵⁾本乎？由此益加窮理之功，以聖賢之言爲必可信，以古人之事爲必可行，則世俗小小利害，不能爲吾累矣。當官廉謹，是吾輩本分事，不待多說。然微細處亦須照管，不可忽略，因循怠墮。⁶⁾《呂氏童蒙訓》下卷數條，防閑之道甚至，皆可佩服。自治既不苟，更能事上以禮，接物以誠，臨民以寬，御史以法，而簿書期會之間，亦無

5) 之大：[두주 ‘之大’, 唐本乙.]이 있다；《全書》‘大之’

6) 墮：海州本·定州本‘惰’

所不用其敬焉，則庶乎其少過矣。暇日勿廢溫習，少飲酒，擇交遊。子澄相去不遠，眞直諒多聞之益。果能受其實攻而不憚改焉，則彼亦將不憚啓告之煩矣。

(問答31-5)

熹比携二子過寒泉，招季通來相聚，更有一二朋友來相聚，初不廢講議。但昏惰⁷⁾不敏，自救不給，何能有以及人？而學者氣稟彊弱不齊，各有病痛，未見卓然可恃者，此亦殊可懼也。知老兄官守不苟，又得賢守相聽從，得以少伸己志，深副所望。向來猶恐應變之才有所不周，今乃如此，信乎氣質之用小·道學之力大，而程子所謂“一命之士，苟存心愛物，於人必有所濟”者，非虛語也。凡百勉旃，以大遠業之基，增吾黨之氣，幸甚。

【“氣質之用小，道學之力大”：此十字，陳忠肅〈責沈文〉語。】

欽夫得行所學，吾道之幸。但此事大難，不可喜而可懼。近復如何？得正月書，亦未有異聞也。論學依舊有好高傷快之弊。熹近覺此事全放在底下，著實涵養玩味，方見工夫。

7) 隋：[두주 ‘隋’, 唐本作‘惰’.]가 있다；海州本·定州本·《全書》‘惰’

(問答31-6)

欽夫日前議論傷快，無涵養本原功夫，終是覺得應事匆匆。熹亦近方覺此病不是小事也。伯恭講論甚好，但每事要鶻圖說作一塊，又生怕人說異端俗學之非，護蘇氏尤力，以爲爭校⁸⁾是非，不如斂藏持養。頃見子澄有此論，已作書力辨之，不知竟以爲如何也。

(問答31-7)

伯崇近日何以用功？官事擾擾，想不得一向靜坐看書。然暇時速須收斂身心，或正容端坐，或思泳⁹⁾義理，事物之來，隨事省察，務令動靜有節，作止有常，毋使放逸，則內外本末交相浸灌，而大本可立。衆理易明矣。此外別無著力處。官事有可以及人處，想不憚出力。然檢身馭下，尤不可不加意也。

(問答31-8)

異端害正，固君子所當闢。然須是吾學既明，洞見大本達道之全體，然後據天理以開有我之私，因彼非以察吾

8) 校：海州本·定州本‘較’

9) 泳：定州本‘詠’

道之正，議論之間，彼此交盡，而內外之道一以貫之。如孟子論“養氣”而及告子“義外”之非，因夷子而發天理“一本”之大，此豈徒攻彼之失而已哉，所以推明吾學之極致本原，亦可謂無餘蘊矣。如此然後能距楊·墨而列於聖賢之徒，不然譏譏相訾，以客氣爭勝負，是未免於前輩自敝之譏也。